

2006년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기

2006년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기

발행인 · 김재철

편 저 · 조정순 외 31명

발행일 · 2006년 12월 31일

발행처 ·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터 1803호

전 화 · 02-6000-4326~7

팩 스 · 02-6000-4328

홈페이지 · <http://www.changpogo.or.kr>

공 급 · 청아출판사

이 책의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2006년
해상왕 장보고
중국유적지답사기

재단법인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발간사

장보고 대사는 1200년 전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바다로 진출해 그 당시 세계의 전부였던 동아시아의 해상권을 한손에 거머쥐고, 한·중·일 삼국의 무역을 주도하며 멀리 이슬람까지도 교역을 하는 등 한반도를 무역과 물류의 중심지로 키웠던 우리 역사상 보기 드문 선각자요, 위대한 해양개척자입니다.

우리 기념사업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해상왕 장보고를 역사와 전기 속의 인물이 아닌 교육현장과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친근한 위인으로서 21세기 세계화를 지향하는 사표로서 국민 속에 자리매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기념사업회에서는 청소년 역사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장보고 대사의 업적과 의의를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새시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보다 생동감 있고 현실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결과를 보다 널리 알리고 청소년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6년 답사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의 답사 여행기를 공개 모집하여 그중 일부의 글을 선정, 이렇게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한 “2006년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과 본 기념사업회의 사업에 관심이 크신 인사들에게 배포될 것입니다. 선생님들 체험이 보다 널리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현장의 체험교육을 위한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간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에는 약 1,500여 명의 전국 초·중·고등학교 현직 선생님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하셨던 선생님들께서 장보고에 대한 교육에 있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말씀이 종종 있어 저희 기념사업회에서는 본 행사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발간에 앞서 답사에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들과 답사단의 강의를 맡아 솔선수범해 주신 참여 강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2006. 12. 31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재철

차례

· 산동성에서 보낸 편지 | 11
... 제주 중앙여자중학교 조정순

·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기행문 | 25
... 대전 신탄진고등학교 안상필

· 장보고를 찾아서 | 40
... 광주 용산초등학교 박미령

·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기행문 | 67
... 보령 미산중학교 양희목

·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기행문 | 82
... 거제 제일고등학교 박선주

·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기행문 | 97
... 청주 가경초등학교 김옥분

· 바람의 향기를 찾아서 | 109
... 서울 자운초등학교 문정호

· 21세기에 부활하는 해상왕 장보고를 꿈꾸며 | 127
... 인천 산곡고등학교 최연희

· 한국이 모르는 한국 | 141
... 인천 검단중학교 이혜란

· 장보고, 그를 재조명하다 | 149
... 대구 대곡초등학교 조정선

· 장보고 답사를 다녀와서 | 160
... 울산 농소중학교 장사라

· 해상왕 장보고 유적 답사 기행문 | 172
... 부산 상당중학교 이재숙

·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기행문 | 183
... 영주 대영중학교 임현덕

· 중국 산동성, 장보고를 만나다 | 198
... 의령 봉수초등학교 김지혜

· 바다의 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다녀와서 | 207
... 부산 대평초등학교 변미원

· 해상민족 장보고의 후예들 | 217
... 당진 천의초등학교 추범

·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여행기 | 231

... 충주 목행초등학교 박노선

· 달빛 흐르는 바다에 어우러진 젓대소리로 만파정식을 바라고 | 244

... 청주 원평중학교 김병규

· 환생하는 장보고 | 257

... 인천 표교초등학교 최규생

· 세계를 호령한 해상왕 장보고님이시여 | 270

... 마산 석전초등학교 박영애

·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답사를 통한 중국 단상 | 283

... 인천 계산공업고등학교 최기석

· 장보고 유적 답사를 다녀와서 | 293

... 아산 선장초등학교 임화섭

· 교실 안에서 부활하는 글로벌 CEO 장보고 | 307

... 시흥 진말초등학교 김영일

· 2006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다녀와서 | 317

... 인천 작전고등학교 강진모

· 장보고, 그 기록함이여! | 332

... 진천 만승초등학교 최윤희

· 해상왕 장보고 중국 답사 기행문 | 348

... 대전 충남고등학교 유영조

· 2006년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기행문 | 356

... 대구 인지초등학교 한혜경

· 2006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기행문 | 364

... 인천 장도초등학교 신윤경

· 중국에 있는 적산명신의 발자취를 찾아서 | 376

... 대구 수성초등학교 노희숙

·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기행문 | 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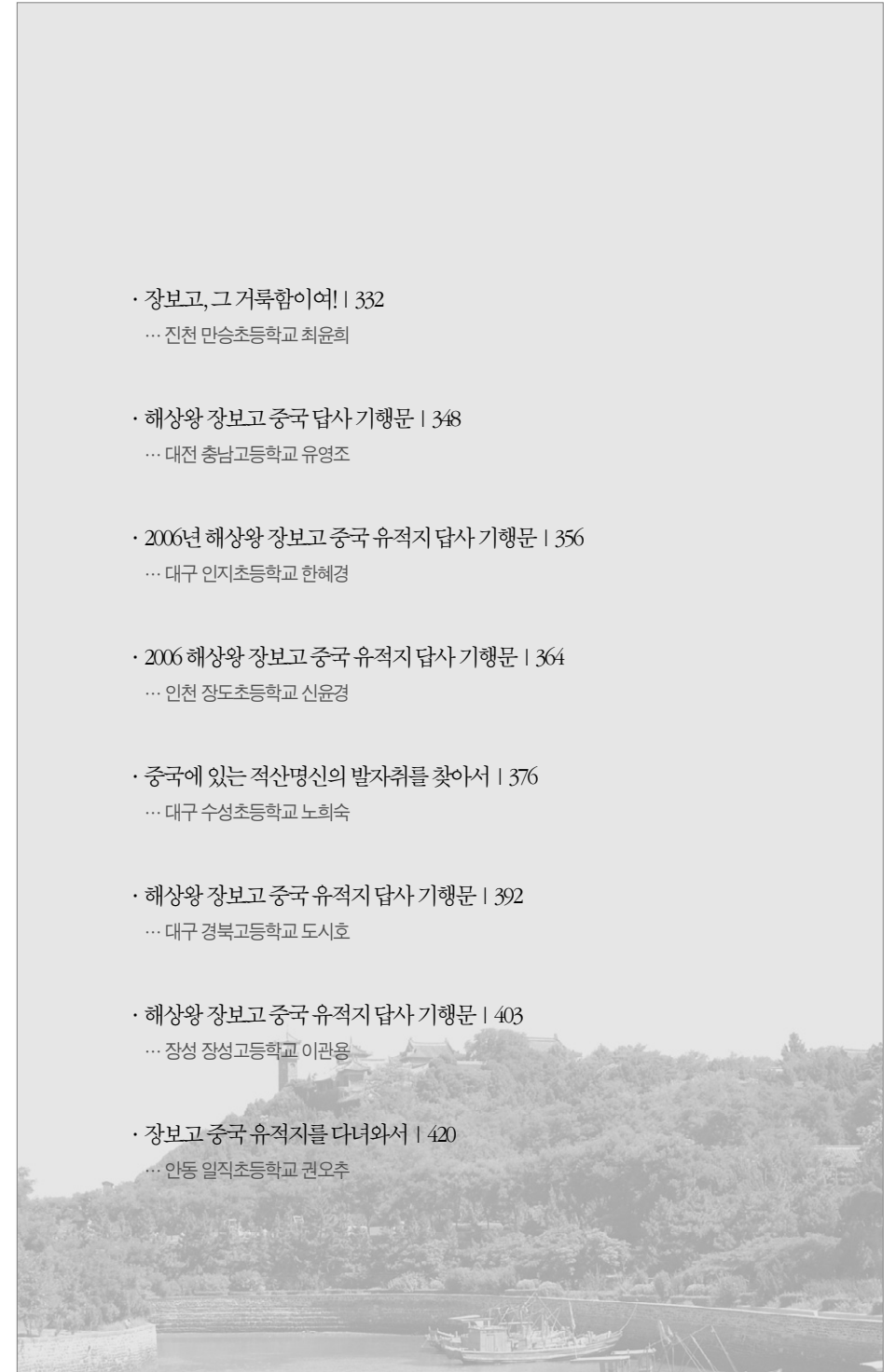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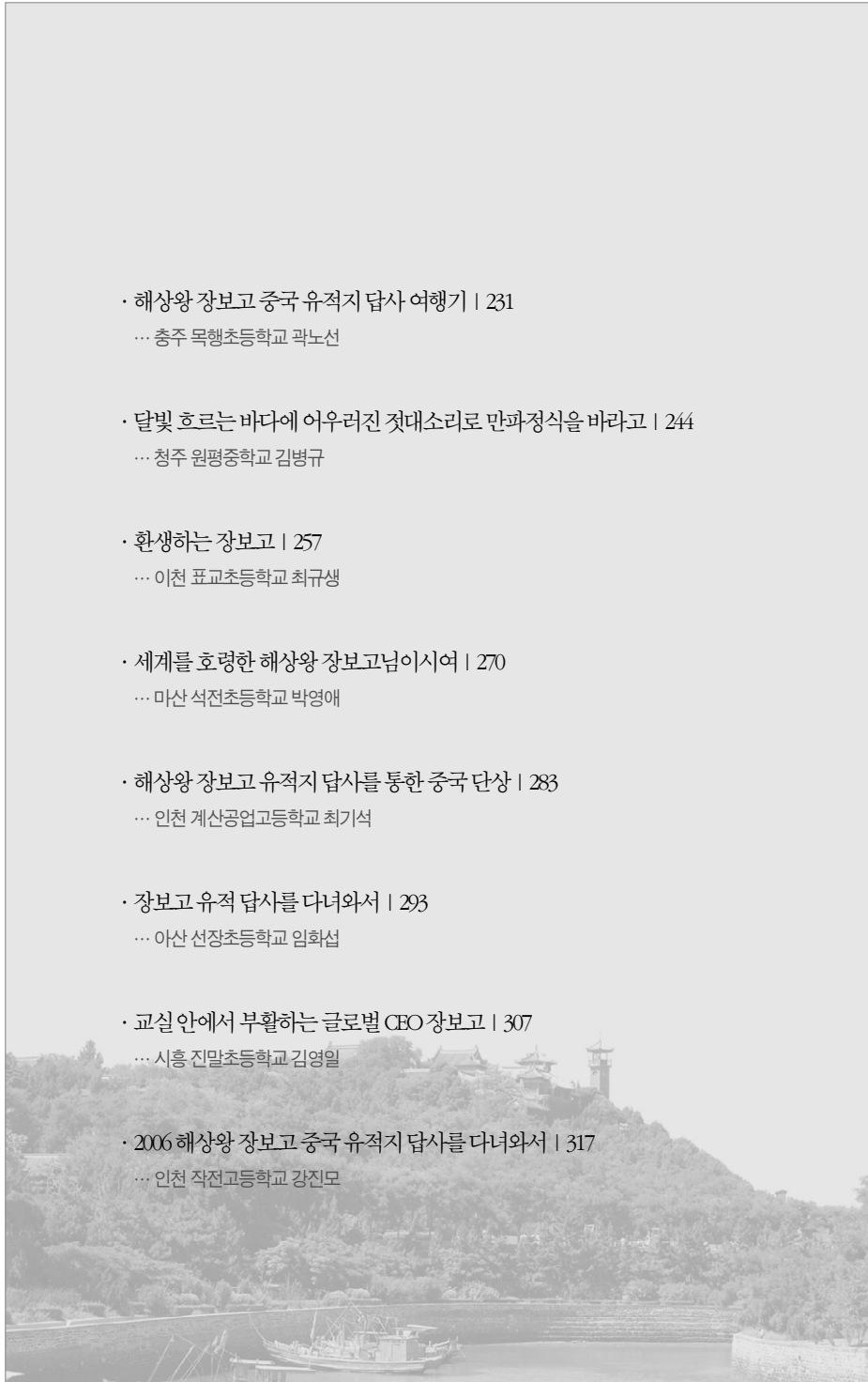
... 대구 경북고등학교 도시호

·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기행문 | 403

... 장성 장성고등학교 이관웅

· 장보고 중국 유적지를 다녀와서 | 420

... 안동 일직초등학교 권오추



산동성에서 보낸 편지

제주 중앙여자중학교 조정순

진이야!

늦은 밤 <해신>을 보며 즐거워하던 때를 아직 기억하고 있겠지?

벌써 1년도 더 지나버렸지만 검투사들이 싸우는 모습을 곧잘 흥내 냈던 네 모습이 눈에 선하구나. 너는 장보고와 정년의 무예 장면이 나올 때 참 좋아했었다. 극한 상황에서 더 강해지며 절대 죽지 않는 불사신(?) 장보고에 환호했었지. TV의 힘이란 그런 것인지, 어린 너는 장보고와 관련된 만화나 전기문을 탐독하며 그 시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린이 장보고>를 살살이 뒤지기도 했었지.

너와 함께 장보고를 알아가면서 극히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역사 인물 장보고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엄마도 참 흥미로웠다. 우리의 고대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고나 할까.

자연스레 장보고 답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운 좋게도 뽑혀 내일

떠나게 되었구나. 며칠 집을 비우게 되니 불안하기도 하고, 플라스틱 칼을 들고서도 '장보고 칼'이라며 호기를 부리는 너를 두고 엄마 혼자만 장보고 유적지 답사에 나서게 되니 좀 미안하기도 하네. 하지만 이 답사를 다녀오면 너에게 좀 더 재미있고 풍부하게 장보고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사회과 선생님께서 교과와 관련된 답사는 큰 행운이거든.

낮선 곳, 낯선 사람들 속으로 떠난다는 생각에 이 밤이 약간 긴장되기도 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 진이야!

여기는 중국 산둥성으로 가는 화동궤리호 4인 선실 302호 2층 침대. 약간의 출렁거림이 바다 위에 떠 있음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저녁 7시에 출항한 이 배는 내일 아침 8시쯤 산둥성 석도항에 도착할 예정이란단.

배 안에서 낯선 저녁식사를 하고 선상 세미나까지 듣고 선실로오니 몸이 피곤함에 풀어진다. 세미나에서 강의하신 교수님은 열변을 토하셨단다. “장보고의 업적에 비해 우리 역사는 그를 평가하는데 너무 인색했다고, 거대한 해상왕국을 건설한 장보고는 도전 정신을 가진 개척자요, 모험 정신을 가진 탐험가이며, 바다를 경영한 진정한 세계인이라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강조하셨다. “과거를 확인하는데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보려 하라.”

벌써 보고 싶은 진이야!

엄마가 확인하고 보게 될 장보고의 과거와 미래가 무척 기대되는구나. 그래서 몸은 물에 젖은 솜방망이처럼 착 가라앉아도 쉽게 잠이 들지 않는 모양이다.

진이야!

아침밥은 먹었는지?

석도항에 도착하여 간단한 입국 심사를 마친 답사단은 버스를 탔다. 우리나라와 시차는 1시간밖에 안 되니 너와 나의 하루 사이클이 비슷하겠다.

버스 안에서 만난 조선족 가이드는 우리가 앞으로 4일간 왕복 약 2,000킬로미터 일정을 보낼 것이라 하는구나. 우리나라 남북 길이가 약 1,500킬로미터이니 엄청난 이동거리이다. 이곳 산둥성은 황해와 발해만을 갈라놓는 반도로 면적은 남한의 약 1.5배에 달한다. 이곳은 우리나라와 인연이 많은 곳으로 현재 한국에 들어온 화교의 대부분이 산둥성 사람이라 하는구나.

드디어 첫 번째 답사지인 '봉래각'에 도착했다.

봉래각은 북송 때(1060년대) 지어진 도교 관련 시설로 누각, 불상, 사원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동쪽으로는 수성이 있고 넓은 바다와 맞닿아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정자에 해당될 텐데 규모가 엄청나고 주위 경치가 빼어나 마치 아름다운 성을 보는 것 같다.

봉래각 주위는 임진왜란 당시에 사용했던 등주수성이 있었다는데 현재 이곳에 있는 노점상을 철거하며 복원 중이라 한다. 장보고가 당나라로 올 때 처음 도착한 항구도 이곳 등주항구라 하니 이번 답사에서 장보고 발자취를 여기서 처음 느껴보게 되는구나.

이곳 등주수성에서 발해만 그리고 압록강 하류까지 지역은 장보고가 무령군소장 시절 지배했던 곳이라는구나. 그렇다면 그때 이미 여기는 저 노점상처럼 혹은 배를 타고 상업을 하는 신라 사람들이 모여사는 '신라방'이 있었을 거다.

답사단은 이제 치박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중국 고대의 제나라 수도였던 치박으로 가는 시간도 4시간 남짓 걸린다. 중국이 정말 넓은 나라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단다.

호텔에 짐을 풀고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이곳 산둥성은 중국에서 요리로 가장 유명한데 특히 해산물 요리가 많다. 네가 좋아하는 중국 음식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화교들도 대부분 이곳 출신이라는구나. 호텔에서 같은 방을 쓰게 된 선생님과 내일 둘러볼 답사 지역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잠을 청한다. 너도 잘 자렴.

진이야!

중국에서 두 번째 아침을 맞는다. 어제와 달리 날씨가 쾌청하구나. 7시에 버스를 타서 태안(泰安)으로 이동한다.

태안은 중국 최대의 여행 도시로 이곳에 있는 태산(泰山)은 중국 5대 명산 중 으뜸으로 치는 곳이다. 언젠가 너도 물었었지? ‘티끌모아 태산’에서 태산이 뭐냐고…. 그 태산을 오늘 엄마가 오르게 된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하는 시구도 있듯이 이 산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고 되뇌어지는 산이다.

언젠가 책에서 만리장성을 본 적이 있었지? 그 성을 쌓은 진시황은 중국 최초의 황제가 된 후 이 태산에 올라 하늘에 제사지냈다는구나. 황제가 태평세계의 실현을 신에게 보고하는 의식을 봉선(封禪)이라 하는데 진시황 이래 한무제, 당의 현종 등이 여기서 봉선제를 올렸단다.

케이블카로 올라간 태산은 안개가 사방으로 덮여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안개 속에서도 산의 이곳저곳에 비문이 새겨진 돌비석이나 절벽이 어슴푸레 다가왔고, 안개가 걷히는 순간순간 명승

고적과 함께 위압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굽어보았다.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자연문화유산임이 실감났다. 요즘 우리 제주도도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 중인데 한라산의 아름다움과 제주도의 문화유산 가치를 안개 낀 태산 위에서 잠깐 상기시켜보기도 했다.

정상까지 오를수록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신이 없더구나. 일요일이라 중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았다. 일반사람들에게도 이 산은 신령스런 산으로서 태산에 한 번 오르면 적어도 1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하여 중국 사람들은 평생 태산 등정이 숙원이라 한다. 하지만 아직 이 태산에 오른 사람보다 못 오른 중국 사람이 더 많다 하니 중국이 얼마나 크고 인구가 많은지 실감이 가지 않니?

산의 정상에 오르니 ‘1,545米(미터)’라는 최고봉 표시 돌비석이 눈에 들어왔다. 그 돌비석 둘레에는 잠겨진 자물쇠 꾸러미들이 울타리처럼 빙 둘러쳐져 있어 흥미로웠다. 연인들이나 친구 간의 애정을 여기에 담아 잠그고 열쇠는 이 산 아래로 던져버리는 풍습이 있다는구나. 열쇠를 찾을 수 없으니 잠궈버린 사랑과 우정이 변치 않을 것이란 믿음의 표현 같다. 재미있지 않니? 엄마는 자물쇠를 걸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건강과 사랑을 마음으로 묻어두고 이곳을 지켜보는 옥황정에 가서 잘 보살펴주십사 빌어 보았다.

태산에서 내려와 오후에 이동해 간 곳은 제나라 역사박물관과 제경공 순마갱, 그리고 강태공 사당이다.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곳은 제경공 순마갱(齊景公殉馬坑)으로 이곳은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군주 제경공의 묘이다. 아주 오랜 옛날 고대국가에서는 왕이 죽으면 순장의 풍습이 있었단다. 왕이 사용하던 도구와 그를 따르던 사람을 함께 묻는 것인데 실제 살아있는 사람을 생매장했는지는 엄마도 의문이다.

제경공 순마갱은 농부들이 우물을 파다 발견했는데 순마 288필이

두 줄로 나란히 누운 자세로 발견되었다. 연구에 의하면 매장된 말들은 전마(戰馬: 전쟁시 사용하던 말)로 모두가 수말이라 한다. 망치로 말 머리를 때려 기절시킨 후 전쟁터에서 힘차게 달리는 모습으로 똑같이 놓고 묻었다 한다. 순마갱의 전 길이와 현재 발굴된 순마의 밀도로 계산해 보면 이곳에 매장된 말은 600여 필로 추정되며 그중 105필의 순마를 전시하고 있다 한다.

진시황이 만들었다는 병마용갱이란 무덤엔 흙으로 빚은 병사와 말들이 묻혀 있지만 이곳은 실제 말들이 묻혀 있는 곳이라 어떤 면에서는 역사적 가치가 더 크다 할 것이다. 두 줄로 누워 말의 모습 그대로 화석이 된 말뼈들을 보니 제나라 통치 계급의 큰 권력과 사치함보다 인간의 비정함이 먼저 느껴져 소름이 끼쳤다. 유적과 유물을 통해 우리는 번영했던 역사의 한때를 확인하고 인간의 능력에 감탄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숨어있는 폭력과 비정함을 반성하기도 한다. 역사 유물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각자의 몫이겠지?

보고 싶은 진이야!

이제 오늘의 일정이 모두 끝나고 다시 숙소로 왔다. 여기는 '연의 도시' 유방이다. 해마다 '유방국제연축제'가 열리기도 한데 저녁에 들어선 이 도시의 가로등도 모두 나비 모양의 연으로 장식되어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다. 오늘 밤 꿈속에 저 나비 연들을 너에게 보낸다. 오늘도 예쁜 꿈 꾸렴.

진이야!

세 번째 날을 마감했다. 오늘은 남산이란 지역에 형성된 남산 종교문화원과 남산 중화역사문화원 그리고 영성시로 이동 후 진시황 사당

과 성산두를 견학하고 석도로 왔다. 중화역사문화원은 중국 역대 왕조의 문화와 발전상을 순서대로 볼 수 있도록 만든 곳인데 모두 모조품이라 했다. 심지어 몇 개의 작은 산봉우리를 이어가며 만리장성까지 모조품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관광용으로 만든 것이라 그런지 별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

성산두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중국 땅이며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중국의 희망봉'이라 불리는 곳이다. 여기에는 중국 유일의 진시황 사당이 있고 진시황의 불노장생초와 관련된 전설이 서려 있다. 진시황의 명을 받아 불로초를 구하러 떠난 서복(徐福)이란 사람이 제주도까지 왔었다. 언젠가 우리 가족이 서귀포에 갔을 때 서복기념관에 간 적이 있었는데 내가 기억할지 모르겠구나. 중국 고대역사에 우리 고향 제주가 등장하다니, 중국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니?

오늘은 답사한 유적지보다 버스 안에서 본 장보고 관련 비디오와 교수님의 설명이 더 유익했다. 생각나는 대로 너에게 얘기해 줄게.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 통일신라시대 남쪽 작은 섬마을에는 '궁복'이란 이름을 가진 소년이 살았다. 우리 역사책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궁복', '궁파'라 기록되어 있고 중국 기록에는 '장보고(張保皋)'로 되어 있는데 궁복과 궁파의 중국식 발음으로 추정되고 있다. 활을 잘 쏜다는 뜻으로 궁복이라 이름 붙였는데,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검술을 무척 좋아했지만 당시 통일신라에서는 꿈을 펼칠 수가 없었다. 신라 사회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면 높은 벼슬에 오를 수도 없고 큰 뜻을 펼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든. 골품제라는 신분제도 때문이었지.

장보고는 30세를 전후하여 친구이면서 고향 후배인 정년과 함께 꿈

을 찾아 당나라로 건너갔다. 당시 당나라는 변진이라는 지방세력의 반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 외국인도 무술만 뛰어나면 병사로 뽑아 이를 소탕하려 하고 있었다. 그래서 장보고와 정년은 무령군(武寧軍)에 들어가 당나라 병사가 되었지. 뛰어난 무술 솜씨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되고 머지않아 두 사람은 무령군의 군중소장이 되었다. 군중소장은 1,000명 정도의 병사를 거느리는 아주 높은 자리였지. 보잘것없던 신라의 평민이 당나라의 장군이 된 거야.

그런데 지방세력이 모두 진압되고 전쟁이 끝나니 당나라는 감군정책(병사 수를 줄이는 정책)을 쓰게 되고 장보고는 군대에서 나오게 된다. 당시 당나라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군대에서 나온 장보고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무역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지금 엄마가 있는 이곳 산둥 반도를 중심으로 초주, 양주 등은 당시 세계적인 무역 항구였는데 아라비아와 페르시아, 인도 등지에서 온 도자기, 향신료, 보석 등 신기하고 값진 물건들이 교류되고 있었다. 장보고는 동방과 서방의 물건들을 사서 장사를 하며 많은 이윤을 남기기 시작하고 자연스레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되었지.

그런데 장보고가 무령군 군중소장 시절부터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당나라에 건너와 무시당하고 노예로 팔려와 고생하는 신라 사람들이었다. 당나라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그는 신라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고 신라로 돌아와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게 된단다. 흥덕왕으로부터 청해진 대사로 임명받은 장보고는 청해진을 천하의 요새로 만들어 신라인을 괴롭히던 해적을 완전히 소탕하게 되지. 그 후 신라를 중심으로 당나라와 일본을 잇는 무역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며 삼국의 바다를 주름잡는 해상왕이 되었고, 멀리 아라비아 상인까지 우러러보는 무역왕이 되었다. 미국의 역

사학자 라이샤워라는 사람은 이러한 장보고를 동양3국의 위대한 '해상무역왕'이라 칭하여 세계사에 빛나는 인물로 꼽기도 했다.

그런데 9세기 신라사회는 너무나 혼란했단다. 왕의 자리를 놓고 한 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 이런 혼란한 시기에 커다란 해상세력으로 등장한 장보고는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귀족세력은 왕위 다툼에 장보고 세력을 끌어들이고, 장보고의 세력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또 다른 귀족세력은 자객을 보내 장보고를 암살하고 말지.

진이야!

장보고에 대한 엄마의 얘기가 네가 좋아했던 <해신>보다 훨씬 재미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엄마의 이야기보따리 푸는 재주가 TV보다 못하고 말달리고 활 쏘는 장면이 없어서 더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만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장보고는 실제로 존재했던 우리의 조상이지 진짜 신(神)은 아니라는 것을. 진짜 불사신이면서 포세이돈과 같은 바다신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장보고를 닮을 수가 있겠니? 군인으로서, 정치가로서, 상인으로서 큰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기에 마음속에 신처럼 담겨진 것일 것이다.

버스 안에서 안내자로 가신 교수님도 말씀하시더군요.

“‘장보고는 개혁적인 인물이었지만 보수적인 정치세력이 염장을 시켜 죽였다.’는 내용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골품제 개혁과 같은 개혁적인 활동을 장보고의 자료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러한 평가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신비화와 과대평가는 지양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데 앞장섰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은 점 등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인간적인 면에서 매력 있는 인물이다.”

진이야!

특별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큰 뜻과 노력의 산물임을 장보고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1200년 전 궁복처럼 우리 진이에게도 큰 꿈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중국에서 마지막 아침을 맞았다. 아쉬운 마음에 일찍 눈이 떠지더라. 선생님 몇 분과 호텔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탔다. 갑자기 병어리가 되어버린 우리는 어쨌든 소통을 해야 했기에 운전기사에게 아침 조(朝)와 시장(市場)을 한자로 써 보였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기사 아저씨가 자신 있게 핸들을 돌리더구나.

우리가 찾아간 곳은 아침 새벽시장이었다. 산둥성에서도 가장 동쪽 바닷가 지역이라서 해산물이 단연 많았다. 오징어, 해삼에서부터 번데기, 족발, 돼지 헛바닥까지 이 더운 여름에 냉장고는 고사하고 얼음도 없이 좌판에 늘어놓은 모습들이 좀 지저분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 신기하고 즐겁더라. 쪼그려 앉아 채소를 파는 할머니들을 보니 우리의 5일장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어. 우리와 약간 다르다거나 위생상 주저해지는 면이 있다 하여 우리 기준으로 이 사람들의 전체를 재단하려 해서는 안 되겠지? 부침개처럼 보이는 음식과 달디 단 복숭아를 1,000원어치 사고 시장보기를 마쳤다.

진이야!

여기는 산둥성 영성시 석도진 적산 기슭에 자리 잡은 적산 법화원! 이번 답사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곳이다. 당나라 시기 신라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이곳에 장보고가 지은 절로서 《법화경》을 읽었

다 하여 법화원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1988년부터 재건하기 시작하여 현재 적산 법화원과 함께 장보고 동상, 장보고 기념탑, 적산명신상 등이 조성되어 있다. 그런데 법화원을 먼저 재건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일본인들이라 는구나. 일본인들이 법화원 터에 절을 재건하고는 엔닌의 절이라는 기념비까지 세웠었다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러나 그 후 우리나라의 학자와 장보고 기념사업회의 노력으로 장보고의 절임을 확인받고 일본의 기념비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재미있는 건 일본인들이 존경하는 엔닌은 장보고의 도움으로 적산 법화원에서 3년 동안 불경공부를 했고 이후 일본에 돌아가기까지 여러모로 장보고의 보호를 받았다 한다. 이것은 엔닌이 쓴 《입당구법순례행기》라는 여행기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엔닌은 이 여행기에 법화원을 상세히 묘사하고 장보고의 도움에 감사하다는 편지도 남기고 있으니, 일본인에 의해 적산 법화원이 우리 조상 장보고가 건립한 절임이 증명된 셈이다.

그렇다면 진이야!

무역을 했던 장보고가 왜 절을 짓게 되었을까?

그것은 첫째, 당시 당나라에 살면서 장사를 했던 신라인들의 안전 향해를 기원하는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해상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향해의 안전을 비는 관음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한 정신적 안식처가 된 곳이 법화원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법화원의 역할을 말하자면 당시 신라 교민사회의 결속책이라 할 수 있다. 무역을 하는 신라 사람들끼리의 정보 교환과 고충 해결의 장소이면서 종교,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신라 사람들이 향수를 달래던 곳은 아니었을까 싶다.

세 번째는 법화원이 재당 신라인의 교화 장소였다고 할 수 있지. 잘 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교육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학교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다.

법화원 건물 뒤로는 적산(赤山)이란 바위산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데 옛날 이 산이 붉은색을 띠어 등대 역할을 했다 한다. 어찌면 항해의 표시로 삼았던 이곳에 법화원이 들어선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지. 법화원의 주요건물은 석가모니상이 모셔져 있는 대웅보전과 관음보살이 모셔져 있는 관음전이다. 관음전에는 한 쪽 벽에 장보고 대사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어서 여기가 장보고의 절이었음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참 희한한 볼거리도 있단다. 매일 11시가 되면 웅장한 불교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관음전 앞마당에 만들어진 거대한 보살상이(아마 3~4층 건물 높이가 될 것 같다) 움직이면서 불을 내뿜고 주위 분수가 갖가지 모양으로 춤추는 쇼를 한다. 30분 이상 장관이 펼쳐지는데 장보고 화상과 관음보살이 모셔진 관음전을 완전히 제압하는 분위기다. 사람에 따라 굉장한 볼거리로 여길 수도 있지만, 장보고의 대표적인 유적을 막아서는 듯한 느낌이어서 씁쓸했다.

일부 일본 사람들은 법화원이 일본인이 세운 절이라 하고 또 일부 중국인은 장보고가 중국 사람이라 한하는데 우리가 좀 더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자랑스러운 선조와 유적지를 보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 역사의 왜곡은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하겠지?

관음전을 내려와 장보고 기념관에 들어가 보았다. 법화원 터에서 나온 도자기와 토기 조각들, 장보고 선단이 취급했던 상업 물품, '교관선'이라 불렀던 당시 무역선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장보고의

일대기와 활동이 그림으로 그려져 전시관 전체의 네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중국 화가에 의해 그려진 것이어서인지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의복들조차 고증이 안 된 거라 하더구나. 앞으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바로잡아가야 되겠지?

장보고 기념관 마당에는 거대한 장보고 동상이 서 있는데 '해상왕'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힘찬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네가 좋아할 것 같아 바쁜 중에 기념사진도 찍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로 이어지는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장보고 기념탑으로 가 보았다. '장보고 기념탑(張保皋紀念塔)' 여섯 글자가 새겨진 이 탑은 1994년 한·중 양국의 친선이 영원함을 기리기 위해 우리나라 학자가 세운 것이라 한다. 여기에서 바라다보이는 저 바다가 장보고와 그 옛날 신라 사람들이 누볐던 해양 실크로드의 중심지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장보고는 우리에게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인물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주위 나라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될 것이란 생각을 해보았다.

진이야!

이제 모든 답사 일정이 끝났다. 아쉬움과 뿌듯함이 교차하는구나. 중국의 고대사 일부를 공부하기도 했고 장보고의 유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당시 해상 항로의 한 부분을 밟아 보았다.

확인하는 즐거움이란 그런 것이다. 책으로만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을 눈과 발로 확인하는 순간 막연하던 것들이 구체화되고 수많은 의구심과 생각의 실타래들이 풀어지기 시작하지. 답사는 네가 한때 집착했던 '퍼즐 맞추기'와 같다고나 할까... 흩어진 생각과 떨어져 뒹구는 구슬을 하나하나 꿰매어 내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것과 같지.

돌아가면 너에게 만화만큼 재미있게 장보고를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사랑하는 진아!

떠나는 석도항에서 생각했다. 신라 정부가 장보고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능력을 아끼고 인정하여 키워서 사회의 발전 원동력으로 삼았다면 어땠을까? 역사에서 '만일'이란 가정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장보고와 같은 인재들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여기는 다시 화동훼리 302호 선실이다. 인천항에서 출발했던 그 배로 다시 돌아가고 있단다. 오늘 중국에서 마지막 점심을 먹으면서 들은 어느 선생님의 명언을 떠올려 본다. 50대로 보이는 여선생님이 중학생 딸과 함께 인도를 20여 일 배낭여행한 얘기를 듣게 되었던다. 같이 자리한 한 선생님이 (젊지도 않은데) 어떻게 힘들어서 그런 여행을 했냐고 물었지. 그런데 그 선생님 대답이 걸작이야.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리면 못 가~~~”

너무 보고 싶은 진아!

엄마의 가슴이 언제까지 떨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너와 함께 많은 여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많이 보고, 느끼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자. 안녕, 잘 자렴.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기행문

대전 신탄진고등학교 안상필

교육청 공문을 통해서 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의 활동은 전에 자료를 몇 번 받아보았기에 이미 알고 있었다. 중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다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유적지 답사라는 게 마음에 들었고, 답사비용도 매우 저렴했다. 특히 나중에 국사시간에 해당되는 단원에서 학습용 자료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중국을 갈 수 있으려 싶어 신청하게 되었다.

8월 11일

중국 답사이기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침 9시경에 대전의 집에서

떠나게 되었다. 2002년 ‘일본 속의 한민족사 탐방’으로 일본을 다녀온 것을 포함해서 내 평생 두 번째 해외여행이니 설레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이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않은 선생님의 부러움과 한편으로는 집 떠나서 해외여행을 가니 좋겠다는 아내의 말을 뒤로 하고, 대전을 떠나온 지 5시간 만에 집결 장소인 인천의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4시 30분에 집결하여 출국 수속을 받고 승선하니 6시였다. 저녁 식사 후에 선상 세미나를 통해 여행 전반에 대한 안내와 교원대학교 김은숙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

8월 12일

어제 7시 20분경에 출항하였던 배가 오늘 8시 40분경에 석도항에 이르니 근 13시간 만에 도착한 것이었다. 항로 길이가 400킬로미터이니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항해를 한 것이다. 돌아올 때는 조금 빨라서 12시간 만에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배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하선하여 입국 수속을 마치고 답사버스에 올라탔을 때는 11시가 되었다. —중국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보다 1시간 늦는데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적었다— 버스별로 현지가이드가 같이 탑승하였는데 내가 탄 3호차에는 재중 교포 3세인 20대 중반의 성격 좋아 보이는 가이드가 승차하였다. 이 가이드는 여행 기간 내내 친절하고 성실하게 안내하였는데, 많은 질문에 귀찮아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었고 사진도 잘 찍어주었다.

버스를 타고 연태시를 향하여 갔다. 도로를 달리다보니 특이해 보이는 것이 교통신호등이었다. 우리나라 교통신호등은 원형 모양에 색

깔로 진행과 멈춤을 표시하는 데 비해 중국은 화살표 모양에 색깔로 진행과 멈춤을 표시하였는데, 더 특이한 것은 신호 변화 시간이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같은 버스에 탔던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소은 연구교수의—버스별로 기본적으로 현지가이드 1명, 여행사 직원 1명, 설명을 담당할 교수 1명 등이 탑승하였다— 교통신호등에서 시간 표시가 되는 것은 원래 한국에서 발명하였는데 한국인 운전자들이 오히려 시간을 보고 진행 신호로 변화되기 전에 미리 출발하는 바람에 한국에서는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씩씩한 마음이 들었다.

오후 1시 20분경에 연태시의 신통상대반점이라는 식당에서 점심식을 하게 되었다. 배에서는 한국식의 식사였는데—중국인 관광객보다는 주로 한국인 관광객이 이용하기 때문에 식사는 한국식으로 제공하는 것 같았다— 처음으로 중국식의 식사를 하게 되었다. 원래 중국 식사는 기름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들어왔고 이번 답사에서도 비위가 약한 사람은 고추장 등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중국 식사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고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랐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푸짐해 보였는데 실제로는 먹을 만한 것이 별로 없었다. 나오는 음식으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중화요리집 기준으로 보면 코스요리인데—중국에서의 식사는 계속적으로 코스요리나 뷔페식으로 장소도 커다란 고급식당이나 호텔식당이었는데— 문제는 맛이 우리나라의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기름기 많은 음식에 약한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맛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 비해 잘 먹는 편이었는데 중국 답사기간 중에는 입 짧은 사람이 되어 버렸다. 결국 식사 때마다 음식에 적응이 안 되면 준비해간 고추장을 밥에 비벼먹곤 하였다.

식사를 하고 봉래로 이동하여 3시 15분경에 도착하여 등주수성과

그 안에 있는 봉래각과 고선박물관 등을 답사하였다. 봉래각은 중국 4대 명누각의 하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느낌은 받을 수가 없었다. 아마도 문화의 차이가 아닌가 싶다. 고선박물관은 말 그대로 중국 배의 발달사를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시대별로 모형 배를 전시해 놓았다.

그러나 내게 더 관심이 가는 것은 등주수성의 규모였다. 발해 무왕 때 장문휴로 하여금 수군을 이끌고 등주수성을 공격하여 자사를 죽이기도 하였다고 하여 발해의 국력이 강하였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주수성의 규모는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 답사 안내책자에도 ‘등주수성은 명조 때부터 대대적으로 수리하여 점차 비교적 완벽한 해상방어체계를 형성하였으므로 당시 산동연해에 6만여 명의 군사를 주둔시켰고 등주에만 거의 3,000명의 군사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발해가 등주수성을 공격할 당시에는 3,000명보다 많지는 않았을 것인데 실제로 등주수성의 규모로 볼 때는 그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켰을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당나라에서 설마 여기까지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 방심하는 때에 발해에서 기습 공격한다면 수군 10,000명만 동원하더라도 성을 함락시킬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료상에 나온 것만으로 분석을 할 경우와 실제로 답사까지 하는 경우와는 역사적 사실의 의미 부여에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내년엔 국사를 가르칠 때에 발해의 등주수성 공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4시 45분경에 봉래를 출발하여 치박으로 이동하였다. 이동하다 버스 창밖을 보니 엄청난 들판이 펼쳐져 있고 특히 하염없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옥수수 밭을 보니 입이 저절로 벌어진다. 전에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배농사를 짓는 농민이 중국의 너무도 넓은 배밭을 보고 걱

정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잖아도 저렴한 가격의 중국 농산물이 엄청난 물량공세를 퍼붓고 있다는데, 이것을 보니 더욱 실감나고 우리나라 농업과 농민의 장래가 걱정되었다.

한참을 달려 9시경에 숙소에 도착하여 저녁식사를 하였다. 국내에서 답사나 여행을 한다면 흔히 6시나 늦어도 7시에는 저녁식사를 할 것인데 중국 답사 기간에는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서 배에서의 식사를 제외하고는 8시 30분 전에 저녁식사를 한 적이 없었다. 저녁식사 후에는 자유시간을 가졌다. 세면을 하고 쉬다가 11시 30분경에 잠을 청하였다.

8월 13일

8시까지 아침식사를 마치고 중국에서 상징적으로 높은 산인 태산으로 향하였다. 시조에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뉘이로다. 사람이 오르고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뉘만 높다 하더라.’라는 시조가 있었는데—이 시조를 외운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조를 정확히 읊었는지 모르겠다—이 시조 속의 태산을 말한다. 태산 부근에 와서 셔틀버스로 갈아타고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왔을 때는 이미 11시 20분경이 되었다. 케이블카는 6인승으로 운행시간은 10분이었다. 여러 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리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다. 케이블카의 특징이라면 승차하고 하차할 때에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천천히 운행하였는데, 하차하지 못했을 때에는 다시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고 농담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케이블

카에서 내려 답사단 전체가 모였을 때 등산하기 시작하였는데 30분 정도 걸어서 태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다. 태산은 중국 5대 명산 중 으뜸인데 그 이유가 진시황 때부터 역대 군주들이 황제로 등극한 후 반드시 태산에 올라 제사를 지내 하늘에 알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가는 곳마다 돌비석 등의 옛 유적과 종묘 등이 있어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실제로 관광객이 많아서 110명이 넘는 우리 답사단은 전체 관광객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하였다. 태산 정상에는 옥황상제를 모셔놓은 옥황정이라는 사당이 있는데 여기에는 1,545미터라는 돌 표말이 세워져 있었다. 태산이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게 우리나라의 한라산보다 훨씬 낮은 산이었다. 그런데 산동성에서는 최고로 높은 산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산동성은 대부분이 평지나 낮은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다. 면적은 남한의 1.5배이나 인구는 9,040만 명으로 남한의 2배나 된다는 것을 알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게는 이 태산이 멋있다는 것보다 인상 깊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용료였다. 입장료가 100위안이고 케이블카 편도이용료가 45위안으로 총이용료는 190위안이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4,000원 정도로 매우 비싼 편이어서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중국에서는 일반인들이 태산에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실제로 현지 가이드도 일반인들은 태산 오기가 어렵다고 한다.

태산에서 하산하여 식당에 오니 이미 2시가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 50분경 식당을 출발하여 제국(제나라) 역사박물관으로 이동하였다. 오후 5시 15분경에 제국 역사박물관에 도착하여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였다.

이곳을 떠나 부근의 105필의 순마를 전시한 순마갱 전시실로 갔다.

원래 순마갱은 제나라의 국군(國君)인 제경공의 묘인데 매장된 말은 600여 필의 전마(戰馬: 전쟁시 사용하던 말)로 모두 수말인데 중국에 서도 보기 드문 대규모 순마갱이라고 한다. 제나라 국력의 강성함과 동시에 통치계급의 사치함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내 눈에는 국력의 낭비로 보인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오늘날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가들을 바라는 것은 희망사항일까. 순마갱 전시실을 떠나 20분간 이동하여 강태공 사당에 도착하였다.

강태공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곧은 낚시를 가지고 세월을 낚다가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을 도와 결국 은나라를 멸망시킨 중국의 대표적인 정치가이다. 그리고 그 공으로 제나라의 초대왕으로 책봉되었었다.

강태공 사당을 떠나 식당에 도착하여 식사를 하고 숙소의 방에 들어오니 이미 10시가 되었다. 중국에 온 후 처음으로 선실의 같은 방을 쓰는 선생님들과 야간 쇼핑을 하기로 하였다. 버스를 타고 오는 도중에 '월마트'를 보았는데 걸어서 갈 만한 거리고 혼자서 가기에는 남자들이라도 위험이 따르기에 여럿이 같이 가기로 한 것이었다. 중국 제품은 싼 것이고 더구나 대형 할인매장이니 더욱 싼 것으로 기대하였다.

가서 보니 탁상시계가 10위안밖에 안 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었다. 10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불과 1,300원밖에 되지 않는다. 전날 묵었던 호텔 호실에 있던 비슷한 소형 정수기가 100위안에 불과한 것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온다. 우리나라 대형 할인매장에서도 '중국제품은 엄청 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원산지니 이렇게 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과자와 음료수, 술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니 반가웠다. 가격을 보니 우리나라 시중가격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는 비싼 제품일 텐데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11시 30분이 영업 종료시간이라 나오는데 쇼핑을 나온 여러 선생님들이 대부분 선물용으로 중국 술을 샀다. 나는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거니와 부모님이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쇼핑만 하고 나온 셈이다.

그러나 쇼핑을 하면서 중국이 지금은 제품의 품질이 조잡한 대신에 가격이 아주 저렴하지만 앞으로 품질을 개선시켜 중가(中價) 제품을 생산한다면 세계의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미 제품의 다양성이나 아이디어 제품 생산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 할인매장에서도 아이디어 제품이다 싶으면 중국 제품인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아직 제품의 고급화를 이루지 못한 분야가 많은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염려가 되었다.

중국의 성장, FTA 문제, 선진국들의 각종 개방 압력.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특정의 소수 몇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해결 방법을 찾아 현명하게 대처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매우 험난하리라는 두려움이 엄습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숙소에 들어와서 잠시 쉬었다가 수면을 취하니 이미 시계는 12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8월 14일

8시 30분경에 식사를 마치고 용구에 있는 대규모 문화관광단지인 남산관광풍경지구로—여기에서 남산대불, 중국 역사문화원, 모형 만리장성을 답사하였다— 이동하여 11시 20분경에 남산대불에 도착하였다. 남산대불은 높이가 38.66미터이고 무게가 380톤에 달해 세계 최대의 좌불 동상인데 멀리서도 엄청난 규모의 불상임을 단번에 알 수 있다. 남산대불은 2002년도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역사적 가치는 없는 것이긴 하지만 워낙 규모가 큰 것이고, 이 불상도 수백 년이 지나면 대단한 유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리라는 마음에 360개의 계단을 올라가기 전에 먼저 사진을 찍고 올라가다가 가까운 거리에서도 사진을 찍고 불상 바로 아래에서도 사진을 찍는 등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

엄청난 인구와 엄청난 땅덩어리의 나라 중국! 그에 걸맞게 규모도 큼직큼직하다. 나는 무신론자로서 종교가 없긴 하지만 종교는 규모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평소에 생각했는데 불교 신자들은 이런 거대한 불상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이 남산대불 밑의 실내에는 9,999개의 작은 불상이 있는데 남산대불과 합쳐서 만불천이라고 한다. 현지가이드의 설명으로는 남산대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남은 구리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만불천을 기획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곳을 살펴보고 난 뒤에 중국 역사문화원으로 와서 총인구 35만 명에 불과한 소수민족 외족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을 마친 외족은 기념사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흔쾌히 사진 모델이 되어주었는데 이미 이런 행동이 익숙해져 있는 듯하다. 어떤 젊은 남자는 여러 가지 익살스러운 자세를 취하는데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배우인

냥 착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내가 보았을 때에는 이 사람들도 오죽하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곳까지 와서 공연을 할까 싶어 안쓰러웠다. 똑같은 모습을 보더라도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연을 관람한 후에 몇 군데 전시관을 들른 뒤에 마지막으로 모형 만리장성에 올라갔다. 만리장성을 그림에서만 보았는데 그림에 비해 모형은 뭔가 맛이 나지 않지만 우리 3호차 현지가이드를 따라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올라갔다. 전체 답사단 중에 4분의 1정도만 끝까지 올라왔다. —한참 더운 날씨에 왕복을 한데다가 올라갈 때 6천으로 시작한 만보기가 내려왔을 땐 이미 9천이 되어 있어 힘들기는 하였다— 모형 만리장성을 내려와서는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이 남산관광풍경지구에는 골프장도 있었는데 명색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부유한 소수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을 만들고 확장한다니 씁쓸하기만 했다.

오후 2시 45분경에 점심식사를 마치고 영성 용수도진으로 이동하여 오후 6시 10분경에 진시황 사당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원래 진시황이 동쪽으로 순찰을 하며 머물렀던 행궁으로 중국에서 유일한 진시황 사당이다. 그리고 바로 인근의 성산두로 이동하였다. 성산두는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예로부터 ‘중국의 희망봉’으로 불리었다. 답사자료집에는 “예로부터 군사적 요충지로서 백제를 치기 위하여 소정방이 13만의 수군을 거느리고 출발한 항구이기도 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곳이 어디쯤인가는 찾을 수가 없었다. 현지가이드의 말로는 여기에서 좀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곳도 살펴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랬더라면 당시의 국제 정세와 나·당 연합 문제, 백제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되새겨 볼 수 있었을 것

도 같다.

오후 7시경에 성산두를 출발하여 8시 35분경에 식당에 도착하여 여유 있게 만찬회를 하였다. 중국 내에서는 마지막 저녁식사이고 실질적인 답사도 내일 점심 전후로 끝나기 때문에 만찬회를 갖게 된 것이다. 만찬회를 마치고 숙소로 도착하니 이미 10시 55분이 되었다. 내일 아침식사는 9시에 하고 10시경에 출발한다기에 모처럼만에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8월 15일

오늘은 실질적인 답사 마지막날이자 산둥성 영성시 석도진의 석도적산풍경명승구 한 곳만 들르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일정이 잡혀 있었다. 9시에 아침식사를 하고 10시 40분경에 숙소를 출발하여 10시 55분경에 석도적산풍경명승구에 도착했다. 이곳에서는 법화원—관음전—적산명신—장보고 기념관—장보고 기념탑 순으로 답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곳이 이번 답사의 실질적인 핵심이었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하였다.

821년경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화원은 장보고가 만들었으며, 창건 초기에 《법화경》을 읽었다 하여 유래된 명칭이라고 한다. 법화원 입구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김덕원 명지대 강사의 설명을 들었다. 법화원 창건 목적은 대체로 ‘①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하여 ②사원은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해상 활동을 통해서 모은 재력을 재투자하기 위하여 ③장보고보다 먼저 해상활동을 한 사람들을 통합하기 위하여’라고 한다. 단순히 신라인들이 이용하였던 절이라고만 생각

하였는데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니 새롭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속해 있는 토지에서 거두어들이는 곡식이 500석으로 토지 면적이 약 13만평 규모였다고 한다. 답사자료집에도 법화원은 당시 산동성에서 규모가 제일 큰 사원이었다고 한다.

다음은 관음전을 살펴보고 내려와서 관음불상 쇼를 보았다. 단순한 분수 쇼라고 생각하고 대전 엑스포 공원에 있는 분수 쇼에 비하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였는데, 분수 쇼가 진행될수록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쇼가 벌어졌다. 말 그대로 쇼였다. 불교와 과학과 쇼와의 만남 그 자체였다. 커다란 관음불상이 회전을 한다든지, 관음불상 밑의 문이 열리더니 동자승이 나온다든지, 관음불상이 회전하면서 동자승이 받들고 있는 그릇에 물을 흘러내리게 한다든지, 바로 그때 동자승 밑에 있는 사천왕상인가 금강역사상인가에서 불을 뿜는다든지, 가장 아래에 있는 악사들이 회전을 한다든지, 분수 뿜어내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쇼 자체였다. 별 기대도 없었고 설마 저런 쇼가 벌어지리라는 것은 전혀 예상도 못했기에 더욱 재미있었고 신기했다. 일반인들은 아마 이 쇼가 가장 인상적이고 가면 꼭 보라고 권할 것 같다. 나도 아는 교사가 다음 답사단에 선정되면 재미있으니까 꼭 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왕이면 누군가 그 쇼의 의미를 알려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다음은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 세웠다는 적산명신이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중국측에서는 적산명신을 가상의 것이라고 보고 한국과 일본측에서는 장보고를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과연 어느 측의 의견이 맞는 것인가. 주장하는 측의 의견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 어느 측의 의견에도 동조하기가 어렵기는 하다. 심적으로야 당연히 장보고를 나타낸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이곳에서는 석도

진과 바다가 잘 내려다보인다. 현지가이드에게 중국은 문화유적 관련 소책자나 엽서카드 같은 것이 너무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가이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작을 잘 안한다는 말을 덧붙인다. 듣고 보니 그렇다.

다음은 장보고 기념관으로 갔다. 여기에 수백억 원의 한국돈이 투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정작 기념관 안에 새겨진 비석 같은 것에는 한국과 중국의 우호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여 꼭 중국이 한국과의 우호를 위해서 전적으로 만든 것처럼 보인다. 한국이 중국과의 우호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국의 땅에 우리 선조의 동상과 기념관이 있다는 면에서는 웬지 새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리고 장보고처럼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사료에 모두 등장하는 한국인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장보고는 한국인 중에서는 누구보다도 국제적인 인물이었음은 틀림없다.

기념관에는 한국어로 설명을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글자가 틀린 것이 눈에 띄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적 간판에서 영문이 틀린 것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서로 마찬가지로인 것 같다.

장보고는 당나라에서 무령군소장을 지냈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어느 정도 높은 지위인가가 많이 궁금하였다. 답사자료집에는 군사 1,0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지위라고 나와 있는데, 알고 보니 실은 실망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다. 요즘 군대로 말하면 대대장급 장교인 셈인데 그 전에는 '사단장급 정도는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 앞으로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학생들에게 말할까. 학생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나처럼 실망하지는 않을까 그렇다고 모른척하기는 그렇고.

마지막으로 장보고 기념탑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사진을 찍고 답사를 떠나 식당에 와서 마지막 중국 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마치고 석도항에 도착한 지 1시간 만에 승선이 완료되었다. 승선을 하니 이제 답사가 완전히 끝난 것만 같았다.

8월 16일

아침식사를 마치고 자유 시간을 보내다가 9시 40분경에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10시 30분부터 하선하기 시작하여 11시 10분경에는 모든 수속을 마치고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빠져나왔다. 이제 5박 6일의 공식적인 답사가 완료된 셈이다. 인천 종합버스터미널에 와서 12시 대전행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에 와서 좌석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하니 오후 3시 30분이 되었다.

●답사 의의 및 바라는 점

중국 답사를 가니 장보고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많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답사자료집의 장보고는 너무 미화시킨 면도 있지만, 평소에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장보고는 대단했던 인물임에는 틀림없었다. 이번 답사로 인해 앞으로 국사 수업 시간에 장보고 이야기는 확실히 풍부해질 것이다. 중국이라는 외국을 직접 다녀오니 중국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서도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일 수는 있지만 많은 것을 이해하고 느끼게 되었다. 학교에서 수업 준비와 가르치는 것에 급급하였는데 이렇게 배우다보니 배움에 대한 자극도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라는 취지에 비추어 5박 6일의 일정은 너무 길고 불필요한 것 같다. 제나라 역사박물관이나 강태공 사당이나 순마갱, 태산 등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가기 위해 버스도 많이 타고 다녔으므로 답사코스에 없어도 상관이 없다. 발해사와 연관해서 등주수성과 중국의 역사와 문화 이해를 위해 남산관광풍경지구와 당나라의 백제 공격 및 삼국통일과 연관해서 성산두를, 그리고 직접적으로 장보고와 연관이 있는 석도적산풍경명승구를 답사하면 3박 4일에도 가능할 수 있다. 3박 4일을 통해 좀 더 버스 타고 다니는 시간도 줄이고,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이 있는 곳을 알차게 답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절약되는 경비를 더 많은 교사들을 답사에 참여시키는 쪽으로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장보고를 찾아서

광주 용산초등학교 박미령

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는 ‘중국 유적지 답사’ 선발자 명단에 내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다. 아! 신청서를 내고 이 날이 오기만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던가! 정말 기쁘고 감사했다.

이번 기회에 ‘장보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느끼게 되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나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항상 자신이 없어서 언젠가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장보고에 대해서도 ‘통일신라시대에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을 소탕한 인물’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 유명한 드라마 〈해신〉도 보지 못했으니 말이다.

방학을 하면 답사를 하기 전에 미리 장보고에 대하여 공부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연수다, 피서다 하면서 뻘뻘한 일정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행 날짜를 맞이하게 되었다. 겨우 도서관에서 장보고에 대한 책 세 권을 빌려서 여행가방 속에 쑤셔 넣는 것이 고작이었다.

연수 마지막 날을 뒤로 한 채 아침부터 가방을 챙겨 차에 올랐다. 인천 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니 오후 4시가 조금 못되었다. 아침에 예매해 놓은 버스를 놓쳐서 시간 안에 못 올까봐 마음 졸였는데, 시간 안에 도착해서 안심이였다.

답사단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한미은행 앞에 모여 있었다. 일행들을 만나고 장보고사업단 측의 간단한 안내와 함께 준비한 안내 자료를 받아들였다. 살펴보니 답사 안내 소책자와 장보고 관련 단행본 2권 그리고 모자와 부채 등이 들어 있었다.

답사 안내 소책자에는 답사 일정과 답사지 안내, 그리고 장보고에 대하여 자세히 정리되어 있어 정말 마음에 들었다. 모자와 부채가 포함된 유인물들을 보면서 답사단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정성이 느껴져 마음이 뭉클하였다.

5시에 출국 수속을 하기로 했으나 배가 연착되는 바람에 1시간을 기다려 6시부터 출국 수속에 들어갔다. 각자의 짐을 들고 배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힘들었다. 가져간 짐이 무겁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었다.

내가 배정받은 객실은 213호실. 4명이 한 방을 쓰게 되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선생님들 세 분이 먼저 와서 반겨주셨다. 대전에서 근무하시는 김재겸 선생님은 나보다 두 살이 위이고, 인천 김선경 선생님과 대구 김현정 선생님은 두 분 다 20대 후반의 미스 선생님들이시다. 선생님들과 함께 간단한 소개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녁식사 시간이 되어 1층에 있는 식당으로 향했다.

우리가 탄 화동훼리호는 17,000여 톤급의 여객선인데 승객 정원이 750명으로 식당, 면세점, 매점 등이 갖추어져 있는 큰 배이다. 인천에

서 출발하여 우리가 도착할 석도항까지는 400킬로미터로 약 18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저녁을 먹고 객실에 들어와 휴식을 취하다가 8시 30분경에 선상 세미나가 있어 세미나실로 향했다.

간단한 일행 소개가 끝나자 한국교원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님인 김은숙 교수님이 장보고에 대하여 간단히 이야기해 주셨다. 세미나가 끝나고 객실에 들어오니 9시가 훌쩍 넘었다. 씻고 침대에 올라오니 9시 50분. 그동안의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온다.

둘째 날 8월 12일 토요일

아침에 눈을 뜨니 3시 30분. 책을 보다가 5시경에 일출을 보려고 갑판에 나가 보았는데 수평선에는 구름이 깔려 있고 일출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1시간 정도 늦게 뜨나 보다 하는 생각에 다시 방에 들어와 책을 보다 바깥을 보니 날이 흰하다. 시계를 보니 5시 20분, 얼른 카메라를 들고 갑판으로 향했다. 해가 수평선으로 쭈욱 올라와 있었다. 주변 동료들에게 물으니 방금 구름 속에서 나왔다고 한다. 카메라를 들이대니 해는 잘 보이지 않고 카메라에 일직선이 나타난다. 잘 찍고 싶었지만 생각만큼 되지 않는다. 사진을 찍고 객실로 들어와 씻고 준비를 했다. 옆에 계신 선생님들로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같이 아침을 먹었다.

현지시간(우리나라보다 1시간이 느림)으로 8시 30분경에 석도항에 도착했다. 드디어 중국 땅을 밟은 것이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버스에 승차하니 9시 30분이다. 또 한참을 기다렸다. 밖은 더웠지만 버스는

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어 시원했다. 10시 10분경에 버스는 연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현지 가이드는 진홍섭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교포 3세라고 한다. 우리나라 말도 잘 구사하고 설명도 차분하게 잘 해주었다. 연태까지는 2시간 30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가는 길에 명지대 김덕현 교수님께서 산동성과 연태시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중국 동부에 뻗어나온 산동반도는 황해와 발해만을 갈라놓는 반도로 대체로 구릉성 산지가 많고, 남쪽 해안은 따뜻하나 북쪽 해안은 추위가 심하다. 연안은 중국에서 손꼽히는 어장으로 청도, 위해 등의 항구가 있다.

이 산동반도로 대표되는 산동성은 한반도와 인연이 많은 곳으로 현재 한국에 들어온 화교의 대부분이 산동성 사람이며, 한국인들이 먹는 중국 음식 가운데도 산동 음식이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약 1.5배에 달하는 산동성은 하천과 호수가 많고 농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태산과 곡부(공자의 고향)가 있어 도교와 유교의 중심지이며 자장면의 고향이라고도 한다. 주변의 자연환경과 기후는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과 들의 풍경이 우리나라와 너무 흡사하여 친밀감마저 느끼게 했다.

산동성 일대는 우리의 옛 조상들이 삼국시대부터 거주해 오던 삶의 터전이었다.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지만 기후와 자연환경이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이곳에 더욱 쉽게 정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는 어느새 연태시로 접어들었다. 산동반도 동부에 위치한 연태시는 황해와 발해를 동시에 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은 사과를 비롯한 맛있는 과일이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하여 세계과수박람회가 열

리는 곳이라고도 한다. 이곳은 1920년대의 서양식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세련되고 웅장한 서구식 건물들에게서 풍기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느끼게 해주었으며 주변의 아름다운 건물과 더불어 해안선을 끼고 있는 자연경관은 관광도시의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연태시에서 점심을 먹고 버스를 타고 봉래로 향했다. 봉래에서 봉래각, 등주수성, 고선박물관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봉래라는 이름은 옛날 신선들이 살았다는 전설 속의 바다 가운데 있는 산의 이름이다. 중국 한나라 때 한무제가 이곳에 와서 신선산을 보려고 했으나, 실제로 존재하는 않는 신선산이 보이지 않으니 경치가 수려한 지금 이곳을 '봉래'라 명하였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당나라 때에는 이곳이 봉래진으로 불리다가 후에는 등주로 불렸다고 한다.

봉래각은 송나라 때 건축된 도교사원으로 여조전, 삼청전, 봉래각, 천궁 등 6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봉래각 내에는 누각, 불상, 사원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었다.

봉래각 입구에서 저 산의 정상에 세워져 있는 누각까지 오른다고 생각하니 내리쬐는 뜨거운 햇살이 더욱 야속하게만 느껴졌다. 계단으로 이어진 누각들을 통과하여 정상에 있는 누각을 향해 가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봉래각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정말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라 아래를 굽어보니 탁트인 넓은 바다와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거기에 맞닿아 있는 넓고 푸른 창공을 바라보니 신선이 따로 없다. 바라다보이는 바다 가운데에서 일년에 한 번씩 오아시스가 펼쳐진다고 하니 정말 신선이 사는 곳이라는 전설이 실감난다. 이곳에 서서 바다에서 펼쳐지는 오아시스를 보고 있노라면 신선이 된 것 같은 기분에 빠져들

것 같다.

봉래각에서 오른쪽을 바라보니 등주수성(登州水城)이 펼쳐져 있다. 이곳 등주항은 발해 및 신라교역 등을 관장하였으며 이 일대의 항구들은 예로부터 조선업과 해운업의 기지였다고 한다.

7세기 중반에 봉래에는 많은 신라상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신라방, 신라관, 신라소 등이 있어 많은 신라인들이 이곳에서 살았다. 근대에 이르러 등주항은 수심이 얕아져 선박들을 정박시킬 수 없게 되자 점차 연태항에 큰 선박이 몰리면서 봉래의 군사, 정치, 교통의 역할은 작아지고 지금은 중요한 관광지로 변하고 있다. 수성에서 봉래각의 배경을 뒤로 하여 사진을 찍었다.

수성에 기대어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을 바라보았다. 옛 신라인들과 장보고 대사가 활동했던 모습들이 눈에 선하다. 우리의 선조들은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장보고는 이 바다를 통해 세계를 호령하려는 큰 뜻을 품었을까?

마지막으로 등주 고선박물관에 들렀는데, 중국 고대의 선박들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었다. 고선박물관을 뒤로 하고 버스에 올라 치박으로 향했다. 치박까지는 약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땀을 흘리며 돌아다녀서인지 차에 오르니 피곤이 몰려온다. 잠도 자고, 차 안에서 상영해준 최인호 선생님의 다큐인 <해신 장보고>도 보면서 치박까지 이동했다.

치박에 있는 호텔(제도대주점)에 도착하니 8시 10분이다. 저녁 먹고 씻고 시계를 보니 10시가 다 되어 간다. 룸메이트인 김재겸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학교 이야기 등 등, 참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아마 12시가 다 되어 잠이 든 것 같다.

셋째날 8월 13일 일요일

5시 30분에 모닝콜을 하여 6시에 아침을 먹고 7시에 이곳 치박시 임치구에서 태산이 있는 태안으로 출발했다. 오늘 태안의 기온은 34도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오늘의 일정은 먼저 태안에 가서 태산을 보고 다시 치박으로 와서 강태공 사당, 제나라 역사박물관, 순마궐을 견학한 다음, 유방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마치게 된다. 원래 계획은 태산을 가는 것이 오후였는데 아마 더운 날씨 때문에 오전으로 일정이 바뀐 것 같다.

그 유명한 중국의 태산을 직접 가본다고 생각하니 아침부터 마음이 설렘었다. 그동안 시조에서나 들어보던 그 태산을 내가 이렇게 오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2003년부터 시작한 중국 여행이 올해로 네 번째이다. 태국도 네 번이나 가보았지만 중국은 올 때마다 새로운 나라를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워낙 땅이 넓어 간 곳마다 기후나 지리적 환경, 생활모습 등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때마다 느끼는 공통점은 한마디로 '위기감과 질투심'이다. 거대한 용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위기감과 넓은 땅, 많은 자원 등을 갖추고 있는 데서 오는 질투심으로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보게 한다.

중국에서는 예부터 5대 명산을 '오악(五岳)'이라 하였는데, 이 중 동악인 산둥성의 태산은 '오악지장(五岳之長)', '오악독존(五岳獨尊)'이라 하여 천하제일의 명산으로 꼽았다. 그 이유는 제왕이 이곳에서 하늘에 뜻을 받는 봉선(封禪)이라는 의식을 거행했기 때문이다. 봉선의식은 황제가 태평세계의 실현을 신에게 보고하는 의식으로, 역대 군주들이 황제로 등극한 후 이 태산에 올라 제사를 지내 하늘에 알

리는 의식이다.

산의 높이는 해발 약 1,545미터, 우리나라 오대산 정도의 높이밖에 되지 않는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뵈이로다.'라는 시조에서처럼 이 산이 높아서 유명한 것은 아니다. 중국 서부에는 해발 4,000미터 높이의 산도 많이 있지만 태산이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곳이 중국의 역사와 문화, 종교, 전설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공자도 이곳 태산의 정상에 올라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아 보인다."라고 한 그 산.

태안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 버스는 약 2시간 30분이 지난 9시 30분경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 태산으로 출발하는 봉고차로 다시 갈아탔다. 모두 네 대의 봉고차로 다시 나누어 타게 되었는데 우리가 타는 봉고차에는 23명이 타게 되었다. 봉고차를 타고 케이블카를 타는 태산 입구까지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가는 길이 구불구불하고 봉고차 안이 비좁아서 약간 불편하였다. 날씨가 더웠지만 오르막길이라고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아 우리는 모자로 뜨거운 햇빛을 가리며, 창문을 열고 불어오는 바람에 더위를 식혀야만 했다.

드디어 케이블카를 타는 입구(중천문)에 도착하였다. 4명씩 짝을 지어 케이블카에 오르니 커다란 태산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발 아래에 펼쳐진 수목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했지만 흘러내리는 물줄기와 간간이 보이는 폭포수가 태산을 느끼게 해주었다. 케이블카로 15분쯤 오르니 다시 산의 중턱(남천문), 여기서부터 산의 정상까지는 걸어가야 한다. 그러나 계단이 많아 걷는 것은 그다지 힘들지 않다고 안내자가 말한다. 다시 케이블카를 타는 이곳까지는 왕복 5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그리 멀게는 느껴지지 않았다. 룸메이트인 김재겸 선생

님과 함께 정상을 향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태산가는 길은 계단으로 시작해서 계단으로 끝난다. 모두 6,666개의 계단이라고도 하고, 8,000개의 계단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계단은 처음이다. 오르는 도중에 곳곳에 건물이 즐비하다. 이렇게 높은 곳까지 건물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었을까, 또 진시황이 이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군인들과 백성들이 피와 땀을 흘렸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산 전체가 계단과 건물로 들어찬 느낌이어서 도무지 우리나라에서 말한 산의 느낌이 나지 않는다. 물론 오르기 전에 안내자가 너무 기대를 하면 실망할지 모른다고 했지만, 아름다운 자연을 사람들의 손길이 망가뜨려 놓은 것 같아 인위적인 느낌밖에 별다른 느낌을 받지 못했다.

정상에 오르기 전에 곳곳에 바위들을 볼 수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유명 인사들이 남긴 글들이라고 하지만 붉게 새겨진 글씨를 대하자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자연파괴가 느껴져 혐오감마저 들었다. 어쨌든 ‘오악독존’이라고 새겨진 돌기둥 앞에서는 꼬옥 사진을 찍고 오라는 안내자의 설명을 되새겨 몇 분을 기다린 끝에 사진 한 컷 얻었다.

산의 정상에는 옥황정이 있었고, 옥황정 앞에는 열쇠꾸러미가 원으로 한 무더기 쌓여져 있다. 여기에 매달린 자물쇠들은 중국 연인들의 사랑의 징표라고 한다. 두 사람이 여행 도중 자신들의 사랑을 자물쇠로 잠그고 열쇠는 태산 속에 던져버리면 열쇠를 찾아 열기 전에는 사랑의 맹세를 깰 수 없다고 한다. 중국인들의 생활방식의 단면을 보는 것 같다.

남천문에서 10시 50분에 정상을 향해 출발하였는데 다시 돌아오니

12시가 넘었다. 12시 20분경에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봉고차를 타고 우리의 버스가 있는 식당으로 내려왔다.

점심을 먹고 1시 50분경에 강태공 사당이 있는 치박으로 다시 이동했다. 약 3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최인호의 다큐로망 <해신 장보고> 4부’를 보았다. 신년 특집으로 5부작으로 제작되었는데 지금은 4부 ‘대해를 넘어’를 보고 있다. 4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대모, 유향, 자단목의 정체를 밝히는 내용이었다. 호암미술관에서 본 대모(바다거북의 등껍질)로 만들어진 빛은 페르시아 앞바다에서 살고 있는 바다거북의 등껍질이며, 석가탑에서 출토된 유향은 인도의 오만지방(사막)에서 자라는 유향나무의 수액을 채취해서 말린 유향이였으며, 목포 해양박물관에서 본 자단목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생산된 목재였다. 장보고 시대에 무역을 했던 물품들을 추적해가는 과정이 아주 흥미롭게 전개되었다. 최인호 선생님의 글솜씨가 작품의 질을 한층 높여주었지만 촬영이나 편집능력도 돋보이는 작품이다. 바다거북이 알을 낳는 과정을 촬영하여 보여주었는데 정말 놀랍고 흥미로운 장면이었다. 특히 최인호 선생님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기억에 남는다.

장보고는 세계시민이다. 그대들은 나아가라, 나아가서 모든 길을 한 국으로 통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그것이 위대한 세계시민이 되는 길이다.

정말 가슴 뭉클하였고, 절절히 마음에 와 닿는 말이어서 각오와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순간이었다.

차창 밖으로 조금 전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약 30여 분 정도 내리다

가 그쳤다. 최인호 선생님의 다큐에 폭 빠져 있는 사이에 어느새 차는 치박을 통과하여 제나라 역사박물관에 도착하였다. 시계를 보니 4시 30분경이다.

제나라 역사박물관은 건축면적 2,600평방미터에 내부에는 5개의 진열실이 있어 제나라의 생성, 발전, 흥성과 쇠망사를 설명해 주고 있었다. 또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제나라의 경제, 문화, 예술, 과학기술, 군사와 민속을 엿볼 수 있었다. 박물관에서 나와 버스에 올라 앉아 있으니, 차창 밖으로는 자전거 뒷좌석에 아이를 태우고 웃으면서 서 있는 중국 아낙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천진한 아이와 순박한 아낙네의 모습에서 소박한 우리네 시골 아낙네의 모습이 느껴져 정겨움과 친근감이 전해져 왔다.

버스를 타고 약 10여 분쯤 달려 제경궁 순마갱에 도착하였다. 치박시 임치구에 있는 제경궁 순마갱은 춘추시대 제나라 25대 국왕의 순마묘이다. 1964년에 산둥성 문물국 임치고고학 공작대가 발견하고 1972년에 발굴하였다고 한다. 순마는 두 줄로 나란한 형태로 병렬시켜 머리를 바깥쪽으로, 옆으로 누운 자세로 매장되어 있었다. 이곳에 매장된 말은 약 600여 필이며, 전마(전쟁시 사용하던 말)로 모두가 수말이라고 한다. 규모가 이렇게 큰 순마갱은 그 당시 제나라 통치계급의 사치함과 국력의 강성함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나는 이 순마갱을 보는 순간, 진시황의 병마용이 떠올라 인간의 비정함이 먼저 느껴졌다. 머리를 쳐들고 누워 있는 말들을 보면서 과연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착잡해졌다.

순마갱이 있는 건물의 2층은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건물 입구에는 자전거 수리 센터가 있어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도로는 포장되어 있지 않아 흙먼지를 날리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

람들이 눈에 띄며, 주변은 온통 옥수수 밭으로 펼쳐져 있다. 우리네 70년대 시골의 풍경이다. 주변이 너무 허술하여 이런 곳에 순마갱이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버스를 타고 15분쯤 이동하여 강태공 사당에 도착하였다. 강태공 하면 '낙시를 하면서 세월을 낚은 사람, 또는 옆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복수난수(覆水難水)의 말을 한 인물'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강태공은 중국 역사상 영향력 있는 인물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산둥성 임치(제나라의 수도)에서 태어났다. 위수 강반에서 끝은 낙시를 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다가 주나라의 문왕을 만났으며, 문왕을 도와 반란을 꾀하다 문왕은 죽고 대를 이은 무왕을 도와 끝내 폭군에 시달리던 은을 멸망시킨다. 무왕은 주나라를 세우고 나서 전국을 쪼개어 거수국(諸侯國)을 만든 다음 그중 동쪽에 위치한 제나라의 초대왕으로 강태공을 책봉하였다. 따라서 강태공은 제나라의 시조가 되고 주나라의 스승이 될 만한 인물이며 139세까지 살았다고 한다.

강태공 사망 후 주나라의 관례로 시신은 원래 섬겼던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의 무덤 주위에 묻었다고 하지만 봉분이 없는 탓으로 구체적인 위치는 모른다고 한다. 제나라 초대왕으로 기념하기 위해 태공이 썼던 모자와 옷을 옛 제나라 수도인 오늘의 치박에 묻었는데, 이것이 의관총(衣冠塚)이며, 이곳의 앞면에 강태공 사당을 만들었다고 한다. 강태공사(姜太公祠)라고 씌어진 정문을 지나 사당 안으로 들어가니 가운데에 강태공의 상이 있었으며 강태공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제정공과 제경공의 상이 나란히 모셔져 있었다. 사당 뒤쪽의 벽면에는 강태공의 일생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 사당을 벗어나 뒤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무성왕 강태공 의관총'이라고 쓰인 강태공의 가묘가 있었으며, 양쪽의 석실에는 강태공의 옷과 모자 등이 보관되어 있

다고 했다.

강태공 사당 옆에 또 하나의 사당인 구목공(丘穆公)의 사당을 둘러 보았다. 이 목공은 강태공의 셋째 아들로써 구씨의 시조가 되며 약 100여 개의 성씨가 이 강태공과 제나라에서 파생되었다는 내용을 적은 현판이 진열된 전시관이 있었다. 그 현판에는 노(盧), 고(高), 허(許)씨 등이 눈에 띄었으며, 그래서인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다녀갔다고 사당을 지키고 있는 사람의 자랑이 대단하다. 나한테는 중국 사대 사상이 떠올라 참 씩씩한 생각이 들었다.

강태공 사당을 뒤로 하고 버스에 올라 시계를 보니 6시 30분. 치박에서 오늘의 답사 일정을 마치고 이제는 숙소가 있는 유방으로 향하게 된다. 여기서 유방까지는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버스로 오는 길에 김 교수님께서 성(姓)씨의 출현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셨다.

유방시는 '연의 고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연의 도시'이다. 1984년에 제1회 '유방국제연축제'를 시작으로 해마다 한 차례씩 축제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18차례 개최하였다고 한다. 또한 최근 유방시는 50여 곳의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민족풍습 관광을 위주로 오락여행과 관광여행, 해상여행이 조화를 이룬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 타 도시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한다.

주변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유방시에 도착하였다. 시계를 보니 7시 40분. 주변의 가로등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다. 붉은색의 나비모양을 하고 있는 이 가로등은 유방시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교수님은 중국의 가로등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역마다 특색 있게 가로등이 꾸며져 있다고 하셨다. 미적인 아름다움과 더불어 지역의 특색까지 고려한 가로등을 보면서 우리나라

의 가로등을 떠올려 보았다.

8시경에 식당에 도착하여 식사를 하고 근처의 호텔(유방회의접대 중심)에 도착하니 9시가 다되어간다. 씻고 룸메이트인 김재겸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에 빠져들었다. 아마 11시 30분쯤 되었을 거다.

넷째 날 8월 14일 월요일

새벽에 눈을 뜨니 3시 40분. 항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때문에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는 편이다. 씻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니 4시 20분이다. 책 좀 보다가 준비하고 있으니 룸메이트가 일어난다.

6시에 올리는 모닝콜이 아직 울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준비를 시작하여 여유가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아침 시간에 여유가 있어 방에서 주변 유방시의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 옆 선생님도 일찍 준비를 끝내서 아침식사 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옆 선생님은 어젯밤에 잠이 오지 않아 한참을 뒤척였다고 한다.

7시에 아침을 먹고 짐을 정리하여 8시경에 버스를 타고 남산을 향해 출발했다. 가는 도중에 휴게소를 들러 10시 20분경에 남산관광풍경지구에 도착했다.

남산이 있는 산동성 용구시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로 진나라 때 서복(徐福)의 고향이자 서복의 동남아 항해의 시발점이기도 한 곳이다. 용구시는 자원이 풍부하고 기초시설이 비교적 완비되어 있다. 또한 석탄 매장량이 26억 톤이며 중국에서 유일한 대형 연해석탄 기지로 지방항구 중에서는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남산관광풍경지구는 연태 용구시 관할로 남산그룹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거대한 단지이다. 내부에는 각종 생활기능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 의식주뿐만 아니라 대학교와 대형공장, 병원 등 자급자족이 가능한 신사회주의 사회로 도연명이 쓴 남산천지와 비슷하다고 한다. 단지 안에는 호텔, 골프장,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한 레저 단지과 중화 5천 년의 역사를 축소한 역사문화지구, 남산대불과 불교박물관, 도교 사원을 포함한 종교문화지구, 공업단지, 거주지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잘 정비된 도로와 주거시설, 관광시설 등은 중국 내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깨끗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져 정말 돈의 위력을 실감하게 했다. 남산대불이 있는 높은 곳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이곳이 중국이 아니라 유럽의 어느 지역에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이다. 중국이라는 나라와는 분리된 하나의 거대한 도시, 거대한 자치지구 같은 느낌이 들었다.

대불의 조각은 석가모니 불상으로 주석 청동으로 주조되었고, 높이 38.66미터에 무게가 380톤이나 되는 세계 최대의 좌불 동상으로 그 기세가 웅장하였다. 중국이라는 큰 땅덩어리 못지않게 대불을 보는 순간 그 거대함에 혀를 내두른다. 계단 높은 꼭대기에 안치되어 있어 올라가면서 대불인 석가모니를 바라보면 석가모니와 눈이 마주칠 수 있다. 거대한 부처님이 앉아 계신 연꽃 아래에는 만불전, 공덕당 등이 있는데 만불전 내부에는 9,999개의 작은 불상들이 사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소불상 앞에는 각각 연등이 켜져 불당 안의 어둠을 밝혀주었다. 원으로 만들어진 법당 안 전체가 연등과 부처님상으로 가득 차 있다. 대불 앞에서 사진을 찍어봤자 연좌대의 연꽃 한 잎도 모두가 나오지 않는다.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잠시 쉬었다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태산의 계단에 이어 또 계단을 오르내리니 계단에 질린다. 남산 역사문화원으로 향했다. 남산 중화역사문화원 앞에서는 11시에 민속춤을 공연했는데 중국 소수민족들이 나와서 그들의 전통적인 춤과 노래를 보여주었다.

남산 중화역사문화원은 중국 역대 왕조의 문화와 발전상을 순서대로 모두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그 규모는 60,000평방미터에 달하며, 6억 위안을 투자하여 완성되었다고 한다. 많은 역사 문화 자료를 토대로 5천여 년의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표현해 놓았으며, 민속과 풍습, 음식 등 다양한 민족문화를 생동감 있게 전시해 놓았다. 방대한 규모의 문화원을 통해 중국 5천 년의 역사를 불과 하루 만에 느낄 수 있으며, 중화민족의 역사 발전과 역사적 인물 등의 중국 문명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인위적이고 조잡한 느낌도 들어, 진시황의 동마차 등을 볼 때에는 서안에서 본 실물이 생각나 오히려 실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아쉬움도 들었다. 날씨는 덥고 계단이 많아 남산의 일정은 정말 힘들었다.

1시경에 점심을 먹고 2시경에 성산두와 진시황 사당이 있는 영성으로 이동했다. 영성까지는 약 3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버스 안에서 동아일보에서 오신 손 차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술을 돌렸다. 그동안 조용히 다녔는데 오랜만에 분위기를 띄워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노래를 좋아하지 않아 반갑지 않은 시간이었다. 피곤하여 잠을 자고 싶었지만 꼭 참고 박수도 치면서 노래방 분위기에 합류했다.

5시 10분경에 영성에 도착하여 성산두에 있는 진시황 사당으로 향했다. 진시황 사당은 원래 진시황이 동쪽으로 순찰을 하며 머물렀던

행궁인데 후에 백성들에 의해 시황묘로 복구되었고 현재는 중국에서 유일한 진시황의 사당이라고 한다. 사당 안에는 진시황의 상이 모셔져 있었는데 눈이 튀어나오고 눈꼬리가 높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 꼭 우리나라의 절 입구에 모셔져 있는 사천왕상을 연상케 했다.

진시황 사당을 잠깐 둘러보고 우리는 옆에 있는 성산두의 가장 동쪽 끝 바위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성산두는 중국의 동쪽 끝으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성산두는 예로부터 군사요충지로서 백제를 치기 위하여 소정방이 13만의 수군을 거느리고 출발한 항구이기도 하다. 전 중국 총서기인 호요방은 이곳에 '천진두'란 휘호를 남겼는데 이는 '하늘이 끝나는 곳', '육지의 끝'이라는 뜻이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 동으로 동으로 나아가다 더 이상 가지 못해 아쉬워했다는 곳, 진시황과 함께 양옆에 이사와 서복이 동쪽바다를 배경으로 바다를 향해 서 있는 커다란 동상에 눈에 들어온다. 수시로 밀려오는 물안개 때문에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아 아쉬웠지만 안개가 걷히는 때를 이용하여 맞은편에서 지는 일몰의 풍경도 카메라로 담아 보았다. 내려오면서 주변의 바위에 앙증맞게 피어 있는 꽃들이 너무 아름다워 연신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버스를 타고 이곳 영성 용수도진에서 다시 석도로 향했다. 8시경에 석도에 도착하였는데 곧바로 식당으로 향했다. 오늘 저녁식사는 동아일보에서 한 톱 쏜다고 한다. 해산물이 풍부한 곳이라서 나오는 음식들도 조개 종류와 생선, 새우 등 해산물이 많다. 동아일보 손 기자님의 건배 제의로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다.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잔을 주고받으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세화여고에 계시는 우재열 선생님의 사회로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마련했다. 8~9명씩 둘러앉은 각각의 테이블별로 돌아가면서 노

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 식탁에서는 가수 뽐치는 강희중 선생님이 계셔서 멋들어지게 노래솜씨를 자랑하셨다. 이렇게 시작된 노래시간이 흥겹기는 했지만 밤이 깊어지고 모두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여 우리는 만남이라는 노래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끝내기로 했다. 사회를 보신 우재열 선생님은 시종 차분한 목소리로 모든 사람들을 배려해가며 재치 있게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차를 타고 근처에 있는 호텔로 향했다. 시계를 보니 10시가 다 되어 간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은 이렇게 깊어갔다.

다섯째 날 8월 15일 화요일

7시에 모닝콜을 하여 8시에 아침식사를 하였다. 그동안 뻑뻑한 일정 속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모처럼 한가한 아침시간을 보냈다. 아침식사를 하고도 여유가 있어 다시 방에 들어와 커피도 한 잔 마셨다. 아, 얼마가 즐기고 싶었던 여유인가? 행복한 순간이었다.

9시까지 짐을 꾸려서 호텔로비로 나갔는데 버스는 9시 40분경에야 출발했다. 오늘의 일정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장보고 유적지인 적산 법화원, 장보고 기념관, 장보고 기념탑을 답사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오늘은 광복절인 8월 15일, 역사 속에 묻힌 우리 선조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오늘의 일정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1200년 전 동북아 해상권을 주름잡았던 장보고의 행적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이다.

10시쯤에 버스는 적산 법화원에 도착했다. 적산 법화원은 산동성

영성시 석도진 적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당나라 시대 우리나라 장보고가 지은 것으로 창립 초기에 법화경을 읽었다고 하여 유래된 것인데 당시 산동에서 규모가 제일 큰 불교사원이었다고 한다.

1200년 전에 동북아의 해상질서를 주도하면서 장보고 대사는 재당 신라인의 교화장소로,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기도처로서, 교민사회의 결속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절을 건립하였다. 법화원에서는 한꺼번에 2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강당이 있었다고 하니 절의 규모로 보아 그 당시 장보고의 해상세력이 얼마나 번영했는지 짐작할 만하다.

그 당시(838년) 일본스님 엔닌이 견당사로 입당하여 법화원에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법화원의 많은 신세를 졌다고 한다. 그래서 귀국한 뒤에도 적산 법화원의 은혜를 잊지 못해 일본 교토의 소야산에 적산 이름으로 '적산선원'을 세웠다고 한다.

이 법화원은 장보고에 의해 825년에 창건되어 약 20여 년 정도 유지하다가 844년 10월 사찰철폐령에 의해 훼철되었는데, 그 후 1980년대 말에 일본인들이 엔닌의 행적을 추적하고 선양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곳 법화원의 옛터에 적산 법화원을 다시 세웠다.

현재 일본인에 의해 복원된 이 절은 일본 동대사(東大寺)를 축소한 모양이고 본전의 위치(일본 쪽을 향하고 있다) 등에 문제점이 있다. 더 큰 문제는 1987년 법화원 경내에 세워진 비문에 적산 법화원이 엔닌의 옛 절터라고 하는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1990년 장보고 대사 해양경영사 연구회 주관으로 장보고 기념비를 세웠고, 일본인들에 의해 세워진 비문 16개는 절 밖으로 끌어내려졌다.

이 절이 처음 건립되었을 때는 전부 일본말로 되어 있었으며, 일본인들의 흔적만 보이는 일본의 절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차츰 일본의 흔적을 지웠으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장보고 대사의 잊혀진 발자취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절의 형태나 분위기는 일본절에 가까워 마음이 씁쓸하였다. 이 절은 처음에는 영성시 인민정부에서 관리했으나 지금은 적산그룹(수산회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장보고 기념사업회에서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적산 법화원에 도착하기 전에 왼편에 있는 큰 산(적산) 꼭대기에는 '적산명신'이라는 커다란 좌불이 모셔져 있는데 그 불상은 아쉽게도 일본 엔닌 대사의 동상이라고 한다. 국력의 차이를 실감하는 순간이다.

법화원 입구에서 이번 답사단원들이 모두 모여 단체사진을 찍었다. 그런 다음 조금 더 올라가서 잠깐 자리를 잡고 앉아 적산 법화원의 설립 배경에 대하여 명지대 김덕현 교수님의 간단한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끝나자 우리는 대웅보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적산 법화원의 주요 건물인 '대웅보전'에는 석가모니상이 모셔져 있고, 그 뒤에 건물은 '삼불전'으로 석가모니상을 가운데로 양쪽에는 약사여래와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었다. 이 삼불전은 2000년에 새로 건축했다고 한다. 삼불전에서 왼쪽으로 한참 올라가니 그 앞에서 분수 쇼가 펼쳐진다는 '관음전'이 나왔다.

관음전 앞에 있는 커다란 불상 앞에서 11시에 분수 쇼가 펼쳐진다고 하여 우리 일행은 모두 관음전 앞으로 모였다. 11시가 되어 음악과 함께 분수 쇼가 시작되었는데 정말 장관이었다. 커다란 불상이 빙빙 돌아가면서 그 밑에 있는 작은 불상들의 입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오고, 휘황찬란한 물줄기 등이 쏟아져 정말 장관을 이루었다. 나중에 뿜어 지르는 물세례는 주변을 흠뻑 적시고, 우리네 옷과 얼굴에도 한바

탕 일격을 가하였다. 정말 오랜만에 즐거운 묘기를 본 것 같다.

관음전 앞에서 분수 쇼를 본 다음 우리 일행들은 장보고 기념관으로 향했다. 장보고 기념관은 중국 적산그룹에서 3억 위안(약 360억원)을 들여 7,000평방미터 부지에 총 5채로 건립하였다. 한·중 우호와 교류를 기념하기 위해 2002년에 설립하기 시작하여 2005부터 개관하였다고 한다. 적산 법화원 내에 설립된 이 기념관 앞에는 높이 8미터, 무게 6톤의 거대한 장보고 동상이 세워져 있다.

장보고 기념관은 총 5개의 전시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장보고의 생애를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전시해 놓았다. 마지막 5관에는 우리나라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해신’의 사진이 중앙에 커다랗게 걸려 있었다. 장보고 기념관을 나와 마지막 일정인 장보고 기념탑으로 향했다. 더운 날씨에 걸어다니기가 정말 힘들었다.

장보고 기념탑은 적산 법화원 북쪽에 있는데, 1991년 세계한민족연합회 회장인 최민자 교수가 적산 법화원에 왔다가 한민족의 선각자인 장보고 대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것으로 1994년 7월에 준공되었다고 한다. ‘장보고 기념탑’이라는 여섯 글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라고 한다.

오늘 답사한 적산 법화원, 장보고 기념관, 장보고 기념탑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것으로 유일한 장보고 기념탑을 끝으로 적산 법화원을 내려오니, 마음이 착잡하고 무거웠다.

이로써 이번의 답사 일정은 모두 끝나게 된다. 이제 점심을 먹고 석두에서 배를 타면 중국 땅을 떠나 5박 6일의 장보고 유적지 답사를 마치게 된다. 그동안의 답사 일정 중에서 가장 기대를 했던 오늘의 일정을 마치니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착잡하다.

버스를 타고 식당으로 향했다. 1시 30분부터 시작한 점심시간이었

는데 끝날 무렵에는 3시가 다 되어 간다. 그동안 기념품을 사지 못한 일행들은 식당에서 중국 술을 사느라고 정신이 없다. 한두 명이 사기 시작한 중국 술은 식당의 술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할 무렵에서야 끝나게 되었다. 식당 아저씨는 어제 저녁에 무슨 꿈을 꾸었기에 오늘 1년 장사를 다하게 되었을까, 씩씩할 따름이다.

점심을 먹고 석도항에 도착하여 4시경에 승선하였다. 배에 오르니 마음이 편안하다. 그리운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일행들의 얼굴에 생기가 돈다. 첫날 만났던 4명의 일행과 다시 만났다. 그때처럼 213호실에서 말이다. 6시에 저녁식사를 하고 그동안 못했던 수다로 시간은 줄 몰랐다. 배를 타기 전부터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기상이 그리 좋지 않아 배는 8시 30분이 되어서야 출발하기 시작하였다. 또 이렇게 18시간을 배에서 보내면 그리운 인천항에 도착하겠지.

여섯째 날 8월 16일 수요일

아침 9시경에 배는 인천항에 도착했다. 승객수가 많아 하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배에서 나오니 11시가 다 되어 간다. 인천항에서 일행들과 헤어지고 대구 김현정 선생님과 함께 택시를 타고 고속버스터미널로 향했다. 마침 12시에 광주행 버스가 있어 몸을 실었다. 광주에 도착하니 오후 4시. 여전히 햇빛이 따갑다.

산동성의 자연환경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했으며, 길거리의 풍경은 우리나라 70년대를 연상케 했다. 여전히 남자들은 윗옷을 벗고 돌아다니며, 교통질서는 무질서하여 중앙선 침범은 예사이고 앞차가 조

금만 시야를 가려도 크랙선을 뽕뽕 눌러 차에 타고 있는 우리들을 째깍째깍 놀라게 했다. 그러나 신호등의 모습은 인상 깊었다. 신호가 바뀌면 남은 시간을 숫자로 표시하여 남은 시간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각 지역의 가로등의 모습도 특색 있게 꾸며놓은 점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었다. 무엇보다도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어 기간산업의 기반이 다져졌다는 생각과 함께 그들의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70년대의 모습이지만 변화의 물결은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향해, 세계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동안의 여행에서 느낀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을 여행하면서 내내 나의 뇌리 속에 떠나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두려움, 위기감, 부러움을 넘어선 질투심' 등으로 표현하고 싶다. 허벌나게 넓은 땅덩어리와 막대한 지하자원 등을 무기로 서서히 일어나서 거대한 홍수처럼 밀려오는 중국,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질투가 난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두뇌가 있지 않은가?

나는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량을 심어줄 수 있는 나의 역할과 의무가 막중한 것 같아 새롭게 각오를 다져본다.

둘째, 중국인들의 상술과, 뭐든지 자기네 좋을 대로 해석하는 오만함이 곳곳에서 느껴져 우리가 처한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네들의 관광지를 둘러보면서도 뭐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역사와 문화와 연관지어 신성시하고 상품화하여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적산 법화원을 비롯한 장보고 기념관을

건립한 배경에는 한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중국인들의 상술이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했다. 더구나 동북공정으로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는 중국인들이 장보고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심히 염려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가 관광으로 중국에 쏟아 붓는 돈을 생각하니, 과연 우리나라는 그동안 관광산업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으며, 이제 우리의 역사와 유적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셋째, 우리의 위대한 선조 해상왕 장보고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1200년 전에 동북아의 해상질서를 주도한 그의 개척정신과 더불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해적을 소탕했던 그의 애민정신 등을 알 수 있었으며, 그의 업적과 발자취를 되새기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특히 차안에서 본 최인호의 KBS 신년 다큐로망 <해신 장보고> 5부작 시리즈가 기억에 남는다. 여행 초반에는 보다가 졸다가 했지만 4부는 정말 감동 깊게 보았고, 나중에 다시 보여주어서 1, 2, 3부도 열심히 보았다. 장보고에 대해 사전에 공부를 해오지 않는 나로서는 이 시리즈가 장보고를 이해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장보고에 관한 책을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위대한 우리의 선조가 있었다는 사실에 자긍심으로 마음이 뿌듯했으며, 또 이번 기회에 이를 깨닫게 해 준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다.

여행후기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다녀오고 난 다음, 나는 완도에 있는 장보고 유적지도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 완도에서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해신 세트장은 가 보았지만 장좌리 장도에 있는 장보고 유적지는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가족과 함께 8월 19일(토요일)에 완도로 향했다.

광주에서 오후에 출발해서 2시간 30분 정도 지나 완도읍 장좌리에 도착했다. 해질 무렵에 장좌리에 도착하여 장도를 바라보니 바닷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하루에 한 번 물이 빠지면 걸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물이 들어와서 장도를 갈 수 없다고 한다. 주변을 서성이다 겨우 배를 빌려 노를 저어가면서 장도에 다다랐다. 노를 젓는 배를 타고 바닷물결을 가르니 아이들도 신이 났고, 나도 오랜만에 운치를 맞볼 수 있어 정말 좋았다. 배를 젓는 아저씨에게 내가 목적을 볼 수 있냐고 물으니 지금은 물이 차서 어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목적지 있는 자리로 배를 저어 나갔다. 목적지를 찾기 위해 노로 더듬어보고 찾아보았지만 물이 많이 차서 보지 못했다. 정말 아쉬웠다. 우리는 다시 장도 입구로 배를 돌렸다. 약 20분쯤 배를 타고 장도 입구에서 내리니 남문과 우물이 눈에 들어온다. 입구에는 장도 청해진 유적비와 함께 장도유적복원계획도가 나란히 서 있었다.

장보고 유적 복원 및 정비사업은 완도군이 지난 1988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이곳 장좌리와 장도 일대의 복원사업은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복원된 유적지는 토성 745미터, 탐방로 987미터, 사당, 남문, 외문, 고대(高臺) 등이다. 완도군에서는 계속해서 장보고 동상과, 청해진 기념관, 무역선 건조,

사찰 복원 등 청해진 역사공원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장도에서 바라보니 건너편에는 청해진 기념관을 설립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장도와 장좌리를 잇는 나무다리도 설치하여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입구를 지나니 바로 남문이 보이고 앞에는 우물이 있었다. 노를 저어 우리를 장도까지 데려다준 아저씨는 장좌리에서 사시는 분인데 완도군청에서 근무하신다고 한다. 탐방로를 따라 우리를 안내하시면서 장도와 장보고 유적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곳 장도를 복원하기 전에는 주변이 전부 밭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복원계획에 따라 거의 모습이 갖추어져 산책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탐방로를 따라 장도의 정상에 올라가니 장보고 대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사당이 있었다. 이곳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에 제를 올린다고 한다. 이 당제는 장보고 대사와 군사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추모행사인데 이때 행하는 농악은 1차 굿부터 12차 굿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옛날의 군대의 진법 형식을 띠고 있어 군고악(軍鼓樂)이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사당을 뒤로 하고 앞을 바라보니 주변의 경관이 눈앞에 펼쳐진다. 오른쪽으로는 올해 초에 완공된 신지대교 너머로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으며, 사방으로 끝없는 바다가 이어진다.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양질서를 바로잡고, 국제 무역을 주도 하였던 해상왕 장보고를 떠올려 본다. 바다를 지배하여 세계를 호령하는 그의 위용과 포부가 내 마음속에 되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복원사업을 보면서 그동안 역사 속에 묻힌 장보고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였으며 위대한 선조에 대한 자긍심에 나도 모르게 힘이 솟았다.

해상왕 장보고 사업단의 배려로 시작된 나의 장보고 사랑은 올 여름의 무더운 더위를 잊게 하였으며, 잊을 수 없는 2006년 여름방학의 테마가 되었다. 또한 내가 대한민국의 교사라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으며, 내가 배우고 느낀 것들을 우리 아이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중국 장보고 유적 답사에서 명지대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百聞이 不如 一見, 百見이 不如 一行, 百行이 不如 一覺이다.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기행문

보령 미산중학교 양화목

언제부터인가 해상왕 장보고 재단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를 받아보고 있는데, 학교일이 바쁘면 개봉해서 사회교과 교실로 보내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좀 읽어보는 정도였다.

어느 날 큰형님 댁에 갔었는데 큰형님께서 <해신(海神)>을 봐야 한다고 하셨다. 재미있느냐고 물었더니 요즈음 해신 보는 재미로 산다고 하시기에 형님과 함께 드라마를 시청한 적이 있었다. 그 날 이후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신이라는 드라마를 시청하게 되었다. 드라마였지만 나는 해상왕 장보고에 대한 새로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지리를 전공하고 고등학교에만 있다가 중학교로 옮기면서 국사를 접해보았지만 장보고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국사책에 몇 줄 나오는 내용이 고작이었고, 장보고에 대한 큰 관심도 없었다.

우리 교사들은 방학이면 어떤 연수를 받고 어떻게 유익하게 보내나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던 차에 해상왕 장보고 재단의 소식지와 이때 일을 통해 이번 답사를 알게 되었다. 무조건 신청서부터 냈다. 혹시 몰라서 전경련에서 주관하는 비슷한 연수과정에도 신청서를 냈는데 선발되지 못하고 장보고 유적지 답사단에 선발된 것이다. 누구는 서류만 내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주변의 증언은 운이 좋다고 하였다. 특히 이번 답사는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외에도 산동반도의 여러 지역을 둘러볼 수 있어 중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더욱 기대가 되었다. 방학은 시작되고 설렘 속에 답사 출발일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제1일차(8월 4일)

전날 짐은 대충 꾸러 놓았다. 설레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집을 나서 12시 30분 인천행 버스에 몸을 올렸다. 대천해수욕장의 피서객들이 귀경하느라 버스 안은 입주의 여지가 없었다.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주변은 좀 산만했지만 5박 6일간 벌어질 답사 일정을 그려보고, 무엇을 배우고 느끼게 될지 그리고 집과 학교의 여러 일들을 생각하다보니 버스는 인천에 접어들고 있었다.

2시 30분 인천 종합터미널에 내려 시내버스를 타고 집결지인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연안부두)에 정확히 3시 30분에 도착하여 해상왕 장보고 답사단에 합류하였다. 조 편성 및 간단한 출국 수속을 밟은 후 답사단은 5시에 인천-석도행 화동훼리에 승선하였다. 배정받은 4인 1실의 방으로 들어서니 세 분의 선생님들이 이미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계셨다. 통성명과 간단한 자기소개를 했는데 내가 제일 막내였다.

대충 짐을 풀고 샤워를 하고 나니 배는 예정대로 오후 6시에 뱃고동을 울리며 인천항 부두를 출발하였고 곧이어 저녁식사를 안내하는 방송이 나왔다. 2004년 여름에 단동을 통해서 백두산을 다녀온 경험이 있어서 선상 식사는 낯설지 않았다. 꼬리곰탕에 낙지 등 한식이기 때문에 입맛에도 맞고, 저녁 햇살의 은빛 바다를 바라보며 하는 저녁식사는 나름대로 운치가 있었다.

배가 출항한 지 두 시간이 넘어서고 있었지만 주변에 여러 섬들이 보여 아직 우리 영해에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배는 인천에서 산동반도의 석도까지 직선 항로로 가지 않고 인천에서 서남쪽 방향의 남양만을 거쳐 태안반도 북쪽까지 내려와 이곳에서 석도까지 직선 항로로 가고 있었다. 총 400킬로미터의 항로였다. 인천에서 직선 항로를 택하지 않고 남양만 쪽으로 내려온 것은 장보고 선단의 과거 항로를 조금이라도 밝히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예정대로 8시에 선상 세미나가 열렸다. 1, 2, 3호차 각 호차별 답사를 안내해 주실 선생님들의 소개와 간단한 답사 방법 안내 그리고 여행사측의 입국 안내 등 가벼운 세미나였다.

어느덧 날은 어두워지고 바다의 물살을 가르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위성방송을 통해 우리나라 정규방송이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어 객실에서 9시 뉴스를 보며 동료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니 많은 시간이 흘렀다. 밤은 깊어져 가고 다음날을 위해 2층 침대에 올라 재단에서 나누어준 답사 관련 자료집을 대강 훑어보고, 내일 아침이면 도착할 이국 땅 중국의 석도항과 답사 일정을 그려보면서 잠을 청하였다.

제2일차(8월 5일)

빛을 감지하고 눈을 떴다. 중국 시간으로 5시 30분쯤 되었다. 아침 잠을 즐기는 편인데 긴장해서인지 일찍 잠에서 깬 것 같다. 샤워를 하고 짐을 대충 정리하니 아침식사를 안내하는 방송이 나왔다. 얼큰한 김치국과 소시지, 김, 빵 등이 나왔다. 점심부터는 기름기가 많은 중국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욕심껏 아침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하는 중에 배는 석도항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식사 후 갑판으로 나와 보니 안개로 인해 자세히 살필 수는 없었지만 규모가 작은 항구이고 주변에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아직은 잘 정비가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객선으로 바지선이 근접했다가 뱃머리를 돌리는데 엔진 돌리는 힘으로 물이 소용돌이치며 붉은 황톳물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는데 황하에서 흘러내려온 황토가 침전된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선을 준비하느라 사다리차가 설치되고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경찰에 해당하는 공안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9시쯤이 되어서 드디어 하선 안내 방송이 나왔다. 짐을 꾸려 하선을 하고 간단한 입국 절차를 거쳐 석도 여객터미널을 빠져나왔다.

우리는 이미 대기하고 있던 3호차 버스에 올랐다. 우리나라 관광버스만은 못했지만 발받침이 있어 좋았다. 위도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인접해 있으니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폭염이 내리쬘고 있었다. 현지 가이드가 승차하면서 버스는 바로 출발하였다. 가이드는 연변에 살고 있는 조선족 3세로 대학을 졸업하고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인상이 매우 좋았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마친 가이드는 산둥성에 대해 안내해 주었다.

중국 중에서 산둥성에 대한 현지 학습이 시작된 셈이다. 전날 자료집을 통해 대강은 공부했지만 가이드가 북한식 어투로 설명해주니 한결 재미있었다. 산둥성은 중국 전체 면적의 1.6퍼센트밖에 되지 않지만 남한 면적의 1.5배나 되니 중국 땅의 크기를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다. 중국 인구 중 1억 명이 거주하며 그중 우리 조선족과 우리나라 사람 12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산둥성의 자량으로 1산, 1수, 1성인이 있다는데, 1산은 태산이요, 1수는 중국이 어머니라 부르는 황하를 말하고, 1성인이란 바로 공자를 말하였다. 그리고 밀과 옥수수 과일이 많이 생산된단다. 옥수수는 주식용이 아니고 주로 양조 및 사료용으로 쓰인다고 한다. 어느덧 버스는 석도 시내 지역을 벗어나고 있었다.

버스는 끝도 없이 펼쳐지는 평원을 서너 시간 달려 산둥반도 북쪽 해안에 위치한 연태에 들어서고 있었다. 시내로 접어들기 전 자연경관이 수려한 해안 지역을 따라 중국답지 않은 유럽풍의 고급 아파트 단지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다. 최근 개발되는 곳이라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50평 정도의 아파트가 1억 2천만 원 정도 한다니 상당한 부자가 아니고는 입주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 소유가 많고, 가격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려놓았다 하니 웬지 씁쓸하였다.

우리는 시내 한 호텔의 중국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현지식(중국 음식)을 먹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어서 걱정하긴 했지만 늦은 점심에 맥주 한 잔을 곁들인 식사는 맛이 있었다. 구시가지에는 낡고 오래된 유럽풍의 건물들도 눈에 띄었는데 청조에 유럽 열강들이 이곳에 진출하면서 지은 영사관 건물들도 거의 그 모습대로 보존되고 있다고 한다.

점심 후 버스에 올라 봉래로 이동하였다. 연태시의 시민들이 큰 자

랑거리로 삼고 있고, 중국 4대 누각 중의 하나라는 봉래각에 올라 주변 경관을 감상하면서 등주수성이 천혜의 해군 요새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곳 봉래에도 7세기 중반에는 신라인들이 거주하는 신라방, 신라소가 있었다고 하니 장보고 선단이 활동하던 거점의 하나였을 것이다.

이제 우리 답사단은 1차 숙박지인 치박으로 이동해야 한다. 어느덧 해는 서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데 봉래에서 치박까지는 4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한단다. 왕복 4차선의 고속도로는 시원스레 뚫려 있고, 오기는 차량을 거의 볼 수 없으니 버스는 막힘없이 질주하였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끝없이 펼쳐지는 낮은 구릉지 평원에는 온통 옥수수밭과 간간이 사과와 복숭아 과수원이 보일 뿐이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차창 밖으로 한 농부가 소를 몰며 쟁기질을 하고 그 곁에서 한 농부는 쇠스랑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릴 적 우리 농촌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풍경이기에 정겹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저 넓은 들녘의 일을 언제나 마칠 수 있을 것인지 괜한 걱정인 줄 알면서도 걱정이 앞섰다.

저 멀리 오랜만에 산이 보였다. 그런데 웬지 우리가 생각하는 숲이 우거진 그런 산이 아닌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온통 석재 개발로 파헤쳐져 있었다. 우리나라에 값싼 중국산 돌이 많이 수입된다는데 좀 이해가 될 것 같았다.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다. 휴게소 건물도 크고 주차장도 굉장히 넓으려면 우리 답사단 일행과 버스 외에는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휴게소 내부를 들여다보니 손님은 한 명도 없고 가운데 입은 종업원들만 여럿이 옹기종기 모여 한가롭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신기해 보였다. 오히려 휴게소 주차장 한 귀퉁이에 과일 등을 판매

하는 간이매점이 있었는데 그곳이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복숭아 7개에 사과 3개를 우리 돈 1,000원을 주고 샀다. 그리 좋은 상품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맛이 있었다. 버스에 올라 출발하면서 현지가이드가 조금만 가면 치박에 도착한다는데 알고 보니 그게 3시간이란다. 그때가 6시였으니까 적어도 9시는 되어야 도착한다는 말인데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 시간의 개념이 우리와는 매우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끝없이 펼쳐지는 농경지에 농부들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어 궁금했는데, 역시 중국도 젊은이들이 도시에 나가 돈을 벌고 수확기에만 잠시 고향으로 돌아와 일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다고 한다.

9시가 되어서 옛 제나라 수도였다는 치박에 도착하여 제도대주점(濟都大酒店)이란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중국에서는 호텔을 주점이라 하였다. 호텔로 가면서 우리로 말하면 시청 앞을 지났는데 굉장히 넓은 광장에 경기장처럼 라이트를 켜고 인민들이 북적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인민들을 위하여 광장을 크게 만들었고, 인민들은 광장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잠잘 시간에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들은 저녁인데도 유령의 집처럼 거의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상가들은 날이 저물면 대부분 문을 닫는다고 한다. 잠시 호텔을 나와 의사소통 때문에 멀리 가지는 못하고 주변을 돌아보았다. 호텔 주변의 대부분 상가들도 문을 닫고 가게 앞 도로변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삼삼오오 카드나 마작을 즐기고 있었다. 아직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덜 익숙해져서일까? 아니면 대국의 여유만만한 기질 때문일까?

제3일차(8월 6일)

5시 50분에 잠에서 깨었다. 6시 30분에 시작된 아침식사는 입맛에 맞지 않아 대충 때웠다. 오늘은 오후 일정과 바꾸어 오전에 태안으로 이동하여 태산을 오른다고 한다. 2시간 30분여를 가면서 늦었지만 3호차 단원간 자기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사실 자기소개를 하기 전에 좀 서먹했었는데 서로 대하기가 훨씬 편해졌다.

태산 등정은 케이블카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편하긴 했지만 좀 싱거웠다. 날씨도 도움을 주는 것 같지 않았다. 안개가 너무 진하게 끼어 주변을 관망하기가 어려웠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뵈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뵈만 높다 하더라.

중국의 5대 명산 중 제일의 명산으로 꼽는다는 태산은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 높지도 수려하지도 않았다. 산동 지역의 대부분이 산악이 없는 구릉성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1,545미터라는 태산은 물론 우뚝 솟은 높은 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태산의 역사성과 상징성 때문에 오악독존(五岳獨尊)이라 하였을 것이다. 또한 태산은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케이블카에 함께 탑승했던 한 여선생님께서는 일주일 전에 황산을 다녀왔는데 태산을 보니 산이 아닌 것 같다며 황산을 보고나니 눈높이만 높아져 걱정이라 하였다.

노출된 화강암 벽에는 곳곳에 오악독존을 비롯한 수많은 문장들이

붉은 글씨로 새겨져 있고, 그 앞에서 사진촬영을 하느라 북적대고 자리다툼을 하며 먼저 사진을 찍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모습이 이채로웠다. 물론 내용은 좀 다르지만 지난 겨울 금강산에 갔을 때 수려한 암벽에 온통 김일성 부자를 우상화하는 글을 붉은색 글씨로 파 놓은 것과 비슷하여 흥물스러워 보였다.

진시황부터 역대 72명의 황제들이 이 태산에 올라 하늘에 제를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 황제나 오른 것이 아니라 황제로 등극한 이후 덕이 있는 황제만이 허락을 받았고, 아무리 황제라 하여도 태산만큼은 걸어서 올랐다 하니 오늘날 케이블카를 타고 태산을 오르는 모든 사람들은 옛 황제보다도 나은 팔자가 아닌가 싶다.

태산을 내려와 점심을 먹고 우리는 다시 치박으로 이동하여 제나라 역사박물관을 견학하였다. 언젠가 TV에서 축구의 발달사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는데, 오늘날 축구의 기원지가 바로 중국이라는 내용이었다. 제나라 박물관에 축구 놀이와 비슷한 놀이를 하는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가이드 말로는 영국도 인정한다지만 모를 일이다.

우리는 다시 순마갱을 찾았다. 이 대단한 유적지를 찾아가는 길은 옥수수를 심은 평원의 농로길이었고, 주변이 전혀 정비되지 않은 조그마한 시골 마을 안의 농가들 옆에 위치하고 있었다. 나는 순마갱 안으로 들어서면서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다. 모두 발굴된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발굴한 것이라는 그 규모와 내용이 대단하였다. 순마 228필을 저리도 정연하게 순장하였다니 당시 권력자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였을까? 모두 600여 필을 순장하였다니 이는 전차 150여 대를 구성할 수 있는 규모로 당시로서는 대단한 전투력이었고, 주변의 한 나라 전체 전투력과 맞먹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우리는 다시 중국 역사상 영향력 있고, 139세까지 살았다는 전설적 인물인 강태공 사당을 들렀다. 낚시를 하며 기회를 기다리다 주나라 문왕을 만났고,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 제후국 중 가장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나라의 초대왕으로 책봉하였다는 강태공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인물이다.

강태공 사당에 들어 한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광경을 보았다. 강태공의 아들이 〇〇씨 시조라 하여 〇〇씨 종친회에서 사당 안에 오석으로 비석을 세워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의 성씨가 중국에서 넘어온 성씨가 많다는 것은 알지만 중국까지 찾아와 이래야만 되는 것인지 나의 지식이 짧아서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답사단은 치박에서 날이 어두워져서야 유방으로 이동하였다. 버스는 1시간 30여분을 달려 9시에 유방의 숙소에 도착하였다.

제4일차(8월 7일)

아침에 일어나 역사가 유구한 문화도시 유방의 시가지를 내려다보았다. 어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넓게 직선으로 잘 뚫린 도로망과 간간이 오가는 차량들, 재색의 아파트 단지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아침식사 후 우리는 남산으로 이동하여 남산관광풍경지구를 관람하였다. 남산그룹을 세운 송자문이라는 사람은 중앙권력자의 친척이라고 한다. 사회주의 국가도 당연히 줄은 필요하겠지. 남산그룹을 중심으로 한 이 마을은 중국에서 매우 부촌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대학과 병원이 있고, 호텔, 골프장 등 레저단지와 중국 5천 년 역사를 축소한 역사문화지구, 종교문화지구, 공업단지, 거주지역 등으로 이루어진 자급자

족이 가능한 거대한 자치사회라고 한다.

“5천 년이 하루처럼 지나간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중국 5천 년 역사를 축소한 역사문화지구를 불과 몇 시간 동안 주마간산 격으로 관람을 하였다. 이곳에서 ‘외족’의 민속 공연을 잠깐 관람하였는데, 그들의 열정적인 공연은 그동안 어려웠던 답사 여정을 풀어주는 듯하였다. 강인한 구릿빛 피부에 긴 머리를 한 외족은 전통적으로 검게 그을린 구릿빛 피부가 자랑이고 미덕이라 일부러 태운다고 한다. 물론 지금의 외족은 현대 문명에 동화되면서 그럴리아 없겠지만 일생에 목욕을 세 번만 한다고 한다. 태어나서 한 번, 결혼하여 첫날 밤을 치를 때 한 번, 그리고 죽어서 한 번 등 모두 세 번의 목욕을 하는 것이 전통이라는 가이드의 말에 웃음이 절로 나왔다.

남산에서 점심을 먹고 답사단은 영성의 성산두로 출발하였다. 우리 답사단의 처음 출발지 쪽으로 향하는 것이다. 성산두는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며, 우리나라 인천과 제일 가까워 이곳에서 새벽에 닭이 울면 인천에서 들렸다고 하니 그만큼 가깝다는 뜻일 것이다. 당나라의 소정방이 백제를 치기 위해 13만 수군을 거느리고 출발한 곳도 바로 이곳 성산두였다. 그리고 진시황의 불로장생초와 관련된 전설과 함께 중국에서 유일하게 진시황의 사당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영성 시내를 지나면서 시청 광장이 매우 넓다 했는데 가이드에 의하면 북경의 천안문 광장보다 한 평이 작다고 한다. 원래는 천안문 광장보다 컸는데 시장이 그 일로 큰 곤욕을 치르고 한 평 작게 줄였다고 한다. 중국은 땅이 넓고 대국의 기질을 갖고 있는 탓인지 무엇이든 크고 넓었다. 우리는 중국 첫 출발지였던 석도로 향했다. 내일이면 이번 답사의 하이라이트이며 중국에서 장보고 관련 대표적 유적지가 있는

적산포(석도) 지역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제5일차(8월 8일)

답사기간 내내 밤 9시에서 10시경 숙소에 도착하여 아침 6시에 기상하고 조식 후 7시 출발이라는 강행군이었지만 오늘은 제일 여유 있는 아침이었다. 이동 거리가 짧기 때문에 아침식사 시간도 여유가 있었고 식사 후 잠깐 동안 자유 시간도 허락되어 호텔 앞쪽의 바닷가 산책로를 걸었다.

이곳 석도를 적산포라 하는데, 적산(赤山)이라는 말은 호텔 앞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이해가 되었다. 바닷가와 산의 바위들이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 신라인들이 모여 살던 신라방(적산촌)이 있던 곳이고, 중국 내에 가장 대표적인 장보고 관련 유적지가 있는 이곳에서 나는 얼마나 장보고에 대해 알고 돌아갈 수 있을까?

적산 법화원 앞에서 답사단 전체 기념 촬영을 하고, 40여 분간 교수님들로부터 장보고 관련 노상 강의를 들었다. 나는 법화원이 우리나라의 불국사와 같이 오랜 흔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절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원래 법화원 자리에 1988년에 재건하였다니 어디를 둘러보아도 오래된 냄새가 나는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곳 어느 수산물그룹의 회장이 미화 2000만 불을 들여 만들었다는 거대한 장보고 대사의 좌상이 있는 곳으로 올랐다.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좀 과장하면 그 산만한 크기의 장보고 대사 좌상이 그 옛날 그가 선단을 이끌고 누볐을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내려다보이는 적산포는 누가 보아도 천연의 항구요, 무역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자연 조건을 갖

추고 있었다.

내려오면서 답사의 마지막 코스인 장보고 기념관 및 기념탑을 관람하였다. 기념관의 전시관을 두루 살피면서 장보고를 새삼 다시 알게 되었고, 저 조그만 범선으로 험난한 바닷길을 누빈 당시의 신라인들의 기상도 느껴보았다. 지금의 황해도 벽란도에서 이곳 산동반도까지 직선 항로로 약 200킬로미터의 바닷길이 당시의 범선으로 얼마나 걸렸겠느냐라는 질문에 일주일쯤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틀 정도 걸렸다는 말에 당시 당나라와 신라 간의 문물 교류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음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알고 있는 장보고는 어려서부터 무예가 뛰어났고, 당으로 건너가 무령군의 군중소장에까지 올랐으며, 흥덕왕 때 신라로 돌아와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한·중·일 간 해상무역을 독점하였던 해상무역의 왕이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장보고를 출세를 위해 신라에서 당으로 불법으로 이민 온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가이드의 말에 요즘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이 매우 우려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한·중 우호나 친선을 앞세우고, 한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해 표면적으로는 내세우지 못하고 있겠지만 머지않아 장보고가 중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들의 역사라 우겨댈지 모를 일이다. 물론 당연히 이러한 나의 걱정이 기우로 끝나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 연구와 인식에 자성은 물론 앞으로 정부, 학계,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번 답사를 통해 얻고 나뉠대로 생각하게 된 장보고와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학생들이 갖도록 미력이나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모든 답사 일정을 마치고 답사단은 중식 후 귀국을 위해 석도항으

로 왔다. 그동안 현지 안내를 친절히 해주었던 가이드가 작별 인사를 하며 우리들에게 부탁이라며 한 말이 찡하니 가슴에 와 닿았다. 그는 중국보다 잘 살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들의 위신이 서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도 분명 우리와 같은 피가 흐르는 한민족이었다. 나는 진정 그들이 잘되길 빌었다.

중국에 들어갈 때보다는 훨씬 간편한 수속을 밟고 배에 올랐다. 배에서 중국 답사의 먼지와 땀을 씻어내고 저녁식사를 마쳤는데도 배는 떠나질 않다가 어두워져서야 뱃고동이 울렸다. 객실에서 그동안 함께 하면서 정들었던 8조 선생님들끼리 뒤풀이 겸 답사 결산을 하였다.

밤은 깊어가고 갑판에 나가보니 답사가 끝났다는 아쉬움인지, 집에 간다는 설렘 때문인지 잠을 못 이루는 선생님들이 많았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았다. 보름달이 비친 은빛 바닷길과 여객선이 갈라놓은 은빛 바닷길이 조화를 이루어 깊은 밤의 서해는 아름다웠다. 그 옛날 장보고의 선단도 저 달빛을 동무삼아 이 바닷길을 누볐을 것이다.

제6일차(8월 9일)

예정보다 1시간쯤 늦게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여객터미널을 빠져나왔다.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분들과 아쉬움을 나누며 해상왕 장보고 답사단도 해산을 하였다. 배에서 왕복 2박을 하면서 같은 방을 썼던 선배 선생님들로부터 인생과 교직 경험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내게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재산이었고, 마지막 날 저녁 객실에서 8조 선생님들과의 답사 결산은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좋은 기회를 주신 재단 및 정부, 언론사 관계자 그리고 동행하면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과 현지가이드, 여행사 관계자 등 이번 답사에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투자한 만큼 몇 배의 성과가 있으리라 확신한다.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기행문

거제 제일고등학교 박선주

들어가며

매달 정기적으로 학교에 배달되는 해상왕 장보고 우편물을 우연히 읽다가 여름방학을 맞이해 교사를 대상으로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단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날짜를 보니 아직 시간이 남아 꼭 가보고 싶다는 의지만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교직생활 3년차인 나는 작년에 처음 이런 행사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실감하며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선발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 신청하기도 전에 팩스 폭주로 신청마감일 하루 전날부터 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올해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도 꼭 되리라는 기대는 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상 외로 운 좋게 답사단에 선발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다.

답사단에 선발된 후로 ‘장보고’란 인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누구이길래 미래인들이 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또 교사들을 대상으로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보내주는 것일까?

일반 사람들에게 ‘장보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얼마 전에 종영된 최수종, 채시라, 송일국 등의 배우들이 주연한 드라마 〈해신〉일 것이다. 역사교사인 나는 ‘장고보’란 인물을 역사서적 및 교과서를 통해 많이 접했고 그래서 잘 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역사교사인 내가 알고 있는 ‘장보고’는 그저 교과서에 기록되어 내가 과거에 배우고, 지금 교사의 위치에서 가르치는 그대로였다. 통일신라시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중국, 일본과의 해상무역을 주도했으며 골칫거리였던 해적을 소탕했다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다. 좀 더 나가면 결국엔 자신의 딸을 왕비로 세우려다 쿠데타를 계획했고 그것의 실패로 부하에게 살해된 불운한 장군 정도로 알고 있었다.

나는 이 답사를 떠나는 첫날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장보고’가 역사적 인물 ‘장보고’의 전부 아니 교사로서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부끄러운 생각을 이번 답사를 통해 바꾸게 되었다. 역사 인물 장보고에 대한 사고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이번 중국 유적지 답사. 그 답사의 과정과 느낌을 가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이 글을 적는다.

8월 11일 첫째 날(화동해리에서)

거제에 근무하는 나는 어젯밤부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진주로 내려

와 쉬지도 못하고 또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며 인천으로 향하는 고속 버스에 몸을 실었다. 다행히 이웃 통영고에 근무하시는 대학선배와 동행하게 되어 모르는 길이지만 마음 편히 즐기면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은 흐르고 그 사이 인천에 도착한 우리는 무거운 짐을 끌며 다시 택시로 인천 국제터미널까지 갔다. 얼마나 부지런을 떨었는지 아직 약속시간은 2시간이나 넘게 남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슷한 가방과 모자와 종이봉투를 든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모두들 그 부푼 가방속에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차곡차곡 채워 넣고 왔을 것이다. 아직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5박 6일 동행에 서먹하긴 하지만 나 역시 이번 답사가 너무나 기대된다. 괜히 금방 친해질 것 같은 정겨워 보이는 이 사람들과의 여행.

오래 기다린 지루함 끝에 드디어 배에 올라 짐을 풀고 같은 방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얼굴을 익혔다. 그리고 저녁식사 전 갑판위로 올라가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지는 태양과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사이로 사진을 찍으며 해지는 풍경을 감상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장보고를 떠올렸다. 그는 과연 그 옛날 이 망망대해를 어떻게 오고 갔을까? 그리고 이 바다를 건너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시 그 옛날의 장보고가 되어 본다.

저녁식사 후 식당에 모여 이번 답사의 취지와 '장보고의 업적과 바다를 중심으로 본 한반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둘러볼 중국 유적지, 그리고 장보고관 인물에 대한 기대감, 설렘을 더욱 고조시키며 약간의 긴장감마저 느끼게 해주었다.

다시 갑판으로 나가 우리를 태운 배가 고요한 밤바다를 조용히 가

로질러 중국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선실로 돌아와 잠을 청했다. 모두가 건강하고 알찬 답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8월 12일 둘째 날

(석도항—연태시—봉래(봉래각, 등주수성)—치박)

어젯밤부터 달린 배는 오늘 아침 10시나 되어서 우리를 중국 석도에 내려놓았다. 석도에서 버스를 타고 현지가이드의 설명과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4시간의 대장정을 시작하였다. 우리가 5일 동안 둘러볼 산동성은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며 한반도와 인연이 깊어 우리나라 화교 대부분이 산동성 사람들이라고 한다. 넓이는 남한의 약 1.5배,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외래문화의 수용이 빠른 곳이다.

2시간을 달려 와인공장이 유명하며 수출업이 성행하고 있는 연태시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중국식 점심을 먹고 다시 2시간을 이동해 첫 유적지인 봉래에 도착했다. 봉래는 운송업이 발달하고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깨끗한 이미지의 도시라 한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고 또 일거리가 많아 돈을 벌기가 쉽다는 곳이다. 더구나 봉래는 한국과 거리가 가까워 교류가 잦은 곳이라고 하니 왠지 더 친근감이 가는 도시이다.

버스에 내려 처음 본 것은 봉래각과 등주수성이었다. 송 때 지은 건물과 최근의 시멘트 건물과의 복합구조인 봉래각은 안에 누각, 불상, 사원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성벽을 따라 계단이 시작되고 대해원이 펼쳐지며 동쪽으로 수성이 있다. 이곳에는 소동파가 5일 동안 머물러

소동파의 사당도 존재한다고 한다.

해변가에 위치한 등주수성은 침입자들이 스스로 무기를 버리고 붓을 들어 시를 지을 만큼 주변의 경관이 수려했다. 해안 절벽 위에 우뚝 솟아 있되 거만하지 않으며, 성벽을 두르되 고집스럽지 않은 등주수성. 이곳이 여러 차례 전쟁에 휩싸인 접전지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다음은 등주 고선박물관을 둘러보았다. 이 박물관은 1988년 7월부터 건축하여 1990년에 완공되었으며 통석선조각과 봉래 원나라 전선이 전시되어 있었다. 어쩌면 박물관이 안내인도 보이지 않고 먼지에 퀘퀘한 냄새까지 나 우리나라의 깨끗하고 잘 정리된 박물관과 비교가 되었다.

다시 치박으로 가는 길은 가도가도 끝없는 넓은 들판뿐이다. 옥수수 밭이 끝없이 이어진 국도를 지나고 과거 사회주의 국가임을 느낄 수 있는 붉은 지붕의 집과 공장들이 많은 소도시들을 지나 4시간여 차를 타고 가면서 ‘장보고의 생애와 업적에 관한’ 인솔 교수님의 강의도 들었다. 성격 급한 3호차 기사의 능숙한 운전으로 가장 먼저 숙소에 도착해 저녁식사를 마치고 호텔에서 지친 몸을 달랬다.

8월 13일 셋째 날

(태산 등정-강태공 사당, 제나라 역사박물관, 제경궁 순마궐)

평소보다 이른 아침에 깨어 식사를 마치고 바빠 버스에 몸을 실었다. 7시도 안 되어 출발해 2시간 30분 정도 달려 중국 5대 명산 중 으뜸인 태산에 도착했다. 과연 명성만큼이나 여행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사람들에게 떠밀려 다닐 정도였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피이로다.’ 시조로만 읽던 바로 그 태산. 태산은 예부터 황제가 봉선이란 의식을 통해 만민 앞에 공식적인 그리고 정통성의 계보를 잇는 통치를 공표하는 예식을 이어왔다. 지금은 케이블카를 타고 쉽게 정상에 오를 수 있지만, 그 옛날 술한 백성들이 피땀 흘려 이곳까지 황제를 모시고 와서 치렀을 의식을 생각하니 백성의 통한과 한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었다.

높이는 1,545미터로 이름처럼 거대한 규모에 장엄한 경관을 자랑하는 산은 아니었으나, 곳곳에서 명승고적과 비문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역사적 가치가 높고 골의 생김생김이 아름다워 가히 태산이라 불릴만한 산이었다. 태산의 경관은 계곡, 폭포 등 우리나라의 산과 비슷하였으나 아름다움과 규모가 설악산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의 많은 높고 아름다운 산보다 태산이 유명한 것은 태산을 한 번 오르면 10년 젊어진다는 말이 있고 또 많은 황제들이 제를 지내러 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태산의 꼭대기에는 진시황이 제사를 지냈다는 조그만 절이 있었다. 안개에 휘감긴 절과 비문들 그리고 태산이 더 신비스럽게 느껴졌다.

오락지존인 태산 아래서 점심을 해결하고 다시 버스로 이동해 제나라 수도였던 임치로 향했다. 2시간 남짓 걸려 도착한 곳은 제나라 역사박물관이었다. 이곳은 고성의 대성과 소성이 맞물리는 특수한 모양으로 쌓여 있었다. 또 푸른 벽돌로 지어 옛 성곽을 떠올리게 하는 외관이었다. 내부에는 제나라 시대의 토기, 동전, 갑옷 등이 진열되어 제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기술, 군사와 민속을 소개해 주고 있었다. 그중 축구하는 인형 전시는 축구의 본고장이 영국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이곳 중국 임치가 축구의 본고장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다. 실제로 가이드의 설명과 자료를 보니 중국에서 최초로 축구경기가 시작되었다는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백열전등에 에어컨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어둡고 무더운 박물관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쾌적하고 엄숙한 건물과 너무 비교된다.

이쉬움을 뒤로 하며 이동한 곳은 근처에 있는 제경궁 순마궐이었다. 이곳은 제경궁이 말을 좋아해 전쟁에 사용한 말 600필을 순장한 유적지이다. 600필은 마차 150대를 끌 수 있는 것이므로 당시 제후국의 힘과 강성함을 엿볼 수 있다. 순장된 순마는 두 줄로 나란한 형태로 병렬시켜 머리를 바깥쪽으로 옆으로 누운 자세로 매장하였다. 이렇게 많은 말을 순장한 것을 보면 제경궁이 말을 좋아한 탓도 있겠지만 제나라 국력의 강성함을 느낄 수 있고 수백 마리의 말을 생매장한 비정한 권력자의 오만과 사치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인간의 잔인함을 느껴졌다.

오늘 마지막 답사지는 낙시를 즐겼다는 강태공 사당이었다. 2500년 전 주나라가 천하통일을 할 때 주왕을 도와 큰 공을 세운 강태공을 제나라 초대왕으로 책봉하여 치박시의 땅을 주었다. 제나라 초대왕을 기념하기 위해 강태공이 썼던 모자와 옷을 옛 제나라 수도인 오늘날의 치박에 묻었는데, 이것이 의관총이다. 이곳의 앞면에 강태공 사당을 만들었다.

시절이 어수선하여 낙시를 하며 때를 기다렸다는 준비된 인재 강태공. 꽃도 피는 시기가 다 다르듯 사람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시기가 다른 것이다. 시기가 언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기회로 이용하기 위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더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강태공 사당을 빠져나왔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유적지를 둘러본 우리는 땀으로 흠뻑 젖은 몸

을 이끌고 2시간 30분 남짓 이동해 숙소가 있는 유방으로 와 부화호텔에 짐을 풀었다. 이곳 유방은 과거 춘추전국시대 유적, 유물이 잔존한 역사적 도시이며 연으로 유명한 곳이다. 강행군의 답사 일정이지만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에 기뻐 여행이 즐겁고 피곤한 줄 모른다.

8월 14일 넷째 날

(남산-영성 성산두-석도)

여행으로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가 호텔 조식을 푸짐하게 챙겨 먹고 오늘의 첫 유적지로 향했다. 버스에서 장보고와 관련된 영상물을 한 편 보고 남은 시간 잠을 청하며 3시간을 달려 남산에 도착했다. 우리가 둘러볼 남산관광풍경지구는 연태 유구시 관할로 남산그룹을 중심으로 한 마을이고, 내부적으로 각종 생활기능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 의식주뿐만 아니라 대학교와 대형공장, 병원 등 자급자족이 가능한 신사회주의 사회이다. 단지 안에는 호텔, 골프장,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한 레저단지와 중화 5천 년 역사를 축소한 역사문화지구, 남산대불과 불교박물관, 도교사원을 포함한 종교문화지구, 공업단지, 거주지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많은 시설 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남산대불. 높이와 무게만으로도 세계 최대의 좌불 동상임이 느껴진다. 동상에 다다르기 위해 오른 360개의 계단은 불교의 신비스러움과 함께 부단한 수양과 참선을 통한 깨달음의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이 대불상 밑에는 만불동, 불교 역사박물관 등으로 장식되어 경관

을 이루고 만천에는 9,999개의 작은 불상과 남산대불상을 합쳐서 만불전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넓은 땅을 가진 중국 사람들이라 그런지 유물이나 유적지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 크기에 관계없이 섬세하고 정교하며 우아한 유물, 유적지의 아름다움이 아쉽다.

중화역사문화원을 둘러보기 전 중국 운남 지방의 소수민족인 와족의 공연을 잠시 관람했다. 원시사회의 관습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와족은 검은 피부의 얼굴이 미의 상징임을 말해주듯 검게 그을린 피부의 얼굴을 하고 전통 춤과 노래를 들려주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들의 열정적인 공연에 놀라움과 함께 박수를 보내며 중화역사문화원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중국 역대 왕조의 문화와 발전상을 순서대로 모두 볼 수 있는 중국에서 유일한 곳이다. 시대마다 특징이 다른 중국 왕조의 건축을 많은 역사 문화 자료를 토대로, 5천여 년의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표현해 놓았으며, 역사와 길상 및 민속, 음식과 시장문화의 결합을 유구한 중화문명과 다양한 민족문화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방대한 규모의 문화원을 통해 살아있는 중국의 5천 년 역사를 불과 하루 만에 느낄 수 있으며, 중화민족의 역사 발전과 역사적 인물 등의 중국문명을 체험할 수 있었다. 정말 중국의 '5천 년이 하루처럼 지나간다.'는 말이 실감나는 곳이었다.

긴 중국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것은 피상적인 중국 역사 파악이 아닐까 생각한다.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진정한 5천 년의 역사와 각 왕조의 특징 있는 역사 파악을 위한 유물의 전시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점심을 먹고 달려간 곳은 영성시였다. 그곳에서는 성산두와 진시황 사당이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중국의 희망봉'이라 불리는 성산두는 탁 트인 바다와 넓은 하늘, 깎아지른 듯한 절벽 바위 등이 적절히 어울려 화려한 경관을 뽐내고 있었다. 그것은 무더위와 피로에 지친 몸을 달래주는 탄산음료 같은 느낌이었다. 이 지역은 동방의 해상으로 진출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우리와는 백제 정벌군 소정방의 13만 수군이 출발한 항구이고 청일 갑오 전쟁의 황해대전도 성산두의 동쪽 해상에서 벌어진 인연이 있다고 한다. 바다 건너 멀리 동쪽에는 진시황이 그리도 원하던 불로초가 있을 것임을 한 신하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모습으로 된 동상이 있었다. 진시황이 두 번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는 이곳의 아름다움과 힘에 반해, 이곳이 영생의 비밀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한다.

다시 첫 출발지인 석도에 도착해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석도호텔에서 보냈다. 동아일보에서 제공한 맛있는 호텔 저녁식사와 흥겨운 노랫소리에 아쉬운 마지막 날 밤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다. 방으로 돌아와 장보고를 좀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내일을 기다리며 잠이 들었다.

8월 15일 다섯째 날

(적산 법화원, 장보고 기념관, 장보고 기념탑—석도항)

중국에서의 마지막 유적지 답사라 그런지 평소보다 늦은 아침을 먹고 여유를 부리며 우리가 도착한 곳은 적산 법화원, 장보고 기념관이었다.

적산 법화원은 산동성 영성시 석도진 적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

며, 신라인 장보고가 지었다고 전해진다. 무예가 능하고 전쟁에 용감하였기에 그는 당시 산동성 서주 절도사 휘하 주력부대 무령군의 군중소장으로 있었다. 흥덕왕 3년에 신라로 귀국해 청해진을 설치하고 대사를 봉해 받음으로써 한·중·일 삼국의 해상무역을 독점하고 한·중·일 간의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하여 해상무역왕으로 불렸다. 그는 해상운송사업이 번영하기를 기원하면서 적산에 불교사찰을 짓고 많은 스님들을 모셔와 《법화경》을 읽어 ‘적산 법화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적산 법화원에는 당시 신라방에 머물던 재당 신라인들이 자주 찾아와 신라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였다. 당나라에서 뿔뿔이 흩어진 신라인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의 힘을 결집시키는 매개 역할을 한 것이다. 더구나 신라인의 정체성을 확립한 곳이기도 하며 안전한 해상무역을 기원하는 해상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한 곳이다. 적산 법화원 한가운데 서서 통일신라시대 재당 신라인들과 장보고의 숨결을 느껴본다.

838년 일본스님 엔닌 대사 일행은 건당사로 입당하여 법화원에서 3년 가까이 묵으면서 장보고에게 많은 신세를 졌다. 엔닌은 《입당구법순례행기》란 여행기를 썼는데 여기에 법화원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귀국한 뒤에도 엔닌은 적산 법화원의 은혜를 잊지 못해 일본 교토의 소야산에 ‘적산선원’을 세웠다.

한국과 일본의 ‘장보고’에 대한 인식 차이를 실감하며 무더위를 식혀줄 분수 쇼를 구경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인공비를 시원하게 만끽했다. 그리고 다시 장보고 기념관으로 발걸음을 옮겨 장보고와 관련된 사진자료, 유물 등을 한글로 쓰인 설명과 함께 관람했다. 그곳을 둘러보니 장보고의 활동과 업적을 충분히 잘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보고 기념탑을 구경하러 갔다. 이 탑은 장보고 대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탑의 설계가 특이할 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의 친선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한다. 또한 ‘장보고 기념탑’ 여섯 글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라고 한다. 탑의 의미처럼 한국·중국과의 정치·경제·문화 협력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유적지를 벗어났다.

오락가락 내리는 비를 사이로 우리는 다시 석도항으로 와 인천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중국 땅에 도착해서 느꼈던 설렘, 기대감은 이제 잠시 떠났던 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기억된 장보고에 대한 이미지도 변해 있었다. 선실에서 함께 했던 선생님들과 중국 유적지 답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5박 6일의 여행을 정리하고 이제 편한 마음으로 고단한 몸을 선실 침대에 의지하며 잠을 청했다.

나오면서

5박 6일의 힘들었지만 알찬 답사. 이 답사로 내가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천천히 생각해 보니 짧고 촉박한 일정이었지만 그 속에서 얻고 배운 것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선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의 이름에 걸맞게 ‘장보고’란 인물에 대해 재평가하고 인식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답사를 떠나기 전 내가 생각한 장보고의 이미지는 ‘완도, 청해진, 해적소탕, 중국 일본과의 무역 활동, 쿠데타, 염장에 의해 피살당한 장군’ 정도였다. 그러나 답사 후 내가 떠올리는 장보고는 ‘바다 개척의

영웅, 개척자, 무역왕, 재당 신라인들을 하나로 결집시킨 정신적 지도자'이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1200여 년 전 골품제 신분사회인 통일신라시대 변방의 섬에서 이름도 올릴 수 없는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 황해와 남해, 동중국해 등 동북아 해상권을 장악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 세계 해상권을 모두 장악한 것이나 진배없는 위업을 달성한 셈이다.

그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세계인이라 평가할 수 있다. 국경을 초월하여 중국·신라·일본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은 위대한 무역왕으로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세계화의 거센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데 모범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또한 그는 미래주의자로 바다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일찍 깨달았고, 바다를 번영의 터전으로 만드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런 장보고가 우리나라에선 낮게 평가되고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반면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과 중국에서는 오히려 '해상상업제국의 무역왕'으로 칭송되며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큰 사회적 문제로 다루며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역사 인물인 '장보고'에 대해 역사 왜곡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장보고는 당시 바다의 혼란상으로 고통 받는 동북아 백성들과 상인들이 염원하던 강력한 해상 관리자로 나섬으로써 기회를 선점하고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동북아 경제질서를 주체적으로 형성하였고 우리가 현재 주장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실천으로 보여준 세계인이다.

또한 청해진을 해상무역센터로 만들어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켰다. 무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해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시도하였

고, 단순히 무역뿐 아니라 종합상사이자 다국적기업 마인드를 갖고 활동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대륙과 일본 등 각지에 흩어져 있던 한민족을 규합해 신라의 상업과 무역발전에 활용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는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이 단합해 민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렇게 보면 당시 신라정부가 하지 못한 일들을 장보고란 한 개인이 이루어낸 것이다. 그의 업적과 공에 박수를 보내며 역사교사로서 그의 활동과 사상을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

이 답사를 통해 얻은 두 번째는 전국에 역사와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인연을 맺은 것이다. 교수님과 가이드의 설명을 귀담아 듣고 유적지마다 하나라도 놓칠까 꼼꼼히 메모하며 글로 남기는 모습에서 그들의 가슴속에 있는 열정을 느꼈다. 그런 그들의 모습들이 가장 아름다워 보였고, 또 잠시 게을러지려는 나를 긴장하게 만들기도 했다. 우연으로 엮힌 4차 답사단 100여 명의 5박 6일 만남이 가슴속에 오래오래 간직되며 서로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다른 중국인들의 생활모습을 통해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웠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문화·사회에 대해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정신적, 물질적으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중국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크고 많은 것에서보다 작은 것과 적은 것 속에 있다. 크고 많은 것만을 원하면 그 욕망을 채울 길이 없다. 작은 것과 적은 것 속에 삶의 향기인 아름다움과 고마움이 스며 있다. 중국이란 낯선 이국땅으로의

여행에서 그들의 잔잔한 삶과 생활방식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생각
만을 가슴에 담아 앞으로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로 꽃 피우고 싶다. 장
보고라는 이름 석 자로 많은 것을 떠올릴 수 있는 나는 참 행복한 사람
이란 것을 깨달으며 이 글을 마친다.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기행문

청주 기경초등학교 김옥분

제1일

일 년 전부터 준비해 오던 나는 마지막 날에 숨차게 지원을 했고, 연
수가 끝난 다음날 정신없이 고속버스를 탔다. 마침 터미널에서 초면
의 두 분 선생님을 만나자 답사가 실감이 났으며, 동행한다는 안정된
마음이 들었다. 가장 편안한 의복과 소지품을 간단히 챙겨 인천항을
처음으로 향하는 마음은 마치 장보고가 당나라를 가는 듯 생소하기만
하였다.

1200년 전 동아시아 해상을 주도한 해상왕 장보고의 숭고한 개척정
신과 업적을 직접 체험하여 학교현장에서 그 가치와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여야 할 의무감이 절실하였다. 왜냐하면 지금의 교육현
장에서 남겨야 할 족적은 있어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과 무엇이 그것
을 실천할 것인가 생각을 거듭하던 차였기 때문이다.

뱃고동을 들으면서, 장보고에 비하면 너무도 화려한 출항이지만 출렁이는 바닷물을 바라보며 무역선을 타고 있었다. 선상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유적지 답사는 더욱 실감이 났다.

제2일

생각보다 초라한 석도항은 찌는 무더위가 숨통을 막는 것 같았고, 신기한 풍경이 흥미롭기만 하였다. 연태를 향하는 동안 넓게 펼쳐진 옥수수 밭을 보는 마음이 바닷물처럼 출렁거렸고, 빨간 지붕의 민가를 보면서 조금은 어색한 모습의 농촌을 느꼈다. 편안한 도로에는 자동차가 이따금 지나갔고, 그런데도 속력을 내지 않는 운전습씨와 차선이 없는 것이 신기하였다.

항해와 발해를 동시에 접하고 있다는 연태시는 예로부터 문인과 시인 그리고 이역 상인들로 향수에 젖게 하였다고 했다. 사과를 비롯한 과일이 많이 나는 곳이며 쿤위산의 구름과 해안 절벽의 붉은색은 절경이라고 하였다. 한편 명과 청나라의 건물과 도교 성지 그리고 고궁이라 불리는 ‘모씨정원’이 있고, 연태산에 ‘세계 건축의 진열장’ 등이 어우러져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관광도시라 하였다.

2시간 30분 만에 도착하여 맞이한 점심식탁은 거부감 없이 모두 만족한 모습이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봉래로 가서 봉래각과 등주수성 그리고 고선박물관을 견학하였다. 산둥성은 중국 동부로 뻗어 있고 총면적이 약 15만 킬로미터로 중국의 1.6퍼센트를 그리고 남한의 대략 1.5배에 달한다고 한다. 하천과 호수가 많고 밀농사를 주로 하며 지하자원도 풍부하며 고온다습하다고 한다. 태양은 머리 위에

화롯불을 달구듯 화끈거리 걸어가는 발길이 더디기만 하였다. 만약 이대로 날씨가 계속된다면 지칠 것만 같았다.

봉래는 옛날 신선들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으며 한무제가 이곳에 와서 신선산을 보려고 했으나 보이지 않았고 경치가 수려한 이곳을 ‘봉래’라고 명하여 지금도 그 이름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봉래각은 송나라 때 건축된 여조전, 삼청전, 봉래각, 천후궁 등 6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큰 자랑거리로 여긴다고 한다. 천후궁(천후궁전)은 중국 북방에서 제일 큰 전후사당의 하나이며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신선들이 주연을 베풀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이누각에 오르니 마음이 탁 트이고 마치 신선이 된 기분이 들 정도였다.

한편 등주수성은 고조선과도 교역을 하였으며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칠 때 수군을 파견한 곳으로 고구려와 수, 그리고 당나라가 동아시아 종주권 때문에 전쟁을 벌여 이 일대를 발전시켰다. 732년에는 발해의 장군 장문휴가 수군으로 공격하여 점령하고 자사인 위주를 죽이기도 한 곳이며, 이정기 세력이 장악하면서 발해와 신라교역을 관장한 곳이기도 하다. 신라의 건당사가 30여 차례 등주를 거쳐 장안으로 갔기에 7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봉래에는 많은 신라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곳을 ‘신라방’이라 하였고 접대했던 여관을 ‘신라관’ 또한 무역기관을 ‘신라소’라 하였다고 하니 많은 신라인들이 이곳에 살았던 것 같다. 사서에 의하면 남쪽의 호주, 양주, 명주까지 갈 수 있었는데 사실은 군사, 정치, 교통의 요새였던 것이 틀림이 없었다. 마치 옛 선인의 동네에 온 것 같아 푸근하기만 하였다. 녹색의 나무와 봉래각, 등주수성과 해변 풍경이 세월을 넘어 지금껏 기다려 준 신라인 채취가 콧등을 찡하게 하였다.

제3일

여행을 자주 다녔다는 롬메이트가 눈만 감으면 어디서나 깊은 잠에 빠져서 너무 부럽기만 하였다. 온 밤을 뒤척이며 장보고를 만나려고 애를 쓰다가 중국에서의 아침 햇살을 보았다. 넓고 직선으로 뻗어 시원한 도로며, 주변의 나무들이 있어 몇 시간의 이동이 지루하지는 않았고, 현지 교민 3세인 가이드의 안내도 재미있었다.

중국의 산동성 중부에 위치한 태안은 인구가 530만 명이며 화하(華夏)문명의 발상지로 50만 년 전부터 유인류가 생존하는 역사상 중요한 지역이다. 이곳의 태산은 5대 명산 중 제일이며, 과학기술의 연구 도시로 농업대학, 산동기술대학, 태산의대 등이 유명하다고 한다. 옥수수, 밀, 땅콩, 대마, 사과, 대추 등을 생산한다. 중국의 오악(五岳) 중 동악(東岳)인 산동성의 태산은 서악인 섬서성의 화산(華山), 중악인 하남성의 숭산(崇山), 남악인 호남성의 형산, 북악인 산서성의 향산 중 '오악지장(五岳之長)', '오악독존(五岳獨尊)'이라 하여 천하제일의 명산이다. 이유는 제왕이 이곳에서 하늘에 뜻을 받는 봉선(封禪)이라는 의식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태산의 경치는 산수가 어우러져 고찰이 즐비하고, 녹음이 짙어 가는 곳마다 절경을 이루고, 비록 지세는 평탄하나 경치는 매우 빼어나고, 수풀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하고, 계곡은 깊고 녹음이 짙다 하여 다섯 가지로 나눈다고 한다. 높이가 해발 1,545미터로 가는 곳마다 돌비석과 옛 유적 그리고 종묘 등이 있어 볼 것이 많은 국립공원으로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자연문화유산이라고 한다. 진시황으로부터 한의 무제, 당의 현종 등 역대 군주들은 황제로 등극한 뒤에는 꼭 태산에 올라 제사를 지내면서 하늘에 알렸다고 한다. 백성들에게도 신령스럽게 여겨

져서 이 산을 한 번 오르면 지상에서 10년을 장수할 수 있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여 누구든지 태산 등정이 소원이었다고 한다. 우리도 장수의 소원을 빌어보며, 해상왕 장보고가 태산에 올랐을까 생각하였다.

그는 국제질서의 선구자이며, 바다의 혼란으로 고통 받는 동북아 백성들과 상인들이 바라던 강력한 해상의 관리자로 나서서 기회를 선점하고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업적을 남겼다. 그리고 동북아 해상의 안전이 보장되고, 무역발전이 가능하여서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중국이 모두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미 1200년 전에 실천한 글로벌 재상인 것이었다. 꿈을 다 이루지 못한 죽음에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다.

중국 역사상 영향력 있는 인물인 강태공은 짧은 기간 내에 제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방을 굳건히 하고 중국 최초로 병법(兵法)을 만들고, 어린 성왕을 도와 반란을 진압하고 선두에 나서서 물을 다스리면서 제나라에 시조가 되고 주나라의 스승이 될 만한 역사적 인물로 139세까지 살았다.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의 장보고가 강태공처럼 장수하였다면 우리의 역사를 새로 썼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았다.

제나라 역사박물관은 옛 성곽을 느끼게 하며, 다섯 개의 진열실에서 조각, 모형, 사진을 관람할 수 있었고, 제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민속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제경공 순마갱에서는 전쟁 시 사용하던 전차와 말의 순장, 제나라 국력의 명성과 통치계급의 사치함을 볼 수 있었다.

유방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는 피곤한 답사단이 잠들고 있었다. 유방시는 '연의 고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연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10년 동안은 전 시내를 관광지로 만들어 다른 도시의 모범이 된 곳이라고 한다.

제4일

통일신라 790년경 장보고는 완도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활을 잘 쏘서 활보 또는 궁복, 궁과(弓巴)로 불렸는데 810년에 친구와 함께 청운의 꿈을 가지고 당나라로 건너갔다. 무예를 배워 30세에 무령군소장의 벼슬에 올랐다고 한다. 당시 신라는 왕권투쟁으로 질서가 어지럽고 신라 근해에 해적이 자주 출몰하여 백성들의 피해가 아주 심하였다. 828년 귀국한 장보고는 지금의 완도인 청해진에 본거지를 두고 해양개척을 하고 대사로 임명되었다. 신라의 흥덕왕은 장보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군사 1만 명을 내주고 장보고는 당나라와 신라 그리고 일본을 잇는 삼각무역을 개척하였다고 한다.

1,322,000평방미터 면적의 종교문화단지가 조성된 남산을 오르면서, 장보고 좌상이 진도를 중심으로 조성되었더라면 하는 통한이 계단을 밟을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였다. 사십여 미터에 달하는 높이와 38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좌상 동상으로 이 대불상 밑에는 만불동, 불교역사박물관으로 장식되어 있고, 만불전에는 9,999개의 작은 금불상이 있어 남산대불상과 함께 만불상이라 불리었다. 남산은 잘 정비된 도로와 주거시설, 관광시설 등이 중국 내 다른 지역과는 달리 깨끗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가진 별천지라고 한다.

중국 역대 왕조의 문화와 발전 모습을 순서대로 모두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인 중국 역사문화원을 찾았다. 시대마다 다른 건축과 500년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알아볼 수 있었지만, 짧은 시간에 본다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산두로 향하였다.

성산두는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중국의 희망봉'이라 불렸고, 군사요충지로 백제를 차지하기 위하여 소정방이

15만의 수군을 거느리고 출항한 항구라고 하니 웬지 씩씩한 바다냄새가 나는 듯하였다. 중국 유일의 진시황 사당이 있고, 진시황의 불노장 생초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도사 서복선단이 진시황의 불로초를 구하려고 제주도까지 왔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하니 웃음이 저절로 나왔다. 저녁노을을 보면서, 진시황이 평생을 찾던 불로초가 어딘가에 있다면 당장이라도 진시황이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일본의 엔닌 스님은 《입당구법순례행기》라는 일기 형식의 여행기를 남겼는데, 그 기록에는 장보고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8년간 구법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흠모의 편지와 신라인들의 활동이 담겨 있다. 그래서 엔닌 스님은 장보고를 보배 보, 높을 고, 장보고(張寶高)라고 표기하고, 신격화할 정도로 은혜를 깊이 생각하여 교토에 적산선원을 세우고 적산대명신을 모시게 되었다. 엔닌의 유언으로 신격화한 적산대명신은 부귀영화를 관장하는 재신(財神)으로서 장보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장보고에 대한 높은 평가는 비단 엔닌 스님만 기록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동양학자로 주일대사를 지낸 라이샤워(Reischauer)는 장보고를 '해상상업제국의 무역왕(The Trade of Maritime Commercial Empire)'이라고 극찬하였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대문장가이며 시인인 두목은 《번천문집》에서 장보고의 무령군 군중소장으로서의 활약과 청해진 설치 등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그를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진나라의 기해와 당나라의 곽분양을 능가하는 위인으로 칭송하였다고 한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본거지로 중국과 일본을 잇는 중계무역을 하여 장대한 해상항로를 개척하였고, 이슬람 세계와도 교역한 아시아 최초

의 민간 기업인이자 세계적 무역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남해안과 중국 연안 해적무리를 모두 소탕하여 우리 민족의 기세를 만방에 떨친 위대한 민족지도자이기도 하였다. 남산으로 이동하는 두 시간 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뒤엉키면서 속이 저리고 쓰러왔다.

남산 중화역사문화원에는 원고관, 춘추관, 진사관, 당나라관이 있었다. 영성으로 이동하여 다시 진시황의 사당을 관람하였는데 을씨년스럽기만 하였다. 기우는 석양에 비친 사당이 못내 인생허무로 뇌리를 스쳐갔다. 성산두에서 룸메이트와 기념사진을 찍고 버스에 무거운 몸을 실었다. 내일은 장보고 기념관을 간다니 웃어른을 상견례 하는 듯 사뭇 옷매무새를 만지며 기다려졌다.

제5일

해안지역 출신으로 바다에 익숙하였던 장보고는 해상무역에 대하여 깊은 인상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때 당나라와 신라는 중앙 집권력이 이완되어, 흉년과 기근이 들면서 잇달아 각지에서 도적이 들었으며, 신라 해안의 주민을 포획하여 중국노예로 팔았고, 무역선도 해적의 위협을 받았다. 이에 분노한 장보고는 국제무역에 대한 강한 의지와 스스로 해상권을 통괄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키울 야망으로 청해진을 건설하여 청해진 대사의 벼슬을 갖는다.

청해진 건설 후, 해적을 소탕하여 동지나해 해상권을 장악하여 당과 일본을 잇는 국제무역을 주도했다. 신라무역상들은 구리거울, 금속제품과 모직물 등의 물품을 당과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는 향료, 염료, 안료 등의 물품을 취급하였다. 회역사(廻易使)를 파견하여 일본

조정에 서신과 공물을 보냈고, 당나라에서는 견당매물사(遣唐賣物使)의 인솔 하에 교역선을 보내어 교역을 활발히 하였다. 이것은 장보고가 독자적인 세력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또 일본의 승려 엔닌이 장보고에게 서신을 보내어 그의 귀국을 보살피줄 것을 탄원하였다는 사실도 일본과 신라 그리고 당나라를 잇는 당대의 해상교통로에서 그의 위세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장보고는 산동성 문둥현 적산촌에 법화원을 건립하고 지원하였는데 승려가 30여 명, 연간 500석을 추수하는 장전(壯田)을 가졌다고 한다. 신라인의 정신적 지주로 법회 때는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고 하니 그의 세력이 중국 동해안의 신라인 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빈민을 규합하고 인재를 등용하여 신라인의 해상활동 능력을 성장시켰는데, 강력한 군대와 선박을 보유하고 부를 축적하여 세력을 키우자, 중앙정부의 정치적 분쟁에 자연스레 관여하게 되었다.

기념관 뜰 가운데 우뚝 선 장보고 동상 앞에서 나는 잠시 눈을 감고, 1200여 년을 넘어 해후를 하였다. 장엄한 모습 앞에서 나는 순식간에 염장(閻長)의 목을 베었고, 오래도록 통곡을 하였다. 그저 말없이 서 있는 해상왕 장보고는 미간도 찌푸리지 않았다. 의연한 자태 그대로였다.

흥덕왕 11년, 수도에서 왕위계승분쟁에 패배한 김우징(신문왕) 일파가 청해진으로 피난했고 장보고에게 의탁하였다. 정변을 틈타 장보고는 김우징 일파를 강력히 지원하여 군대를 보냈고, 경주로 반격하여 김우징을 왕으로 즉위하는 데 큰 공을 세우게 된다. 김우징은 신문왕이 된 뒤 장보고를 감의군사(感義軍使)로 삼는 동시에 식실봉이천

호(食實封二千戶)를 봉하였다. 장보고의 세력이 중앙정부를 위협할 정도로 커지자 두려움을 느낀 중앙귀족들이 장보고의 딸을 문성왕의 왕비로 맞아들이는 것을 반대하였다.

중국의 동쪽 하늘을 향하여 우뚝 선 장보고 기념탑을 보면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내려오는 오솔길에는 가랑비를 맞으며 철 지난 고사리 잎이 흐드러지게 늘어져 마치 고향산천을 거니는 착각을 들게 하여 조금은 위로가 되었고 반가웠다.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에서의 4시간은 천 년을 기다린 세월 같았다. 돌아오는 뱃고동 소리가 구슬프게 울리면서 중국의 서산마루는 붉게 흐느끼고 있었다.

장보고의 업적을 돌아보면서 9세기 신라 해양활동의 영역을 확장시킨 발자취를 높이 사지 않을 수 없었다. 동북아시아의 해상 통로를 개척하여 해외무역의 전진 기지를 열고, 지중해 교역은 물론 이탈리아 반도 도시국가, 이슬람까지 신라인이 주로 담당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다. 당나라와의 교역에서는 공예품, 고급견직물, 차, 서화, 불경, 자기, 철기 등을 수입하고, 금은 세공품, 식물, 약재, 인삼, 말, 매, 모피, 조하주 등을 수출하였다. 한편 일본에서 비단과 면사 등을 수입하고, 금, 은, 철, 가죽, 나귀, 고급약재류 등을 교류하였으니 가히 동서양 해상교역을 담당한 것이다.

해상왕 장보고에게서 본받을 점은 개척정신과 애민정신이라 할 수 있다. 그의 개척정신은 신라 조정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던 조공무역의 한계를 넘어 민간교역을 발전시키고, 청해진을 세계무역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그는 단순히 무역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반도 체처럼 당시의 최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하여 무역을 선도하였던 것이다. 신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을 연결하는 독자적인 무

역항로를 개척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하였고, 무한한 개척정신으로 신분의 한계를 넘어 당나라에서 장수로도 큰 성공을 이룬 입지적 인물인 것이다.

다음으로 그의 애민정신은 당나라에서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신라의 동포들을 잡아다 당나라에 노비로 팔아먹는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신라로 귀국한 것이다. 그 후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을 소탕하고 민족의 안정을 만들어 주었다. 해상왕 장보고 시대에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역사의 주역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은 60년대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바다로 진출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장보고가 해상권을 장악한 것은 물류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시장을 무한히 확장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계화 정신과 개방적인 자세로 1200년 전 신라인들의 개방성과 포용력을 이어받아 장보고의 꿈을 이루어야 한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막대한 물동량과 소득증가에 따른 해외관광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물류, 관광, 금융, IT 산업 등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중국과 상호 협조하여 함께 성장하려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 물류중심지로서 유리한 위치와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간선헥로선 상에 있고, 부산 앞 바다가 전 세계의 배들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바다의 길목에 해당한다고 하니 다양한 경제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외국 관광객 1명을 유치하면 컬러텔레비전 5대 수출과 맞먹고, 외국인 10명을 유치하면 중형승용차 1대를 수출하는 효과에 맞먹는다고 한다. 또 남해안 다도해 지역의 관광여건이 우수하여 해양체험, 해양레크리에이션 시설 등을 마련하여 해양관광도시로 육성한다면 프랑스의 '랑독 루시옹' 과 같은 세계적인 관광지로의 엄청난 발전이 눈

에 보인다고 한다.

우리 역사상 가장 활발한 해양활동의 선구자인 해상왕 장보고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화에 도전하는 사표(師表)로 삼아야 한다. 장보고의 발길을 되짚었던 5박 6일이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미래의 의지로, 교육현장에서 그의 정신이 이어지는 발판이 되도록 다짐하면서 아쉬운 답사와 항해를 마쳤다.

바람의 향기를 찾아서

서울 자운초등학교 문정호

2006년 8월 4일 금요일 맑음(음 7월 11일)

나의 답사 여정은 제물포 지하철역 승강장에 발을 내딛으면서 시작되었다. 열차 문이 열리자 후끈 달아오른 인천의 열기가 내 가슴속 깊이 들어왔다. 지하철역 앞에서 33번 시내버스를 타고 인천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예정시각보다 일찍 도착하여서인지 일행으로 보이는 선생님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여객터미널 안에 있는 관광 안내소에 들어가 인천 관광안내도를 펼쳐보았다. 낮익은 지명들이 더위에 지쳐 힘없이 드러누워 있었다. 인천 앞바다 푸른 색깔만이 그나마 생기 있게 보였다. 집결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터미널 앞 작은 텐트 안에서 등록을 받고 있었다. 등록을 마치자 여행사 직원이 노란 서류봉투와 '마르코폴로' 라 새겨진 모자를 선물로 주었다. '해상왕 장보고' 라 새겼으면 더욱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드디어 출국절차를 끝내고 화동훼리(HUADONG FERRY)에 올랐다. 지금까지 15시간이나 가는 배를 타본 적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선실에 들어가니 약간은 안심이 되었다. 4인 1실인 그 방은 15시간 동안 가는 데는 별로 무리가 없을 듯 보였기 때문이다.

오후 6시가 조금 넘자 배가 서서히 인천항을 떠나고 있었다. 스피커를 통해 선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30노트의 속도로 항해하여 중국 산둥성 석도항에 내일 아침 10시경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었다. 짐을 대충 정리하고 밖으로 나갔다. 가까이 또는 멀리 인천 앞바다에 작은 섬들이 순한 짐승처럼 엮여 있었다. 더운 바닷바람이 불었다.

선상 석식(夕食)이 궁급했다. 안내방송에 따라 1층 식당 앞에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아, 바다가 내다보이는 식탁에 앉아 첫 식사를 했다. 난 어디를 가나 현지음식에 매우 잘 적응하는 편이어서 식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 식사 후 8시경에 다시 식당에 마련된 세미나실에 전원이 모여 운영진 소개와 답사단원들에게 장보고와 중국 유적지에 대한 해설을 맡아서 해주실 교수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고 장보고에 대한 강의도 들을 수 있었다. 일반적인 여행을 하는 것보다 답사 내용을 한층 더 빛나게 하는 강의였다.

이것으로 첫째 날의 일정은 모두 끝이었다. 배 안에 마련된 샤워실에서 몸을 씻고 다시 갑판 위에 올라가 보았다. 칠월 열하루 달이 빛나고 있었다. 바닷물도 따라서 빛났다. 바다를 보자 울컥 가슴 한가운데서 불덩이처럼 치밀어 오르는 게 있었다. 목이 메었다.

이 너른 바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님은 갈 곳 찾아
그 험하고 먼 바닷길 달려
낮선 중국땅에 발을 딛고
푸른 꿈 펼쳤지만

난 내 생의 바다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시간에 떠밀려
흘러가고 있습니다

님이시어
나에게 내 갈 곳 가르쳐 주옵소서

님처럼 내 갈 곳 찾아
힘차게 내 인생의 노 젓게 하소서

2006년 8월 5일 금요일 맑음(음 7월 12일)

드디어 배가 석도항에 도착하였다. 석도항은 산둥성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 일대 사람들이 한국에 가장 많이 와서 살고 있다고 한다. 선실 창문을 통해 본 풍경이 그리 낯설지가 않았다. 지난 달 22일부터 4박 5일 동안 북경, 상해 일대를 여행한 경험이 있어서일 것이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대합실로 나오자 중국 현지가이드들이 피켓을 들고서 있었다. 안내에 따라 1호차 버스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주

차장에서 검은 비닐로 감싼 물건 더미들을 나르는 상인들이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버스가 석도항을 출발하여 연태에 있는 Bihai Pearl(碧海明珠)이라는 식당에 도착하였다. 역시 낮익은 현지식으로 점심식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부터 본격적인 답사가 시작되었다. 버스로 2시간이 넘는 시간을 줄곧 달렸다. 버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 역시 낮이 익었다. 시원스레 잘 닦여진 고속도로와 도로 옆의 가로수들, 끝없이 넓은 들판에 빼곡히 심어진 농작물들이, 여기가 중국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넓고 긴 초록의 들판을 지나 첫 목적지인 봉래(蓬萊)에 도착하였다.

차에서 내려 등주수성(登州水城) 옆을 지났다. 작은 다리 위에서 옷통 벗은 남자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 성 주위는 성을 개축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성 아래에 있는 등주항은 번창했던 시절의 항구 기능이 점차 소실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등주항 부근에 모래와 흙이 많이 쌓여 수심이 얕아지고 있어서 큰 배는 등주항에 들어오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연태항으로 가고 있는 형편이라 했다. 과거의 화려한 항구의 기능은 쇠잔(衰殘)해져 가고 있지만 또 다른 모습인 관광지로서 거듭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다.

성을 지나 용왕궁에 가 보았다. 용왕궁은 동해용왕이 거주하는 궁전이었다. 이곳에서는 현지 주민이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거나 출항시 안전항해를 기릴 때 찾는 곳이라 한다. 용왕궁은 매우 아기자기한 맛이 있었다.

용왕궁을 보고 난 후, 우리가 봉래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보았던 산맨 위에 있던 봉래각(蓬萊閣)에 갔다. 봉래각은 송나라 때 건축된 여조전, 삼청전, 봉래각, 천궁 등 6부분으로 이루어진 도관으로 연태시

시민들은 봉래각을 매우 큰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봉래각 누각에 올라가 멀리 내려다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니 더위에 지친 가슴이 시원하게 느껴졌다. 가이드의 말에 따라 봉래각 기념사진을 봉래각에선 찍지 못하고 아래쪽에 내려와 봉래각이 한눈에 바라다보이는 곳에서 찍었다.

점점 우리들의 발걸음은 아래로 아래로 옮겨져 등주 고선박물관으로 갔다. 그곳에는 통나무배, 용선, 차륜선, 모래선 선박들을 화강석으로 조각한 배들이 있었다. 또한 원조 때 만들어진 해군전선, 석재돛과 목재돛, 네발철돛, 고선모형 등이 진열되어 있었다. 옛날에는 그 넓고 푸른 바다를 누볐을 배들이 비록 지금은 작은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지만, 그나마 발굴되어 우리들이 볼 수 있다니 다행스럽게 여겨졌다.

봉래각 답사를 모두 마치고 다시 치박으로 향했다. 치박으로 가는 길옆에도 역시 넓고 푸른 옥수수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난 눈감지 않고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눈 속에 담아두고 있었다. 마치 할머니 품에 안겨서 감기는 눈을 비비며 할머니의 구수한 옛이야기를 듣는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애써 보고 또 보고 있었다.

어둠이 고운 숯가루처럼 중국 너른 땅 위에 내렸을 즈음에 치박에 있는 도시 임치에 도착했다.

WELCOME TO OUR HOTEL(歡迎光臨)

CENTURY PLAZA QIDU HOTEL(齊都大酒店)

지친 몸을 쉴 수 있게 할 잠자리가 환하게 꽃불을 켜고 반겨주었다. 역시 빙빙 돌아가는 식탁 위에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고, 호텔 앞 밤거리를 걸어 임치구청 광장을 구경하기로 했다. 가는 길 옆 여기저기 차려진 나지막한 술상 앞에 옷통 벗은 남자들이 끼리끼리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른 저녁부터 주택들의 방안에 불빛이 없는 것

은 중국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모두들 거리로 밀려나와 술을 마시거나 잔디밭에 누워서 쉬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넓은 구청 앞 광장은 서울시청 앞 광장과는 무척 대조적이었다. 다시 호텔로 걸어가는 길에는 전에 보았던 술 마시던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그 자리에서 멈춰진 그림처럼 술을 마시고 있었다.

호텔로 돌아와 내일 새벽 산책을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여행을 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새벽에 산책을 한다. 단체 여행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것을 나름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난 이것을 FTBD(Free Tour Before the Dawn)라 부른다. 내일은 또 어떤 풍경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기다려진다.

2006년 8월 6일 일요일 맑음(음 7월 13일)

새벽 5시경에 눈을 떴다. 간단하게 세수를 하고 호텔 밖으로 나왔다. 바람은 상쾌하지 않았다. 더운 바람이 성난 짐승처럼 나에게 달려들었다. 이른 시각이었지만 거리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 탈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빈 택시들로 거리는 벌써부터 분주해지고 있었다. 네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갔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터에서 마을 사람들이 체조를 하고 있었다. 둥근 형태로 조성된 공원이었는데 사람들은 공원 형태에 맞추어 둥글게 서서 나름대로 열심히 체조를 하고 있었다. 나도 청아하고 가녀린 선율이 흐르는 그들의 음악에 맞추어 체조를 따라 했다. 끝까지 따라하고 싶었지만 출발시간에 늦을 것 같아 체조를 하다 말

고 서둘러 호텔로 돌아왔다.

흠뻑 젖은 남방을 벗고 몸을 씻었다. 씻어도 더위는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습관처럼 짐정리를 하고 식당으로 갔다.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버스에 올랐다.

첫 번째 목적지인 태안으로 이동했다. 태산을 오르기 위해서다. 어렸을 적에 배웠던 양사언의 시조가 생각났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뵈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뵈만 높다 하더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이 시조에 나오는 태산에 오른다니 무척 기대가 되었다. 태산에 대한 동경이 조금 뒤 현실로 나타날 거라는 기대감은 내 가슴을 잔잔히 물결치게 했다.

양사언의 시조와는 달리 너무 쉽게 태산에 올랐다. 케이블카 덕분이었다. 양사언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어떤 시조를 지었을까 궁금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뵈이로다.

오르고 또 올라도 힘들지가 않구나.

사람이 만든 케이블카 너뿐인가 하노라.

지난 6월 무주 구천동 덕유산 설천봉 케이블카를 탔을 때와 느낌이 크게 다르진 않았다. 산세가 너무 흡사했다. 계곡에 흐르는 물도 그리 많지는 않았다. 조심스럽게 떨어져 내리는 작은 폭포가 앙증스러워 보였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태산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태산은 쉽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온 산을 안개가 짙게 감싸고 있었다. 안개 속에 묻힌 태산이 더욱 신비스러워 보였다. 어떤 이들은 산 아래 풍경을 볼 수 없어 실망하는 눈치였지만 난 안개에 싸인 태산이 더 마음에 와 닿았다. 내 상상의 날개를 펴서 내 마음대로 태산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는 게 더욱 좋았다. 원래 소중한 것은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게 많다.

태산은 중국 5대 명산 중 하나인데 그중에서도 ‘오악지장(五岳之長)’, ‘오악지존(五岳之尊)’이라 일컬을 만큼 으뜸으로 여긴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제왕이 이곳에서 하늘에 뜻을 받는 봉선(封禪)이라는 의식을 거행했기 때문이란단다. 올라가는 곳곳마다 바위에 새겨진 붉은 비문들이 금강산(金剛山)을 떠올리게 했다. 금강산을 오를 때 바위마다 썩어 있던 붉은 글씨들과 분위기가 너무 흡사했다. 예로부터 태산 등정(登頂)은 많은 이들이 간절히 바라던 일이었던단다. 한 번 태산에 오르면 수명이 10년은 연장될 거라는 말이 전해지면서 더욱 그랬을 것 같았다. 정상에 오르자 정상임을 표시하는 1,545미터라는 숫자가 새겨진 비가 서 있었다. 좁은 마당에는 향로(香爐)가 놓여 있고 향 태우는 냄새가 절 마당에 가득했다.

태산 정상에서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서 제나라 역사박물관으로 향했다. 제나라 역사박물관은 제나라 옛 황성 유적지의 동부에 자리 잡고 있는데, 고성의 대성과 소성이 맞물리는 특수한 모양으로 쌓여 있다. 박물관 건물은 푸른 벽돌로 지어졌는데 매우 정갈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박물관 안에 들어가 보았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세 발 달린 그릇들이 진열된 방이

었다. 나는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들을 카메라에 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안에 있는 동안은 내가 제나라 시절에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몰두했다.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지났다. 박물관 상점에 들러 세 발 달린 그릇 하나를 샀다. 두고두고 기념이 될 만했다.

박물관에서 나와 제경공 순마갱(齊景公殉馬坑)으로 갔다. 순마갱에 들어가는 입구는 옥수수 밭 사이로 난 좁은 흠길이었다. 그 부근에 있는 20여 개의 묘지 중 5호분에 해당하는 순마갱은 갑(甲)자 형의 큰 묘인데 현재 발굴된 순마는 228필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때 이 부근에 매장된 말은 600여 필 정도가 될 것이라 한다. 현재 전시된 순마의 숫자는 105필이다. 임금이 죽으면 임금이 아끼던 물건이나 짐승, 사람 등을 같이 순장하는 풍습은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리라 생각한다. 삶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표현된 것일 게다. 살아있는 목숨을 순장한다는 걸 이해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숙제인 것 같다. 적어도 나에게만은.

순마갱 안을 보고 나와 정문 부근에 살고 있는 마을사람들을 보았다. 허름한 집 앞에 서서 하얀색 아니, 사실은 하얀색이 아닌 회색이나 검은색이라고 표현해야 좋을 듯한 지저분한 인형을 안고 있는 서너 살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의 무표정한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다. 그 아이의 발밑에 있는 찌그러진 세숫대야 안에는 진간장보다 더 짙은 적은 양의 물이 담겨져 있었다. 그 물이 어디에 쓰일지 내 생각으로 상상하기 힘들었다.

그 검은 물을 보고 있는 순간 내 머릿속엔 새로운 깨달음이 번뜩 스쳐 지나갔다. 이들의 소중한 삶의 문화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새롭게 떠오른 것이다. 내 힘으로

할 수만 있다면 낡은 세숫대야에 담겨진 검은 빗갈의 물을 맑고 깨끗한 물로 바꾸어주어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한 순간에 갑자기 떠오른 건 아닐 것 같았다. 마른 모래 위로 밀물이 스며 들어오듯 조금씩 조금씩 내 마음 속에 젖어들었을 것이다. 눈 감지 않고 그들의 들판과 그들의 붉은 벽돌집과 그들의 땀에 젖은 몸뚱어리를 열심히 바라본 결과일지도 모른다. 내일도 또 내일도 결코 잠들지 않고 그들을 바라볼 것이다. 진정 그들과 함께 뛰어나갈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순마개를 떠나 내 키보다 더 커다랗게 자란 옥수수 밭 사이로 난 좁디좁은 비포장도로를 빠져나와 다시 강태공 사당으로 향했다. 강태공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어왔던 인물이라 생소하지 않았다. 기나긴 세월 동안 빈 낚싯줄을 강물에 드리우고 유유자적(悠悠自適)하던 사람. 나는 빈 세월의 낚싯줄을 강태공 사당에 드리우려 떠나는 것이다.

강태공 사당에 도착했을 때는 하루해가 저물어갈 무렵이었다. 사당에 들어서 여기저기 강태공에 대한 흔적을 찾아다녔다. 마당에 심어진 석류나무에 매달린 석류가 정겨워 보였다. 지금부터 3천 년 전 산동성에서 태어났던 강태공이 다시 살어나 석류나무에 매달린 석류 하나를 빈 낚싯대로 낚을 것 같은 환영이 떠올랐다. 강태공 사당은 태공이 썼던 모자와 옷을 묻어놓은 의관총 앞에 세워졌다. 주전(主殿)은 강태공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으며, 현재 명인의 서화 전시관으로도 쓰인다고 한다. 제나라의 초대왕으로 책봉된 강태공은 낚시에서 배운 여유로움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방, 경제발전 등에 지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사당을 다 둘러보고 나오자 사당 기와지붕 위로 칠월 열사흘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사당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유방으로 약 1시간가량 달려서 부화호

텔에 도착했다. 유방은 연의 도시라 했다. 가로등조차 붉은 나비를 닮은 연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먼 바다에서 불어오는 푸른 바람결에 연을 날릴 생각을 한 유방 사람들의 생각이 내 마음에 와 닿았다. 바람과 바다와 연. 너무 아름답다.

2006년 8월 7일 월요일 맑거나 소나기(음 7월 14일)

역시 어제처럼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깨어났다. 밖으로 나갔다. 거리는 깨끗하게 잘 정리정돈 되어 있었다. 자줏빛, 연둣빛, 초록빛 키 작은 나무들로 가꾸어놓은 차도 중앙 분리대가 너무 아름다웠다. 한 블록을 지나 네거리가 있는 길까지 걸어갔다. 길 건너에 유방시 과보관(科普館) 건물이 보였다. 기와지붕 아래 2층 높이에 설치된 말 그림이 있는 벽화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길을 건너 다시 오던 길로 걸어갔다. 인도(人道) 위에서 옆으로 누워 팔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중년의 남자가 있었다. 그 표정이 너무 평화스럽게 보였다. 아침 운동을 나온 부부가 나를 힐끔거리며 쳐다보았다. 아마 나에게서 이방인 냄새가 풍기는 모양이었다.

다시 호텔에 들어와 짐을 꾸리고 아침식사를 한 뒤 버스에 올랐다. 이제 답사 일정도 중반을 넘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남산을 향해 갔다. 그곳은 자그마한 몇 개의 산에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새로 조성한 공원 같은 곳이었다. 높이가 38미터를 조금 넘는 엄청나게 큰 대불이 있는 곳부터 갔다. 대불에 오르기 위해 360개의 계단을 올라야 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계단을 오르기가 무척 힘들었다. 태산에 오를 때 감싸주었던 안개가 다시 생각났다. 대불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

에는 9,999개의 작은 불상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거기에 대불상을 합하면 만 개의 불상이 된다. 그걸 이름하여 만불천이라 한다고 했다.

대불을 본 뒤에 중국의 소수민족인 외족들이 보여주는 공연을 보러 갔다. 전시관 앞마당에서 그들은 공연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둥글게 그들 주위로 앉거나 서서 관람을 했다. 그들의 체구는 작았으며 피부는 검었다. 그들은 검은 피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했다. 생기 넘치는 춤과 노래를 듣고 건물 안에 있는 전시실로 들어갔다. 옛날 그들이 살았던 집이며 생활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모형 절벽을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건너가려는 답사단원들의 모습이 재미있어 보였다.

다음으로 춘추원(春秋園)에 갔다. 그곳엔 공자전(孔子殿), 맹자전(孟子殿) 등의 기와집이 새로 신축되어 매우 깨끗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각 건물 안에는 목각상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춘추원에서 나와 만리장성을 본 떠 만든 곳으로 올라갔다. 성 입구에서 사진 찍었다. 며칠 전 만리장성에 가서 사진을 찍던 생각이 떠올랐다. 성의 규모는 작으나 만리장성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조성된 점이 대견스럽게 느껴졌다.

다시 버스에 올라서 동쪽에 위치한 성산두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소나기가 억세게 퍼부었다.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 가끔 만나는 비라서 그다지 염려되는 것은 아니었다. 아마 성산두에 도착하면 비는 개어 있을 것이다. 역시 성산두에 도착하자 비는 내리지 않았다. 대신 안개가 자욱했다.

진시황 사당에 들어갔다. 이곳은 진시황이 동쪽을 순찰하던 중 머물렀던 행궁이란다. 여기에는 진조(秦朝) 암석 외에 몇 점의 청대(淸代) 문화재들이 있었다. 사당 밖으로 나와서 큰 석상들을 구경하고 있

다가 석도 부근에 산다는 한국인을 만났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부부와 삼십대 임신부와 아이들이었다. 노부부가 15일 일정으로 조카 집에 다니러 왔단다. 내일은 태산에 간다고 했다. 어제 다녀온 태산에 간다니 더욱 친밀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다시 성산두에 갔다. 이곳이 중국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일출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곳이란다. 전 중국 총서기인 호요방이 이곳에 ‘하늘이 끝나는 곳’, ‘땅의 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천진두(天盡頭)’라는 휘호를 남겼는데 지금은 ‘천무진두(天無盡頭)’라는 말로 바뀌어 자연석 비에 금색으로 써어 있었다. 또한 이곳은 진시황의 불노장생초와 관련된 전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단다. 인간의 수명에 대한 애착을 잘 나타내는 불노장생초, 그들도 이 세상에 그런 풀이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것에 매달려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연민의 정이 느껴졌다.

2006년 8월 8일 화요일 맑음(음 7월 15일)

오늘 일정은 다른 날에 비해 한가하다. 다른 날은 아침 7시에 버스가 출발했었는데 오늘은 아홉시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다. 한가한 마음으로 아침 산책을 나갔다. 석도빈관에서 5분 정도 내려가자 모래밭이 나왔다. 부드러운 모래를 밟았다. 내 마음도 따라서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다. 날씨는 새벽부터 쨍는 듯 더웠다. 모래밭을 지나 작은 나무들이 서 있는 언덕에 오르자 철망 속에 꽃시슴 몇 마리가 슬픈 눈빛을 하고 서 있거나 앉아 있었다. 뿔이 잘린 꽃시슴도 있었다. 시슴들을 뒤로 하고 마을로 들어섰다. 낡고 허름한 집들과 결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리를 지나, 소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걷거나 옷통을 벗고 농구를 하거나 몸을 구부리고 휘며 체조를 했다. 학교에서 나와 다시 해변을 향해 걸었다. 해변에도 역시 사람들이 운동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옷통을 벗고 뛰거나 했다. 호텔 주위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숙소로 들어왔다. 옷이 흠뻑 땀에 젖어 샤워를 하고 오늘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9시경에 숙소에서 나와 버스를 기다렸다. 30분쯤 뒤에 버스를 타고 장보고 유적지를 향해 갔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버스에서 내려 법화원 앞에 있는 돌계단에 앉아 두 분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 불교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화원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다. 이런 유익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매우 인상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강의를 듣고 법화원으로 들어갔다. 법화원 건물은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깨끗한 모습으로 적산 기슭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당조(唐朝) 시기에 장보고가 건립한 것이라고 한다. 물론 그때의 절은 없어지고 다시 신축한 절이지만, 장보고의 그 정신만은 고스란히 절 마당에 가득 담겨 있는 듯했다. 적산신이 오가는 배의 안전을 지켜준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불공을 드렸다고 한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법화원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

법화원을 다 둘러보고 나서 그 옆에 있는 큰 불상이 있는 곳으로 갔다. 잠시 뒤에 분수 쇼를 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쇼가 시작되자 둥근 연못에서 분수들이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올랐다. 연못 가운데 있는 불상 높이보다 더 높게 물줄기가 솟구쳤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가까이서 보던 사람들의 옷이 물에 흠뻑 젖었다. 나는 다행히 햇빛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간 우산이 있어서 물벼락을 피할 수

있었다.

분수 쇼를 보고 나서 적산명신(赤山明神)상이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적산명신상도 남산대불상처럼 그 크기가 매우 컸다. 동쪽 바다를 지키는 신으로 모신 적산명신을 후세 사람들이 상을 만들어 모신 것이라 한다. 이 적산명신은 아마 우리들 그리고 중국인들의 가슴에 살아남아 있는 해상왕 장보고를 일컫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적산명신상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신라방의 모습이 매우 정겨웠다. 책에서만 보았던 신라방이 눈 아래 내려다보인다는 현실이 너무 반가웠다. 그 시절에 신라에서 건너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웅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다시 언덕을 내려와 장보고 전기관으로 갔다. 장보고 기념관이라는 말은 중국측에서 허락을 하지 않은 관계로 전기관으로 이름 붙여졌다고 했다. 중국을 위해서 커다란 업적을 쌓은 자들에게만 기념관이라는 말을 쓰도록 했다는 해설가의 말을 듣고 약간은 씁쓸한 여운이 남기도 했다. 전기관 마당에는 장군의 복장을 하고 왼손에 큰 칼을 차고 서 있는 늙은 장보고 장군의 모습이 보였다. 여간 자랑스럽지가 않았다. 여러 개로 나뉜 전시관 건물 안에는 그 당시의 모습을 상상하는데 도움을 줄만한 물건이나 사진 자료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모든 일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기념관을 나와 마지막 동산에 올랐다. 그곳엔 장보고 기념탑이 서 있었다. 열은 갈색을 띤 기념탑은 소나무 숲 동산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었다. 양지바른 언덕이라서 더욱 정감이 갔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한낮이었으면 더욱 정취가 있을 것 같았다. 드디어 기념탑 앞에서 나의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답사 여정이 끝남을 알려야 할 차례가 되었다.

고개를 숙였다. 따가운 팔월의 태양빛이 화살처럼 머리 위에 쏟아졌다. 기념탑 옆의 소나무 이파리들이 파도처럼 출렁거렸다. 출렁거리는 바람결을 타고 들려오는 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아가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머리에 수없이 많은 금빛 화살을 맞으며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왔다. 석도항에 도착하여 출국 절차를 끝냈다. 이제 중국땅과도 헤어져야 한다. 언제나 헤어짐은 허전함으로 다가왔다. 선실로 들어갔다. 긴 기다림 끝에 오후 아홉시 무렵이 되자 배가 떠났다. 칠월 보름 달빛은 긴 손가락을 내밀어 파랗던 석도항 바닷물 위에 노란 색칠을 했다. 어쩌면 이리도 휘영청 밝은 보름밤에 나는 중국을 떠나게 되었는가. 정녕 모를 일이었다.

선실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일어나 3층 갑판 위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화동궈리 한국인 주방장을 만났다. 주방장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바람이 시원했다. 보름달빛이 유리 같은 바닷물 위에서 노란 옷자락을 나부끼며 출렁거렸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다. 거기서 내 여정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말을 듣게 된다.

바람은 항상 서에서 동으로 분다.

그 순간 난 이 글의 제목인 <바람의 향기>라는 말을 떠올렸다. 서에

서 불어오는 바람의 향기를 찾아 떠나는 해상왕 장보고의 일생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님께서 슬며시 나에게 손을 내밀어 바람의 향기를 찾아서 같이 가보자고 말할 것 같았다. 아마 꿈속에서라도 님이 그럴 거라 믿었다. 늦은 밤 아니 이른 새벽에 갑판에서 내려와 자리에 누웠다.

2006년 8월 7일 수요일 맑음(음 7월 16일)

눈을 떴다. 아직도 난 배 위에 있다. 바닷물은 너무나 고요했다. 아직까지 파도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뒤척이지도 않고 곱게 자고 있다. 어젯밤에 비추던 달빛은 어느새 열댓새 달로 변해 있다. 동이 트려 하고 있다. 객실 유리창 밖으로 희뿌연 안개가 보였다. 뱃고동 소리도 들렸다. 갑판 위로 올라갔다. 바람이 불었다. 바람결에 밀려 어젯밤 3층 갑판에서 들려주었던 주방장의 말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바람은 항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분다.

인천에서 석도로 갈 때는 30노트로 가고

올 때는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어서 35노트로 올 수 있다.

그랬다. 역시 바람은 서쪽에서 불어왔다.

완도(莞島) 어느 해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남자아이가 그 누구보다도 더 예민하게 바람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던가. 중국 산둥성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향기를 찾아 나서고 싶어 했던가. 그래서 배를 만

들고 배를 저어서 그 먼 나라 중국 땅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가. 배
에 잔뜩 귀한 물건들을 싣고 와 사랑하는 사람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
어 주고 싶어 했던가. 해적을 물리치고 안정된 나라를 건설하고, 신라
마을을 산동성에도 만들어 사랑스런 우리 백성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
주고 싶어 했던가.

나도 넘처럼 바람의 향기를 찾아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아직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그곳으로….

21세기에 부활하는 해상왕 장보고를 꿈꾸며

인천 산곡고등학교 최연희

2006년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3차 답사단 답사 일정표

제1일 (8월 4일)	18:00 인천항 출국 수속, 출발
	20:00 선상 세미나(화동훼리 세미나실)
제2일 (8월 5일)	08:00 석도항 도착, 입국 수속
	10:00-14:00 연태로 이동, 중식
	14:00-16:30 등주로 이동, 봉래각, 등주수성 견학
	16:00-22:30 치박으로 이동, 석식, 치박 제도 호텔 투숙
제3일 (8월 6일)	06:30 기상, 조식
	08:00-10:30 태안으로 이동
	10:30-14:00 태산 등정, 옥황정 견학, 중식

14:00-18:00 강태공 사당, 제나라 박물관, 순마궐 견학
18:00-22:00 유방으로 이동, 석식, 유방 부화 호텔 투숙

제4일
(8월 7일)

06:30 기상, 조식
08:00-12:30 남산 이동, 남산 종교문화원, 남산대불 견학, 중식
12:30-16:00 남산 중화역사문화원 견학
16:00-17:30 영성으로 이동, 진시황 사당, 성산두 견학
17:30-21:30 석도로 이동, 석식, 석도 빈관 투숙

제5일
(8월 8일)

07:30 기상, 조식
10:00-15:00 장보고 기념관, 장보고 기념탑, 적산 법화원 견학, 중식
15:00-18:00 석도항 이동, 출국 수속, 승선

제6일
(8월 9일)

07:30 기상, 조식
08:00-10:00 인천항 도착

장보고 답사단에 선발되기까지

인천의 고등학교 국사 선생님인 나는 '장보고 기념사업회'의 소식을 3년 전에 처음 접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보고라는 인물의 행적과 위상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터라 상당히 생소한 느낌을 받았었다. 언젠가 마스크에서 들려오던 우리의 군함 '장보고함'에서 나는

또 한 번 그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다.

올해 나는 학교를 옮기면서 장보고 기념사업회가 추진하는 답사단 모집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빠르게 돌아가는 인문계 고등학교 일상 속에서 해외 역사 유적지를 답사한다는 것이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었으므로 긴 생각의 여유도 없이 학교의 추천을 받아 답사단에 응모하였다. 응모 당시만 해도 경쟁률이 높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나에게 선발의 행운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막연히 두 아이의 엄마인 내가 선발이 된다면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보고 유적지에 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추억과 역사학도로서의 내 삶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발표일에 나의 이름을 확인한 그때 나는 벅찬 감격과 함께 중국 역사에 대한 호기심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었다. 항상 교단에 서서 답사하지 못한 유적지와 문명을 얘기할 때 느꼈던 그 회의감. 내가 과연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의식을 갖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한다. 언젠가는 세계 일주를 해야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위안을 삼고 있던 나에게 이번 답사가 가지는 의미는 남달랐다.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 아직 나는 중국 여행을 해보지 못했다. 두 아이의 엄마와 교사로서의 본연의 모습에서 과감히 벗어나 내 마음은 벌써 황해를 건너고 있었다.

제1일 인천항 출발

드디어 답사일이 다가왔다. 무더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막연한 여

행의 설렘과 낯씨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하는 하루였다. “엄마, 어디가? 나도 같이” 하는 둘째아이의 목소리를 뒷전으로 한 나는 연안부두로 가는 차에 몸을 실었다. 뜨거운 햇볕 속에 들어선 인천항은 어릴 적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갔던 부두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다. 인천에서 나고 자란 나는, 짠 내 나는 이 부두에는 익숙하나 장시간의 배 여행은 처음이라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였다. 더구나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 속에 섞여 여행을 한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으로 떠나기 직전의 나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과 호기심,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아마도 신라를 떠나는 배에 몸을 실은 장보고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보다 출국 수속 및 승선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은 더운 날씨만큼이나 나의 마음을 초조하게 했다. 중국의 여러 곳으로 출국하는 단체와 어린 학생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그때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고구려 유적지 답사단의 명찰을 패용한 우리 어린 아이들이었다. 역사 선생으로서 우리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현실에 안도의 한숨과 역사적 책임을 절감하였다.

드디어 출국이였다. 5박 6일 일정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였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하는 나의 마음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인천항을 뒤로 하고 승선하게 될 화동훼리 여객선으로 이동하는 버스는 마지막 열을 내뿜는 태양의 환영을 받으며 항구에서 멀어져가고 있었다. 내가 묶게 될 선실은 3층 4인실로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과 한 방에 배치되었다. 너무나도 힘들게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라 인천에 사는 나로서는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 짐을 풀고 이런저런 기대감 섞인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여객선은

어느새 인천항을 벗어나고 있었다.

저녁 6시경에 인천항을 출발한 배는 어느새 바다 한가운데를 달리고 있었다. 난생 처음으로 배에서 식사를 하였다. 생각보다 별다른 차이는 없었지만 여행에 대한 흥분과 집을 떠나 먹는 밥이어서 그런지 느낌이 남달랐다.

식사를 마치고 같은 방 선생님들과 선상에 나갔다. 우리 앞에 펼쳐진 바다는 탄식의 소리를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바쁜 일상 속에서 보지 못했던 일몰이기도 하였지만 황해에서 보는 일몰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할 정도로 붉은색이 선명했다. 우리는 해가 수평선으로 멀어질 때까지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너무나 황홀한 장면이었으며 중국 답사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북돋아 주었다.

해가 지고 난 후 황해 바다는 반달이 비추어 아늑하고 그윽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달빛의 흐름에 내 몸을 맞기고 이 바다를 건너 황해를 호령하고, 중국의 산둥반도를 손아귀에 쥐고 흔들었던 장보고를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흔들림이 다소 느껴지는 선실에서 잠을 청하자니, 오랜만의 여독에도 불구하고 생애 최초의 선상 취침이라 쉽게 잠을 잘 수 없었다. 어느덧 답사의 첫날이 지나가고 있었다.

제2일 석도항 도착, 봉래각, 등주수성, 치박

내가 눈을 뜬 시각은 6시, 한국 시간으로는 7시였다. 선상에 나갔을 때는 물안개가 심하게 피어올라 바로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바다 한가운데에 서서 안개 기둥에 둘러싸여 있는 듯한 묘한 기분

이 들었다. 조식 후 우리는 산동반도 석도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수세기 전 장보고 상단이 드나들었을 그곳에서 나는 우리와 다른 국가 체제의 묘한 기풍을 실감하고 있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첫 번째 답사 도시인 연태로 이동하였다. 내가 탑승한 차량은 2호차로 주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다.

이동 중 창 밖에 펼쳐진 중국은 옥수수 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좁은 우리네 산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드넓은 옥수수 밭이 계속 이어졌다. 이곳 연태는 과일과 해산물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한다. 기회가 되면 중국 과일을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중국은 과일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고 한다.

옥수수 밭을 벗어나자 옥수수 밭과는 사뭇 다른 건물들의 모습이 해안가를 끼고 나타났다. 상당히 단아하고 깨끗한 휴양지 건물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신기하기도 하고 당장이라도 버스에서 내려 들어가 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해안가를 끼고 공원 조성도 잘 이루어져 있었다. 1시간 후 중국 현지 음식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름지지 않았다. 워낙 한국인 관광객이 자주 와서 그런지 많이 한국식으로 바꾼 느낌이 들었다. 특이했던 것은 무더운 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차가 항상 식사 때마다 제공된다는 것이었다. 가이드의 말로는 먹는 물이 썩 좋지 않아서라고 한다. 또한 식사 때마다 시원한 맥주가 준비되어 있었다. 어느 선생님은 술기운에 답사한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셨다.

식사를 마친 후 첫 번째 유적지인 봉래로 이동하였다. 차 안에서는 담당교수님의 역사적 설명과 가이드의 세밀한 유적지 설명이 이어져서 나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켰다.

봉래라는 이름은 옛날 신선들이 살았다는 전설 속의 바다 가운데

있는 산의 이름으로 중국 한조 때 한무제가 이곳에 와서 실제로 신선 산이 보이지 않자 경치가 수려한 이곳을 '봉래'라 명하였다고 한다. 그 이름이 내려져 오다가 당대에 등주로 불리었다. 봉래에서는 봉래각과 등주수성을 답사하였는데, 우선 봉래각은 용왕궁, 천후(바다를 지키는 여신)궁 등을 비롯한 바다와 관련된 여러 사당과 더불어 전설의 팔신선이 연회를 베풀었다는 누각이 있었다.

봉래각을 견학하고 한국의 건축물과 조형물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조형물은 우리의 것과는 다른 색채와 윤곽을 하고 대륙의 웅장함을 한껏 뽐내고 있었다. 중국 역대 왕조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보면서 새삼 중국의 독특한 문화 색채를 다시금 실감하였다.

이어서 살펴본 등주수성은 우리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형태의 성으로 당조 때에 이곳 등주가 중요한 군사적 역할을 하였음을 짐작케 하는 유적이었다. 이곳 등주는 바로 우리의 발해·신라와의 교역을 관장하던 곳이기도 하였다. 아마도 장보고 상단의 배도 이곳을 자주 드나들었을 것이다. 넓게 펼쳐진 바다와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감흥을 한껏 드높였다. 해안을 따라 축조된 이 수성은 오늘날 중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등주수성과 더불어 등주 고선박물관의 관람을 통해 중국 전통의 배와 당대에 드나들었던 신라 상선의 규모 및 형태도 엿볼 수 있었다.

견학을 마치고 우리가 묶게 될 치박으로 이동하였는데 봉래에서 치박까지는 버스로 4시간이나 소요되었다. 첫날의 이동치고는 상당히 먼 거리였으며 고된 일정이었다. 치박이라는 도시는 도자기와 실크의 도시라고 한다. 우리가 묶었던 호텔은 치박제도호텔로 그 고장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호텔이었다. 이국땅에서 맞는 첫 번째 밤이었다. 치박의 밤은 9시를 넘기면서부터는 너무나도 고요했다. 네온사인의 강렬

한 빛과 음악소리에 익숙한 우리나라 밤거리에 비하면 너무 고요해서 사회주의 국가라 그런가 하는 맘이 들 정도였다.

제3일 태산, 옥황정, 강태공 사당, 제나라 박물관, 순마갱

6시 기상 모닝콜이 울렸다. 긴 이동 시간 때문인지 아침에 몸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았다. 진한 커피 한 잔이 너무나 그리운 아침이었다. 호텔 조식을 마치고 우리는 태안으로 바로 이동하였다. 이동 중 우리는 버스 안에서 서로의 소개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여행에서 느끼는 묘미였다.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장소가 주는 서로의 끈끈한 연대감이라 할까? 비록 이 만남이 영원할 수 없어도 그 당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약 3시간을 이동하여 도착한 식당에서 태산으로 가는 작은 버스에 옮겨 탔다. 태안은 중국 산둥성 중부 도시로 중국 5대 명산 중 으뜸으로 치는 태산이 위치한 지역이다. 태산은 호산, 숭산, 형산, 향산과 더불어 중국의 5악을 이루며, 그중에서도 태산을 제왕이 이곳에서 하늘에 뜻을 받는 봉선(封禪)이라는 의식을 거행하여 천하제일의 명산으로 꼽았다.

태산은 해발 약 1,545미터로 산둥성 구룡에서 최고로 높은 산이며 여러 볼 것이 많아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자연문화유산이다. 우리네 옛글에도 보이는 태산은 생각보다는 낮게 느껴지는 산이었지만 우리네 산과는 다른 멋이 느껴졌다. 이 태산에서 중국의 역대 군주들은 황제로 등극한 후 반드시 태산에 올라 제사를 지내 하늘에 알렸다 한다.

해발 700미터 정도까지는 케이블카를 이용했으며 그 이후의 산행

은 계단으로 이어진 그리 험하지 않은 길이었다. 우리가 등정한 날은 유난히 맑은 날이었지만 불행히도 안개가 짙게 끼어 그 태산의 위용을 제대로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안개에 싸여진 태산의 모습은 '나' 스스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 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오묘한 느낌을 주었으며 정상인 옥황정에 올랐을 때 구름 위에서 떠다니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케이블카에 몸을 실은 우리 일행은 이러한 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한 인간의 기술에 한번 감탄하고 주위에 펼쳐진 태산의 절경에 또 한 번 감탄했다. 안개 속의 태산은 우리를 신선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으며 산 중턱에서 산 사과와 복숭아의 맛은 정말로 시원 달콤하여 산행에서 오는 피로감을 깨끗이 씻어주었다.

옥황정에서 거대한 붉은 향을 피우는 중국인의 모습에서 대륙의 기풍과 그들만의 풍속을 느꼈다. 내려오는 길에 공자묘로의 갈림길을 표시하는 팻말을 보면서 일정상 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매우 컸으며 다시 한 번 우리 아이의 손을 잡고 오리라는 다짐을 해보았다. 내려오는 길은 오를 때보다 안개가 걷히어 태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조금은 볼 수 있어 우리의 아쉬움을 달래주었다.

중식을 마치고 유방으로 가던 길에 제나라 역사박물관과 순마갱, 강태공 사당 등을 들렀다.

제나라 역사박물관은 여러 유물과 자료를 통해 제나라의 산생, 발전, 흥성과 쇠망사를 설명해 주었다. 또한 인근의 제경궁 순마갱은 춘추시기의 제나라 공후의 큰 묘군이었는데 그중 5호분 주위에서 세상을 놀랍게 하는 순마갱이 발견되었다. 순마가 있는 곳은 U자 형을 이루고 있으며 발굴 길이가 84미터, 순마 228필이 발견되었다. 순마는 두 줄로 나란한 형태로 병렬시켜 머리를 바깥쪽으로, 옆으로 누운 자

세로 매장하였다. 추정매장 말은 600여 필로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규모며 매장된 말은 모두 전마로 이 묘지의 주인은 춘추시기 제나라의 국군 제경공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나라 통치계급의 사치함과 제나라 국력의 강성함을 보여준다.

실제로 본 순마갱은 기이하다 싶을 정도로 특이한 형태로 순장된 말들이 지금이라도 뛰어오를 듯한 생동감을 보여주었으며 제나라를 호령했던 제경공의 위엄을 한껏 뽐내주고 있었다. 강태공은 은을 멸망시키고 무왕을 도와 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던 제나라 초대왕으로, 짧은 기간 내에 제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방을 굳건히 했으며, 중국 최초의 병법을 만들었다. 제나라 수도인 치박에는 강태공의 묘자와 옷을 묻은 의관총 앞면에 강태공 사당이 위치하였다. 일행 중에 분실물이 발생하여 일정보다 1시간 정도 늦은 시간에 강태공 사당에 도착하는 바람에 관람을 일찍 마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유방으로 이동하는 동안 우리는 장보고와 관련된 영상물과 지도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5일 차에 있을 적산 법화원 견학에 기대감을 높였다.

약 3시간을 이동하여 유방에 도착, 유방부화호텔에 투숙하였다. 유방은 최근 최고의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는 도시로 연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다. 석식을 마친 후 우리는 유방의 신기하고 화려한 연을 볼 수 있었다.

제4일 남산 종교문화원, 남산대불, 남산 중화역사문화원, 진시황 사당, 성산두

6시 기상 후 우리는 '남산대불'로 유명해진 남산으로 이동하여 남

산 종교문화원과 남산대불을 견학하였다. 남산관광풍치지구는 산동성 용구시의 울창한 산 속에 수려한 풍색을 뽐내며 자리하고 있다. 남산 종교문화원에 이르는 길은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무더위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시원함을 선사해 주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을 휘둥그레 만들게 한 것은 멀리서도 그 장엄함을 느낄 수 있는 남산대불이었다.

그 규모는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것으로 대륙의 웅대함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다. 남산대불에 가까이 올라서니 내 자신이 한층 작게 느껴졌다. 남산대불이 있는 망루에 올라서서 반대편 남산 종교문화원의 정경을 보고 있자니 내가 신선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불교 신자가 아닌 나에게도 남산대불의 위엄은 크게 다가왔으며 대불에서 나오는 영험한 빛은 실로 놀라웠다. 돈 많은 중국인들은 이 대불에 자신의 이름 석 자를 우리 돈 3천만 원을 주고 새겨 넣는다고 한다.

우리가 점심을 먹고 있는 동안 시원한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갔다. 우리가 중국을 여행하고 있는 동안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었고, 이 비가 중국 일정에서 처음으로 내린 것이었다. 뒤에 들은 얘기지만 한국은 더 더웠다고 한다.

식사 후 남산 중화역사문화원 일대를 견학하고 각 시대별 대표 건축물의 모형과 위대한 사상가들의 일대기를 감상하였다. 이 역사문화원은 규모가 상당히 컸으며 관광 중국의 일 면모를 느끼게 해주었다.

1시간이 넘게 이동하여 우리가 도착한 곳은 진시황 사당과 중국의 동쪽 끝 해안인 성산두가 있는 영성이었다. 진시황이 영생을 꿈꾸며 이곳 성산두에서 신기루를 보고 불로장생을 꿈꾸었다고 하여 중국에서 유일하게 진시황의 사당이 있는 곳이다.

조금 이동하면 중국에서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다는 성산두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곳은 인천에서 보는 바다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검은색에 가까운 바다 빛과 해안선을 끼고 도는 암벽 등에서 느껴지는 미묘함에서 진시황이 보았을 봉래산의 신기루가 보이는 듯했다.

성산두에서 다시 우리는 원래의 시작점이었던 석도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참으로 길고 긴 여정이었다. 우리가 묵었던 석도호텔은 주변의 숲과 해안선의 산책로가 일품인 곳이었다.

제5일 장보고기념관, 장보고기념탑, 적산 법화원

우리 답사단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5일째의 적산 법화원 답사이다. 이 답사단의 가장 중요한 일정인 적산 법화원은 우리 답사의 메인 주제인 장보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으로 신라 시대 황해를 오고 가던 장보고 상단의 중국 주무대인 곳이기도 하다.

그 옛날 신라인의 거주지이자, 신라인의 종교적 메카였던 적산 법화원. 지금은 우리와 사뭇 다른 분위기의 유적지가 되어 있어 어딘가 모르게 낯설게 느껴진다. 하지만 장보고가 해상왕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던 그때의 기상과 함성이 아직도 들리는 듯 적산 법화원에서의 그의 위상은 대단하다. 중국에서 유일하게 다른 국적의 외국인에 대한 기념관과 기념비가 세워졌다고 한다. 물론 그 색채나 유적의 분위기는 중국의 그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듯하다. 시대를 앞서간 해양경영자 장보고는 동북아시아의 대한민국의 위치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본다.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설 동북아시아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꿈꾸어 본다.

5일째, 유난히 무더운 날이었다. 맑다 못해 빛나는 적산의 햇볕은 아주 뜨겁게 우리를 달구고, 우리는 장보고의 위상에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지금의 법화원은 옛 터 위에 일본인들의 자본으로 복구되었다고 한다. 아주 넓은 단지를 조성해 장보고 전기관과 기념탑 이외에도 여러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황해의 뱃길을 관장한다는 적산명신과 관음전의 관음보살의 분수 쇼였다.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규모와 위엄은 과히 중국인의 기질을 잘 보여준다. 남산대불을 방불케 하는 규모의 적산명신은 과히 황해 앞바다의 뱃길을 관장할 것 같은 위엄이 엿보였다.

관음전의 관음보살은 약병을 들고 만민대중의 질병과 걱정을 없애 주고 복을 내린단다. 바로 적산의 관음보살은 분수 쇼로 만민에게 그 복을 뿌려주었다. 강한 햇볕에 반사된 그 분수의 물안개는 설령 복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탄성을 자아내며 30분 가까이 진행되었다. 정말로 굉장한 경험이었다. 불교신자이신 시어머님께 그 광경을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멋있었다.

일정의 마지막 코스는 장보고 전기관과 장보고 기념탑이었다. 장보고의 일대기와 그의 활약상, 21세기 그의 재조명, 또한 장보고 상단의 출토 유물, 장보고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탑이었다. 진정한 해양경영자이자 지도자였던 장보고의 업적을 기리고 21세기 해양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듯했다.

이로써 중국에서의 답사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얻은 것도 많은 여행이었지만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답사였다. 다음 번 중국 여행은 여행에 앞서 철저히 준비하고 공부해야겠다. 미리 공부를 했다면 또 다른 감흥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유적지에서의 느낌은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였

고, 역사학도로서의 꿈을 다시금 부풀어 오르게 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우리는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처럼 똑같이 석도항을 거쳐 화둥훼리에 승선하였다. 우리를 고국으로 실어다 줄 이 배는 여전히 거대하였고 여행의 막바지의 아쉬움을 달래며 바다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다. 선상의 일몰을 또 한 번 경험하고 나의 첫 번째 중국 여행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세계와의 접촉 이것이 바로 여행의 참다운 묘미가 아닐까.

끝으로 이런 기회를 주신 장보고사업단 관계자 분들과 여행을 뜻깊게 도와주신 교수님들, 동아일보 관계자, 해양수산청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선상의 마지막 밤이 저물어 가고 내일의 해가 떠오르려 한다.

제6일 다시 인천으로

드디어 인천이다. 잠에서 깨어보니 어느덧 낮익은 인천 앞바다의 조그만 섬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다. 여행에서의 첫 만남이 어색한 반면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아쉽다. 내 머릿속, 눈 속의 장보고 답사 일정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 눈으로 본 장보고의 위상과 해양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배가 부두에 도착하자 내 마음은 벌써 집에 가 있었다. 나를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과 가족의 품으로.

한국이 모르는 한국

인천 검단중학교 이혜란

내 생의 봄날—출발에 앞서

교실 문 위에 적힌 내 이름이 아직도 낯설게 느껴지지만 사랑스런 아이들이 있어 하루하루가 행복한 나는 신규교사이다. 신규라 아직 정신이 없지만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신청을 했다. 평소 복권이나 경품은 당첨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운이 좋게 답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연락이 왔다. 혹시라도 중도탈락 될까봐 여권이며 참가비, 서약서 등을 바로 챙겨 보내고 확인하면서 긴장하던 내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난다.

이번 답사는 참여하는 선생님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답사 전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역사스페셜에서 장보고 관련 방송분을

찾아보고, 장보고에 관련된 책을 사서 밑줄 그어 가며 읽고,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결국 보지 못했지만) 작년에 종영된 드라마 〈해신〉을 다운받기도 했다.

교사가 되어 처음으로 해외를 나간다는 것과 전국의 여러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올해는 내 생애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

물 위에서의 하룻밤—출발

출발 몇 일 전부터 장마가 시작되어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날이 계속 되었다. 이러다가 답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배가 뒤집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지만 무사히 인천항을 출발할 수 있었다. 평소 멀미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멀미약을 챙기지 않았었는데 여러 선생님들의 귀에 붙여진 멀미약을 보니 불안한 생각이 들어 급하게 키미테를 사서 붙였다. 그런데 출국 수속을 마치고 배에 올라 같은 방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키미테가 ‘뚝’ 떨어졌다. 어렸을 때 붙이고 붙여본 적이 없어서 나름대로는 설명서를 읽고 붙인다고 붙인 것인데 투명비닐을 벗겨내지 않고 붙였던 것이다. 덕분에 우리 방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내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다(키미테는 친절 한 장금정 선생님께서 다시 붙여주셨다). 키미테 덕분에인지 흔들림은 있었지만 배 멀미는 없었다.

낮선 곳으로 간다는 설렘과 바닷물을 가르며 가고 있다는 신기함에 잠이 들기 전 배 뒤쪽으로 나가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불빛들이 동화 속 그림처럼 보일 것 같았던 나의 기대와는 달리 바닷물 외

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망망대해라는 말이 이래서 생겼나 싶었다. 순간 칠혹 같은 어둠 속을 뚫고 나가는 우리가 불안하게 느껴졌는데 그 옛날, 과학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뒤떨어지던 시기에 목숨을 걸고 푸른 바다를 향해했을 장보고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대함의 자부심—중국의 유적

많은 인구와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진 중국. 중국의 많은 유적지를 돌아보고 나서 느낀 것은 규모면에서는 어느 나라의 유적·유물도 중국의 것과 견줄 수는 없겠구나 하는 것이었다. 특히 높이 38.66미터, 무게 380톤인 남산대불을 본 우리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남산대불 밑에는 9,999개의 불상이 모셔져 있었는데 현지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중국인들은 무엇인가에 비는 것을 매우 좋아해서 빌 만한 대상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한참 동안 광활한 중국의 땅덩어리를 실감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문득 엄청난 비용과 노동력을 들여가며 세계최대의 좌불을 만든 중국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어쩌면 중국은 이 대불을 만들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대불을 보고 ‘역시 중국은 대단한 나라야.’라고 생각하게 되길 바라지 않았을까 싶었다. 만약 그렇다면 중국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국의 어느 유물보다 오래되지도 또 가치 있지도 않은 이 대불이 참 많이 기억에 남는 것을 보면.

부익부 빈익빈—사회주의 국가 중국

학교에서 나는 1학년 사회와 2학년 국사를 맡고 있는데 답사를 참여하기 전 중국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중국은 빈부격차가 크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도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중국에서도 발전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은 6차선의 직선 도로가 쪽뻗어 있고, 밤이면 전구가 수십 개씩 달린 화려한 가로등이 거리를 환히 비추었으며 아파트가 높이 솟아 있었다. 또 주차되어 있는 차들 대부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입 차들이었다(그 수입 차 중에는 우리나라 차도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뿌듯했다).

반면 시골은 어렸을 적 중국영화에서 보았던 허름한 집에, 도로는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였다. 또 주변의 옥수수 밭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과연 이러한 곳에 학교가 있기는 한 것인지 걱정이었다. 현지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교육의 혜택은 물론이고 직업의 경우에도 간부들은 그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회주의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과거의 불평등했던 사회를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한 사회를 꿈꾸며 죽어간 사람은 얼마이며 희생당한 사람은 또 얼마인가. 그런데 그 노력의 끝이 이렇다고 생각하니, ‘인간의 욕심이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쓸쓸해졌다.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다—중국의 풍경

해외여행이 처음인 나는 중국이라는 곳은 우리와는 많이 다른 색다른 곳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중국의 땅이 거대한 만큼 5박 6일의 답사 일정은 산동성 일대를 도는 것인데도 이동시간이 보통 3시간 정도씩 걸렸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의 시간이 많았는데 버스 안에서 바라본 중국의 풍경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밭을 가득 메운 옥수수, 나무그늘 밑에서 장기 두시는 할아버지들, 시청 앞 광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연인들, 도로에 열 맞추어 서있는 자동차들, 부모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이들. 게다가 태산을 올라가면서 본 아기 손바닥처럼 생겼지만 가시가 돋아 있어 따가운 환삼덩굴은 반갑기까지 했다.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밀어 올리며 창밖에서 무엇인가 색다른 것이 보이기를 기다리던 나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왠지 친근하게 느껴져 흐뭇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뒤흔다—태산 등정

산동성 일대를 다시 오게 된다면 꼭 한 번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은 태산이다. 태산은 진시황이 봉선의식을 행한 곳으로 또 양사언의 시조로 유명하지만, 부끄럽게도 중국의 역대 황제들이 봉선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오른 태산이, 양사언이 높다 했던 그 태산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이번 답사를 통해서이다.

유네스코가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태산은 높이 1,545미터로 산동성에서는 가장 높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한라산보다는 약간 낮

다. 하지만 자연 그대로 보존이 잘 되어 있는 풍경과, 산을 가득 휘감고 있는 안개는 태산을 더욱 신령스러운 산으로 만들어,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오르고 또 오르게 하는 것 같았다(비록 머리는 감지 않은 것처럼 뭉쳐졌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는 버스를, 또 어느 정도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 옛날 봉선의식을 행하기 위해 황제를 모시고 이 높은 곳까지 올랐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또 태산에 한 번 오르면 지상에서 적어도 10년은 장수할 수 있다는 말을 생각해보니, 너무 쉽게 태산을 오른 것 같아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한국이 모르는 한국—적산 법화원

분명히 장보고 유적 답사인데 중국에서 보낸 3일 동안의 일정은 장보고와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에 보게 될 장보고 유적에 대한 기대감과 궁금증에 부풀어 있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우리가 본 석도에 있는 장보고 관련 유적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가까웠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보기 힘든 규모의 유적지가 딱하니 자리 잡고 있었는데 가이드와 교수님의 설명은 더더욱 놀라웠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장보고를 박스 하나의 도움글로 간략히 소개하고 넘어가는 사이 중국에서는 360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장보고 기념관을 세우고 많은 볼거리들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11시에 시작된 행사는 사원 전체를 울리는 음악소리와 함께 거대한 불상이 돌아가고 분수들이 춤을 추었다. 심지어 불상 안에서 작은 보살들

이 나와 춤을 추고 불과 물을 뿜기까지 하였다.

장보고 기념사업회 관계자 분이 가보면 놀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이 정도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그 거대한 불상이 움직이며 불과 물을 뿜어내는 광경을 보고 우리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행사가 끝난 후 우리는 장보고가 세운 법화원을 보기 위해 내려갔다. 법화원은 장보고가 세웠을 당시 산동성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절이었다고 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은 후에 재건된 것이라고 한다. 조금 부끄러운 사실은 이 법화원이 일본인들의 돈으로 재건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장보고는 유명한데, 《입당구법순례행기》로 유명한 엔닌 대사에 의해 일본에도 적산선원이 지어졌으며 일부에서는 일본이 모시는 대명신을 장보고로 보기도 한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인 장보고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데에는 감사해야하겠지만 과연 이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훌륭한 교사 되기—답사를 마치며

뜻밖의 행운으로 5박 6일 동안 너무 알차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동안 장보고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 알게 된 것이 그 첫 번째이고,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고 느끼게 된 것이 그 두 번째이고, 역사는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 그 세 번째이다. 한국인 중에 장보고가 우

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한 사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장보고 유적지에서 거대한 불상과 불거리에 감탄하며 중국인 장보고에 놀라며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21세기, 우리는 발전된 과학과 기술의 문명 속에서 살고 있다. 과거에는 영토를 얻기 위해 각국이 치열하게 무력싸움을 펼쳤다면 현재는 역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지식싸움을 펼쳐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만약 우리 스스로 지켜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역사는 언제 과거 속으로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 교사로서 내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 것 인지를 새삼 느낀다. 개학을 하면 아이들에게 이번 답사에 대해 이야기 해 주어야겠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것이 너무도 많다고.

● 감사의 인사

너무 인자하신 조장님 김익노 선생님, 답사를 더욱 재미있게 해주신 큰 형님 김규철 선생님, 차분하고 따뜻하셨던 김동군 선생님, 누구보다 바쁜 방학을 보내신 행운의 주인공 안상현 선생님, 아리따운 큰 언니 홍미화 선생님, 항상 밝은 미소로 편하게 해주신 장금정 선생님, 똑똑하고 배려심 많은 9월의 신부 이은경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장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만남이 앞으로도 긴 인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장보고, 그를 재조명하다

대구 대곡초등학교 조정선

“조 선생님, 선생님 이름 있데요. 축하해요.”

“네?”

“장보고 유적지 답사 신청했었죠? 이야, 이런 일이.”

장보고 답사 일정. 어쩌면 학년 부장 선생님의 당첨(?) 소식부터 시작된 것 같다. 솔직히 아무 기대 없이 공짜 여행(?)이라는 솔깃한 제안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뿐인데 막상 잘 모르는 선생님들과 먼 중국까지 가려니 두려운 마음부터 들었다. 거기다 방학하는 날 출발이라 아이들 걱정, 학교 사정, 걱정, 걱정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마음들로 지금부터 내가 시작하려는 일정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앞으로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다.

점점 날씨는 다가오고 이것저것 준비하면서도 장보고라는 역사적

인물보다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의 매력에 설레고 있었다.

어쨌든 하루하루 날씨는 지나가고 드디어 7월 21일이 다가왔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인천행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처음으로 장보고라는 인물에 대하여 생각했다. 알고 있는 건 텔레비전 드라마 <해신> 속의 탤런트 이미지뿐인데...

드디어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 장보고 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과 넥스투어 여행사 직원 분들이 일찍부터 나와 기다리고 계셨다. 잠시 휴식 후 조출한 확인 절차와 안내 자료를 받고 여객터미널 안을 둘러본 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후 긴 기다림 끝에 중국으로 향하는 배에 탑승할 수 있었다. 중국 석도항과 인천항의 거리는 400킬로미터에 불과하다. 그러나 긴 출국 수속 시간과 입국 수속 시간으로 인해 거의 하루를 배에 타고 배로 이동하는데 다 소비해야 한다. 물론 나라 간의 이동이고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로의 입국이니 당연하다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낭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배에 오르고도 3시간여의 긴 기다림 끝에 배가 출발하고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

드디어 시작되는 장보고 답사. 같은 선실 선생님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었다. 신기하게도 전라도 광주 선생님 두 분과 경남 마산의 선생님, 그리고 대구. 이렇게 방배정이 이루어졌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와 경상도 사투리가 잘 어우러져 긴 항해가 그다지 지겹게 느껴지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처음이자 마지막 선상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교수님으로부터 이번 답사의 의미와 '장보고'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역사적 영웅 장보고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중국, 일본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장보고. 어린 시절부터 무예에 뛰어나고 통솔력이 출중했으며 그 시대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한국을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었다는 뛰어난 무역인이자 개척인. 지금 내가 거대한 대륙 중국에서 그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벅차올라왔다.

선실에서 첫날은 그 설렘과 기대, 그리고 배의 흔들림, 소음 때문인지 그다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새벽녘 잠깐 잠들었을까, 옆 선생님들의 기척에 눈을 떠보니 벌써 날이 환하게 밝아 있었다. 날씨가 조금 흐려 잘 볼 수는 없었지만 이름답게 돌산이 여기저기 눈에 띄는 '석도'에 배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아침을 먹고 또 배에서 한참을 기다린 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드디어 넓은 대륙 중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여기저기 보이는 한자 간판들, 군복을 입은 직원들, 조금은 요란스럽게 들리는 중국어 덕분에 내가 정말 중국에 왔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처음 일정은 연태시로 이동하여 점심을 먹는 것. 연태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이제 여행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설렘에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중국인들과 중국거리를 탄성을 지르며 바라보았다. 연태 식당에서 맛보았던 첫 중국 요리, 생각보다 입에 맞아서 다행이었다. 중국 여행에 있어 가장 힘든 게 음식이라는 얘기를 들어서일까, 관계자 분들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처음으로 본 중국 거리. 한국의 여느 도시와 다름없이 활기차고 세련된 분위기였다. 다만 신호등에 시간이 적혀 있어 얼마 후면 신호가 바뀐다는 걸 알려주는 게 이색적이었다. 성질 급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10초 전부터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만 느긋하게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처음 답사지는 천 년 유적지 봉래각. 봉래는 옛날 신선들이 살았다는 전설 속의 바다 가운데 있는 산의 이름이라 한다. 그 경치가 수려하여 봉래라 이름 지었다는 데서 알 수 있듯 정말 절경이었다. 천 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그 보존 상태도 너무나 좋았고 역시 대륙답게 그 양식 또한 웅장하고 거대했다. 단애선경방, 용왕궁, 그리고 팔신상을 보고 넓게 펼쳐진 등주수성과 고선박물관을 둘러본 뒤 사진 촬영을 하고 버스에 올랐다.

유방시를 거쳐 치박으로 이동, 첫 숙소로 향했다. 중간에 잠시 들른 중국 휴게소는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이곳저곳 구경도 하고 연으로 유명한 유방시답게 한 쪽에 마련된 연을 파는 상가 앞에서 기념사진도 찍었다.

드디어 치박시에 도착, 저녁을 먹고 숙소로 들어왔다. 하루 종일 차만 타서인지 정말 피곤했다. 전력이 모자라 중국에는 불이 일찍 꺼진다고 했지만 치박시의 야경은 어느 도시 못지않게 아름다웠다. 룸메이트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중국에서의 첫날밤이 깊어감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좋은 숙박, 음식, 교통, 가이드까지 제공해주시는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한 맘도 함께.

이튿날 일정도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새벽에 모닝콜로 시작한 아침. 재빨리 씻고 짐을 모두 챙겨 내려가 간단한 아침식사를 하고 태안으로 이동했다. 말로만 듣던 태산을 오르기 위해서였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피외로다.'라는 유명한 시조에 나오는 태산.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나라 지리산보다 낮은 산이라 한다. 하지만 그 넓은 들판에 우뚝 솟아 있으니 상대적으로 정말 높게 느껴지지 않았을

까. 중국 5대 명산답게 그 수려한 자태가 너무나 멋있었다. 예부터 중국 황제들은 황제에 등극하면 태산 등정을 필수로 삼았다 한다.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케이블카도 있고 여러 편의시설들이 많지만 그 많은 계단을 걸어서 올라야 했다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황제 같은 사람은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직접 걸어 올라가지도 않았을 것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을까. 지금은 버스로 20분, 케이블카로 20분, 계단 800여 개를 걸어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닿을 수 있지만 지금도 걸어서 꼬박 4시간 30분이 걸린다는 그 계단을 무거운 황제를 짊어지고(?) 올라갔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맘이 찢해졌다.

곳곳에 펼쳐진 멋진 경치와 더불어 태산 위의 사당, 꼭대기에서 바라본 경치는 아직도 눈에 선하다. 특별히 중국 사람들은 소원을 비는 형태가 큰향, 나무에 묶어놓은 리본 등 참으로 다양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자물쇠였다. 열쇠가 없는 자물쇠에 소원을 새겨 죽 둘러놓았는데 그 모습이 이색적이었다. 특히 연인들이 와서 사랑의 맹세를 하고 간다고 하니 그 의미가 더욱 새로워 보였다. 소원도 참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긴 중국 인구가 얼마인가.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궁금해졌다.

다음 이동한 장소는 중국 제나라 역사박물관. 태산에서 시간이 좀 지체되어서인지 박물관 폐관시간이 훨씬 넘어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멀리서 온 우리 일행을 위해 배려해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중국 제나라의 산생, 발전, 흥성과 쇠망사를 설명해주는 박물관을 가이드의 설명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았다. 중국의 무한한 발전을 기뻐할 수 있는 멋진 곳이었다.

다음은 기대했던 제경궁 순마궐으로 이동했다. 순장에 대해서는 막

연히 의미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기대되었다. 꼬불꼬불 논길을 지나 시골 마을 한가운데에 있던 순마갱. 우리가 살펴본 곳은 5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말들의 뼈가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소름이 끼쳤다. 이곳에 누워있는 말들은 모두 건장한 수말들로 약을 먹여 독살했다는 견해, 머리를 쳐서 죽였다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죽어서도 그 권력을 뽐내고 싶어서였을까. 안타깝게 죽은 말들이 불쌍했다.

둘째 날 일정의 마지막 유적지는 강태공 사당. 그냥 한량 시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강태공이란 인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쏟아버린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멋진 명언을 남긴 강태공을 생각하며 연으로 유명한 도시 유방으로 이동하여 둘째 날 저녁을 맞이했다. 연으로 유명한 도시답게 도시의 가로등이 나비 연 모양을 본떠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오늘도 강행군, 거의 10시가 되어서야 저녁을 먹고 쉴 수 있었다. 실제로 유적지를 둘러보는 시간보다 이동시간이 너무 길어 중국이 넓은 곳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날, 남산으로 이동하여 남산 종교문화원과 남산대불을 보았다. 남산 종교문화원과 남산대불은 연태 용구시 관할이었다. 남산그룹을 중심으로 한 마을로 도시자체 내에서 모든 것이 가능했으며, 도연명이 쓴 남산천지와 비슷하다고 한다. 정말 한 기업에서 만든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게 모든 곳이 아름답고 멋지게 잘 꾸며져 있었다. 높이가 38.66미터이고 무게는 380톤에 달해 세계 최대의 좌불 동상으로 그 위용을 자랑하는 남산대불은 명성답게 장관이었다. 그곳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중화역사문화원을 둘러보았는데 어제 본 제나라 박물관에 맞먹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잘 정리되어 있었다. 다만 그곳에 있는 모든 유품들이 모조품이라 아쉬웠다.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중국의 여러 시대의 모습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또 기억에 남는 것은 문화원을 둘러보기 전 잠시 관람했던 와족의 공연이다. 와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동양인답지 않게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데 관광객이 오면 그 민족의 전통춤과 여러 가지 공연을 보여준다고 한다. 시작무를 보고 가수의 노래 한 곡으로 마무리된 그날 와족의 공연은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다. 와족의 멋진 청년과 의 사진 한 컷을 기념으로 두고 돌아섰다.

다음 목적지는 석도진과 진시황 사당. 우리가 처음 밟았던 석도진에 다시 돌아왔다. 중국 대륙 동쪽의 끝 성산두를 밟으니 저 멀리 우리나라가 보이는 듯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이라 인천의 새벽닭 우는 소리가 이곳까지 들린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한다. 집을 떠난 지 어언 나흘, 갑자기 가족들이 그리워졌다.

석도진은 장보고 시대에 장보고 통제 하에 있던 국제무역항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신라인이 모여 살던 적산촌이 있으며 중국내 가장 대표적인 장보고 관련 유적지라 하겠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보았던 장보고 관련 자료들을 보면 일본 엔닌 스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보고와 신라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유학을 마치고 《입당구법순례행기》를 썼다. 그 기록에 보면 장보고의 입지가 중국 내에서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중국은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될 거라고들 한다. 이런 중국에 아주 오래전 무역 중심권을 쥐고 호령했던 장보고가 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위태위태한 한국의 모습이 눈에 떠올라 잠시 맘이 찼했다.

마지막 코스는 진시황 사당. 불로장생을 꿈꿨던 가장 유명한 중국의 황제 진시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시황 사당은 중국 내 이곳 한곳 밖에 없다고 한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긴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가기 전 동아일보사에서 마련한 만찬에 참여했다. 돌아가는 판만 봐도 속이 울렁거린다던 선생님들도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흥겨운 분위기에 취했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낀 일정. 이런 일정을 마련해주신 장보고 재단 관계자 분들과 협조해주신 동아일보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맛있게 하루를 마무리했다.

마지막 날 아침은 좀 느긋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 더 이상의 이동도 없고 일정도 느긋했기 때문이었다. 느지막이 일어나 아침을 즐기고 석도 호텔 주변의 멋진 해안을 산책했다. 오랜만에 누려본 여유였던 것 같다. 마지막 일정은 이번 답사의 하이라이트인 적산 법화원. 장보고 기념관과 적산선원이 있는 곳이다.

개척인, 무역인, 해상왕 장보고가 그 먼 옛날 지은 곳이라 한다. 흥덕왕 3년에 신라로 귀국하여 청해진을 창설하고 대사를 봉해 받음으로써 한·중·일 삼국의 해상무역을 독점하고 한·중·일 간의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하여 해상무역왕으로 불리었던 그가 해상운송사업이 번영하기를 기원하면서 지은 사찰이라 한다. 곳곳에 남아있는 그의 흔적과 한글 안내판에 묘한 자부심을 느꼈다. 실제로는 일본인들이 다시 보수하고 개조했다고 하나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세운 갖가지 비석들을 모조리 뽑아버렸다고 하니 참으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아무튼 세계 곳곳 사람들에게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고 하니 정말

뿌듯했다. 이곳을 오기 위해 중국에 왔다는 관계자 분들의 말씀을 의미심장하게 들으며 모두 모여 단체사진을 찍고 잠시 앉아 이곳의 배경에 대해 교수님들로부터 강의를 들었다. 이곳이 얼마나 요충지이며 그 당시 장보고가 했던 무역들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일들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영웅에게 얼마나 무심했으며 적대시했는지. 정말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어제 봤던 남산좌불상에 맞먹을 만큼 큰 적산법신상. 중국인들은 장보고를 해신으로 떠받들며 대단하게 여겼는데, 한반도를 바라보며 호령하는 듯한 모습에 왠지 모를 아쉬움이 들었다. 그 먼 옛날에도 할 수 있었던 일을 왜 지금은 못하는 건지. 지금 뭐하고 있냐고. 장보고가 그렇게 호통 치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시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이 될 그런 날이 올까? 그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곳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내 시대에서 못한 일들을 그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북돋아주고 격려해 주는 게 내 일이겠지. 문득 우리 반 꼬맹이들이 못 견디게 보고 싶어졌다.

다음은 11시마다 펼쳐지는 보살상의 분수 쇼. 규모도 어마어마했지만 음악에 맞추어 아름답게 펼쳐지는 분수 쇼는 이번 답사에서 볼만한 거리 중의 하나라는 가이드의 말대로 멋진 장관이었다.

마지막 코스는 장보고 기념관과 장보고 기념탑. 한글로 적혀 있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최후까지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 왜 영웅이 영웅인가를 느끼게 해주었던 곳이다. 장보고 동상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해신> 드라마 기념관까지. 정말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장보고 기념탑은 적산 법화원의 북쪽에 위치한 높은 탑으로, 장보

고 기념탑 여섯 글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라 한다. 한·중 양국 국민의 친선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한 곳. 멀리 대한해협이 보인다. 언젠가는 장보고 같은 인물이 다시 나타나 그때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씩씩히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 그동안 함께 했던 선생님들과의 이별과 짧은 긴 일정이 너무 아쉬웠지만 다시 시작된 출국 수속 절차와 입국 수속 절차에 긴 시간이 흘렀다. 그 먼 옛날 장보고 시절에도 그랬을까. 처음 출발할 때도 느꼈던 거지만 너무 번거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졌다는 이야기겠지. 그 먼 옛날에도 바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길을 제공해 주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에 힘들다.

돌아가는 시간은 금방 지나갔다. 여행의 여독 탓인지 금방 잠들었고 금방 인천에 도착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여행사 분들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사해 주셨다. 다시 한국에 돌아오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방학과 함께 시작된 나의 장보고 답사가 이제 마무리되려 한다.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알게 된 여행이었다.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나선 여행이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의 무한한 발전에 두려움도 느꼈고 넓은 대륙의 모습에 부러움도 느꼈다. 내가 생각한 중국과 너무나 다른 모습에 놀랐고 잘 보존된 유적지와 문화재에 또한 놀랐다. 점점 발전하고 있는 중국이 이제는 두렵기까지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장보고라는 인물에 대해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된 것이 이번 답사의 큰 소득이 아닐까 한다. 그 먼 옛날부터 깨어있던 장보고. 최후가 극적이어야 영웅이 더 빛난다 하지만 그런 영웅을 일

찍 보내버린 그때 그 모습이 지금도 개척자, 혁신자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씩씩했다. 경제적 가치를 떠나 그런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인물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해상왕 장보고. 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준다. 그는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이번 답사를 편안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신 장보고 재단 관계자 분들과 벡스투어 여행사 직원들. 함께 한 1기 선생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장보고 답사를 다녀와서

울산 농소중학교 장사라

2006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4차 답사팀에 선발되어 8월 11일 인천에서 출발하여 8월 16일 인천으로 돌아오는 5박 6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다녀왔다.

여름의 한 중간인지라 어딜 가나 더운 날씨였다.

아침 일찍 동행도 없이 울산에서 인천 가는 버스를 타고 6시간 만에 인천에 도착하였다.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에 들어서니 일행으로 보이는 교사들이 군데군데 보였다. 제대로 찾아왔나 보다. 처음 온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은 낯설었지만 중국 답사의 흥분으로 주위의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껴졌다.

답사 일정표를 받고 답사 주의사항과 설명을 들은 후 화동훼리에 승선을 하였다. 내가 소속된 조는 섬에서 온 선생님을 위시하여 울산과 진해, 인천에서 온 나이와 지역이 각각 다른 5명의 교사가 한 팀인 13조였다. 서로 통성명을 하고 보니 공통점도 있고 의사소통도 잘 되

어 즐거운 시간을 예감할 수 있었다.

답사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1. 8월 11일 (금요일) — 인천에서 화동훼리를 타고 오후 6시에 출발하여 선상에서 석식과 세미나를 하고 취침
2. 8월 12일 (토요일) — 아침 8시에 석도항에 도착하여 입국 수속을 마치고 연태, 봉래로 이동하여 봉래각과 등주수성, 고선박물관을 보고 치박에서 숙박
3. 8월 13일 (일요일) — 태산 등정, 옥황정 견학, 강태공 사당과 제나라 역사박물관 및 순마갱을 보고 유방으로 이동
4. 8월 14일 (월요일) — 남산으로 이동하여 남산대불과 중화역사문화원, 영성의 진시황 사당, 성산두 견학하고 석도로 이동
5. 8월 15일 (화요일) — 장보고 기념관, 장보고 기념탑, 적산 법화원 견학 후 석도항으로 이동하여 출국 수속, 승선
6. 8월 16일(수요일) — 인천항 도착 후 집으로...

빡빡한 답사 일정이지만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를 돌아본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뗌다.

1. 8월 11일 (금요일) 첫째 날

배에 승선하여 방 배정을 받으니 4명이 한 실인데 인천 정 선생과 나 그리고 동아일보 기자 두 분이였다. 생각보다 배의 흔들림이 적어 출항을 해도 육지와 다를 바 없었다. 배가 크기도 하지만 오늘따라 파

도가 없는 잔잔한 날이란다.

선내에서 저녁을 먹고 간단한 세미나를 했다. 모두들 처음 만나는 얼굴이지만 금방 친해져서 끼리끼리 자리를 잡고 장보고 답사의 취지와 설명을 들었다.

장보고에 대한 사전 지식은 조금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역사를 전공하시는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답사기간 내내 장보고에 대한 6부작의 비디오 시청으로 역사 속의 장보고를 접하다 보니 마지막 날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함께 탄 차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장보고 비디오 방영이 끝난 데 대해 아쉬워하여 결국 본 것을 다시 보게 되었다.

한편에서는 긴 버스로의 이동으로 보다가 듣다가 졸다가 마치 자장가처럼 익숙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똑같은 바깥 풍경에 질려서 한 번 본 비디오나마 볼거리가 있다는 것일 수도 있고...

나에게 있어 장보고에 대한 설명은 귀를 기울이게 하는 내용이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세계인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중국과 일본의 역사에 기록된 인물이며,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선지자로 산 1200년 전의 인물, 우리의 역사이자 미래인 장보고.

그는 1200년 전 통일신라시대 남쪽의 작은 섬마을에서 검술과 활쏘기를 좋아하는 '궁복'이라는 이름의 소년으로 살다가 당나라로 건너가 서주 무령군 군중소장까지 올랐다. 그러나 조국의 바다로 돌아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하며 청해진 기지에 머물지 않고 당나라 내 고구려와 백제 유망민과 신라인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상적·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또한 주요 교통요지에 자치지역 망인 신라방, 신라소를 설치하여 무역대표부이며 교포사회의 구심점

으로 활동하였다. 이렇게 활약한 곳을 보면 산동성 적산포를 위시해 중국 일대에 10여 곳과 일본 하카다 태재부 등 동북아시아의 해운·수운의 교통요충지 및 상업도시 지역에 분포되어 당시 한·중·일 3국의 대외경제무역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더 멀리 이슬람과 삼등 서방 무역세력을 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장보고 답사는 산동성 중 문등현 청녕향 적산촌으로 현재 산동성 영성시 석도진에 장보고가 창건한 사찰을 중심으로 돌아보게 되었다. 장보고 상단의 국제통상 지식과 정보력은 당시로는 상상을 뛰어넘는 우수한 수준이라고 하니 오늘날 “바다를 경영함으로써 대륙을 지배한다.”는 역사적 사실의 증인이랄까.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고 나니 잠이 쏟아졌다.

어제부터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늦게까지 짐 정리 하랴, 새벽에 첫차를 타고 오랴, 억만금을 준대도 잠을 자야겠기에 밤바다의 운치도 아랑곳없이 방으로 갔다.

2. 8월 12일 (토요일) 둘째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다. 숙면을 취하고 난 후의 개운함으로 아침을 먹었다. 여긴 분명 중국 땅이건만 선상에서의 식사는 우리 입맛에 맞게 짜여졌다. 간단한 입국 절차를 마치고 석도항에 내리니 물안개가 자욱하다. 기념으로 사진을 찍으려 하니 가까이 있는 중국 여자 공안원이 중국어로 뭐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지 말란다. 역시나 중국 땅에 오긴 왔나보다.

대기하고 있는 버스에 오르니 중국 현지가이드가 안내를 시작한다.

말투가 조선족인 것 같은데 역시 그렇다. 버스 기사를 우리 표현으로 '따꺼' 라고 한다. 가이드의 중국에 대한 소개가 시작되었다.

산둥반도는 한반도의 서해안과 마주보고 있어 우리나라에 온 화교의 대부분이 산둥성 사람이며, 우리가 즐겨 먹는 중국 음식도 산둥음식이 많다는 것이다. 산둥은 농업이 발달되어 있다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경치는 온통 녹색 밭이며 드문드문 붉은 기와와 벽돌로 지어진 농가뿐이다. 스쳐 지나가는 경치로 보면 한적한 휴양지 같은 분위기인데 여기에서는 대부분의 집들이 값싼 붉은 기와와 흙으로 짠 벽돌이란다. 우리 집을 저렇게 지으면 좋으련만...

2시간 후 연태시에 도착하여 '신룡상 대반점'이라는 곳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기대를 훨씬 넘어 중국 음식에 대한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다.

이후에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는 점심이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해산물도 한상 가득하고 현지에서 재배한 옥수수맛을 어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는가? 너무 많은 요리접시인지라 세어 보니 모두 12가지나 되었다. 이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먹은 음식들은 만찬 수준이고 집집마다 조금씩 맛에 차이가 있었는데 어떤 음식점에서는 음식이 너무 짰다. 이유인즉 소금이 많이 들어가야 손님이 음식 값을 지불하는 지방이라나?

아름다운 해안도시인 연태를 지나 봉래라고 신선이 살았다는 전설 속의 도시로 향했다. 봉래각으로 향하는 발길은 숨을 허덕이게 하였다. 오늘이 토요일이라 중국 현지 관광객들도 많았다. 여기저기서 중국 가이드들의 설명이 이어져도 우리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든 우리 가이드만 열심히 따라다녔다. 중국어를 할 줄 알면 남의 가이드 따라다니며 들어도 별 문제 없겠지만.

등주수정은 시원한 바닷바람을 선사하였다. 당나라 때 신라방이 있어 많은 신라인이 살던 곳이고 국제적인 무역항이었으나 근래는 모래와 흙이 많이 쌓여 수심이 얕아져 지금은 큰 선박이 정박할 수 없는 관광지로 변모되고 있다.

박물관에는 화강석으로 선박을 조각해 놓았다. 박물관 내에서의 기념품 가게를 보니 여기가 중국인 게 실감이 났다. 중국은 기념품 가게가 제한구역도 없이 있었으며 사찰에서는 어딜 가나 향을 팔고 있었고 자기 키보다 더 큰 향에 불을 붙이고 복을 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봉래에서 치박으로 가는 길은 끝이 없었다. 버스를 타면 명지대 김교수님의 해박한 중국 역사 설명이 시작되고 끝날 때쯤이면 중국 현지 가이드의 설명, 그리고 지겨울 때쯤 해서 해상왕 장보고 비디오를 방영하였다. 그러다 보니 하루 평균 1,000킬로미터를 달리는 먼 여정이었지만 잠을 잘 수가 없어 저녁에 숙소에 가면 씻고 잠만 자고 나왔다.

느긋하게 밤의 문화를 즐길 여유가 없었으니. 며칠 동안 저녁에 맥주 한 잔 마시러 가자고 하곤 하루도 성사 못했었다. 치박에서 가까운 제나라의 도읍인 임치(臨淄)에서 중국에서의 첫날밤을 맞이했다.

3. 8월 13일 (일요일) 셋째 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뉘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태산에 올랐다. 태산으로 오르는 길은 굽이굽이 도는 가파른 길이라 버스에서 내려 23인승 소형 마이크로버스로 갈아탔다. 넓은 중국대륙에서 산이 있고 계곡이 있는 곳을 지나니 마음이 저절로 풍요로워지는 것 같았다.

지금쯤 우리나라에서는 이만한 계곡이면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와서 와글거리겠지만 여기는 몇 가족만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것이 보였다. 헉헉대고 올라온 버스가 멈춘 곳은 케이블카 지하 주차장이다. 케이블카는 연속으로 돌아서 6명씩 조를 지어 타니 순식간에 산중턱에 다다랐다. 아래를 내려보니 들꽃이 간간히 피어 있고 소나무들이 산에 가득하여 우리나라의 관광지에서 타는 케이블카 같다.

마주 오는 케이블카를 보며 카메라 셔터를 열심히 누르다 보니 어 느덧 정상이다. 10여 분의 시간이 아쉬웠지만 드디어 태산의 정상에 올라왔다. 어느 관광지에서 볼 수 없던 많은 사람들이 태산에 있었다. 우리 일행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중국인들이 많았다.

어느새 운무가 아래에서 밀려와서 멀리 보이던 누각이 안개에 가려 사라졌다 나타났다는 반복한다.

태산은 중국 오악(五岳) 중의 하나이며 해발 1,545미터라고 한다. 며칠 전 여름휴가로 올라간 지리산(1,915미터)으로 치면 전혀 높다고 할 수 없지만 내내 평원인 중국대륙에서 우뚝 솟은 태산은 그 자체가 독보적이고 안개에 가려진 옥황정(玉皇頂)은 신비롭기까지 하다.

태산의 중턱에서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고 있기에 빠르게 들여다보니 중국인들이 돌 앞에서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었다. 오악독존(五岳獨尊)이라고 쓰여 있는 각석이었는데 산을 오르면서 보니 각석이 엄청 많았다. 여기의 각석들은 역대 제왕이 봉선의식을 행할 때의 제문과 태산을 칭송하는 시문들로 되어 있단다. 중국에서 고어로 쓰인 글

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되는 글로 비교적 쉽게 읽히는데 시내에서 보는 중국어는 영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일일이 해석은 안 되어도 중국고어와 마주치면 읽는 시늉이라도 할 수 있어 좋다.

오악 중 으뜸인 태산은 중국인에게는 대단한 곳인가 보다. 태산의 최고 정상인 옥황정은 옥황상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는데 진시황과 한무제가 왔었다고 한다.

옥황묘에는 향냄새가 진동하였으며 변치 않는 사랑의 자물쇠를 채운 모습이 특이했다. 빠듯한 일정으로 태산을 뒤로 하고 내려오는 길은 오를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곳곳에서 전병을 만들어 파는 가게가 몇 군데 보이는데 아주머니들의 전병 만드는 솜씨는 가히 예술이었다. 내려오는 길에 곳곳에서 새소리가 나서 보니 새끼손톱만한 도자기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신기하여 먼 이국땅에서 잠시 아들생각을 하면서 1원짜리 새를 한 마리 사서 주머니에 넣었다.

내려와서 조금 전에 본 전병으로 찜을 싸서 점심을 먹었다. 처음에 식탁에 놓여진 전병을 봤을 땐 식탁용 냅킨인 줄 알았다. 냅킨같이 반듯하게 네모로 접혀져 있었고 처음엔 종이를 씹는 것 같았는데 몇 개 먹어보니 그런대로 괜찮았다. 식당 앞 한국 사람을 고객으로 한 임시 과일가게에서의 포도는 중국 답사 일정에서 가장 맛있고 싼 과일이었다. 천원으로 3송이의 포도라니. 우리나라에서는 만원은 가져야 살 수 있는 것을...

오후에 강태공 사당과 제나라 역사박물관으로 갔다.

산동성은 900년 가까이 번영했던 제(齊)나라가 있었으며 기원전 11세기, 주 왕조 창건의 공신(功臣) 여상(呂尚)이 그 공적에 의해 봉해졌던 것이 그 시초라고 전해지고 있다. 태공망(太公望)이라고 불리며 후세에 낚시의 대가로 유명해진 경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태공망

이라 불리는 여상은 노년이 되기까지 빈곤한 가운데 살았는데 낚시를 인연으로 주(周) 문왕(文王)을 거쳐 제나라의 초대왕으로 추대되었다는 강태공 사당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낚시하는 강태공'을 보게 되었다. 139세까지 산 전설적인 인물인 그의 그림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사당 내에서 얼마나 많은 모기에게 헌혈을 했는지 차에 오르니 다리가 온통 모기물린 자국이다.

제나라 역사박물관은 제나라의 진귀한 문물과 역사자료가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곳에서 산 술잔이다. 함께 간 기자분이 촉박한 시간을 틈타 제나라의 제왕이 사용하는 모조술잔을 기념품으로 사서 우리 버스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술잔으로 술을 한 잔씩 권하였다. 제왕이 사용한 술잔에 (비록 모조품이지만) 권하는 술을 마시는 기분은 제왕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술잔을 산 기자분의 채치와 술을 권하는 넉넉함에 차안은 순식간에 훈훈함으로 넘쳐났다.

제경궁 순마궐은 흙먼지 나는 시골길의 동네 한가운데 자리한 여느 가정집 같은 분위기였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국군 제경궁의 묘로 수 말 600여 필을 매장하여 제나라 국력의 강성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 내원이 사진 촬영시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유리창 너머로 일렬로 죽은 말의 뼈만 하염없이 보다가 철이 벗겨지고 천정에 비가 샌 흔적을 보면서 과거 영광스런 중국과 오늘의 중국이 확연하게 비교되었다.

문을 나서니 우리 13조 선생님이 제나라 박물관에서 본 가장 비싼 물건인 동물모양 술병을 보고 있었다. 차로 돌아와서 그 선생님 후담을 들은즉, 엄청 무거워 보이는 동물모양 모조술병을 들러다 너무 가벼운 바람에 천정으로 튀어 올라 귀가 떨어져 버렸단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을 사게 되었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우스운지.

유방에서 저녁을 먹고 어제보다 더 안락한 호텔에서 하루를 마감하였다.

4. 8월 14일 (월요일) 넷째 날

호텔방에서 중국 녹차를 한 잔 하고 이른 아침을 먹고 용구로 향했다. 오전 내내 장보고 비디오 시청으로 시간을 보내고 남산으로 갔다. 남산은 중국을 축소한 곳으로 남산그룹이 관할하는 하나의 마을이었다. 대학교와 공장뿐 아니라 레저시설과 중국 역사의 축소판이었다. 남산대불은 세계 최대의 좌불 동상으로 멀리서도 알아볼 만큼 규모가 커서 중국의 대륙적인 기질을 그대로 보여주었으며 중국의 민속무용 공연은 넓고 다민족인 중국을 보여주었다.

오후에는 진시황 사당과 성산두를 갔다. 성산두는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성산두의 바닷물은 우리나라 서해안과 맞닿아 성산두에서 소리를 치면 인천항에서 들릴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멀고도 가까운 중국과 한국임을 새삼 느끼게 한다.

영성에서 석도로 향했다. 영성에서 석도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컴퓨터 게임을 하듯 아슬아슬하였다. 우리가 탄 차가 이런저런 일로 출발이 늦었다. 다른 차들이 우리를 기다리다가 보다. 중국본토의 운전진수를 보게 된 것이다. 평소에는 느긋하던 따꺼가 시간이 촉박했는지 아니면 평소 운전습씨인지는 모르겠지만 차의 앞에 탄 선생님들은 내내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것도 한숨과 함께.

중국에서는 중앙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없단다. 그리고 건널목의 개념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앞의 차를 추월할 때는 중앙선을 넘

어 반대편 차선으로 추월하고 다시 돌아오는 아슬아슬함과 길을 건너는 사람과 차와의 아슬아슬한 간격을 보면서 버스의 앞쪽에 앉은 선생님들은 자동차 드라이브 게임을 하는 초등학생마냥 아찔아찔해 했고 기사와 함께 운전하느라 없는 브레이크를 밟느라 다들 진땀을 흘렸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모두 아연실색을 했다. 불안감을 감추지 못해 한마디씩 했지만 기사는 태연하다. 다반사인양.

석도호텔에서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기엔 너무 아쉬워서 늦은 시간 호텔을 나섰는데 보이는 것은 안개와 바다뿐, 더듬거리며 바다기슭을 걷다 아쉬움만 남기고 객실로 돌아왔다. 객실은 새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선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5. 8월 15일 (화요일) 다섯째 날

아침은 석도항의 안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금방 안개에 쌓여 앞을 분간할 수 없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청명해지는 것이었다.

오늘은 답사팀의 최종 목표지 장보고 유적지를 보러 갔다.

붉은 돌산인 적산 기슭에 장보고가 설립한 적산 법화원은 당시 산동성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불교사원이었던다. 일본의 엔닌 스님이 여기에서 3년 가까이 묵었으며 당에서의 여행기인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법화원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겨 놓았었다. 절의 규모는 지금도 굉장하다.

중국에서 보기 드물게 한국어로 표기된 장보고 유적관과 장보고 기

념탑을 둘러보면서 1200년 전의 한국인 장보고를 다시 한 번 새겨 보았다.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우리의 미래를 장보고 유적지를 보면서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다짐하였다.

아쉬움과 함께 석도항으로 향했다. 올 때와는 다르게 중국항을 떠나면서 세계를 무대로 살았었던 한국인이 있었다는 뿌듯함과 자부심, 특히나 나의 성씨인 '장' 씨 가문에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저절로 목에 힘이 들어간다.

‘자랑해야지 온 천하에. 훌륭한 한국인이자 장씨 가문의 영광이니.’

6. 8월 16일 (수요일) 여섯째 날

선상에서의 마지막 밤은 온통 아쉬움이다.

먼 거리를 함께 했으며 여름의 더위를 함께 했고 장보고의 정신을 함께 한 선생님들, 아쉬움으로 여름밤이 짧기만 했다.

해상왕 장보고 유적 답사 기행문

부산 상당중학교 이재숙

내가 장보고 유적지 답사에 관해 처음 들은 것이 6, 7년 전이다. 그때부터 유적지 답사단에 대한 동경을 해오다 이번 답사단에 참가하는 행운을 얻고 보니 복권당첨된 것보다 더 기뻐다. 게다가 가족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식적으로 온전히 나 혼자만의 여행을 즐길 수 있고, 또 공부를 하러 간다 하니 그야말로 우쭐해진 기분으로 집을 나섰다.

식구들 먹을 반찬이랑 아이들 옷가지 등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보낸 시간이 며칠, 주부에게는 여행 전 준비가 더 많다.

드디어 KTX에 오르니 이제부터는 자유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혼자 여행을 가냐며 매우 부러운 듯한 표정을 지을 때 왠지 모를 뿌듯함까지 합치니 여행이 더 즐거울 것 같다.

지하철 차내에서 산 500원짜리 부채조차 중국산이더니 인천에 도착하기도 전에 나는 벌써 중국에 가 있었다.

한참 만에 인천 국제여객부두에 도착하니 오후 1시 30분. 예정 집

결 시간보다 너무 일찍 도착했다. 인천항 어느 곳에도 장보고 재단의 흔적이 보이지 않다가 3시가 되니 광장에서 해상왕 장보고 답사단 플래카드가 펼쳐지고 있었다. 답사자료집을 받아들고 재단 측에서 마련한 단체 모자를 쓰니 마음은 이미 산동에 와 있다.

이윽고 뱃고동이 울리고 배가 출발하면서 선상에서의 첫 식사를 맞이하였다. 한 방에 배정된 선생님들끼리도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으나 밥상을 같이 마주하고 보니 오랜 친구 같다.

맥주 한 잔과 함께 한 선상카페에서의 낙조가 여행의 시작부터 환상에 젖게 했던 건 아닌지 모르겠다. 선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뜻모를 중국어조차 정겹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창문조차 없는 선실이었던 밤새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니 언제 잠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한 잔의 맥주와 아름다운 낙조로 인해 선상에서의 밤은 그렇게 낭만적일 수가 없었다.

마침내 중국 땅 석도항에 이르러 입국 수속을 마치자 석도항 광장에는 3박 4일 동안 우리 일행을 태우고 여행할 버스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곳이 바로 버스 안이다.

차창 너머 풍경을 음미하는 것 또한 여행의 맛이리라. 특히 그곳이 낮선 곳이라면 더욱 좋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곳이 다 중국이다. 중국의 산과 들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차 안에서의 시간인들 아까우랴.

이제부터 장보고의 흔적을 찾으러 다니는 여정이 시작되는구나 생각하니 버스 안에서조차 흥분된다. 버스 차창으로 보이는 석도는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 석도는 장보고 당시에는 문등현 청녕향 적산촌으로 불리었다. 적산포는 신라, 당, 일본을 이어주는 항로의 종착지이며 장보고의 대당매물사 선박이 오고가던 곳이다. 그 당시 국제 무역항이던 이곳 석도는 중국 내 가장 대표적인 장보고 관련 유적지이다. 장보고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 장보고 기념관, 적산 법화원, 장보고 기념탑 등이 있는 곳이다.

장보고와 동시대의 인물로 일본 천태종 3대 좌주 엔닌 스님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따르면 장보고의 인품과 그 세력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저는 생전에 직접 각하를 뵈옵는 영광을 아직 갖지 못하였습니단만 각하의 위대함은 전부터 들어왔기에 저의 흠모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봄이 한창이어서 이미 따뜻해졌는데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사의 존체가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십수 년을 역사 교사로 지냈지만 바다의 영웅하면 의례 이순신을 떠올렸었던 내 기억에 이제는 새로이 해상왕 장보고가 확실하게 각인되었다.

장보고의 일생을 살펴보면 과연 장보고는 자랑스러운 세계 무역왕이다. 이름 없는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 황해, 남해, 동중국해 등 동북아 해상권을 장악하고 이슬람 상권까지 아우르는 대업을 이룬 인물이다.

장보고는 미래주의자이다. 바다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일찍 깨닫고 바다를 발판으로 삼아 번영을 이룬 인물이다. 작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많고 영토의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상 장

보고에 대한 올바른 재평가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는 이정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왕위계승 다툼 와중에 희생당한 지방 세력쯤으로만 여겼던 장보고에 대한 인식이 이번 여행으로 많이 달라졌고 나의 제자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혹 제2의 청해진, 제2의 장보고가 탄생한다면 장보고 재단에서 기획한 이 여행의 가장 보람찬 결실이 아닐까 한다.

첫째 날 선상 세미나 시간에 장보고 답사에 대한 설명을 하신 교수님께서 미리 예고했던 대로 석도의 장보고 유적지는 마지막 날 대미를 장식하는 의미로 남겨두기로 하고, 도자기와 실크의 도시 치박으로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다.

작년에도 중국에 왔었지만 워낙 넓은 곳이다 보니 길림성 연길과는 사뭇 다르다. 조선족의 피죄죄한 모습을 보면서 속상했던 그때와는 비교될 정도로 깨끗한 도시의 모습이 작년의 중국과는 매우 다르다.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발전하는 중국의 모습은 우리를 무척 긴장하게 한다. 같이 탑승한 교수님의 말씀으로도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단니 실감이 난다.

그런데 여전히 번호판 없는 승용차와 뒷저고리를 벗은 남정네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걸 보니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나중에 가이드가 뒷저고리를 벗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남정네들 때문에 중국 당국이 매우 골치 아파한다는 말에 버스 한가득 웃음바다가 되었다. 2008년 북경 올림픽을 마치고 나면 좀 나아질려나. 온 세계시민을 다 불러놓고 웃통 벗은 중국 남정네의 모습을 전시할 수는 없을 테지.

치박으로 가는 길 버스 차창으로 본 세계 최대의 남산대불은 멀리서 보아도 매우 거대하였다. 여행 3일째 날 그 남산대불을 가까이서

볼 기회를 가졌는데 웬지 멀리서 보고 말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커다랗다고 다 위엄이 갖춰지는 건 아니다.

이번 여행지인 산둥성 대부분의 도시들 도로에는 신호등도 별로 없고 중앙선도 없는 곳이 많다.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는 곳이 중국이라지만 올림픽을 치르자면 이 사람들이 많이 단련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중앙선을 무시로 드나들어 누구하나 얼굴 붉히는 사람도 없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하나 없다. 그저 “쎬쎬.” 하고 손 한 번 흔들어 주면 그만이다. 그 여유가 부럽다. 여기는 역시 중국이구나.

여행하는 내내 중국의 넓은 들판만을 지나왔다. 거의 일직선으로 뻗은 산둥반도의 고속도로를 몇 시간째 달려도 산을 보기가 쉽지 않았다.

산둥반도만 해도 대한민국 면적의 1.5배라는데 가도 가도 들판뿐이다. 그 들판에 15억의 일부를 먹여 살릴 옥수수 밭이 널려 있었다. 그 옥수수 밭 사이로 간간이 보이는 빨간색 지붕들이 너무 정겹다. 산동의 기온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강수량이 적어 쌀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다. 옥수수 밭에는 일손이 별 필요가 없으니 며칠을 다녀도 차창 밖으로 보이는 농사꾼이 하나도 없다. 모두들 도시로 일하러 나간다고 한다.

그 들판을 달린 지 이틀 만에 우뚝 솟은 산 하나를 만났으니 이곳이 태산이다. 태산은 중국 제일의 명산이다. 그다지 높지 않은 해발 1,545미터인데, 곳곳에 문화유적들이 있어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곳이다.

케이블카로 한참을 올라가서 계단만 오르면 되니 등산화를 챙겨 신은 내가 너무 호들갑스럽다. 케이블카 아래로 내려다 본 태산은 절경

이다. 황제라도 태산만은 자기 발로 올랐다고 한다. 그 중턱쯤에 이르자 곳곳에 글이 새겨진 바위가 즐비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덕 있는(?) 황제들의 흔적이다. 신령스러운 이곳까지 자기 발로 올라왔다는 기념을 하고 싶었을까.

태산꼭대기에 자리 잡은 사찰에는 향냄새와 함께 붉은 노끈들이 나뭇가지마다 묶여 있고 자물쇠들이 사찰 앞마당 가득 걸려 있었다. 부부 열쇠꾸러미가 가장 많다는 가이드의 설명이다. 자물쇠는 잠그고 열쇠를 던져버리니, 열리지 않는 자물쇠만큼이나 가정의 화목이 깨지지 말 것을 비는 중국인들의 염원이 담긴 물건들이다. 가정이 화목해야 나라가 편안해지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엄마 혼자 중국 간다고 눈물을 글썽이던 막내는 잘 있는지, 여행 3일째가 되고 보니 벌써 식구들이 보고 싶어진다.

우리의 백두산만큼이나 태산은 중국인의 성산이니 그들만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문득 작년에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바라볼 때 웬지 모를 감동이 일었던 생각이 난다. 막내 녀석이 백두산 천지의 푸른 물빛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다고 할 만큼 천지에 대한 인상은 강렬했다.

우리가 백두산을 올랐을 때의 느낌과 중국인들이 태산에서 받는 느낌을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진시황을 비롯한 수많은 황제들이 봉선의식을 치렀던 이 성스러운 산에, 공산국가 중국 인민들은 어떤 감상을 가지고 오를까?

하늘아래 뫼라는 태산에 올랐으나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 주변 경치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

태산 주변 들판 역시 거의가 옥수수 밭인데 그 옥수수 밭 가운데 자리한 제경궁 순마궐은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곳이

다. 순마갱은 이 여행에서 나에게 가장 강렬한 느낌을 준 곳이다.

이곳은 수백 필의 말들이 두 줄로 나란히 화석이 되어 있었다. 화석이 된 채 누워 있는 말들의 뼈에서 절대군주의 힘을 보았다.

매장된 말들은 전쟁에 쓰이던 말로, 수말만 모두 600여 필이나 된다 하니 당시 제나라는 과연 '천승지국(千乘之國)'이다. 이놈의 인간들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죽음 직전까지 내몰더니 죽음마저도 온전하게 두지를 앓았다. 차라리 말 못하는 짐승이기에 망정이지 사람들 절대군주의 막강한 힘 앞에서 비껴갈 수 있었을까? 죄 없이 죽어간 짐승의 영혼에게나마 명복을 빌었다.

순마갱을 나와 강태공 사당으로 갔다. 이미 오래전이지만 소설 강태공 3권을 읽었었는데도 가이드 설명이 모두 새롭다.

강태공은 위수 강변에서 끝은 낚시를 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다 주나라의 무왕과 함께 은을 멸망시키고 그 공으로 제나라의 초대왕으로 봉해진 인물이다. 중국 최초의 병법을 만들고 어린 성왕을 도와 반란을 진압한 후 제나라의 시조가 되고 주나라의 스승이 된 전설적인 인물이다. 수없이 많은 강태공 후손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도 많다고 하니 비단 나라를 세우지 않았더라도 위대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빡빡한 일정 속에 2호차 선생님 한 분이 핸드폰을 순마갱에서 분실하여 차를 돌렸다. 아주 잠시 가는 것이 2시간 정도인 중국 땅에서 왔던 길을 되돌리는 2호차를 보고 우리 모두는 숙소 도착이 늦어질까 저마다 한마디씩 불평을 내뱉는데, 우리 3호차 기사 양반은 그저 태평이다. 새벽부터의 강행군에 밤늦게 도착하는 일정이다 보니 장시간 운전 전에 짜증이 날 법도 하건만 사람좋은 인상 그대로이다. 또 한 번 만만디를 경험한다.

넷째 날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다는 성산두에 들렀는데 성산두는 중국 8대 절경 중 하나라고 크게 소개되어 있었다. 땅은 넓어도 절경은 우리나라만큼 많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진시황은 이 넓디넓은 대륙에서도 구하지 못한 장생불로초를 어디서 찾으려고 했을까? 불로초에 대한 집념이 아니라 장대한 바다를 향한 염원은 아니었을까?

여기와 가장 가까운 신라 땅이 불과 199킬로미터라니 수없이 많은 신라 사람들이 저 호수 같은 바다 황해를 지나 이곳 산동반도로 흘러들어왔으리라. 장보고와 정연도 그 신라 사람들 중 하나였으니 이제 적산 법화원으로 가서 장보고의 흔적을 살살이 살펴보아야겠다.

4일차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멋지게 보내기 위한 우리 3호차 선생님들의 노력은 가상했다. 특히 우렁찬 목소리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여수 관기 초등학교 허정 교감 선생님께서는 답사 후 1호차부터 3호차까지 모든 선생님들의 주소록을 정리해서 귀국한 뒤 각자의 메일로 부쳐주시는 수고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교감 선생님은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노래방을 찾으러 직접 답사를 하신 끝에 시골 한 구석이지만 나이트를 닮은 노래방을 찾아내었다. 3호차 선생님들의 친교시간은 늦은 밤까지 노래방에서 계속되었다. 비록 청도 맥주는 아니지만 썬 물가 덕에 중국 맥주를 실컷 맛보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장보고 유적 답사의 대미를 장식한 5일째 여행은 적산 법화원에서 시작했다. 여기가 장보고와 당시 신라인의 흔적을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산동성 영성시 석도진 적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법화원은 신라인 장보고가 지은 사찰로 재당 신라인들이 타국에서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었을 것이다. 당시 산동에서 규모가 제일

큰 불교사원이었다고 한다. 옛날 적산은 온통 붉은 것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여기에 사는 적산신(赤山神)이 오가는 선박들의 안전을 가져다준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불공을 드렸다.

서주 절도사 휘하 무령군 군중소장으로 있던 장보고는 신라로 귀국하여 청해진을 창설하고 대사로 봉해져서 한·중·일 간의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하여 해상무역왕으로 불리었다. 그는 해상운송사업이 번영하기를 기원하면서 적산에 불교사찰을 지어 많은 스님들을 모셔와 《법화경》을 읽게 하여 ‘적산 법화원’ 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일본스님 엔닌 일행은 적산 법화원의 은혜를 잊지 못해 일본 교토의 소야산에 적산의 이름을 빌어 ‘적산선원’ 을 세웠을 정도니 그 영향력은 한·중·일에 두루 미쳤다 하겠다.

2000년에 새로이 건축한 법화원 대법당 삼불전은 우리나라의 법당 양식과는 다른 점이 많았고, 특히 사찰의 화려한 탕화는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법화원을 내려와 장보고 기념관으로 향했다. 이 기념관은 장보고를 통해 한·중 우호와 교류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건물로 장보고에 관한 유물과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장보고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오히려 일본, 중국에서 평가하는 장보고가 훨씬 제대로 된 것 같으니 국내외의 시각이 이처럼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중국에서는 시인 두보에 비견되는 두목이 장보고의 전기를 지어 후세에 전하고, 일본에서는 부귀를 관장하는 적산대명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반해 우리에게 장보고는 그저 대표적 해상세력, 쿠데타에 실패한 인물 정도로 알려져 있으니...

미국의 동양사학자 라이샤워조차도 장보고를 ‘해양상업제국의 무

역왕’ 으로 칭송했다 하니 여태 우리는 장보고에 대해 너무 인색한 평가를 해왔던 것 같다.

그러면 도대체 장보고를 어느 정도의 인물로 평가해야 할까?

신라와 당나라, 일본을 잇는 삼국무역을 개척하고 남중국·북중국·당나라 수도 장안을 잇는 내륙무역과 해상교통권을 완전히 장악한 인물, 특히 해적이 활개치는 혼란의 시기에 강력한 해상 관리자로, 또 무역 주도세력으로 등장하여 동북아 경제질서를 주체적으로 형성한 인물이다.

단지 한·중·일 간의 중개무역에서 만족하지 않고 청자를 직접 만들어 이슬람이나 일본에 수출하였으니 장보고는 비즈니스 감각 또한 탁월한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궁복으로 볼릴 만큼 활을 잘 쏘았고, 무예 실력 또한 뛰어나 30세에 당나라 무령군소장이라는 벼슬에 오르기도 했으니 장보고의 조직은 그야말로 군·산 복합체로서 종합무역상사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을 것이다.

이러한 인물이 비운의 주인공이 된 것은 사람을 너무 잘 믿은 것이니, 타고난 인품 또한 따뜻한 사람이었나 보다. 신라 정쟁의 와중에 암살로 생을 마감하고 그의 죽음과 함께 청해진마저 와해되니 세계 일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싹이 잘리는 듯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농경문화의 수직적 구조로만 살아오던 사회체제에서 수평적 해양문화로 발돋움하며 한·중·일 3국을 아우르며 커가는 존재에 대한 당시 권력층의 거부와 우리 민족을 가난과 고난의 역사를 겪게 했다.

21세기는 세계화·정보화 사회이다. 그리고 해양의 시대이다. 우리는 세계사를 통하여 해양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흥망이 좌우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아왔다.

지중해를 제패한 로마가 대제국이 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바다를 통해 세계를 제패했듯이 바다를 버리고서는 세계화를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 역사상 장보고가 활동한 시기만큼 활기차게 대외로 진출한 적이 없었다. 그 장보고의 죽음과 함께 바다를 등지는 바람에 근대화에 뒤지고 세계사의 지각생이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의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해외진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한다. 역시 우리는 장보고의 후손들이다.

지금까지는 세계사의 변방에 머물러 왔지만 3면이 바다라는 입지적 여건과 뛰어난 해양 적응력을 잘 활용하면 우리민족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바다를 통해 세계로 진출할 수 있고, 바다를 꿈과 희망의 터전으로 삼는다면 동북아 해상을 주름잡았던 해상왕 장보고의 피가 흐르는 우리민족이 세계 해양사를 다시 쓸 날은 꼭 오리라.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기행문

영주 대영중학교 임현덕

1. 장보고 유적 답사단으로 선발

7월 초부터 시작된 장마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 강원도를 비롯한 각지에서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가 연일 오르내렸다. 7월 15일 방학을 하고 21일 출발하는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위한 준비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 작년에도 신청을 했지만 탈락되었기 때문에 올해에도 별로 기대하지 않고 신청을 해놓았었는데 운 좋게 답사단으로 선발되었다. 무더운 여름철이고 또 새로운 선생님들과 만나서 생활해야 하는 익숙하지 못한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행에 대한 기쁜 마음과 함께 마음 한구석에는 우려와 걱정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여행에 앞서 내가 국사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수업시간에 장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청해진

을 설치하고 해상무역을 장악한 인물 정도로 소개하고 특별한 내용이
나 구체적인 해상활동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저 평범한 수업을
한 것 같았다. 이번 기회에 유적지를 답사하고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좀 더 자세하고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
는 유적 답사가 되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2. 중국으로 출발(7월 21일)

장마와 태풍으로 도로가 유실되고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중국으로 출발하는 오늘도 날이 흐리고 곧 비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
었다. 오후 3시까지 인천 국제여객선터미널에 도착해야 되는데 혹시
인천으로 가는 도중에 도로 사정으로 인해 늦게 도착할까봐 조금 일
찍 9시 반경에 출발하였으나 아무 문제없이 인천 터미널에 1시경에
도착하였다. 지하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이리저리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3시가 되어 장보고 재단의 관계자로부터 여러 가지 안내 자
료를 받고 다시 한참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입국 수속을 마치고 배에
승선하게 되었다. 우리가 타고 갈 배는 화동훼리호로 중국 석도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배였다. 우리 일행 100여 명과 보따리 장사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를 탔는데 평소와 달리 탑승 인원이 많아서 출항이
약간 지연되기도 하였다.

출발 전에 배정해준 선실인 212호에 들어가 같이 지낼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인천에서 오신 최 선생님, 변산에서 오신 고 선생
님, 부산에서 오신 황 선생님 모두 처음 만났지만 첫인상이 믿음이 가
고 정감이 들었다. 특히 내가 가장 나이가 적어서 오히려 다른 선생님

들을 대하기가 편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갑판에 올라
가 인천항을 구경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드디어 고동을 울리면
서 배가 출발하였다.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출발할 때까지
기다림의 연속이었는데 드디어 중국을 향해 가게 된 것이다. 이제 우
리나라를 떠나면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
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배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조금 후에 다시 식당에 모여 함께 여행을
하게 된 대학 교수님으로부터 장보고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너무 시
간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준비한 내용을 모두 설명하지 못하고 간
단히 줄여서 끝낸 것이 약간 아쉬웠다. 다시 선실로 돌아와 같은 선실
을 사용하게 된 선생님들과 맥주를 한 잔 하면서 자정이 될 때까지 대
화를 하였다. 피곤할 때 술을 많이 마시면 다음날 여행이 고통스러운
데 다른 선생님들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분들이라서 적당히 기분
좋을 정도로 끝낸 것이 다행이었다.

술자리가 끝나고 잠시 갑판으로 나와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았다.
지금 나는 크고 편안한 배에서 십여 시간 만에 중국에 갈 수 있지만,
과거에 장보고를 비롯한 많은 신라인들이 며칠 또는 몇십 일 걸려서
중국으로 왕래하면서 풍랑에 시달렸을 것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
도 들었지만 그런 역경을 극복하는 고대인들의 도전정신이 지금의 우
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3. 석도, 연태, 봉래, 치박(7월 22일)

석도항에 도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출발할 때와는 달리 햇빛이 쨍

쨌 빛나고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다. 석도항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우리는 세 대의 버스에 나누어 탔는데 나는 2호차에 승차하게 되었다.

이제 드디어 산동성을 비롯한 장보고 유적지에 대한 본격적인 답사가 시작된 것이다. 산동성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어서 인적 교류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먹는 중국 음식에도 산동음식이 많다고 한다. 면적은 남한의 대략 1.5배 정도이며, 하천과 호수가 많고 토지구성은 평지 면적이 55퍼센트, 산지 20퍼센트, 구릉 15퍼센트, 습지 10퍼센트로 농업이 발달되어 전 성인인구의 85퍼센트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기후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넓은 지역 여기저기를 4일간 돌아다닐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서기도 하였다.

두 시간 반 정도 이동하여 우리는 연태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다시 봉래로 이동하였다. 봉래라는 이름은 옛날 신선들이 살았다는 전설 속의 바다 가운데 있는 산의 이름이다. 중국 한조(漢朝) 때 한무제가 이곳에 와서 이 신선산을 보려고 했으나, 실지로 존재하지 않는 신선산이 보이지 않으니 경치가 수려한 지금 이곳을 '봉래(蓬萊)'라 명하였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당조(唐朝) 때에는 이곳이 봉래진으로 불리다 후에는 등주로 불렸다. 봉래각에 올라 푸른 바다를 내려보니 과연 신선이 하늘을 오르내리며 살았을 정도로 경치가 좋았다.

봉래각 동쪽으로 내려오니 등주수성이 보였다. 옛 등주항은 지금의 봉래 북쪽의 해변가에 위치하였으며, 산둥반도와 요동반도를 연결시키는 노철산수로의 출발지이다. 5천여 년 전부터 요동반도와 해운업을 하였는데, 주변지역에서 선박관계 유적들이 발견됐다. 고조선도 이곳을 통해 교역을 하였으며, 진(秦)나라 때의 서복(徐福)도 이곳에

서 출발하여 일본열도로 갔다고 한다.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칠 때 수군을 파견한 곳도, 고구려와 수(隋)·당(唐)나라가 동아시아의 종주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일 때 대규모의 수군을 발진시킨 곳도 바로 이 일대였다. 또한 732년에 발해의 장군 장문휴가 수군으로 공격하여 점령하고 자사인 위준을 죽인 곳도 바로 이 등주성이다. 그 후 등주는 발해 및 신라와 교역을 하였고, 이 일대의 항구들은 예로부터 조선업과 해운업의 기지가 되었다. 또한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의 기재에 의하면 많은 일본의 승려들이 이곳을 거쳐 낙양이나 장안에까지 갔다고 한다.

7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봉래에는 많은 신라 상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곳을 '신라방'이라 하고 그들을 접대했던 여관을 '신라관', 무역기관은 '신라소'라 하며 많은 신라인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많은 관련이 있고 신라인들 또한 이곳을 드나들거나 살았을 생각을 하니 감회가 새로웠으며, 아마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신라인의 피가 흐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등주수성을 보고 밑으로 내려오니 고선박물관이 있었다. 등주 고선박물관은 1988년 7월부터 건축하였는데 1990년에 완공되었고, 통나무배, 용선, 차륜선, 모래선 등 4가지 선박들을 진열해 놓고 있다. 1984년 등주항만 정리 작업 중에 진흙탕 속에서 두 개의 고대 선박을 발견하였는데, 그중의 하나만 건져 다시 원형으로 복구하였다. 현재 전시되어 있는 것은 5:1의 비례로 복구한 것인데, 추정에 의하면 원조(元朝) 때 만들어진 해군전선이라고 한다. 내부 시설과 전시물을 둘러보니 박물관으로는 너무 시설이 빈약하고 관리가 허술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며칠 전에 고려 말기 한국과 중국의 활발했던 국제교역을 보여주는 고려시대 대형선박 두 척이 처음 공개됐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고려 말인 14세기 중·후반 무렵 중국 산둥성 봉래시 해안에 침몰했던 고려 선박 두 척을 중국 문화재 당국이 지난해 발굴 인양했다가 최근 한국 학자들에게 공개했으며 한국 연구진이 22~24일 봉래시에서 열린 국제선박학술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번 선박은 ‘봉래3호’, ‘봉래4호’로 이름이 붙여졌다. 중국 선박은 뾰족한 형태의 바닥 모양이고 쇠못을 사용하였지만 이 배는 고려 선박 특유의 평평한 바닥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판재를 연결하는 재료로 길고 짧은 나무못을 사용했다고 한다. 특히 봉래3호에선 고려 상감 청자 두 점, 옹기, 접시 등의 토기도 발굴되어 배의 건조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는 것이다. 봉래3호는 고려 말 한국과 중국의 왕성했던 교역을 실물로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며 배가 발견된 봉래시는 고대부터 중국·한국·일본을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 항구 역할을 했다는 것이 다시 입증되었다.

이제 오늘의 답사는 끝나고 숙소로 가기 위해 버스는 치박으로 달렸다. 네 시간 정도를 가야 하는데 우리 차에는 DVD 장치가 고장이 나서 장보고 동영상 자료를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같이 간 교수님 설명을 들으며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동지방의 경치도 구경하였다. 넓은 평야 지대를 이루고 있어서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다녀도 산은 보이지 않고 옥수수, 채소 등을 심어놓은 들판과 간간이 농가의 모습이 보였는데 이 넓은 땅을 저렇게 많지 않은 농민들이 어떻게 농사를 다지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가거나 산을 구경하면서 여행을 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항상 산이 보이지 않는 들판이 펼쳐진 이런 산동지방의 풍경이 장

거리 버스 이동을 더욱 지겹게 만들기도 하였다. 늦게 치박 제도호텔에 도착하여 식사를 한 후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4. 태산, 제나라 역사박물관, 순마갱, 강태공 사당(7월 23일)

원래 오늘 오후에 태산을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오전 오후의 일정을 바꾸었다. 아침을 먹고 태산으로 가기 위해 치박 시내를 통과하게 되었다. 어제 하루 종일 보았던 농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대도시의 모습을 보고 중국의 두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는 시조에서 항상 들었던 그 태산을 간다고 하니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가슴이 설레었다. 작년에 직원여행으로 황산에 다녀왔는데 기암절벽과 운무가 마치 천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였다. 황산이 이렇게 경치가 좋은데 태산은 더 말할 것 없이 뛰어난 산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자료에도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어서 더욱 기대감을 가지게 하였다.

중국에서는 예부터 5대 명산을 ‘오악(五岳)’이라 하였는데, 이 중에 동악(東岳)인 산둥성의 태산(泰山)은 서악(西岳)인 섬서성의 화산(華山), 중악(中岳)인 하남성의 숭산(崇山), 남악(南岳)인 호남성의 형산(衡山), 북악(北岳)인 산서성의 향산(恒山)과 더불어 오악을 이룬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 태산은 ‘오악지장(五岳之長)’, ‘오악독존(五岳獨尊)’이라 하여 천하제일의 명산으로 꼽았다. 그 이유는 제왕이 이곳에서 하늘에 뜻을 받는 봉선(封禪)이라는 의식을 거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명승고적과 절벽마다 새겨

진 비문이 있어 태산을 세계에서 드문 역사와 문화의 관광지가 되게 하였다. 태산은 해발 약 1,545미터로 산동성 구룡에서도 최고로 높은 산으로 산동성 동부·제남시·태안 등 3개의 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옛날부터 천하제일의 산으로 칭송받아 오듯이 자연경관은 물론이고, 신앙의 산으로도 추앙받아 왔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돌비석 등의 옛 유적과 종묘 등이 있어 볼 것이 많은 국립공원으로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자연문화유산이다.

설레는 가슴을 안고 태산 입구에 들어서니 계곡이 형성되면서 깊은 산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매표소를 거쳐 케이블카를 타고 드디어 정상으로 향하게 되었다. 처음의 태산은 마치 우리나라의 보통 산들과 비슷하였고 위로 올라가면서 장관이 펼쳐지리라 기대되었다. 그러나 케이블카를 내릴 때까지 별로 변화가 없었다. 태산 정상은 무언가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걸어서 정상으로 향했다. 그러나 너무 기대가 커서 그런지 엄청난 실망을 했다. 정상에는 절벽에 명필가들이 쓴 글씨가 조각되어 있는 것 외에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보아온 산과 별 차이가 없었다. 산의 높이가 겨우 1500여 미터밖에 되지 않고, 걸어 올라오면서 곳곳의 유적지를 보지 않아서 그런지 너무 실망이 컸다.

오후에는 먼저 제나라 역사박물관에 갔다. 세계사 시간에 막연히 설명하던 제나라의 역사와 화폐, 청동기 등의 고대 유물을 견학하고 중국의 고대사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제경궁 순마궐으로 이동하였다.

순마궐은 제나라 공후(公侯)의 큰 묘군(墓群) 20여 개 중 5호분 주위에서 말을 순장한 유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주 황남대총에서 말

을 몇 마리 순장했다는 것이 발굴되었지만, 여기처럼 600여 마리나 되는 많은 말을 주인과 함께 묻었다는 것이 놀랍고, 당시에 지배층이 얼마나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치스럽게 생활했을까를 생각하니 어떤 면에서는 잔인함마저 느껴졌다.

순마궐을 뒤로 하고 다시 이동하여 강태공 사당에 도착하니 이미 날이 저물어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강태공은 3천 년 전 산동성에서 태어나 낚시를 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다 주나라의 문왕을 만나고 무왕을 도와 은(殷)을 멸망시켰다. 그 후 강태공은 제나라의 왕으로 책봉되어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방을 굳건히 하고 중국 최초의 병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강태공 사망 후 태공의 모자와 옷을 오늘의 치박에 묻었는데 이것이 의관총(衣冠塚)이며 그 앞에 강태공 사당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강태공으로부터 많은 성씨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노태우 대통령이 이곳에 와서 참배하고 다녀간 사진이 있었다. 사당을 나오면서, 우리도 현실에 너무 각박하고 민감하게 대처하지 말고 강태공처럼 적당한 시기가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유방으로 와서 저녁식사를 했다. 중국 음식을 먹는데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지만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 기름기 많은 음식에 대해 이제 조금 싫증도 나고, 우리의 음식인 고추장이나 된장찌개 등이 그리워졌다.

5. 남산, 영성(7월 24일)

오늘의 오전 답사지는 남산관광풍광지구이다. 남산관광풍광지구

는 연태 용구시 관할로 남산그룹을 중심으로 한 마을이고, 내부적으로 각종 생활기능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 의식주뿐만 아니라 대학교와 대형 공장, 병원 등 자급자족이 가능한 신사회주의 사회로 도연명이 쓴 남산천지와 비슷하다고 한다. 단지 안에는 호텔, 골프장,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한 레저 단지과 중화 5천 년 역사를 축소한 역사문화지구, 남산대불과 불교박물관, 도교 사원을 포함한 종교문화지구, 공업단지, 거주지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40대 후반의 젊은 중국인 갑부가 이 지역을 개발하고 이 지역 주민들을 이곳에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곳에 많이 와서 골프를 치고 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남산에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남산대불이었다. 종교문화원은 유교, 불교, 도교의 세 종교와 관련된 종교문화단지로서 우리는 단지 남산대불만 구경하였다. 남산대불은 높이가 38.66미터이고 무게는 380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좌불 동상이라고 한다. 대륙의 기질이 잘 표현된 엄청난 크기의 불상이었는데 계단을 올라가니 다리가 덜덜 떨렸다. 좌불에 올라서니 주변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 좌불 밑에 위치한 불교박물관을 구경하고 내려왔다.

산을 한 바퀴 돌아 역사문화지구 쪽으로 갔다. 중국 소수민족의 공연이 시작되었으나 민속춤을 잠깐 하고 비가 온다는 이유로 중단을 해서 아쉬웠다. 주변의 여러 역사 유적을 둘러보았으나 큰 감동은 없었고 약간 조잡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엄청난 영역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은 것이 특색이었다. 우리나라의 에버랜드 같은 놀이시설만 있다면 관광지로써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산에서 점심을 먹고 영성으로 향했다.

영성에서는 먼저 진시황 사당에 들렀다. 원래는 진시황이 동쪽으로

순찰을 하며 머물렀던 행궁인데 후에 백성들에 의해 시황묘로 복구되었고 현재는 중국에서 유일한 진시황 사당이라고 하지만, 진시황의 명성에 비해 약간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성산두에 갔다.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예로부터 '중국의 희망봉'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이곳은 또한 군사 요충지로서 백제를 치기 위하여 소정방이 13만 수군을 거느리고 출발한 항구이기도 하다. 전 중국 총서기인 호요방은 이곳에 '천진두'라는 휘호를 남겼는데 이는 '하늘이 끝나는 곳', '육지의 끝'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진시황과 함께 불로초를 구하러 떠난 서복이 우리나라를 향해 손을 뻗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는 인간의 욕망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해가 저물어 석도항에 들어와 마지막으로 중국에서의 밤을 보내게 되었다.

마지막 밤이라 생각하니 그냥 조용히 지낼 수 없어서 숙소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답사 관계자의 지시로 외출이 허용되지 않아서 여기 저기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내일을 위해 휴식을 취했다.

6. 적산 법화원(7월 25일)

오늘은 여유가 있어서 아침을 먹고 늦게 출발한다. 석도항 주변을 돌아보기 위해 아침을 일찍 먹고 숙소를 나왔지만 우왕좌왕하다가 아무것도 구경하지 못하고 다시 호텔로 돌아왔다. 버스를 타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적산 법화원에 갔다. 장보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

고 우리 답사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서 오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잘 보고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먼저 입구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나에게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현재 내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나의 중학교 후배에 해당되는 넥스투어 여행사 직원과 함께 사진도 찍었다. 첫날 버스에서 각자 소개를 하고 나서 서로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이 멀리 중국에 와서 동향 동문의 후배를 만나는 것이 무척 반가웠지만 여행을 마칠 때까지 술 한 잔 대접하지 못하고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이 못내 안타까웠다.

적산 법화원은 당나라 시기에 장보고가 지은 것으로 창립 초기에 《법화경》을 읽었다 하여 유래된 것으로 산동에서 규모가 제일 큰 불교사원이었다고 한다. 장보고는 출세를 위해 당으로 불법 이민을 하였다. 무예가 능하고 전쟁에 용감하였기 때문에 무령군의 군중소장으로 있었으며 흥덕왕 때 신라로 귀국하여 청해진을 창설하여 한·중·일 삼국의 해상무역을 독점하여 해상무역왕으로 불렸다.

일본 승려 엔닌이 건당사로 입당하여 법화원에서 3년 가까이 묵으면서 법화원의 많은 신세를 졌다고 한다. 엔닌이 《입당구법순례행기》를 쓰고 일본에서 적산선원을 세움으로써 장보고가 널리 알려지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건물 그대로는 아니지만 새로이 만들어진 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조상의 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11시경에 거대한 불상에 분수 쇼를 구경하였다. 배경음악과 함께 큰 불상이 돌아가면서 분수 쇼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중국다운 웅장함을 느꼈다. 적산명신을 구경하고 다시 장보고 기념관에 들렀다. 중국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렇게 큰 기념관이 있다는 자체가 뿌듯

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였다. 이 기념관에는 장보고 동상을 비롯하여 장보고의 일대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중국인들이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질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장보고 기념탑도 구경하고 점심을 먹고 우리는 다시 귀국하기 위해 석도항으로 향했다.

7. 우리나라로(7월 26일)

석도항에서 출국 수속을 하고 다시 화동훼리호를 타고 올 때와 같은 선실에 들어갔다. 저녁을 먹고 같은 선실의 선생님들과 이제 이별의 전야로 술을 한 잔씩 나누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로간의 정은 많이 들어 있어서 아쉬웠다. 이제 내 평생에 다시는 이곳에 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배가 인천항으로 들어가는데 중국의 날씨와 달리 아직 장마가 계속되어 어떤 지방은 폭우가 내릴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였다. 인천항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우리는 각자 헤어졌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그렇게 지루한지...

드디어 집에 도착하였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나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락함과 편안함이 여행의 끝임을 느끼게 하였다. 역시 내가 살던 집이 최고고, 내 조국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에 나갔다 오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곳이 내가 가장 편히 쉴 곳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행을 마무리하였다.

8. 맺음말

기대하지 않았던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다녀왔다. 장보고에 대한 유적지를 직접 보기도 하고, 고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너가 교류하였던 넓은 지역을 둘러보았으며 강의나 해설 그리고 동영상을 통하여 이번 기회에 장보고에 대해서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답사를 다니면서 그리고 답사를 다녀와서 장보고 기념사업회에서 왜 우리에게 이런 답사를 시켰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단지 장보고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쌓으라는 뜻만은 아닌 것 같았다. 과거에 장보고는 이런 업적을 이루었지만 지금의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중국 대륙을 다니면서 더욱더 작게 느껴지는 우리나라의 육지는 이제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고, 아직 개발할 여유가 남아있는 바다, 이곳이 바로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바다와 관련된 산업으로 조선업만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외 바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장보고가 이룩한 업적을 생각하고 앞으로 해양개발을 활발히 해서 세계적인 국제 무역항을 건설하고, 조선업의 발달에 힘입어 항공모함과 같은 것도 만들어 해양 군사 강국으로 발전함은 물론, 무한한 해양자원의 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음을 절실하게 느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장보고를 통해 자부심과 긍지를 일깨우고, 해양강국을 건설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이번 답사의 목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해서 수업시간에 1시간을 할애하여 중

국 유적 답사 내용을 학생들에게 설명하였다. 답사를 다니면서 촬영한 사진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장보고의 활동상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강조하였다.

이제 과거의 장보고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도 장보고와 같이 해양강국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나라의 운명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중국 산둥성, 장보고를 만나다

의령 봉수초등학교 김지혜

고백하건대 학창시절 나는 역사과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아마도 게을렀던 탓에 연도나 사건 등 잔뜩 외울 것들이 귀찮았을 것이다. 내게 '암기과목' 그 이상이 아니었던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배우는 즐거움을 위해 때론 만화책이나 플래시 애니메이션, TV 드라마로 흥미를 더하도록 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젠가 6학년을 맡고 있던 후배 녀석 하나가 해상왕 장보고를 묻는 6학년 사회시험 답안에 '해신 최수종'이란 답을 당당히 써 놓은 자기반 아이 이야기를 하는 터에 크게 웃으며 한편으론 걱정스러워 했던 기억이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 속의 인물은 '해신 최수종'이나 '주몽 송일국'과 같은 드라마 속의 연예인이거나 만화 속 주인공이 되어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영화 <한반도>에서 문화센터의 수강생들에게 역사학자 최민재가 "애새끼들이 명성황후가 누군

지 물으면 이미연이라 대답하고 을사늑약이 뭐냐고 물으면 새로 나온 약이라고 대답하라."며 분개하던 장면도 과장된 면이 없진 않지만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부끄러웠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역사적 진실과 드라마적 상상과 허구 속에서 균형을 잡기란 어른인 우리들도 가끔 어려운 일이니까.

'사건'에 힘을 싣다 보면 역사가 지루한 '암기'가 되어 버리고 '이야기'에 치중하다 보면 TV 드라마가 되어 버리기 십상인 사회시간, 한 학기 동안 우리 역사의 현대사까지 한결음에 내달려야 하는 지금의 교육과정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일은 그래서 늘 딜레마이다.

역사를 통해 배우는 '올바른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교사'라는 직업,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의 '무거움'을 마주하고 앓은 10년차인 서른 얼마 쯤의 내게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이번 답사 여행은 그래서 더 큰 행운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아침저녁 부는 바람이 전보다 선선해져서 산둥성 적산 풍경구에서의 뜨거운 햇빛이 벌써 오래 전의 일인 것처럼 아스라하다. 내내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던 여행의 기억을 담은 작은 수첩을 다시 꺼내들고 추억을 들추어 본다.

넓고 크고 요란한 중국을 보다

어린 시절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잔뜩 침 묻혀가며 읽던 삼국지와 손오공의 나라, 일요일 오후면 즐겨 자장면을 시켜먹던 중화요리집

‘만리장성’의 나라, 작년 여름엔 살아가기 위해 목숨을 건 매혈의 여로를 걷는 한 고단한 남자의 삶을 그린 소설로 마음을 울렸던 《허삼관 매혈기》의 소설가 ‘위화’의 나라, 내게 중국은 고만고만한 일상의 조각에 엮여 있는 이웃나라였다.

56개의 민족, 80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되는 곳으로 1억 명에 달하는 고소득 도시 근로자와 1년에 40만원으로 연명하는 7억 6천만 명의 농민이 공존하는 나라, 세계의 공장을 넘어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떠오르며 ‘한류’와 ‘경제’ 관련 기사로 우리의 미디어 어느 구석이든 자리를 잡고 있는 현대의 중국은 이미 세계가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었다.

사나흘의 짧은 기간, 겨우 중국의 동쪽 끝 한자락인 산둥성만도 남한 면적의 1.5배인 15.67만 평방킬로미터이고 남한 인구의 2배에 달하는 9,040만 명을 거느린 ‘크기’를 몸으로 느끼며 참으로 넓고 크고 요란한 중국을 마음에 담아온다.

봉래(蓬萊), 신선이 사는 마을

봉래(蓬萊)라는 이름은 옛날 신선들이 살았다는 전설 속의 바다 가운데 있는 산의 이름이었다. 8명의 선인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는 전설이 깃든 봉래각에서 바라본 대해원은 마음까지 탁 트이게 한다.

5천여 년 전부터 요동반도와 해운업을 하였다는 등주수성(登州水城)은 우리와의 역사적 인연도 깊은 곳이다. 고조선에도 이곳을 통해 교역을 하였으며, 가슴 아픈 일이지만 위만조선을 칠 때 수군을 파

견한 곳도, 고구려와 수·당나라가 동아시아의 종주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일 때 대규모의 수군을 발진시킨 곳도 바로 이 일대였다. 지금은 그 흔적을 잘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까웠지만 7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많은 신라 상인이 이곳에 거주하며 신라방, 신라관, 신라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저녁을 먹고 앉아 무심코 튜 TV 뉴스, 먼 이국의 땅에서 뛰어난 항해술로 국제무역을 주도하던 신라인들의 기개를 고스란히 마음에 담은 이곳 봉래에서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두 척이 발견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설레는 마음으로 듣는다. 20미터 가까운 길이의 고선박이 이 봉래수성의 해안 개펄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현장에서 고려 말 청자 대접과 청자 접시 등이 출토돼 고려 선박임을 증명해 주고 있단다.

고려시대 수도였던 개경에서 예성강을 지나 중국 산둥반도로 이어지는 원양항로, 끊임없이 이어졌던 한·중 간의 교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하늘만큼 빠르고 육지보다 넓은 길이 있는 푸르른 대양’을 경영함으로써 대륙을 지배했던 장보고 대사의 정신을 여행 후의 일상에서도 이렇게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만으로도 내게 이번 답사의 의미는 남다르다. 참으로 바다는 우리에게 ‘과거만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가리키고’ 있음이다.

중국인의 마음속 큰 산, 태산(泰山)

셋째 날의 첫 여정으로 태산을 오른다.

중국에서는 예부터 5대 명산을 ‘오악(五岳)’이라고 하였는데 서악

(西岳)인 섬서성의 화산(華山), 중악(中岳)인 하남성의 숭산(崇山), 남악(南岳)인 호남성의 형산(衡山), 북악(北岳)인 산서성의 항산(恒山)과 더불어 동악(東岳)인 산둥성의 태산(泰山)을 일컫는 말이다.

그중에서도 중국의 제왕들이 하늘의 뜻을 받는 봉선(封禪)의식을 거행하였다는 이 신령스런 산을 중국 사람들은 천하제일의 명산으로 꼽는단다. 걸어서 태산 정상으로 가는 길 곳곳에 ‘오악지장(五岳之長)’이니 ‘오악독존(五岳獨尊)’이니 하는 글귀가 바위에 새겨져 있어 그들의 사랑을 알 만하다.

1,545미터, 케이블카를 타고 남천문까지 간 후 걸어서 30분 정도면 정상에 도달한다. 우리나라의 여느 산 정상과 마찬가지로 태산 정상임을 알리는 이 지표가 중국 땅에도 있다. 아래로 시원스레 산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우리네 산 정상과는 달리 태산의 정상엔 이렇게 태산부군의 딸 벽하원군을 모시는 옥황정이 있어 잠시 여기가 ‘정상’임을 잊게 한다.

케이블카 대신 태산 곳곳에 새겨진 수많은 시인묵객과 영웅호걸의 시를 감상하며 7,412개의 돌계단을 올라보는 것도 꽤 매력 있을 것 같았는데 남천문에서 정상까지 가는 길, 몇백 개의 계단을 오른 것만으로도 7,000여 개의 계단에 대한 로망은 조용히 포기해 주었다.

孔子 登東山而小魯 登泰山而小天下

《맹자(孟子)》의 〈진심장구〉 상편에 있는, 공자가 태산에 올라 “동산에 오르니 노나라가 작게 보이고,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게 보인다.”고 했다는 구절이다.

안개로 더욱 신비롭던 천가(天街)를 지나 태산 정상을 오를 때만 해

도 바로 앞사람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옥황정에 올랐다 내려오는 길, 비로소 태산이 제 모습을 드러낸다. 여행 전 먼저 다녀온 사람들에게서 “태산은 없더라.”던 실망스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기실 지리산 천왕봉보다 낮은 태산에서 옛글과 같은 대단한 위용을 느끼기엔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케이블카로 단 십여 분 만에 쉽게 태산에 올랐으니 태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해발 8,000미터를 거뜬히 넘는 에베레스트나 k2, 혹은 소리 내어 부를 때의 이름이 예뻐 언젠가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안나푸르나에 올랐다 한들 공자처럼 ‘천하가 좁아’ 보였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뵈이라던 양사언, 태산에 오르면 다른 산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두보, 성인들의 호연지기가 부럽다.

중국의 사당엔 어디를 가나 자물쇠 꾸러미나 소원을 빈 장식품들이 잔뜩 걸려 있다. 눈여겨 보면 자물쇠의 몸통부분엔 ‘登泰山 全家福 保平安’처럼 태산에 오른 것을 기념하여 가족의 평안을 빈다는 문구나 이름 같은 것들이 두서너 줄씩 새겨져 있다. 사랑하는 연인이 각자의 이름을 새겨서 자물쇠를 잠그고 그 열쇠를 태산 아래로 던져버리기도 한다는데,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세계 구석구석마다 어찌 그리도 같은지, 여행길에서 새삼스럽게 발견한 우리네와 다를 바 없는 중국인의 일상을 반가운 눈으로 들여다본다.

중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산둥반도의 옛 모습과 오늘을 한껏

바라다보았다.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초대왕인 강태공을 기념하기 위한 사당과 대량의 문물자료, 모형, 조각, 사진 등으로 제나라의 흥망성쇠와 정치, 문화, 예술, 민속을 소개한 제나라 역사박물관, 세상을 놀라게 한 순마 쟁에서 제나라 국력의 강성함과 더불어 중국 역사의 깊이를 읽는다.

울창한 산속에 수려한 풍색을 뽐내고 자리한 남산관광풍경지구 종교문화원의 남산대불은 세계 최대의 좌불 동상답게 엄청난 크기로 그 위용을 자랑하며 ‘큰 것’을 숭상하는 중국인의 대물사상(大物思想)을 다시 실감케 했고, 왕조의 문화와 발전상을 순서대로 모두 볼 수 있는 중화역사문화원에서 다양한 중국의 민족문화를 간접 경험해 보기도 했다.

버스로 이동하는 사이 답사길에 함께한 교수님의 자세한 이야기까지 더해져 모자란 역사지식을 채워주시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편으론 첫 중국 나들이, 여행길에 흔히 볼 수 있는 그 나라 역사와 문화의 흔적만 아니라 변화하는 중국의 모습에 내심 놀랐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자동차는 몇 대 지나다니지 않는데도 규모 하나만큼은 어느 세계적인 도시 못지않아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도로며, 몇 년 사이 도시마다 너무도 현대적인 모습으로 건축한 빌딩들, 깨끗이 단장된 해변이며 관광단지들은 작년 10퍼센트에 가까웠다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참으로 무서운 속도이다.

한국사의 미아, 해상왕 장보고를 만나다

뜨거운 여름, 한낮의 태양아래 ‘적산풍경구’를 돌아본다.

일본인들은 1920년대부터 엔닌과 법화원의 흔적을 찾아 산동성을 드나들었다. 그러던 1972년, 우여곡절 끝에 법화원 터에서 기와조각과 자기 그릇을 발견해 법화원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고 1989년 5월에 일본인의 손에 의해 법화원이 재건되었다고 한다.

지난 겨울 이집트의 파라오들을 묻은 왕가의 계곡에서 일본의 후원으로 발굴사업을 진행하였다는 풋말을 보며 씁쓸해 했던 기억이 새삼 떠올랐다. 소중한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홀대하고 있는 허술함이 일본과 중국에게 역사 왜곡의 실마리를 준 것은 아닌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나마 2002년 현지 최대기업인 ‘적산 수산그룹’이 막대한 돈을 들여 대규모 관광단지로 조성한 후 법화원을 다녀가는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지적과 항의로 잘못된 문구들과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고지도 등을 고쳐놓고 있다고 하니 위안을 삼을 수밖에.

기념관 내의 다섯 개의 전시실에는 장보고의 어린 시절부터 청해진 활동 모습까지 장보고에 대한 제법 많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었다.

어린 궁북이 당나라로 넘어와 무령군에 들어가는 과정이나 장수로 커가는 모습, 복원한 신라 무역선의 모습 등 좌절할 줄 모르는 투지로 머나먼 바닷길을 개척하고 동북아 해상교역의 교두보를 마련한 ‘신라인’ 장보고 대사의 시대를 뛰어넘는 혜안과 놀라운 실천력을 뽐냈던 맘으로 둘러본다.

1200년 전이나 지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꿈틀대는 거대한 중국은 우리와 경쟁과 협력을 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이웃임에 틀림없다. 기념관 마당에 당당히 자

리한 장보고 대사의 동상과 함께 과거의 그의 발길을 되짚어 '문화의 고속도로' 라는 서해 바닷길을 내달리는 우리의 미래를 그려본다.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우리 학교는 온통 산자락에 묻힌 작은 산골학교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다는 여름방학이나 되어야 운이 좋으면 한두 번 해수욕을 가는 곳 이상의 의미를 두기 힘든 곳이다. 우리 아이들의 꿈조차 산자락에 묻히지 않도록 무한한 가능성의 바닷길을, 그 옛날 가난하고 가진 것 없던 남쪽의 작은 섬마을의 '궁복' 이라는 소년이 바다로 나아가 세계인으로 우뚝 선 이야기를 가슴 떨리게 전해줄 생각으로 개학날을 꼽아본다.

바다의 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다녀와서

부산 대평초등학교 변미원

장보고(?~846)는 신라 흥덕왕 때의 장수, 대상인, 본명은 궁복 또는 궁파로 '활 잘 쏘는 사람' 이라는 뜻이다. 중국 당나라로 건너가 무령군의 장교로 활약하던 중, 신라인이 당나라의 해적들에게 잡혀 중국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보고 이에 분노하여 귀국하였다. 그리고 왕에게 남해의 해상교통의 요지인 완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여, 황해의 무역로를 보호하고 해적을 근절시킬 것을 주청, 승인을 받아 민군으로 조직된 1만여 명의 군대를 창설, 완도에 청해진을 건설하고 해적을 소탕한 뒤 해상권을 장악하였다.

처음 장보고 유적지 답사단에 당첨되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접하고 찾아본 장보고에 대한 사전적인 글이었다. 사회교과서에 단지 몇 줄 나와 있는 인물, 드라마를 통한 드라마틱한 전설적인 인물로 알고 있는 그를 찾아 5박 6일의 여행이 아주 더운 8월의 중순에 접어선 날

에 시작되었다.

“배멀미가 있는데 어떻게 갈래?” 남편의 우려 섞인 말과 방학이라 아이들의 간식이랑 학원의 뒷바라지보다 여행의 설렘과 새로 접한 신비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로 배에 올라탔다.

배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4명이 한방을 사용하였다. 전국에서 응모한 많은 선생님들 중 나이와 성별, 지역을 고려하여 추첨하였다는 장보고 기념사업단의 귀띔처럼 우리 방의 선생님들도 전국에서 모였고 4, 50대의 여교사였다. 전근하는 학교마다 친목회 회장을 하신다는 4차 답사단의 1조 1번 선생님은 같이 있는 시간 내내 우리를 챙겨주셨고, 낙안읍성 분교에서 2명의 반 학생을 자식처럼 돌보셨던 나의 룸메이트 홍 선생님! 위풍당당한 박 선생님은 외모와 달리 애국가에도 눈물을 보이시는 애국가자 샘!

도란도란 첫날의 어색함을 통성명으로 풀고, 선상의 석식 후 멀어져 가는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며 간단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답사단에는 동아일보 기자단, 중국사와 장보고에 대한 세심한 이야기를 들려 줄 3분의 교수님, 장보고 사업단의 관계자와 여행사 직원의 소개와 답사의 취지, 재단 소개를 한 뒤 장보고 대사를 재조명해 보고 바다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강의를 들으며 하루를 보냈다.

간밤의 멀미약으로 숙면을 취하여 눈을 뜬 새벽은 중국이라고는 믿기지 않은 석도항이었다.

1호차에 배정받고 차에 오른 뒤 현지가이드를 소개 받고 산동성 위해시에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산동성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었다. 산동성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산둥반도를 포함한 중국의 행

정구역으로 예부터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산동성의 면적은 우리 남한의 1.5배 정도이고 강수량이 연간 700미터밖에 되지 않고 산지가 20퍼센트, 평야가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밭작물을 많이 재배한다고 한다. 옥수수, 땅콩, 밀, 고구마 등을 많이 재배한다고 하였는데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가도 가도 산은 보이지 않고 넓은 평야만 보였으며 온통 옥수수밭에 보이지 않았다. 지난 겨울, 오세아니아 주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뉴질랜드를 여행할 때에는 𪛗·𪛗·𪛗(좌측우측 모두 𪛗), 호주를 여행할 때에는 𪛗·𪛗·𪛗(좌측우측 모두 𪛗)였다. 이번 중국 여행은 좌옥수수·우옥수수였다. 지역마다의 자연환경은 그 지역의 산업을 좌우한다는 역사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등주수성을 견학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산동성에도 일이삼사라 하여 자랑거리가 4가지 있는데 첫째는 일산이라 하여 태산(泰山)이고 둘째는 2주(州)라 하여 등주와 소주를 말하며 셋째는 삼공이라 하여 공묘(공자의 사당), 공부(공자의 자손이 살던 저택 겸 관공서), 공림(공자와 자손의 묘)이다. 넷째는 4화(花)라 하여 배꽃, 청도 앵두꽃, 곡부 목화, 대추꽃이 유명하다고 하였다.

가이드의 설명과 교수님의 역사이야기로 도착한 곳은 “장보고님!” 하고 부르면 달려 올 것 같은, 내가 살고 있는 바닷가와 무척이나 닮은 해수욕장과 배를 타고 드나들기 쉬운 항구였다. 이 등주수성은 우리나라와도 역사적 관련이 깊은 곳이다. 고구려를 칠 때 대규모 군사를 출발시킨 곳이기도 하고, 732년 발해의 장군 장문휴가 자사 위준을 죽인 곳도 바로 이곳이다. 또한 이곳에는 수많은 신라방, 신라관, 신라소들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만큼 교류가 많았을 것이다.

주변에는 옛날 신선들이 살았다는 바다 속의 산처럼 경치가 뛰어나다 하여 세워놓은 봉래각이 있는데 휴가철이라 사람들이 많아서 버스에 앉아서 지나치면서만 잠깐 볼 수 있었다. 높은 성벽을 지나니 등주수성의 빼어난 모습이 눈앞에 다가왔다. 좁은 곳에서는 지나가지 못하여 서서 한참을 기다리면서 돌아 볼 수 있었다. 바닷가에 우뚝 솟은 수성 한 켠 벽에 서니 상상 속으로 바다 건너 우리 백령도가 보이는 듯도 하였다. 전각 위에서 전통 옷을 입고 현악기를 켜고 있기도 하였고, 황제가 세수할 때 썼다던 세숫대야는 양쪽 양손으로 문지르면 신기하게도 물이 진동을 일으키며 툭툭 튀기 시작하였다.

등주수성을 뒤로 하고 잠깐 옆으로 가면 등주 고선박물관이 있다. 등주 항만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원나라 시대의 배를 전시하고 있었다. 그 외에 과거에서 현대, 최첨단 군함까지 잘 전시되어 있었다. 등주항은 명조 때에도 항만도시로 큰 성장을 하였으나 요즘은 수심이 많이 얕아져 근처의 연대항으로 큰 배들이 많이 이동하여 항만으로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관광지로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다시 차를 타고 치박으로 지나간 길을 떠나기 위해 버스를 탔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내내 창밖으로는 옥수수들이 넘쳐 났다.

셋째 날의 아침은 바쁜 일정을 고려한 5시 30분의 모닝콜로 시작되었다.

강태공의 사당으로 가는 길은 우리나라 60~70년대를 보는 듯하였다. 신호등과 관계없이 먼저 끼어 든 차가 먼저 가게 되어 있다. 매우 복잡해 보이는데 신기하게도 사고는 잘 나지 않는다고 한다. 곡예를 통하고 도착한 넓고 빼거덕거리는 사당은 3천 년 전에 위수 강반에서 기회를 보며 낚시를 하다가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

를 세운 공신인 강태공의 사당이었다. 무왕은 주나라를 여러 개의 제후국으로 쪼개어 그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나라를 이 강태공에게 맡겼고, 강태공은 민심을 안정시키고 많은 발전을 가져와 제나라 백성들에게 인심을 얻었다고 한다. 이 강태공을 기념하기 위해 사후 모자와 옷을 제나라 수도였던 이곳 치박에 묻었다고 한다.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축구를 한가롭게 하고 있는 모습의 제나라 민간생활사를 담은 사당을 둘러 본 뒤 태산으로 향하였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그 태산이어서 높이가 엄청나게 높은 줄 알았는데 한라산보다 낮은 1,545미터이다. 그런데 왜 중국인들은 태산을 그렇게 높이 생각했을까? 그건 중국의 역대 황제들이 제위에 오르면 이 태산에 올라 하늘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 영험성이 이 산을 더욱 크게 느끼게 했으리라 생각된다.

케이블카가 있는 중턱까지는 미니버스로 간 뒤 케이블카를 타고 산 등성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태산에는 50미터 넘는 긴 폭포와 우리나라에도 있는 고사리와 기암괴석 돌들이 드러나면서 풍기는 장엄함이 그 이름을 실감나게 해주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왕복 1시간 정도 소요되는 태산 꼭대기에 올라 다시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맨 꼭대기에는 옥황상제에게 황제들이 제사를 지내던 사당이 있었다. 그 앞에 연인들이 헤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이름 새긴 자물쇠를 탑둘레에 온통 채워 놓아 또 하나의 장관을 이루었다. 태산은 높고 신비로워서 그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일행은 다

행히 태산의 깨끗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태산에 한 번 올라갔다 오면 10년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 태산에 갔다 온 흔적을 남기려면 ‘오악독존’이라고 적힌 바윗돌 앞에서 사진을 찍으라는 가이드의 말에 1조 선생님들과 줄지어 선 중국인들 틈에 겨우 한 방 증거를 남기며 등줄기로 흘러내리는 땀을 주스로 얼려 만든 얼음과자로 식혔다.

다음은 치박의 제국박물관으로 이동하였다. 제나라 역사박물관이라 쓰인 간판이 보이는 정원은 장미를 비롯한 갖가지 꽃들과 푸른 잔디가 어우러져 무척 아름다웠다. 내부는 5개의 진열실로 이루어져 제나라의 많은 유물이 있고 벽화나 유적을 소개하고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첫 번째는 제사를 올릴 때 썼다고 하는 새 모양의 주둥이를 한 주전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를 하늘과 인간세계를 이어주는 영험한 동물로 생각했다는 공통점 때문에 기억에 남는지도 모르겠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전시실에 있던 중국의 악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악기가 있었던 듯한데 청동 소재인 듯한 종모양의 악기가 여러 층으로 달려 있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모두 빨간 것이 웬지 이 악기와 대조되는 설명하기 힘든 신비함을 자아냈다.

박물관과 가까운 곳에 있는 제정궁 순마궐으로 이동하였다. 가는 길은 온통 흙먼지 길로 길가의 옥수수는 흙먼지로 뒤덮여 있고 시골의 모습으로 크나큰 그늘 나무아래 장기관을 벌이는 여유로운 시골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이번 답사에서 가장 놀라운 곳 중의 하나는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공후의 묘에 순장된 말이 600마리 정도로 추정되는 순장의 흔적인 순마궐이었다.

임치구 제도진 ‘하령두촌’이라는 시골 마을 안에 전시관이 있는데 발견된 그 자리에 전시관을 만들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파다가 발견한 것인데 그중 106마리만 유리관으로 씌워 볼 수 있도록 해놓았다. 2열 종대로 쪽 늘어선 말 뼈다귀들... 그 당시 이렇게 많은 말들을 순장할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막대한 권력을 가졌을까? 또한 일개 제후가 이런 정도라면 그 당시 제나라의 국력을 알 수 있는 뒷받침이기도 하다. 하지만 또 하나의 의문은 어떻게 말들을 틈도 없이 줄을 잘 세웠는가? 마취를 했을까? 죽여서 넣었을까? 정말 궁금하였다.

순마궐을 관람하고 나니 날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유방시로 이동하는 고속도로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였다. 유방시는 ‘연의 고향’으로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큰 연의 도시이다. 1984년 제1회 ‘유방국제연축제’를 시작으로 해마다 한 차례씩 개최되고 있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고 한다. 어둠을 밝히는 가로등들은 모두 빨강나비, 노랑나비의 모습으로, 내 고향 부산의 갈매기 모습을 한 가로등이 살짝 그리워지는 밤이었다.

또 하루를 보내고 남산으로 향하는 길에 <역사는 흐른다>의 비디오를 보면서 단순한 상인이 아닌, 일본에서는 적산명신의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존경받고 있는 장보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KBS신년 다큐로망으로 작가 최인호 씨의 우연으로 맺어진 장보고를 쫓아 서남아시아, 일본, 중국으로 여행한 내용의 이 비디오는 차에 오르면서 쉬엄쉬엄 보다가 1호차 선생님들의 요청으로 한 번 더 보면서 새록새록 새로워지는 장보고의 위상에 한국에 돌아가면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꼭 한번 권하고 싶어지는 마음으로 내달을 때쯤 남산관광풍경지구란 곳에 차는 멈추었다.

이곳은 연태 용구시 관할로 남산그룹을 중심으로 한 마을이고, 내부적으로 각종 생활기능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 의식주뿐만 아니

라 대학교와 대형공장, 병원 등 자급자족이 가능한 신사회주의 사회로 도연명이 쓴 남산천지와 비슷하다고 한다. 단지 안에는 호텔, 골프장,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한 레저단지와 중화 5천 년 역사를 축소한 역사문화지구, 남산대불과 불교박물관, 도교사원을 포함한 종교문화지구, 공업단지, 거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곳의 잘 정비된 도로와 주거시설, 관광시설 등은 중국 내 다른 지역과는 달리 깨끗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가진 별천지였다. 특히 종교문화원과 중화역사문화원이라는 두 개의 대표적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종교문화원은 불교를 중심으로 도교와 유교 등 유·불·선 세 종교의 정수를 농축하여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저 멀리 10리 밖에서도 보였던 남산대불은 높이가 38.6미터이고 무게는 390톤에 달해 세계최대의 좌불 동상으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고, 중화역사문화원은 중국 역대 왕조의 문화와 발전상을 순서대로 모두 볼 수 있는 중국에서 유일한 곳으로 그 규모가 60,000평방미터에 달하며, 총 6억 위안을 투자하여 완공되었다고 한다. 시대마다 특징이 다른 중국 왕조의 건축을 많은 역사문화자료를 토대로 만들었고, 중화문명과 다양한 민족문화를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5천 년의 중국 역사를 불과 하루 만에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특히 모조품의 만리장성 앞에서는 입을 벌리며 “5천 년이 하루처럼 지나간다.”를 실감하였다.

남산 열대식물원에는 세계 각지의 희귀식물이 있다고 하였는데 보지 못하여 아쉬웠다.

점점 가까워지는 석도항으로 가는 길에 성산두와 진시황 사당에 들렀다. 물안개로 덮여 있는 성산두는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중국의 희망봉으로 불리었는데 아마 이곳을 꼭 간다면 우리나라 가장 서쪽의 백령도와 제일 가까운 곳이란 생각에 가슴이

뭉클하였다.

진시황 때 불로초를 구하러 떠난 서복선단이 제주도까지 왔었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는데, 불로초가 저기 있다고 거짓을 전하는 서복선단, 긴가민가 하는 진시황, 어찌할 줄 모르는 내시의 얼굴의 동상은 웃음을 자아내었다.

다시 석도항의 우리가 묵을 호텔에 도착하여 중국에 다녀오면 한 번쯤 받아본다는 발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현지가이드에게 부탁하여 호텔의 2층에 있는 스팀으로 1조 식구들은 향하였다. 나이가 어린 아가씨들이 땀을 흘려가며 피로에 지친 발의 이곳저곳 구석진 곳을 부드럽게 마사지 한 덕분에 다음날은 가뿐하게 아침을 맞았다. 우리조의 말언니는 언제 다녀왔는지 바닷가에서 주운 붉은 돌(물이 묻으면 붉은 돌로 변함)을 선물해 주셨다. 이번 여행길의 최고 절정을 위한 적산 법화원을 향하여 짐을 꾸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장보고는 신라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중국으로 건너와 난을 진압하고 당에서 장군을 지낸 뒤 신라로 건너가 노예를 근절하고 무역, 교역으로 한중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신라방 등 해변가에 사는 신라인들의 정신적 위로와 무역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이 법화원을 세웠다. 이 법화원에는 신라의 승려 27명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많은 때에는 40명 정도 되었다고 한다. 절은 주변의 땅 등을 사들여 장원을 운영하였다고 한다. 828년에는 귀국하여 청해진(완도)에 무역기지를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한·중 무역에 힘썼다고 한다.

장보고의 공로는 어려운 백성과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준 영웅이었으며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당과 신라인 등 관에서 관리하지 않은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 해상무역을 활성화한 사람이다. 또한 한·중·

일 무역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여 페르시아만까지 진출하여 공포의 바다에 모험을 한 사람이다. 적산 그룹에서는 장보고 기념관을 건립하여 공자님과 버금가는 위상을 가진 장보고의 진취정신을 기리고 있었다.

지구표면의 71퍼센트를 이루고 있는 바다는 명실공히 미래의 자원이고 문화적 교류지이며, 생명의 원류이고 또한 20세기가 초래한 생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된다. 이 경우 육지의 위기를 바다에서 극복한다는 단순히 기계론적이고 양분론적인 인식은 피해야 함은 물론이다. 바다와 육지를 동시에 조망하는 종합적인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요컨대 바다는 육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육지와 하늘 그리고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21세기는 해양개척의 원년으로 희망과 도전과 가능성을 던져주는 해양경영의 모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만큼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번 여행길은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의 슬로건처럼 그는 완도의 청해진을 지키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1200년 전의 세계에 한국을 심어준 마르코 폴로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확인했다. 푸른 바다에서 꿈을 쫓아 더 넓은 곳을 우리 땅으로 오고갔던 매우 자랑스러운 한국인, 장보고. 우리 아이들 가슴에 이제 나아갈 곳은 바다라고, 특히 부산은 바다와 인접해 있어 꿈을 펼칠 수 있다는 희망의 불꽃을 당겨두어야겠다. 개학이 되기를 바라며, 찍어 두었던 적산 법화원의 장보고 동상 사진을 챙기며...

해상민족 장보고의 후예들

당진 천의초등학교 추범

출발 전 날 - 해상왕 장보고를 생각하며

내가 알고 있는 장보고는 지금의 완도에서 청해진 건설, 당나라와 일본과의 중계무역, 신라 서남해안에 출몰하는 해적소탕, 신라정부 전복에 가담한 인물 그리고 방송 드라마 〈해신 장보고〉가 국사시간에 배웠던 기억의 전부이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전부일 뿐이다. 더욱이 요즘 방영했던 〈해신 장보고〉는 모든 역사 드라마가 그러하듯이 정사에서 왜곡되고 어긋난 줄거리 구성과 출연 배우들의 식상함 그리고 시청자 시청률을 중시하는 방송사의 행태로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장보고 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는 유적지 답사단에 선발되고 보니 그 기쁨도 잠시 주인공에 대한 예비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다른 직업도 아닌 교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마음에서 드라마라도 열심히 시청했었으면 이번 견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겠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늦었더라도 깨달았을 때 가장 빠르다는 생각에 여행가방을 챙기면서 인터넷으로, 도서관으로 돌아다니며 장보고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부산을 떨었다. 과연 장보고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였길래 천여년이 지난 지금 대규모 교사 답사단을 선발하여 그의 발자취를 살펴 보려는 것일까? 《삼국사기》에서는 그를 신라귀족들의 권력투쟁의 중심에서 모반의 혐의를 뒤집어쓰고 암살당한 섬사람으로 표현했고, 진보적인 《삼국유사》에서조차도 극미하다고 기술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에서 보다 해외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였길래 당나라와 일본에서 그의 정신과 업적을 칭송하고 흠모하는 것일까? 시대는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어떠한 사회적·시대적 배경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을까? 이러한 의문들은 답사기간 동안 또 한 사람의 장보고가 되어 열심히 보고 들으며 생각한다면 쉽게 해결될 것이다.

중국에 가면 여권 조심, 음식 조심, 물 조심 등 조심하라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돈지갑을 뒷주머니에 넣으면 뒤에 있는 사람의 것이고, 오른쪽 왼쪽 주머니 역시 옆에 있는 사람 돈이 된다고 언제나 조심하라는 충고를 주위에서 귀 따갑게 들었다. 그래도 중국은 추씨 시조가 송나라에서 고려 인종 때 건너와 문과 급제한 추엽으로 나의 뿌리인 나라이기에 묘한 기분이 들었다. 여하튼 이유야 무엇이든 여행 전날 오는 설렘과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여행 중 한국음식을 대하기 어렵다며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아침을 먹는 등 미는 등 수저를 놓고 일찍 인천 국제여객터미널로 향했다.

첫째 날—화동훼리호 선상에서

선박길이 132미터, 폭 23미터, 축구장 약 2배의 규모로 여객 정원 600여 명을 태운 13,200톤의 쇳덩어리가 바다 물살을 가르며 스르르 소리를 울리며 열두 시간 긴 항해의 출발을 알렸다. 대학 졸업여행으로 제주행 카페리호를 타본 지 26년이 지났으니 바다여행이 생소한 나머지 설렘과 두려움으로 로랑히는 갑판에 나와 동료교사들과 함께 낙조를 배경으로 플래쉬를 터뜨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둠속의 바닷물은 질푸른 잉크 빛으로 변하여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만 같았다. 빌 게이츠는 생각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고 현대사회를 표현하고 있다. 천여 년 전에 장보고 선단이 바람과 사람들의 힘으로 이 뱃길을 헤쳐 가며 서쪽으로는 산둥반도를 비롯한 중국 여러 해안에서 동남쪽으로는 일본 규슈에까지 자유롭게 해상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하니 최첨단 여객선 갑판에 서있는 나를 아이러니하게 만들었다.

선상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 견학을 주최한 (재)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의 답사 개요와 일정을 듣고 동아일보사 편집국 차장님으로부터 인사소개를 받은 후, 한국교원대학 교수님의 장보고에 관한 강의가 있었다. 사전 예비지식이 충분하지 못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못했지만 교수님의 알차고 명쾌한 강의 덕분에 어느 정도 장보고의 윤곽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객실로 돌아와 침대 위에 몸을 맡겼지만 스르렁대는 스르르 소리는 잠을 설치게 하고 몽롱한 눈에 비치는 것은 오랫동안 대양 밑에서 잠자던 장보고의 영혼이 살아나와 격동의 그 시대를 재현하는 듯했다. 마치 캐리비안의 해적 영화를 보듯이 천 년 동안이나 바다 밑에서

잠자던 장보고의 선단들이 각양각색의 깃발을 펴리며 웅장한 모습으로 항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육지가 다가옴을 알리는 뱃고동 소리에 객창 밖에 보이는 중국의 첫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부두를 오가는 사람 역시 무표정하고 어색하였다. 입국 수속을 위하여 한 시간을 기다리며, 인간이 태어나서 기다림이 없는 곳은 아마도 죽음 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 것은 기다림이며 성장은 더욱 참을성 있게 인내해야 하며 죽음마저 순서를 기다려야 하니 일생이 기다림이 아니라 무엇이겠느냐! 어차피 같은 시간을 기다린다면 남들보다 알차고 값진 성공적인 견학을 위해서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날—해상활동의 전초기지 신라방

배정된 버스는 2호차, 옛날 신선들이 살았다는 전설 속의 바다 가운데 있는 산의 이름에서 명명된 중국의 아름다운 누각 중에 하나인 봉래각 관광을 한다는 조선족 출신 가이드의 안내가 있었다. 에어컨 개폐장치도 이상하고 달릴 때마다 삐걱삐걱 이상한 소리를 내는—가이드 말로는 이 버스가 중국에서 최근에 생산된 최고급형이라는—관광 버스를 타고 연태시로 향했다. 봉래는 신라와 일본의 견당사들이 수십 차례 왕래하며 당나라의 문물을 소개하였고 고구려와 수·당나라가 동아시아의 종주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일 때 대규모의 수군을 발진시킨 곳이며 특히 많은 신라 상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신라방이 있어 우리와 인연이 깊은 곳이라고 한다.

관광버스 속에서 장보고에 관한 CD영상물을 시청하면서 그가 활동했던 주요장소들을 스치며 급작스러운 개발로 인하여 1970년대와 2000년대가 혼재해 있는 창밖 현지풍경과 교차시킨다는 것이 매우 혼란스러웠다. 삼국통일 후 백제와 고구려의 유망민 그리고 신라인들이 산동반도를 비롯한 중국 연안에서부터 일본의 하카다 태재부까지 한·중·일 중요 교통 및 상업 요충지에 신라인 집단거주촌인 신라방을 구축한 것이 해상왕 장보고의 눈부신 업적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현재 세계 각 나라에 퍼져 살고 있으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른 어느 민족보다 두각을 나타내는 한민족의 자생력과 우수성으로 보아 천여 년 전 그들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상민족 백제인들은 일본의 안예국에 백제선을 전수하여 견당선박으로 사용하게 할 만큼 뛰어난 조선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계승한 신라인 역시 폭넓은 해양활동에 걸맞은 우수한 조선술과 해양술을 겸비하고 있었음은 또 하나의 우수성에 대한 반증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립하여 반목하는 신라, 고구려, 백제 유망민들이 이국땅에서 한민족으로 결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라방을 중심으로 한 장보고 대사의 리더십과 용병술의 역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청해진이 국제 해상왕국의 중심지라면 신라방은 대륙의 교통과 상업 요충지에 퍼져 있으며 점조직화되어 국제통상지식과 정보력을 보유한 요즈음의 경제특구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종합상사에 버금가는 장보고 해상활동의 전초기지이며 교두보라 할 수 있겠다.

봉래각 견학에 앞서 가이드는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관광습성을 평하였는데 일본인은 가이드 뒤를 질서 있게 따르고, 중국인은 가이드를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한국인은 가이드보다 더 빨

리 앞서가 찾지 못한다는 말이었다. 하기가 사이판에서도 아열대 기후 특성으로 자주 비가 오는데 신문지를 머리에 쓰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관광객은 십중팔구 한국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말들은 가이드들이 민족성을 건드려 편안하고 신속하게 안내를 마치려는 속셈에서 나온 노하우가 아닐까?

산동성 하나가 남한의 1.5배의 크기이니 봉래각 역시 입구와 출구가 따로 있을 정도로 크기가 웅장했고 신선들과 함께 서니 무더움과 피로함이 싹 가시는 듯했다. 현지 주민들은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거나 출항시 안전항해를 기원하고 행운과 복을 빈다고 한다. 글썄, 사람들은 네잎 클로버가 행운의 상징이기에 행운을 잡기 위해 열심히 찾는다고 하지만 세잎 클로버는 행복을 뜻하지 않는가? 바로 옆에 수많은 작은 행복이 있거늘 못사람들은 행운의 요행을 잡으려고 불행의 덫속에서 고생하는 것이 아닌가! 행운이건 행복이건 봉래각에 올라 등주수성을 바라보니 바다를 경영함으로써 대륙을 지배하기 위해 수많은 밤을 지새웠을 해상왕의 고뇌를 읽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점심을 위한 식탁 위에 나란히 정렬된 사기그릇 중 일부는 모서리가 깨지거나 금이 가 있어 깔끔한 나의 결벽증을 자극하여 다른 식탁에 있는 그릇과 살짝 바꾸어 식사를 끝냈는데 나보다 정도가 심한 분은 그릇을 교환해달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약간 깨진 그릇이 많을수록 식당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한다. 제도 대주점(호텔)에 도착하여 1217호를 찾았으나 보이질 않아 이상한 생각에 복도 벽을 보니 쌍수 방호, 단수 방호로 홀수 방과 짝수 방이 따로 배열되어 있었다. 중국에 왔으니 중국 법을 따라야지!

셋째 날—해상무역의 세라믹로드 건설

견학지를 장시간 이동하는 관광버스는 장보고 CD영상물 시청, 교원대 교수님의 자세한 보충설명으로 움직이는 강의실을 방불케 했으며 긴 세월로 남아있지 않은 장보고에 관한 유적과 유물을 대신하였다. 장보고 선단이 개척한 동북아 항로는 일명 세라믹로드로 대륙을 가로지르는 실크로드에 상응되는 해양 실크로드인 셈이다. 가장 중요한 생필품 중의 하나인 중국 월주에서 생산된 도자기가 한반도 서남해 해안과 일본 해안에서 장보고 상단이 지나간 자리마다 출토되고, 신라 귀족들이 애용한 가구의 재료인 인도네시아의 자단나무와 석가탑에서 나온 유향은 멀리 아라비아의 오만에서 사막보호수종인 유향나무의 진액으로 밝혀져 해상교역의 규모가 입증되고 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바다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한 말은 세계사가 반증해 주고 있는 사실이다. 막강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1세는 페니키아 함대를 이끌고에게 해의 여러 국가를 굴복시켰으나 그리스 연합 함대에 패함으로써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으며, 로마 군단의 해군력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제패하게 된다. 장보고와 동시대인 8세기, 뛰어난 항해술을 가진 바이킹은 전쟁과 모험 그리고 전리품의 갈망으로 해외진출을 꾀하여 무자비한 침입, 약탈, 싸움으로 유럽 각지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으며,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계를 경영했다. 하지만 장보고는 로마나 영국처럼 다른 국가를 정복하기 위하여 바닷길을 개척한 것이 아니며, 공포의 대상인 바이킹처럼 침략과 약탈을 자행하기 위하여 해외로 진출한 것도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섬사람이었던 그는 신라 서남해안에 자주 출몰하는 해적들이 무자비하게 무역선을 습격

하고 약탈하는 국가적 병폐를 없애고 양민들을 납치하여 노예로 파는 불법 인신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해상왕국과 세라믹로드를 건설한 것이 아닌가!

해상왕국의 중심지를 안전한 육지보다 일개 섬에 불과한 완도 청해진에 설치한 이유는 섬 주변에 암초가 많아 완도 섬사람이 아니고는 얼씬도 못하는 천혜의 요새였으며 당시 바람과 사람의 힘으로 항해하는 범선시대의 항로에서 반드시 중간에 쉬어 가야 하는 중국과 일본을 잇는 중간 기착지로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조선업과 해운업 그리고 해상무역을 위한 풍부한 인적 자원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뾰이로다.’ 해발 1,545미터, 6,666계단의 태산은 한라산이 해발 1,950미터이니 그리 높은 산도 아닌데 중국인과 조선인은 왜 태산이라 불렀을까? 가이드의 설명은 없었지만 거의 평지에 가까운 드넓은 땅에 산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으니 그 산이 얼마나 크게 보였으면 태산이라 불렀겠는가! 정상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보면 행운이 달아난다는 설명에 이것 또한 그날 관광 스케줄에 맞추느라 가이드들이 만든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이나 말로만 들었던 순마갱. 전쟁시에 사용하던 600여 필의 살아있는 수말들을 쇠뿔치로 기절시켜 두 줄로 나란히 옆으로 눕혀 매장하였다 하니 제나라 국력의 강성함보다는 통치계급의 사치함과 과시욕의 극치가 아닐까? 중국인은 8자를 행운의 숫자로 여겨서 자동차번호와 전화번호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식날 신부 마중 가는 자동차를 8, 18, 88대까지 동원한다 하니 그들의 과시욕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넷째 날—장보고 대사의 정신과 업적

8세기 말 신라사회는 엄격한 신분사회의 폐쇄성으로 궁중 쿠데타와 반란이 빈발하고 기근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각처에서 도적들이 횡행하여 백성들은 전국을 떠도는 유랑민으로 변하여 당이나 일본으로 밀항하는 어수선했던 난세의 분위기였다.

당으로 건너간 장보고는 무령군 군중소장이라는 출세에 만족하지 않고 중국대륙에 뿔뿔이 흩어져 서로 대립하고 충돌을 불사하던 신라·고구려·백제 유망민들을 결속시켜 상업과 무역의 선봉역할을 하게 한 민족주의자이며, 정부의 요직을 맡은 관리도 아니고 군사조직의 장수도 아닌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중국 내의 남북 무역뿐만 아니라 한·중·일을 잇는 새 항로를 개척하여 양자강 일대에 진출해 있던 페르시아 및 동남아시아 상인들과 상거래를 주도한 국제 무역상으로서의 선구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해상무역의 전초기지 신라방을 네트워크화하여 국제교역의 시너지 효과를 얻고, 월주요를 직접 생산하여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를 적용하며, 새로운 항로 개척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건설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현대 벤처기업가의 디지털 마인드인 것이다. 세계는 자국의 경제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경제특구, 수출자유지역, 국제자유무역항 등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장보고는 이미 천 년 전에 청해진 국제자유무역항을 건설하여 바다를 경영하였으니, 미래사회를 꿰뚫어 본 신적인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드라마 방송 제목이 〈해신 장보고〉였다는 것이 이해가 되었다.

1962년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식량의 증산이다. 증산만 된다면 개인경영방식을 채택해도 좋다. 흰 고양이거나 검은 고양이거나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이다.”라는 등소평의 백묘흑묘론이 주창된 지 40여 년이 지난 남산관광풍경지구는 남산그룹의 주도하에 건설되었다. 세계 최대의 좌불 동상을 자랑하는 종교문화원과 5천 년 중국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중국 역사문화원이 대표적인 단지로 조성되어 관광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회주의와 자유경제 시장의 두 가지 모순된 체제가 조화롭게 운영된 것은 도로, 항만, 공항, 통신 등의 사회간접자본이 국가통제아래 강력하고 신속하게 건설된 것이 가장 큰 힘이 된 것 같았다.

우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 지역주민,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에 의해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되거나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중국은 지방 소도시에도 10차선 도로가 직선으로 뻗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말하자면 사회주의의 거름으로 자유시장의 꽃이 피었다고나 할까? 중국 경제발전의 시발점이 되었던 등소평의 생각이 장보고의 개방주의와 실용주의 정신에서 배운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다.

다섯째 날—불교 발흥의 원동력

답사 마지막 날. 계속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장보고가 지은 적산 법화원에 도착하여 시원한 나무그늘 밑에서 교수님의 즉석 강의를 들었다. 당시 신라인, 백제인, 고구려인을 한민족으로 결속하고 멀리 중국 땅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덜기 위해 정신적 지주가 필요했으며, 바다의 거친 바람과 파도 등 변화무쌍한 기상 속에서 무사귀환을 비는 뱃길의 안전에 대한 믿음이 절실했을 것이

다. 그래서 해상운송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면서 적산에 불교사찰을 지어 많은 스님들을 모셔와 《법화경》을 읽었다 한다.

일본스님 엔닌 대사 일행도 견당사로 입당하여 법화원에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당조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의 지식을 배우고 《입당구법순례행기》란 여행기에서 적산 법화원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한다. 귀국할 때에도 장보고 선단의 신라선박의 편의를 제공받은 엔닌은 적산 법화원의 은혜를 잊지 못해 일본 교토의 소야산에 적산 이름으로 ‘적산선원’을 세웠으며 일본 불교 중종의 3세 좌주에까지 올랐다 한다.

비단 적산선원뿐만 아니라 완도 상황봉에 법화사, 제주도 화원동의 법화사, 중국 절강성 천태산의 국청사 신라원 등이 종교적으로 또는 정신문화사적으로 모두 직간접으로 장보고 대사의 불교 및 무역 항해 활동과 관련을 맺고 설립되었다 하니, 항해안전, 사업번창과 같은 단순한 기원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의 불교문화 발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로 볼 때 사찰명이 스님들이 《법화경》을 읽었다 하여 적산 법화원이라 명명할 것이 아니라 적산신라원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왜 장보고 대사와 재당 신라인들이 중심이 되어 건축한 사찰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재건축된 법화원은 손님이었던 엔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의 합작품인가? 장보고 대사를 극찬하며 존경했던 엔닌 스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러한 광경에 무엇이 라 답할까?

불행 중 다행인가 관음전 북쪽 벽에 장우성 화백이 그린 장보고 대사의 화상이 모셔져 있고, 적산 법화원 북쪽에 한국인 손에 의해 장보고 기념탑이 세워져 한국 대통령의 친필 휘호 ‘장보고 기념탑’이 새

겨져 있어 그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

지금도 동북공정, 독도 영유권 문제, 무역 개방 압력 등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공격해 오는 외세의 침입은 역사의 시공을 초월하여 자행되어 왔는데 우리는 조상들의 업적 하나 진실되게 보존하지 못했음을 이 중국 땅에서 가슴속 깊이 새겨본다. 하늘도 이 사실들을 알았는지 해신 장보고께서는 모든 견학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게 해주려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고, 편안한 유적지 답사를 마치고 버스에 오르는 순간 긴 여행 일정을 정리나 하듯이 검은 구름과 함께 시원한 소나기를 차 창가에 뿌려 주었다. 이제 오던 길을 되짚어 가서 이번 답사의 소중함과 알참을 정리하여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겠다.

도착해서—세계 최강의 해상국가를 꿈꾸며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법칙으로 설명한 아놀드 토인비가 자연재해,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은 문명은 쇠퇴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반면 오히려 심각할 정도로 도전을 받았던 문명은 지금까지 찬란하게 발전한 것을 세계사를 통해 입증한 것처럼 빈번한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 온 한반도 문명이 번창할 때가 아닌가! 부모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나 없이 자식이 있을 수 없듯이 삼국시대, 특히 백제의 해양기술 없이 신라의 장보고가 존재할 수 없었고 그 없이 고려의 왕건과 벽란도도 없었을 것이다.

그 법칙은 오늘날에도 적용되어 조상들의 우수하고 지혜로운 유산을 소중히 물려받아 우리의 해양력이 전 세계 10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박 건조는 세계 1위, 선박 보유량은 세계 5위이고 해양 수출입 물동량은 세계 6위에 해당되며 수산업은 세계 12위이고 원양어업은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해상왕 장보고 조상님께 부끄러운 수치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세계는 육지 자원의 고갈로 한계를 느끼고 해양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자원들의 무한성에 관심을 갖고 해양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은 자국 영해뿐만 아니라 해외 해양자원 개발을 위하여 정부, 민간 기업을 가리지 않고 외국으로 눈을 돌려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 미국과 FTA 무역마찰 등 중대한 국가 이익과 관계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어 다시 한 번 장보고의 정신이 필요함을 생각해 본다.

우리는 이웃나라와 감정적인 마찰로 적대감을 가져 국익을 손상시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장보고 대사의 해상왕국 청해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되찾아 세계 최강의 해상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경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동북아 지역이 세계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강의 해상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학교로 돌아가면 아이들에게 모든 관련 교과에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해양민족으로서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모습을 알려주어야겠다고 다짐한다. 또한 해양국가로서의 뛰어난 지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세계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심어주어 수많은 장보고의 후예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오르면서 5박 6일의 일정을 정리한다.

유익한 답사를 주최해 주신 (재)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와 동아

일보사에 감사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동식 강의로 열강해 주신 교수님들께 답사교사들의 일원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사들의 학구적인 견학 열의를 취재해 주신 기자님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언제나 답사단의 안전과 건강을 배려해 주신 재단 직원님과 넥스투어 직원님들의 앞날에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여행기

충주 목행초등학교 곽노선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시작하며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중국 28개 성 중 지역적으로 제일 동쪽에 위치한 산둥반도의 산둥성을 다녀왔다. 이번 답사는 통일신라 때 중국과 신라와 일본을 잇는 해상을 장악, 바다를 제패한 해양개척의 선구자 장보고를 비롯한 신라인들의 해상활동의 유적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5박 6일의 일정이지만 인천에서 배를 타고 서해를 건너 산둥반도를 오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3박 4일의 빠듯한 답사 일정이었다.

처음으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답사 여행을 떠난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지난밤을 설치며 준비한 간단한 답사 용품을 챙겨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 출국 수속 후 화동훼리호에 승선, 산둥반도 석도항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출국 수속 전에 참고가 될 만한 도움 자료책자와 함께 준비해 주신 모자를 쓰고 조 편성을 통해 1차 답사단에서 답

사의 길을 함께할 소중한 인연의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 만나 뵈는 얼굴들이지만 모두가 장보고 탐구와 역사 유적지 답사에 관심이 많다는 공통점을 가진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다는 기쁨을 안고 광활한 대양에서 멋진 해상무역 활동을 펼쳤던 장보고 대사의 꿈의 바다, 푸르른 대양을 넘실거리며 13시간여에 걸친 중국 답사의 바닷길 여정이 시작되었다.

배에서의 석식 후 세미나 시간을 통해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여행에 대해 관계자 분의 자세한 안내 말씀과 더불어 부산 외국어대 권덕영 교수님께서 '장보고의 국제무역과 해상활동'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가치와 의문점을 제기, 장보고란 인물에 대해 다각도로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선상 세미나 후 둘째 날부터 시작되는 답사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출렁거리는 검푸른 바다 위, 선상 침실에서 첫째 날 일정한 잠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석도항에서 봉래로 이동, 봉래각, 등주수성, 고선박물관 견학

답사 둘째 날, 선상 조식을 하고 얼마 후 드디어 석도항에 도착, 입국 수속 후 답사단은 조별로 3대의 버스로 나뉘어 타고 2시간여에 걸쳐 연태시로 이동하였다. 중국 산둥반도 동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해변도시인 연태시는 중국 내에서도 이름난 관광도시로 해상 명승고적과 특색 있는 자연경관으로, 이상적인 휴가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는 도시이다. 연태에서 점심을 먹고 1시간 30분 정도를 달려 봉래로 이동하여 봉래각, 등주수성, 고선박물관 등을 보았는데, 이곳은 당대에 발해, 신라와 교역할 때와 고구려를 침략할 때 수·당 군의 출발지였다고 한다.

산둥성 봉래는 옛날의 등주(登州)지역으로서 발해가 공격을 한 곳이었고, 유사 이래로 우리와 연관이 많은 지역이다. 지금은 연태시로서 이곳에는 한국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며, 봉래라는 이름은 옛날 신선들이 살았다는 전설 속의 바다 가운데 있는 산의 이름이라고 한다. 중국 한조 때 한무제가 이곳에 와서 이 신선산을 보려고 했으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선산이 보이지 않으니 경치가 수려한 지금 이곳을 '봉래'라 명하였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송나라 때 건축된 여조전, 삼청전, 봉래각, 천궁 등 6부분으로 이루어진 도관으로 봉래각을 큰 자랑거리로 여긴다고 하며, 당조(唐朝) 때에는 봉래진으로 불리다가 후에는 등주로 불렸다고 한다. 봉래각 내에는 누각, 불상, 사원 등이 많이 조성되어 있으며, 성벽을 따라 계단이 시작되고 대해원이 펼쳐지며 동쪽으로는 수성이 있다. 7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봉래에는 많은 신라 상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곳을 '신라방'이라 하여 많은 신라인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장보고가 제일 먼저 들어온 곳이 봉래라는 학설이 있을 정도로 이곳은 한국과 역사적으로 인연이 깊은 곳이라고 한다.

중국 4대 명물 중 하나인 봉래각은 주변 경관이 매우 수려한 곳으로 주변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중국인들을 보며 오늘날 개방된 중국의 모습을 실감할 수 있었다.

봉래 견학 후 버스로 4시간여에 걸친 치박으로의 이동은 조금은 힘들었지만 끝없이 펼쳐지는 옥수수 밭 들판을 보며 미류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숲의 무성한 숲길을 가르며 달리는 기분은 신비롭고 상쾌하기까지 하였다.

중국도 젊은이들이 도시로 진출하여 노인들이 주로 농사를 짓고 있

다고 하니, 우리나라처럼 중국 농촌의 노동력 부족의 현실도 어쩔 수 없는 문제인가 보다. 더구나 그 넓은 영토에서 80퍼센트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그들의 농촌 현실이 무척 걱정스러웠다.

중국의 명산 태산(泰山) 옥황정 등정

답사 셋째 날, 치박에서 아침식사 후 태안으로 이동하여 그 이름도 유명한 명산인 태산을 답사하게 되었다. 태안시는 황하문명 발상지 중의 하나로 일찍이 50만 년 전부터 인류가 생존하여 5만 년 전에는 이미 지식을 갖추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산이 있어 산과 도시가 일체가 되고 풍경이 수려하며 문화가 발달하고 환경이 빼어나며 유구한 역사를 지닌 문화 관광도시라고 한다.

차에서 내려 태산으로 이동하기 위해, 매표소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이동했다. 수십 분간 상큼한 풀내음을 맡으며 태고적 숲길을 달려서 케이블카 승강장에 도착하여 또다시 케이블카로 이십 여분 산길 계곡 사이를 미끄러지듯 타고 올라갔다.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본 태산 아래 펼쳐진 경관은 너무나 수려하고 신비로워 감동의 함성이 절로 나왔다.

산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며 남천문, 운보교 등의 명승고적이 많아 관광객들로 붐빈다는 해발 1,545미터인 태산은 중국 산둥성 구룡에서 최고 높은 천하제일의 산이며, 중국인들은 태산에 오르면 수명이 10년 연장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산수가 어우러져 고찰이 즐비하고 녹음이 짙으며 가는 곳마다 절경을 이루는 태산의 정상인 옥황정까지 6,666개의 계단이 놓여 있는데, 진시황이 왔을 때 계단 대신

사람을 밟고 올라갔다고 한다. 하늘 아래 ‘첫 산’ 또는 ‘오악독존’으로 불리는 태산은 중국 5악(五嶽) 가운데 하나인 동악(東嶽)으로 대산(岱山) 또는 대종(岱宗)이라고도 한다. 옛 사람들이 태양과 큰 산을 숭배하면서, 요순임금 때부터 진한을 거쳐 명·청나라에 이르기까지 몇 천 년 동안 역대 제왕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낸 신산이 되어 왔다. 또 문인묵객들이 시를 읊고 글을 쓰며 불교, 도교, 유교의 신도들이 경전을 전하고 포교를 하던 신산이기도 하며, 제왕이 봉선의식을 행하면서 신격화되어 많은 불교와 도교의 신도, 그리고 문인명사들이 이곳을 찾아 태산과 태안에 걸쳐 무수한 명승고적을 남겼다고 한다. 옛날부터 천하제일의 산으로 칭송받아 왔듯이 자연경관은 물론이고 신앙의 산으로도 추앙받아 왔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돌비석 등의 옛 유적과 종묘 등이 있었다.

진시황과 한무제를 비롯, 측천무후, 당 현종 등 역대 중국 황제들이 국가 안녕과 복을 비는 봉선제례를 행했고 공자가 몸소 걸어 꼭대기까지 오른 곳이 태산이요, 당대의 유명시인들이 태산의 장엄함에 취해 바위마다 시(詩)와 부(賦)를 새긴 곳 또한 태산이라고 하는데 유(儒), 불(佛), 선(仙), 도(道)가의 사찰과 제단, 관문, 일주문 등 각 건축물이 저마다 묘(廟), 궁(宮), 문(門), 교(橋), 각(閣), 가(佳)의 현관을 달고 정상까지 도열해 있다. 이런 까닭에 산행으로 알았던 이방인에게 태산 등정은 너무도 중요한 역사여행이 된다고 한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한 30여 분을 더 걸어 올라가 ‘태산’에 오르니 천지간 장관이 눈앞에 펼쳐진다. 오악독존 기념비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옥황정에 올랐다. 태산 정상에 올랐다는 기쁨과 신비로움,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한 줄기 찬바람이 상쾌함을 더하며 마치 신선이 살고 있는 큰 봉우리에 올라온 착각이 든다. 비가 조금 내리는 심

술곳은 날씨가 정상을 에워싸고 있어, 천하절경이라는 태산 밑 장관을 자세히 보지 못하고 뿌옇게 흐려진 산 밑 경치를 감상한 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점이 조금은 아쉬웠다.

태산 옥황정을 견학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 다시 봉고차를 타고 산길을 달려 2호차에 몸을 싣고 다음 답사지로 달리는 길에 몸은 조금 피곤했지만 중국의 5대 명산 중 하나이며, 수천 년의 정신문화가 배어 있고 인류 문화의 경관이 돋보이는 중화민족 정신문화의 축소판이며 중화민족의 상징이자 세계적으로 귀중한 문화유산인 태산을 등정하였다는 뿌듯함과 기쁨은 감출길이 없었다.

강태공 사당, 제나라 역사박물관, 제경공 순마갱을 돌아보며

태산을 등정한 뿌듯함에도 허기진 배는 어쩔 수 없어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치박시를 향해 몇 시간을 달린 후 우리는 다시 수많은 말을 순장했다는 제경공 순마갱과 강태공 사당, 제나라 역사박물관 등을 둘러보았다. 산동성 치박시는 제나라의 수도였던 곳으로 순마갱의 발굴지로 유명한 관광명소이다. 산동성이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노나라 땅이어서 제나라를 건국한 강태공, 노나라 태생의 사자가 공자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제나라 박물관, 제경공의 무덤으로 추측되는 말 600마리를 순장한 순마갱을 보며 제나라 통치계급의 사치함과 제나라가 춘추전국시대의 강대국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려 유방의 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저녁을 먹은 후 휴식을 취하며 하루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산 종교문화원과 중국 5천 년 역사문화 체험지 중화역사문화원

답사 넷째 날에는 전 날의 피곤함에 오랜만에 숙취를 하여 상쾌한 기분으로 조식 후 유방을 출발, 2시간여에 걸쳐 남산으로 이동, 남산 대불과 종교문화원, 중화역사문화원 등을 답사하게 되었다.

남산관광풍치지구는 연태 용구시 관할로 남산그룹을 중심으로 한 마을이며, 내부적으로 각종 생활 기능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다. 이곳은 잘 정비된 도로와 주거시설, 관광시설 등이 깨끗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남산 종교문화원은 불교를 중심으로 도교와 유교문화의 정수를 살려 세워진 종교문화단지로 1,322,000평방미터의 면적에 남산사, 남산 대불, 향수암, 남산도원, 영원암으로 조성되었고, 남산경은 진한, 당, 송, 원, 명, 청나라 건축으로 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중국역대 순서대로 건축 양식을 본떠서 만든 건축물들은 당시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어서 그 당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남산대불은 높이가 38.66미터, 무게가 380톤에 달해 세계 최대의 좌불 동상으로 이 대불상 밑에는 만불동, 불교 역사박물관이 장식되어 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만불전은 9,999개의 작은 불상이 남산대불과 합쳐 만불천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중화역사문화원은 중국 역대 왕조의 문화와 발전상을 순서대로 모두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규모가 60,000평방미터에 달한다. 시대마다 특징이 다른 중국 왕조의 건축을 많은 역사문화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 놓았고, 5천 년 중국 역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표현해 놓았으며, 역사의 길상 및 민속음식과 시장문화의 결합을 요구한 중화문명과 다양한 민족문화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었다.

방대한 규모의 문화원을 통해 살아있는 중국의 5천 년 역사를 불과 하루 만에 느낄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짧은 시간에 중화민족의 역사 발전과 역사적 인물 등의 중국문명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경이로웠다.

영성의 진시황 사당과 중국의 희망봉 성산두

남산 중화 역사문화 체험을 마친 후 도착한 곳은 성산두와 진시황 사당으로,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중국의 희망봉'이라 불리었다는 성산두는 예로부터 군사요충지로 백제를 치기 위해 소정방이 13만 수군을 거느리고 출발한 항구이기도 하다. 전 중국 총서기인 호요방은 이곳에 '천진두'란 휘호를 남겼는데 이는 '하늘이 끝나는 곳', '육지의 끝'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곳엔 중국 유일의 진시황 사당이 있고 진시황의 불로장생초와 관련된 전설과 함께 진교유적, 사교대 등의 유적지가 있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을 연상케 하는 성산두의 앞 바다를 바라보며 가슴이 탁 트이게 시원함을 느끼며 내일 답사 일정이며 피곤함의 여장을 풀 석도의 호텔로 향하였다.

신라인의 활동지 장보고 기념관, 장보고 기념탑, 적산 법화원을 돌아보고 석도항으로

답사 마지막 날의 일정에 따라 이번 답사 여행의 가장 중요한 유적

지, 장보고 해상활동의 주무대인 석도의 장보고 기념관, 장보고 기념탑, 적산 법화원을 찾아보았다. 장보고를 통한 한·중 우호와 교류를 기념하기 위해 3억 위안을 들여 건립한 '장보고 기념관'엔 장보고 동상을 비롯하여 적산 법화원, 장보고 기념탑 등이 있었다.

장보고 기념탑은 적산 법화원의 북쪽에 있는데, 1991년 성신여대 교수이자 세계한민족연합회장 최민자 교수가 적산 법화원에 왔다가 한민족의 선각자 장보고 대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것으로 1994년 7월 24일에 준공되었으며, 탑의 설계가 특이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한·중 양국의 친선이 영원함)가 더욱 깊다고 하며, 탑의 '장보고 기념탑' 여섯 글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라고 하여 느낌이 더 새로웠다.

산동성 영성시 석도진 적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적산 법화원'은 1200여 년 전 해상왕 장보고가 재당 신라인들의 안전한 해상무역을 기원하기 위하여 지은 사찰로 장보고 대사는 해상운송사업이 번영하기를 기원하면서 적산에 불교사찰을 지어 많은 스님들을 모셔와 《법화경》을 읽어 '적산 법화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한다.

적산 법화원은 당시 산동에서 규모가 제일 큰 불교 사원이었고, 이 사찰에서 우리 고승들이 여름에는 금광명경(金光明經)을 겨울에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강론하였는데, 그때마다 많은 신라인들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또 이 절에 묵었던 일본인 엔닌 대사가 장보고에 감동하여 일본에 가서 '적산법사'를 지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 절은 불타버렸고 일본 자본에 의한 대웅보전이 재건되었다고 한다.

적산 법화원은 역사가 유구할 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 국민의 친선을 상징하는 장소로 옛날에는 이 법화원을 중심으로 신라인들이 모여

생활하고 해상활동을 했었다고 한다. 법화원에서 내려다본 포구는 신라인의 활동무대로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이며, 이곳에서 천여 년 전 활발히 활동했던 신라인들의 발자취와 숨소리를 떠올려 보며 감회에 젖어보았다.

5일간의 답사 일정을 마친 우리 답사단은 중식 후 석도항으로 이동, 출국 수속 후 웨리호에 승선, 그간 일정에 따른 답사 내용을 정리해 보며 석식 후, 룸 선생님들과의 친교활동을 가지며 답사 여섯째 날 아침에 맞을 이별의 시간을 준비하였다.

장보고의 해상 경영이 주는 교훈을 통한 시사점

해상왕 장보고는 이미 1200년 전 통일신라시대에 해양진출을 통한 교역이 부국의 원천임을 인식하여 동북아 해상을 주름잡고 바다를 통해 세계를 제패한 해양개척의 선구자이다. 그는 청해진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역망을 구축, 새로운 해상무역항로를 개척하고 무역과 문화·외교적으로도 큰 업적을 남긴 진정한 세계인이요 해양인이다. 그런 장보고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장보고는 3면이 바다라는 입지조건을 살려 해양 지향성을 확대·강화하는 것을 국가경영의 핵심요소로 삼고, 단순히 무역으로만 동북아 해상권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물류 네트워크 건설을 통해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동북아 해상교역권을 완성시켰다. 또한 황해 물류 네트워크의 기회를 형성, 동북아 경제주역으로 부상시키며, 해상왕국을 이루어 미래에 동북아 무역의 중심이 될 것을 내다볼 줄 아는 해양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 이를 이어받아 우리는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개방을 통해 한반도를 세계 중심,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건설해야 되지 않을까? 또한 해양관광산업의 기회를 살려 관광 잠재력을 많이 가진 우리나라 해안을 잘 개발하여 세계적인 해양관광지로 육성해 봄도 좋을 것이다.

중국 유적지 답사를 마치며

5박 6일간의 중국 답사 여행은 바쁜 가정생활에서 벗어나 내가 항상 관심을 갖고 좋아했던 '역사탐구 여행'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내 생애의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답사지를 향해 버스를 타고 달리며, 사망으로 지평선이 보이는 이 넓은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양이 얼마쯤인지 가히 짐작할 수 있었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우리나라 60~70년대를 연상케 하는 시골의 초라한 집, 어수선했던 거리에 비해 말끔하게 들어선 도시의 빌딩들은 중국의 개방정책으로 인해 발달해 가고 있는 현대 도시의 변천된 모습을 말해주고 있었다.

바쁜 일정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달리며 얼핏 차창 밖으로 보이는 중국의 거리 풍습이나 농촌풍경 등을 통해 그들의 생활 풍습을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었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과 독특한 향이 자칫 비위에 거슬릴 수도 있었는데 인솔 관계자 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느끼함과 향을 줄여서 음식도 대체로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우리가 먹어왔던 김치나 된장찌개, 고추장도 좋지만 다른 나라 문화를 체험하려면 그 나라의 생활에 좀 더 익숙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에서의 세미나 시간, 교수님의 강의와 선생님들과의

친교의 시간도 잊을 수 없는 일들이었다.

버스 안에서 보내야 했던 장시간 동안, 동참하셨던 교수님들과 장보고 재단 측에서, 또 현지가이드의 계속된 답사와 관련된 강의는 '장보고 인물 탐구'와 '답사 일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차안에서의 지루한 시간들도 5부작으로 제작된 'KBS 신년스페셜 최인호의 다큐로망' 덕분에 호기심과 감동으로 가득 찬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다.

역사 추적을 찾아 7개국을 순방, 2년여에 걸친 소설가 최인호님과 제작진의 헌신적인 장보고 인물 추적을 통해, 하마터면 왜곡될 수 있었던 '바다의 신 장보고', 1200년 전의 벤처 해상왕 장보고에 대해 바로 알게 되었다. 당시 바다의 해상권을 장악, 우리나라, 일본, 중국을 오가며 해상무역의 개척자의 역할을 해왔던 장보고가 '해신'으로 우리 앞에 다시 태어나서, 한 인물의 역사적인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척 다행이었다.

또 이번 답사 여행을 통해 우리와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의 역사, 천여 년 전 우리 조상들과 당시 중국과의 관계, 활발한 해상무역 활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의 많은 중국 유적지를 돌아보며 역사를 바로 알고 그 역사적 가치를 바르게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도 큰 행운이었다.

5박 6일 동안 우리 '중국 유적지 답사단'이 가는 곳마다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신 현지가이드와 가이드 총 책임자 분, 관계여행사와 동아일보사 여러분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고, 무엇보다도 교사들에게 뜻 깊은 중국 유적지 답사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답사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재)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깊

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처음엔 무척 서먹서먹했지만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단'에 참여해서 함께 한 여러 선생님들, 5박 6일을 함께 한 그분들이 있어서 더 보람되고 즐거운 답사 여행이 되었다. 헤어지고 나서도, 얼마간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과 함께 소중한 인연의 선생님들 역시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달빛 흐르는 바다에 어우러진 젓대소리로 만과정식을 바라고

청주 원평중학교 김병규

1. 중국 여행을 대금과 함께

여러 해 전에 교과서 집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 내 장보고 유적지 탐방을 했었다. 후쿠오카에서 시작하여 오사카까지 적산명신으로 거듭나는 장보고의 고품제도를 벗어난 활약은 신분제의 질곡을 탈피할 뿐 아니라 국왕의 권위에 버금가는 토호세력을 공고하게 굳히고자 애를 쓰는 지방 세력의 염원이기도 했다. 《삼국사기》에 단 몇 줄로 소략하게 기재된 무인 장보고는 해상왕으로서, 위대한 상인으로서, 지략가로서 강하게 클로즈업 되었으며 고구려가 무너진 뒤 중국에서 대륙을 호령한 고선지 장군에 버금가는 위인으로 인식되었다.

마침 중국 내 장보고 유적지 답사 기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몇 년을 버린 끝에 요행히 한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굉장한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하필 7월부터 인간문화재 선생님에게 대금 정악부문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터라 짐을 꾸리면서도 내내 대금을 지닐 것인가, 놓고 갈 것인가 고민하던 차 다행히 선박으로 중국에 입국하여 버스로 이동함을 감안하여 감연히 대금을 매고 여행길에 올랐다. 출제를 비롯한 장기간 출장길에 어김없이 함께한 젓대를 손에서 멀리 두는 것은 습관에도 안 좋을 뿐더러 없이는 너무 허전할 듯하여 들었던 것이나 막상 떠나고 보니, 오히려 여행길의 동반자요 무료한 시간을 매워 줄 터라 거추장스럽기는커녕 다정스러우니 들고 오기를 잘 한 듯하다. 기실 신라시대부터 성행한 대금이려니와 귀족이나 서민들 가운데에서도 풍류를 이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다루었을 대금을 갖고 가는 것은 장보고 유적 답사의 동반물로도 가치가 있는 것 같았다.

2. 배타고 떠나는 중국 여행

우리를 중국에 안내할 배는 화동훼리호로서 한중 합작의 작품이라 한다. 배수량 17,000여 톤이니, 워낙 멀미를 하지 않는 체질이지만, 배가 요동을 하지 않아 편안하게 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 일본 갈 때 탔던 부관훼리는 배 안에 사우나 시설이 되어 있던 기억을 더듬어 안내에 물어보니, 다만 샤워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단다. 그래도 미리 수건을 갖춰 배의 사우나를 준비한 덕에 무리 없이 샤워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부랴부랴 저녁을 챙긴 뒤, 낮에 인솔 팀을 기다리며 흘린 땀 내를 샤워로 훔쳐냈다.

같이 방을 쓰게 된 세 분 선생님들과 통성명을 한 뒤에 분위기를 돋우고자 맥주 캔으로 대화를 열다보니 어느덧 잠잘 시간이라, 수원의

나이 많은 권 선생님, 충남의 패기 넘치는 양 선생님, 그리고 부산의 점잖으신 이 선생님이로 우리 방이 작은 전국을 이루었음에 모두 재미있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잠을 청했다.

“장보고 정신으로 동아시아, 아니 세계 시대를 열자.”는 여행 모토를 가슴에 새기며, 내 여행의 비밀스런 동반자인 대금을 쓰다듬다 보니, 창문 밖으로 흐르는 달빛은 그야말로 Moonriver가 아닌 Moonsea로구나.

모든 여행은 설렘이 있어서 좋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로 몸을 정갈하게 준비한 끝에 버스길로부터 중국 여행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대개 처음 자리로 자기 자리를 인식하는 버릇이 있음을 아는 바, 편안한 자리를 연중에서 탐색하여 정하니 여행의 반은 이루어진 듯싶다.

석도항은 우리나라 사람 때문에 번창을 이루고 있었다. 21세기가 이러하거늘, 장보고가 해상을 장악한 신라시대에는 더욱 영향력이 컸을 것이라 생각하며 연태로 향하였다. 늑대 똥이 봉화를 이루기에 안성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면서 발걸음을 신선이 산다는 봉래로 돌렸다.

등주수성에 위치한 봉래각은 가이드의 바깥 서두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볼거리가 많았다. 곳곳에 미어터지도록 흘러넘치는 인파 속에서도 모처럼 시간을 내어 온 보람을 찾고자 하나라도 더 볼 요량으로 땀을 흘리며 가이드의 뒤를 쫓았다. 지붕 위의 별스런 잡상(雜像)은 우리나라와 다른 모양도 있었으며, 수성의 여장(女牆) 사이로 보이는 바닷물과 더불어 옛날 발해 선왕 때 장문휴의 공격을 받아 막아내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등주자사 위준의 다급했던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고선박물관 앞에 위용을 떨치며 서 있는 척계광 장군상을 보노라니, 왜구를 막아내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음에도 당대에 크게 인정받지 못했던 한을 풀고자 노력하는 듯 여겨졌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위대한 장군이나 학자들은 대개 죽은 후에 평가됨이 인간의 웅졸함에서 비롯됨이라 여겨져 멋진 풍광에도 불구하고 잠시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당대에 어떤 인물로 비쳐지고, 후대에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제나라 역사박물관을 보면서, 세계사 수업시간에 중국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말로 수업을 대신하였던 일이 떠올라 학생들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진즉에 이런 답사를 했다면 보다 많은 자료와 실감나는 경험을 바탕으로 춘추전국시대의 위인이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군대를 강하게 하고자 도도한 변설을 늘어놓고, 군주는 패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널리 인재를 구하던 시대 모습을 여실히 설명할 수 있었을 것 같았다. 역사는 발로 쓴다 했으니 발로 배운 바를 전달하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지루하지 않게 수업할 수 있을 것이라, 이러한 기회가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전설 시대인 상(商)과 하(夏)나라부터 은(殷)과 주(周)의 역사를 밝힌 사마천이 중국에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누가 그에 견줄 수 있을 것인가? 대개 역사가 깊은 나라는 역사의 소중함을 몰라 자기 역사를 지키기는커녕 비하하기 일쑤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 애호 의식은 어느 정도이며, 문화 보존의 수준은 세계에 비교할 때 자랑할 만한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역사관을 둘러보았다.

요즘은 차의 크기나 가격으로 부를 과시한다면, 옛날에는 말과 마차로써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였단다. 그런 면에서 제경공의 순마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일부만 발굴한 것이 이 정

도라면 전체 규모를 어림잡아 짐작할 때, 무고하게 죽어간 말의 생명과 더불어 제나라의 발전 정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한무제는 한혈마(汗血馬)를 구하고자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여 오늘날 비단길의 단초를 열었다 하니, 말에 대한 애착이 하나는 역사를 새로 쓰게 만들었고, 또 다른 하나는 무수한 말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생각에 숙연해졌다. 가지런히 놓인 말의 뼈로 미루어 죽어서 묻는 사장을 했을 법하고 말의 크기로 보니 성숙하여 살아 있었으면 많은 일을 했을 터인데 주인 덕에 죽어서 몸으로 역사를 말해 주고 있구나!

3. 태산(泰山) 등정으로 옥황상제 대신에 공자를 가까이 하고

내가 드디어 오늘 태산을 등정하게 되었다. 중국의 패자(霸者)로서 아무리 위명을 떨쳐도 태산에서 하늘에 제를 드려야 비로소 천자로 인정되었다는데, 정상에 오르면 나도 가만히 하늘에 제를 드려 홀로 천자라 일러도 될 듯싶었다. 버스가 못 들어가니 작은 차로 옮겨 탄 연후에 차를 기다려 케이블카로 오르니 등산도 아니요 참배라 할 수도 없는지라 들뜬 기분이 사그라지긴 했지만, 오르면서 아래로 보이는 경치랑 자그마한 폭포가 암벽과 어우러진 모습은 나름대로 장관을 연출하여 그야말로 별유천지 비인간(別有天地 非人間)이라 할 수 있겠다. 마침 진하게 불어 닥친 운무로 사위(四圍) 시계가 줄어들어 바로 앞의 정취만 나를 반기는데, 처처에 역사적인 자취가 남아 있다. 주변의 시끌벅적한 인파에도 불구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온 미래의 탐험가 같은 심정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숨을 고르다 보니, 어느덧 정상이다. 여느 사당과 마찬가지로 향불 타는 연기와 매캐한 향냄새가 진동

하고, 그 주변에는 여지없이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는 연인들이 채워둔 자물쇠통이 즐비하다.

고려시절 우리나라 연인들이 사랑을 나눈 후에 연인의 영당이에 문신을 한 것이나, 조선시대에 아끼는 기생을 위하여 사랑에 눈먼 서방들이 자기의 앞니를 빼 준 것이랑 의미는 다를 바가 없겠으나, 녹슬어서 시뻘겋게 변색해 가는 자물쇠를 바라보노라니,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 생활이나 행각이 처음 결심처럼 여전할지 의심한 것은 공연한 생각일까?

중국의 전통적인 종교인 도교 냄새가 물씬 나고, 불교랑 유교가 오히려 한 편에 비켜있는 듯 보여지는 태산에서 만단 감회를 추스르고 있노라니 조금 전까지 같이 하던 일행은 보이지 않고 나만 홀로 감상에 빠져 있구나. 이윽고 구름이 잠시 물러가고 태산의 눈부신 사계가 들어온다. 이럴 줄 알았다면 마음 편하게 정취를 감상하면서 기회를 찾을 것을... 이리 명료하고도 찬연한 태산 세계를 보지 못하고 먼저 내려간 일행들에 미안했다. 그들은 그저 운해 자욱한 태산의 흐릿한 모습과 싸늘하여 비닐 우비로 보온했던 일만 기억하리라.

옥황정 바로 아래 내려오는 길에 공자묘가 고즈넉이 비껴 있다. 벌써 일행에 한참 처진 터라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에 내려가고자 하는 마음은 급하나, 내 일생 선비로 처하고자 마음먹었으며 인간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보니 만세 사표(萬世 師表)인 공자묘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더운 날씨에 급하게 묘를 오르자니, 가뜩이나 가파른 계단 때문에 숨은 턱에 차고 온 몸에 땀이 번진다. 그럼에도 아까 다녀온 옥황상제의 사당보다 인적이 적어 비로소 내가 태산에 온 목적을 되새길 수 있었다. 남들은 태산에 오름으로써 10년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는데, 나는 수명 연장과 더불어 위대한 공자의 소상 앞에서 스승의

도리를 초심(初心)으로 전향할 수 있었다. 역시 답사는 많이 보고 많이 느껴야 하는 법이라. 오늘 공자묘에 배알한 하나만으로도 이번 중국 답사의 의미를 둘 수 있겠다.

태산을 내려오면서 우리는 학문으로 공자를 접하고 태산을 오르나, 태산에 올라 웃고 떠들기에 바쁜 저들 중국인들도 과연 그러할지 의문이 들었다.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 일생 자기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타 지역 관광 하나만으로도 평생의 자랑거리가 된다 하니, 이들은 태산 등정으로 무엇을 소망할까?

4. 남산대불은 도교의 습합일까?

세계 최대이니 동양 최대를 운운하는 것은 유아적인 사고라 치부하고 있는지라 남산대불은 처음부터 별로라 여기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막상 앞에 다가온 불상은 우선 그 크기에 압도당했고, 열기설기 쉬어 두지 않은 섬세함에서 오히려 중국인들의 치밀함을 엿볼 수 있었다. 대불전에 오르다보니 캄보디아에 가서 앙코르 와트 계단을 오르던 일이 생각났다. 한낮의 무더위 속에서 여간해서 땀을 흘리지 않던 몸임에도 수건으로 연신 땀을 훔치며 올라가 뒤를 돌아보자 산천 경계가 확연히 들어온다. 일본과 비교하여 관람인은 턱도 없이 적으므로 이런 모습으로 과연 관광 수입이 될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발자국으로도 유지비는 보충되겠지만 맹하의 계절 탓도 있겠으나 워낙 대국이라 그런지 아니면 대불이라 그런지는 모르나 띄엄띄엄 보이는 관광객 때문에 운영자들의 애간장이 줄아붙지나 않을까 염려되었다.

다만 한 가지 의심스러웠던 것은 비록 모습은 부처이나, 중국 고유 의 신앙인 도교와 어느 정도 혼재된 듯 보여 우리나라 가람(伽藍) 배치상에 삽입된 산신각이나, 칠성각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날 장보고 기념관을 본 뒤에 오른 적산명신 장보고상을 대하면서 역시 우리의 해상왕이요, 역사의 위인인 장보고까지도 도교의 신으로 승격화하려는 것 같은 의도를 엿볼 수 있겠다.

숙소에 들자마자 여느 때처럼 반신욕으로 다리를 쉬게 한 뒤에 다시 대금을 잡아 숨을 넣기 시작했다. 답사 오기 전 합숙할 때부터 늘 어저 신경쓰이게 한 대금의 청이 또 늘어난다. 하는 수 없이 청을 손질해서 갈고 소리를 붙어 보니 나름대로 쓸 만해 보인다. 대금 잡이는 하루에 적어도 한 시간은 연습하고 나야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온다는데, 이 몸은 한 시간만 불면 힘이 들어 어깨가 천근처럼 여겨지니 그야말로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 시간은 짧고 연습할 것은 많으니 천상 잠을 줄여야 할 터이나, 워낙 게으른 몸인지라 할 일은 많은데도 정작 진도는 안 나가니 진작 배워두지 못하고 이제야 늦게 시작한 것이 서글프다. 배움에는 때가 있음을 실감하며 공자님이 15세에 뜻을 두었다는 말을 되새김만 하게 된다.

영성의 진시황 사당은 중국에서 한 곳밖에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폭군을 모시는 곳이라 그런지는 모르나 음습한 기운이 들어 옆에서 모시고 있는 도사들조차 마치 강시에게 살을 붙여놓은 듯 보인다. 옆전각의 청일 전쟁에서 산화한 정세창의 동상은 차라리 역사의식을 존중하려는 의지로 보여 진시황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둘 수 있겠다.

영원불사(永遠不死)와 불노장생(不老長生)은 모든 인간의 소망이렸다. 하기가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면 종교는 무슨 상관이며 도덕은

어찌 변할는지 모르겠다. 신학자들은 죽음으로 인하여 인간이 겸손할 수 있다는데, 진시황이 간신히 중국을 통일하고 나니 모처럼 이론 권력을 불시에 잃기도 싫고 중국 전역에서 구해온 절세 미인들을 오래 오래 두고 싶은지라, 해법을 장생불사로 여겨 불로초를 얻고자 무진 애를 쓰다가 필경 방술사에 현혹된 것은 목전의 이익에 급급한 군생의 생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역사적 교훈일 것이다.

중국의 동쪽 끝이라는 성산두에 이르니 황해가 아닌 쪽빛바다가 넘실거린다. 경치도 좋고 무더운 여름이라 느끼기 어려운 청량한 바닷바람이 불어 마음이 쾌적해진다. 현대 중국 정치가 누구는 여기에 온 뒤에 삭탈관직 되었다 하여 지금도 중국 정치가들에게는 오기를 꺼리는 곳으로 낙인되어 있다 하지만, 워낙 잃을 것도 없는 선생이야 무엇을 겁내랴 싶었고 내 마음이 고르면 하늘도 나를 어찌지 못한다는 선인의 말을 되새기며 다만 풍광 감상에 몰입하였다. 차제에 중국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동쪽 끝뿐이 아니라 아예 동쪽으로 진출하려는 야욕을 버리고, 자국의 영토관리나 잘 했으면 좋겠고 동북공정이라는 허구맹랑한 발상도 깡그리 해소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돌위에 새겨진 표지석을 어루만졌다. 관광 자원을 잘 꾸미기는 중국도 일본에 버금가지 않아 돌계단과 진시황 동상 및 중국의 명신상들은 세인들의 시선을 한참 붙잡아 둘 수 있으리라 여겼다.

5. 석도 앞 바다에 아롱진 대금소리

석도에 들러 숙소를 들었지만, 모두들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아쉬워하여 잠을 자려 하는 사람이 없다. 나도 바로 앞에 펼쳐 있는 바

다를 외면하기 어려워 술을 마시기보다 대금을 갖고 바닷가로 나감을 택했다. 로비에 삼삼오오 모여 있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되자 대금을 안고 나가려니 약간 켕기기도 하지만, 모두 자기가 좋은 일을 하는데 무슨 상관인가. 파도소리 싱그러운데 대금을 불려니 약간 쓸쓸하게도 보인다. 더욱이 안개가 피어올라 조용한 사방을 덮어주니, 나만의 세상이 되어 다시 고즈넉한 심사를 맛보겠다.

아침에 일어나 숙소에서 젖대를 잡기보다는 어제 다 풀지 못한 사회도 삭힐 겸 다시 새벽 바닷가로 향했다. 이른 새벽인지라 인적은 뜸하고 다만 비릿한 내음 풍기는 바다만 나를 반기니, 대금소리가 파도소리랑 어찌 어우러질까 자못 궁금하다. 두 시간 동안 소리를 내자 이윽고 악보는 습기에 젖어 축축해졌으나, 대금소리는 더욱더 그윽해진다. 여느 때 같았으면 한 시간 소리로 숙제를 다 한 학생처럼 뿌듯해하겠지만, 오늘이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임을 생각하니 내 언제 다시 여기를 또 오랴 싶은 아쉬움으로 두 손의 땀이 흘러 팔꿈치에 고이도록 소리를 냈다. 이 정도면 고국에 돌아가서 소리 동료들에게 용맹 정신으로 연습한 나의 모습을 자랑함직도 하다.

6. 그럼 장보고는?

신라에 설계두라는 6두품 인사가 있었다. 그는 달리기도 잘하고, 무술에도 능하여 신라에 대적할 사람이 없었지만, 신분제도를 넘어서기 어려워 결국 당나라에 가서 위명을 떨친 사람이었다. 신라에서는 이렇게 신분제도로 인한 제약에 불만을 품고 출국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장보고도 그중의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완도 출신 비천한 무장으

로 중국에서 입신양명한 뒤에 귀국하여 신라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던 장보고에 대하여 이번 답사를 통하여 새삼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장군으로서 외교 사절로서 그리고 무역 경영인으로서 장보고는 시대를 앞서가는 혜안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치적 리더십과 더불어 경제적 CEO로서 상업 감각도 출중한 사람으로 이해된다. 특히 송의 자기를 대신하여 월주요를 직접 제작하여 해무리굽으로 비싼 가격에 동아시아에 판매한 점은 탁월한 기업가에 다름 아니었다.

비록 신라 왕실의 노여움을 입어 염장에게 피살되었으며 그 과정이 소략하게 기록되어 있어 학부시절 공부한 내용으로는 그저 변방의 일개 장수가 왕실에 도전하여 실패한 인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이번 장보고 답사로 그러한 인식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장보고 정신으로 동아시아 시대를 열어보려는 후손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해상왕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다가오는 장보고가 일본에서는 적산 명신으로, 중국에서는 적산 법화원의 수호신으로 위치하는 느낌이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동아시아 패권 장악에 필요한 위인 설정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동해안과 일본 열도의 중간에 끼어 한덩어리로 서로 맞닿아 있다. 이 같은 지리적 여건을 배경으로 등장한 장보고 해상세력에서 해양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듯 바다에 둘러싸인 천혜의 지역으로 대양을 주름잡으려면 장보고의 이상을 다시금 실현하는 것이 또 하나의 교훈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서고금의 역사는 바다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제패함을 보여주고 있다. 바다는 삶의 터전이요 생존의 수단이었으며 개척과 발

전의 신천지이다. 그러나 장보고 이후에 바다로의 진출을 다시금 열 어갈 사람은 그 누구인가?

7. 달빛은 바다에 기울고, 해상왕 장보고는 다시 떠오르고

인류의 기원이 바다라서 우리 인간에게는 물고기처럼 꼬리뼈의 퇴화흔적까지 남아 있다고 한다. 이를 돌려 생각하면 현금 육지의 위기를 바다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바다와 육지를 동시에 조망하는 종합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 세계를 생패할 가능성은 또한 높아지리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해양 민족의 기질이 남아 있는 때문인지 바다를 보면 대부분 물가로 달려가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바다를 문자 그대로 경영해 보고자 웅지를 품었던 인물이 바로 장보고라 생각된다. 바다는 진정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육지와 하늘 그리고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21세기는 해양개척의 원년으로 희망과 도전과 가능성을 던져주는 해양경영의 모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장보고는 이런 의미에서 재신이자 해신으로 숭앙받아 마땅할 것이다.

돌아오는 배 안에서 바라보는 보름 달빛은 파도 위에 너울거리며 찾아들고, 해상왕 장보고는 기억에 각인되어 누리에 뜨며 만파정식을 기원하는 나의 대금소리는 뱃전에 감돈다.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한 이번 여행은 일본의 장보고 유적지 답사와는 또 다른 감회가 있었다. 보름달을 가득 담은 선실과 4명의 객방 동료와 나눈 정담은 역겹의 인연으로 만난 때문인지, 밤 가는 줄 몰랐

으며, 명신·재물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장보고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새삼 느꼈다. 아이들에게 해상왕 장보고의 위상을 가르쳐 우리 역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중국을 누르고 세계의 지존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용지를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환생하는 장보고

이천 표교초등학교 최규생

들어가며

난생 처음 하는 해외여행이다. 7월 28일 16시에 인천 여객터미널에 모여 18시에 인천에서 석도로 가는 화동훼리호에 승선하였다.

선상 석식 후 21시경 선상 세미나가 있었다. 재단관계자의 재단법인 장보고 기념사업회 출범 및 활동 설명과 7:1 경쟁률로 선발된 이번 참가자 모두 자부심을 갖고 임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참으로 행운이 내게 온 것이다. 이어서 여행사 넥스투어 직원의 주의사항 전달이 있었다.

첫째, 여권 분실하지 않도록 할 것. 둘째, 물이나 음료, 과일 깨끗이 씻어먹기 등 주의할 것. 셋째, 중국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지 말 것. 넷째, 중국 시간이 한국보다 한 시간 늦다(시계 한 시간 뒤로 해놓고 자기) 등의 주의사항이 있는 후 한국학술연구원 김창점 교수님의 장보고

관련 강의가 있었다. 하지만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 불편하였다.

강의 후에 여행할 지역의 지도를 점검도 해보고, 기념사업회에서 배부해 준 '2006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집'을 차분한 마음으로 읽어보며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았다. 이제 시계를 한 시간 뒤로 바꿔놓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12시간 후인 내일 아침 바라볼 중국 산동성 석도항은 어떤 모습일까?

1. 연태를 지나 봉래각으로

7시 30분 석도항이 보인다. 장보고가 해상운송사업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세운 적산 법화원이 있는 곳이다. 적산은 석도에 있는 바위산으로 비가 오면 온통 붉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화동훼리호에서 하선하여 입국 수속을 마치고 가이드와 미팅이 있는 후 연태로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에 탔다. 버스가 너무 비좁다. 좌석을 세어보니 49석이다. 앞으로 2시간 30분 동안 이동해야 한다.

연태시는 산동반도 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황해와 발해를 동시에 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연태시는 원래 '봉화대의 높은 망루'로서 북으로는 발해해협과 대련을 바라보면서 묘도 군도의 중요한 관문을 통제하던 곳으로 자고 이래로 중요한 군사 요새였다. 여기까지 오면서 창 밖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60~70년대 우리 한국이 연상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들던 것과 별 다른 게 없었다. 벌써 12시가 넘었다. 연태시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먹는 음식이며 처음 대하는 식당이다. 회전식 식탁도 생소했으며 음식도 거부감이 많이 들지는 않았다. 식당 앞 길거리는 우리나라처럼

많이 복잡하지가 않았다. 점심 후 다시 버스에 타 봉래로 향하였다.

강원대 역사학과 교수님과 가이드의 설명이 계속된다. 봉래는 옛날 신선들이 살았다는 전설 속의 바다 가운데 있는 산의 이름이다. 중국 한조 때 한무제가 이곳에 와서 이 신선산을 보려고 했으나 실지로 존재하지 않는 신선산이 보이지 않으니 경치가 수려한 이곳을 봉래라 명하였다. 하차하여 봉래각에 올라갔다.

봉래각 내에는 누각, 불상, 사원 등이 많이 조성되어 있으며, 성벽을 따라 계단이 시작되고 대해원이 펼쳐지며 동쪽으로는 수성이 있다. 그곳에서 용왕궁, 등주산성, 등주 고선박물관을 관람하고 내려오다가 룸메이트와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이곳은 수심이 얕아져 큰 배들이 정박을 못하게 되자 군사, 정치, 교통의 역할은 사라지고 중요한 관광지로 변화하고 있는 곳이었다. 봉래 견학을 마치고 4시간 동안 이동했다.

숙소 호텔로 가는 길은 너무 멀었다. 그 호텔은 치박이라는 도시에 있다. 치박으로 달려가다 모처럼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했다. 구멍가게식의 가게, 팔고 있는 것은 과일 종류, 과자 몇 봉지, 음료수 몇 개 정도이다. 답사단 일행들은 과일을 구입했다. 과일값이 너무 싸다. 우리나라 5천 원 정도 분량이 여기는 1천 원이다. 우리화폐도 통용되고 있었다. 드디어 호텔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했다.

2. 10년 젊어지는 태산 오르기

원래 일정은 오전에 강태공 사당, 제나라 역사박물관, 순마갱 견학을 하고 오후에 태산에 오르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오전과 오후의 일정을 바꾸기로 했다. 아마도 1차에서 답사팀을 운영해 보니 여러 여건

상 바꾸는 것이 일정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호텔에서 뷔페식 조식을 한 후 태산을 오르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다. 하지만 전날 낙뢰로 케이블카가 운행되지 않아 원래 계획했던 곳이 아닌 태안으로 이동해서 전용 미니버스를 타고 태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중국 오악 중 으뜸이라는 태산의 등정은 마음을 설레게 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의 시조에서 나오고, 각종 무협지의 배경이 되는 태산(1,545미터)을 직접 가보고 밟아볼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일정 때문에 등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1,500미터 지점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후, 정상부분만 걸어 올라갔다.

하늘의 거리라 불리는 ‘천가’를 지나면서 남쪽의 태안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 서신문과 동신문을 지나면 암벽에 새겨놓은 붉은색의 글씨들을 볼 수 있었다. 거의 대부분이 태산을 신앙의 대상으로 숭앙하는 글귀들이다. 정상에 오르니 옥황상제에게 제사 지내는 옥황정을 볼 수 있었다. 그곳에는 태산의 최고 정상임을 말해주는 ‘태산극정 1,545미터’라는 표지석과 옥황상제의 상이 있다.

중국인들은 평생의 숙원 중에 하나가 태산 등정이란다. 태산을 오르면 10년 젊어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속설 때문이라는데 그 날도 나이든 노인들이 열심히 태산에 오르고 있었다. 나도 태산에 올랐으니 이제 10년은 젊어졌으리라. 아니 10년은 더 젊게, 더 열심히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

3. 제나라 역사의 흔적 살피기

태산을 뒤로 하고 제나라 역사박물관으로 향했다. 역사박물관은 선제시대, 제국시대, 음악청, 무위청, 성곽청, 과기청 등으로 나뉘어 제나라 800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삼족도기와 각종 무기류, 명도전이 전시되어 있고, 현대 축구의 기원이 중국 제나라에 있다는 여러 증거들(축구공, 축구하는 각종 그림 등)을 전시해 놓았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순장했던 모습들을 모형으로 전시하여 강력했던 지배자, 잔인했던 지배자들의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제나라 역사박물관에도 전시해 놓았던 제경공 순마갱으로 이동하였다. 제경공 순마갱은 사람 대신에 말을 생매장하여 무덤을 만든 곳으로 입구부터 사진촬영이 금지된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촬영금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다섯 장의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 제대로 나온 것은 아쉽게도 한두 장뿐이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일렬로 가지런히 누워있는 큰 수말(전체가 전쟁에 사용되었던 수말이라고 함)들을 보니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모습에 한 번 놀라고, 제경공을 포함한 지배계급의 잔인함과 사치스러움에 또 한 번 놀랐다. 순마갱에서 나와 모처럼 시골 주민들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접하게 되었다. 순마갱 앞거리는 우리나라 옛날 모습이었다. 신기하기도 하고 남자들은 옷을 벗고 화투나 마작을 즐기고 있었다.

18시 40분경 강태공 사당에 도착하였다. 강태공은 중국 역사상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지금으로부터 3천 년 전 산둥성에서 태어났다. 위수 강변에서 낚시를 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다 주나라의 문왕을 만나 문왕을 도와 반란을 꾀하다 문왕은 죽고 대를 이은 무왕을 도와 끝내

폭군에 시달리던 은을 멸망시킨다. 무왕은 주나라를 세우고 나서 전국을 쪼개어 거수국을 만들고 공이 많은 신하와 형제·친지들을 각 제후국의 왕으로 책봉한 후, 그중 가장 동쪽에 위치한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제나라의 초대왕으로 강태공을 책봉하였다. 그래서 강태공은 제나라에 한해서는 시조가 되고 주나라의 스승이 될 만한 역사적·전설적 인물로 139세까지 살았다고 한다.

강태공 사망 후 주나라의 관례로 시신은 원래 섬겼던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의 무덤 주위에 묻었다고 하지만 봉분이 없는 탓으로 구체적인 위치를 모른다.

강태공이 썼던 모자와 옷을 옛 제나라 수도인 오늘의 치박에 묻었는데, 이것이 의관총이며, 이곳의 앞면에 강태공 사당을 만들었다. 의관총의 높이 28미터이고 남북 길이 50미터, 동서 넓이 55미터이다. 다른 건물들은 보통 남에서 북으로 건물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이곳 강태공 사당은 특이하게도 북에서 남으로 들어가는 형태이다. 그래서 입구가 북쪽에 시작되어 강태공 사당, 의관총이 일렬로 서있다.

강태공으로부터 최씨, 구씨, 강씨, 여씨, 제씨 등 93개 정도의 성씨들이 파생되어 시조로 모셔지고 있다. 강태공 사당 내에는 강태공상을 중심으로 왼편에 큰아들인 제정공상, 오른편에는 16대 왕인 제환공상이 모셔져 있다. 그리고 사방 벽에는 강태공의 업적을 벽화로 그려놓았다.

4. 유방에서 남산그룹 속으로

유방에서 남산으로 이동하는 동안 비가 내리곤 한다. 고속도로 주

변엔 옥수수를 많이 가꾸고 있었다. 산동성은 벼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마 기후 탓이겠지. 안 그러면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벼수확이 대단할 텐데. 2시간 정도 달려 남산에 도착했다.

남산 풍치지구는 187개의 국가지정 풍치지구 중의 하나로 산동성 용구시의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지구는 남산그룹을 중심으로 한 마을이고 내부적으로 각종 생활기능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 의식주뿐만 아니라 대학교와 대형공장, 병원 등 자급자족이 가능한 신사회주의 사회로 단지 안에는 호텔, 골프장,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한 레저단지와 중화 5천 년 역사를 축소한 역사문화지구, 남산대불과 불교박물관 등 종교문화지구, 공업단지, 거주지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은 잘 정비된 도로와 관광시설, 주거시설 등 중국내 다른 지역과는 달리 깨끗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가진 별천지이다.

남산대불은 길이가 38.66미터 정도의 높이와 380톤에 달하는 무게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최대 좌불 동상이다. 350여 개의 계단을 오르면 가까이 할 수 있는 불상이다. 그 대불상 밑에는 만불동, 불교 역사박물관이 있고, 9,999개의 작은 불상은 남산대불상과 합해 만불천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중국 역사 5천 년을 한 장소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중화역사문화원으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표현해 놓았으므로 하루만에 중화민족의 역사발전과 인물들을 체험할 수 있었다. 5천 년이 하루처럼 지나간다는 말이 실감난다. 또한 단지 내에는 남산대옥불전, 옥불대전, 약사단성이 있다. 또한 모조 만리장성도 있어서 만리장성에 가지 않고도 사진촬영을 체험할 수 있었다. 남산에서 내려와 노인들 하루 500원이면 먹고 잘 수 있다는 곳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진시황 사당이 있는 영성으로 향하였다.

5. 성산두에서 진시황을 만나다

성산두는 중국의 동쪽 끝으로 진시황 사당과 ‘천무진두’라는 표석으로 유명한 곳이다. 진시황은 불로장생초를 구하기 위해 이곳을 두 번이나 왔다갔다했다고 한다. 100년도 못살고 죽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다. 더욱이 멀리 동쪽 바다를 바라보는 진시황 동상 옆에 우리의 고조선을 멸망시켰다는 한무제의 동상을 보고 있으려니 더욱 그랬다.

중국인들은 이곳 성산두에 와서 진시황과 한무제의 동상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나처럼 인생무상을 느끼는 것일까? 아니면 중국 전체를 호령했던 또 하나의 영웅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일까?

성산두는 예로부터 군사요충지로서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많은 전쟁을 겪었다. 육군과 수군을 동원하여 조선과 전쟁을 벌인 한무제도 이곳에 와서 제사를 지냈으며, 백제를 치기 위하여 소정방이 13만의 수군을 거느리고 출발한 항구도 이곳이다. 그 외에도 현재 중국의 많은 지도자들도 이곳을 방문했는데 전임 총서기인 호요방은 이곳에서 ‘천진두’란 휘호를 남겼다(실제 표석에는 ‘천무진두’라고 되어 있다).

진시황 사당에는 태양신에게 제사지내는 일조사도 있고, 바로 옆에는 석가모니와 그의 13 제자상을 모신 불전도 있어 도교와 불교가 함께 혼재해 있다. 우리나라는 도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들이 엄격히 구분되고, 심지어 적대시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런 점에서 중국의 종교 풍습과 비교되었다. 역시 흑묘백묘라 하여 검은 희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등소평의 실용주의적 개방화 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일까?

그러나 안개가 자욱하여 더 좋은 경치를 감상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다.

6. 환생하는 장보고의 흔적을 보고

오늘은 답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장보고 유적지를 돌아본다. 모처럼 늦잠을 잤다. 아침시간 여유가 있었다. 첫날부터 차에 올라탔다면 보통 2~3시간을 이동하는데 그것도 이제 추억으로 지나가는 것 같다. 처음에는 힘들어하더니 이제는 버스로 장거리 이동하는 것을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눈치였다.

적산 법화원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정도였다. 적산 법화원 입구에서 답사단의 단체 사진을 찍고 교수님의 강의도 들었다. 적산 법화원은 석도진 적산 기슭에 장보고가 해상운송사업의 번영을 기원하며 만든 큰 사찰이다. 법화원 광장에서 실시한 불 쇼는 정말 장관을 이루었다.

최근에 다시 복원한 사찰이다 보니 예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불 쇼를 만들었다는 후문도 들린다. 한번 쇼하는데 3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입장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다만 장보고를 잊지 않고 영원히 기리기 위한 우리 후손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적산 법화원은 창건 초기에 《법화경》을 읽었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며, 현재의 건물들은 창건 당시의 위치라고 한다. 적산 법화원에는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좌측에 관음전, 우측에 지장전이 있으며, 뒤로 삼불보전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세운 장보고 대사의 공적비도 있다.

그런데 적산 법화원을 들어가기 전 입구부터 눈에 거슬리는 거대한 동상이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중국인들이 만든 적산명신이라고 했다. 이 동상을 보고 적산을 지키는 대명신이니, 태양신이니 하는 말을 들으며 순간적으로 혹 한국인들이 장보고 유적지라고 많아 찾아오다 보니 이에 대응해서 일부러 그렇게 크게, 그것도 적산 법화원 입구에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정말 내 추측이 맞는 것이라면 고구려 역사마저도 자기네의 지방정권이라고 왜곡을 하는 중국이 진정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관광과 답사를 한다며 한국인들은 열심히 돈을 쓰고 중국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입을 챙기는 것은 아닌지...

장보고 기념관은 장보고 동상과 부조, 초상화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제1전시실(당나라로 꿈을 쫓으며), 제2전시실(무령군 중군), 제3전시실(적산과의 인연), 제4전시실(청해진의 부침), 제5전시실(유구한 역사) 등으로 구성하여 장보고의 생애와 업적을 보여주고 있다. 장보고 기념관 북쪽 산 정상에는 장보고 기념탑이 있는데 모 대통령의 글씨라고 한다. 이곳은 적산 법화원의 역사성과 한·중 양국의 친선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모든 답사 일정을 마치고 중국 땅에서 마지막 점심식사를 하고 나니 14시이다. 답사단을 위해서 1시간가량 쇼핑시간을 주었다. 백화점이라고 해서 들어갔었는데 마치 한국의 슈퍼마켓과 비슷하였다. 역시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서둘러 쇼핑을 하고 15시 석도항 부두에 도착하여 출국 수속을 마치고 화동훼리호에 올랐다. 선상 석식 후 간단히 답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잠자리에 들었다.

7. 장보고는 현재도 유효하다.

이제 석도항을 떠나야 할 시간이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간다. 과연 해상왕 장보고를 보기 위해 멀리 중국을 찾아온 나는 원하는 것을 얻고 돌아가는 것일까?

분명 장보고는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나고 있다. 반역자로만 알려졌던 장보고는 '해양의 실크로드'를 이룩한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해상왕', '해신' 등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장보고는 역사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축소되고 왜곡된 역사적 평가를 받아왔다. 이제는 앞날을 내다보고 대비했던 진정한 세계인 장보고, 강한 추진력으로 선단을 이끌고 청해진을 설치했던 장보고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통일신라시대 장보고 이후 잃었던 주도권을 되찾고 역사의 주변에서 당당한 주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의 핵심전략인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공생하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장보고의 해양 문화적 가치관으로 우리국민이 무장함으로써 사람과 돈과 물자가 모여드는 활기차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겠다.

8. 아쉬운 마음을 접고 일상으로

화동훼리호는 9시 30분에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해산한 후 33번 버스로 제물포역으로 왔다. 제물포역에서

지하철에 올라 두 번 갈아타고 성남에오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더운 공기를 식혀주니 너무 좋았다. 성남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해 집에 도착하였다.

해상왕 장보고 유적 답사를 마치고 돌아온 지금 많은 생각이 교차된다. 무엇을 어떻게 정리할까? 기념사업회에 제출할 기행문은 어떤 주제로 작성할 것인가 등 머릿속이 복잡하다. 우선 5박 6일의 여행 일정과 여행록을 날짜별로 정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행 중 몇 가지 느낀 점들을 중심으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오며

중국에서 정식(코스) 음식은 10~18가지 정도가 나온다. 원탁에 앉아서 먹는데, 다양한 음식들이 있다. 공통점은 거의 모든 음식을 데우거나, 기름에 튀겨 온다는 것이다. 생야채는 거의 보기 힘든데, 중국인들은 야채나 채소도 대부분 데우거나 삶아서 먹기 때문이다. 향료도 많이 들어 있어 우리 식성에는 약간 맞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여행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 우리 식성에 맞추어 주려고 그랬는지 향료는 적게 사용하고, 김치나 밥을 내놓는 등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았다. 사실 처음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음식이 가장 큰 걱정거리이다. 그래서 김치와 고추장, 멸치, 참치 통조림, 김 등을 챙기느라 난리다. 그만큼 식성에 맞추어 먹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리라. 급하지 않게 음식을 즐기며 식사를 하는 중국인들의 식사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중·소도시의 교통질서는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엉망이다. 분리대가 없는 국도변에서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것은 일상

화되어 있어, 오히려 마주 오는 차들이 피해가는 형편이었다. 운전 중에 경적을 울려대는 것도 일상화되어 옆에 차만 지나가면 뺑뺑거리며 달린다. 그럼에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고 대단해 보였다. 그나마 제남, 치박, 유방 등 도시에서 본 사거리와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잘 지켜지고 있어 중국도 이제 교통문화가 조금씩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질서 의식을 조금씩 바로 잡아간다면 좀 더 중국의 교통 문화도 나아질 거라 믿는다.

이번 답사에서 중국의 유명한 역사 유적지를 다 돌아본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아마도 중국에서 유명한 인물인 진시황, 한무제, 공자, 강태공을 만나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태산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불교 유적지로 남산의 대불과 성산두의 불전, 석도의 적산 법화원을 둘러보았고, 도교 유적지로 진시황 사당과 태산을 둘러보았기 때문일 듯도 싶다. 중국의 대표적인 인물들, 그리고 대표적인 종교들을 모두 답사하고 왔기에 생긴 착각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만큼 뜻 깊은 답사이며 여행이었다는 말이다.

이제 누구에게든 장보고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장보고의 생애와 업적, 장보고의 정신과 그에 대한 왜곡된 평가, 그리고 그의 죽음과 영향 등등. 아마도 이번 답사에서 얻은 최고의 이득이 아닌가 한다.

세계를 호령한 해상왕 장보고님이시여

마산 석전초등학교 박영애

7월 21일(금) -드디어 출발!-

학교 일하다가 밀린 집안 일, 여행 준비 등으로 지난밤에는 새벽 3시에야 눈을 붙일 수 있었다. 요즘 허리가 휠 정도로 학교업무가 많은 걸 실감하며 만신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도 여행을 좋아하는 나에게 주어진 해상왕 장보고 답사의 행운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만사를 제쳐 두고 떠났다. 이번 여행을 계기로 일 때문에 지쳐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심신을 달래주고 장보고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고 싶다.

마산에서 밀양역까지는 남편의 승용차로, 밀양역에서는 KTX로, 서울역에서는 삼화고속버스를 타고 인천 여객선터미널로 향했다.

장보고와의 인연은 우리 아들의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고3인 아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바다를 지킨 장군인 장보고를 무척

좋아하여 전기문을 20번도 넘게 읽었고, 컴퓨터 ID를 Anbogo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 나 또한 아들 덕분에 컴퓨터 ID를 bogo로 쓰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장보고에 대한 상식은 아들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초등학교 수준의 전기문에 나오는 내용 정도이다.

3년 전, 유월 중순경에 해상왕 장보고 답사단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어쨌든 가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부푼 꿈을 안고 신청했지만 보기 좋게 떨어졌다. 그 이후로 해양수산부 해상왕 장보고 홈페이지가 우리 집 컴퓨터 즐겨찾기 메뉴에 저장되어 있어서 올 답사단과도 합류할 수 있었다.

오후 2시 20분경 인천 여객선터미널에 도착하여 입구에 들어서니, 넥스투어 여행사 팀들이 해상왕 장보고 답사단을 맞이할 준비에 분주한 모습들이 보여서 무척 반가웠다.

3시에 참가 선생님들의 등록을 시작하여 5시에야 출국 수속을 밟고 화동훼리호에 오를 수 있었다.

전망이 좋은 214호실에 배정된 선생님들은 나를 포함하여 광주에서 오신 두 분 선생님(다정다감하신 정경숙 님과 가족생각을 많이 하시고 예쁘신 정미라 님)과 대구에서 오신 내 짝지 쌤(키가 크고 늘씬하여 몸짱에다 맘씨까지 예쁜 처녀 조정선 님)이었다. 처음 만났지만 금방 친해진 214호실은 웃음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배는 저녁 8시쯤 출발하였고, 선상에서의 늦은 저녁식사에 이어서 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 소속인 김성호 과장의 사회로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배로 가는 것이 더 멋진 추억으로 남겨질 것이고, 장보고에 대한 사진자료를 많이 수집하여 보람된 답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에 이어서 부산외대 권덕영 교수의 '장보고와 그의 바다경영'이란 주제로 8~9세기의 인물인 장보고를 21세기에 꺼내는 이유를 설명해 주

셨다.

장보고는 바다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분이고 해외무역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한 국제무역의 모델이며 해상 네트워크를 개발한 개척정신이 강하신 분으로 신라 중심의 세계화를 추구한 국제인이셨단다.

역사적으로 바다를 잘 경영했던 나라가 번영을 누렸듯이 21세기의 한국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장보고의 정신을 배워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왜 미처 몰랐을까? 교사로서 부끄럽다.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면서 해상왕 장보고 답사단의 일원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장보고에 대한 나의 인식도 변화시켜서 더 많이 공부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해상왕 장보고에 대한 얘기들을 토대로 바다에 대한 꿈을 심어주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7월 22일(토) —신기루가 피어나는 등주수성 앞바다—

어제는 침실에서 등을 대자마자 잠이 들었으나 낯선 땅에 대한 설렘 때문인지 새벽녘부터 눈이 떠졌다.

아침식사와 커피 한 잔으로 상쾌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아직도 향해 중인 선상 위로 올라가 멀리 보이는 석도항을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했다.

배는 석도항에 도착했지만 입국 수속 때문에 1시간 이상을 기다리다가 배에서 내려 우리들을 안내할 버스에 올랐다. 붉은색의 한자 간판들이 중국 땅임을 실감나게 해주었다.

이곳 석도가 자리 잡고 있는 산둥성은 중국 동부 연안과 황하강 하

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의 수도인 북경과 항구도시인 상해의 중간 지점에 있다. 한국과도 바다를 사이에 둔 채 마주보고 있으며 면적은 남한의 1.5배(중국 전체면적의 1.6퍼센트 차지), 인구는 9,040만 명 정도나 된다고 한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로 56개 민족이 살고 있으며 순수 한족은 2퍼센트 정도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붉은색을 좋아하여 주변에 보이는 집들이 온통 붉은색에다 집 높이까지 통일되어 있으며 낮은 집들이 그 사람들의 형편을 말해주는 듯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았다.

석도를 출발한 버스는 옥수수가 많이 심어진 들판을 지나 한국의 전자제품 공장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 문둥시를 거쳐 갔다. 문둥시는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글과 병행한 간판도 많이 볼 수 있다고 한다. 1200년 전의 장보고가 누렸을 이 땅에 장보고의 후예답게 세계를 누비고 있는 한국인들이 새삼 자랑스럽게 여겨졌다. 문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문둥시를 지나 봉화대와 사과로 유명한 연태시에 접어들었다.

유네스코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은 연태시는 바다와 인접하여 경치가 무척 아름답고 전통적인 옛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관광도시라고 한다. 연태시도 한국 기업과 한국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란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산동요리 중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게 향을 뺀 교동요리로 점심식사를 하고 봉래로 향했다.

봉래라는 이름은 옛날 신선들이 살았다는 전설 속의 바다 가운데 있는 산의 이름인데, 한무제가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수려한 이곳 앞 바다에서 피어나는 신기루를 보고 '봉래'라 명하였다고 한다.

차에서 내린 우리 일행은 등주수성 안에 있는 송나라 때 건축된 봉

래각에 왔다.

‘단애선경’이라 쓰인 목재대문을 거쳐 좁은 계단을 오르니 동해용왕이 거주하던 용왕궁, 천후궁, 소동파 사당이 있고 옆으로는 등주수성의 성벽너머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너무나 멋진 풍경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 옛날 7세기 중반 무렵에 이르러서 봉래에는 신라 상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신라방이 있었고 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라관, 신라소가 있었다. 신라의 청해진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이 삼각으로 연결되어 물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정보와 문화의 전달도 병행하였는데 이의 중심이 된 사람들은 백제, 고구려의 후예인 재당 신라인들로 그들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장보고를 위대한 인물로 만든 사람들도 역시 재당 신라인이라고 한다. 재당 신라인들의 네트워크는 정보 전달이었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들보다 더 정보망이 좋았다고 하니 정말 놀랍다. 국사시간에 배웠던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로웠다. 장보고는 신라인, 동아시아인이 아니라 세계인, 국제인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라의 일개 장군으로 전락시킨 것 같아 장보고님께 죄송스런 마음이 들었다.

장보고 시대에는 등주항(봉래가 안사의 난 이후로 등주로 바뀜)에서 한반도로 오고가는 배가 있었다고 한다. 아마 그 배를 타고 소년궁복과 정연이 이곳에 오지 않았을까?

명나라 때 설립했다는 등주수성 앞바다에서 신기루가 피어난다는데 그 앞바다를 눈으로 확인하며 신선들이 노닐고 갈 만한 장소라는 생각을 해본다. 계단을 따라 내려오면 등주수성 끝자락에 원나라 때 만들어진 오래된 배가 전시되어 있는 고선박물관이 있었다. 고선박물관 앞에서 내려다보니 지금은 관광지로 유명한 등주수성 근처 해수욕장에 수많은 인파들이 피서를 즐기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 중국도 역

시 사람냄새가 풍기는 곳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중국은 워낙 넓은 땅이라 또다시 네 시간을 달려 치박에 도착하여 유명 연예인이 투숙했다는 제도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7월 23일(일) – 중국의 5대 명산 중의 하나인 태산에 오르다–

오늘은 말로만 듣던 태산을 정복하는 날이다. 커피 없는 호텔식 아침식사를 한 후, 태산의 보호를 받고 있는 편안한 곳이라는 뜻을 가진 태안으로 향했다.

중국에서는 예부터 5대 명산을 오악이라 하는데 산둥성의 태산은 동악에 속하며 천하제일의 명산으로 꼽았다. 왜냐하면 진시황으로부터 역대 군주들은 황제로 등극한 후 반드시 태산에 올라 제사를 지내 하늘에 알렸기 때문이다.

산둥성의 행정 중심도시인 제남시를 지나는 길에, 도로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황하를 볼 수 있었다. 제남시는 태산을 포함하여 9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라서 날씨가 무척 더우나 IT산업이 발달하고 태산에서 흘러 들어오는 이름 있는 샘물이 많아 벼농사가 가능한 곳이라 한다. 길가는 나그네의 목을 축이기 위해서 버드나무도 많이 심어 두었다는데, 지금은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어 옛 모습이 훼손되지 않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그 옛날 제나라와 노나라를 나누는 경계였다는 태산은 넓은 벌판 한가운데 뽕족이 솟아 있어 1,545미터이지만 아주 높아 보였다. 산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아서 관광버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산중턱(700여 미터)의 케이블카가 있는 곳까지 20분을 봉고차로 이동하였다. 봉

고차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인파 속으로 우리들을 데려다 주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케이블카는 6명씩 태워서 25분여 동안 정상을 향해서 천천히 움직였다.

산 아래로 보이는 계곡의 수풀이 우거져서 짙은 녹음을 더하고 노란 원추리 꽃이랑 여기저기 만발한 이름 모를 꽃들이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다. 5시간 정도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인 6,666계단이 있다는데 아무리 봐도 그 계단은 보이지 않아서 서운했다. 케이블카가 도착한 곳으로부터 정상까지는 800계단을 더 올라가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1시간 만에 다녀와야 했다.

이 산은 신령스런 산으로 누구든지 한 번 올라오면 10년을 더 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더니 정말로 수많은 인파들이 태산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중국의 역대 왕들이 올랐던 흔적으로 왕이 묵었던 천 년 이상 된 집들도 있고, 돌에 새겨둔 역대 왕들의 필체도 옥황정 가는 길목에서 우리들을 맞이해 주었다. 72분의 필체가 남아 있는데 그중에는 금으로 쓰인 글씨도 있었다. 맨 꼭대기에 자리 잡은 옥황정은 황제의 왕인 옥황상제를 모셔둔 곳이라는데, 옥황정 앞마당에 여러 사람들이 소원을 빈 흔적으로 자물쇠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그 풍경들이 이색적이었다. 짝지 샘과 부지런히 카메라 셔터를 누르다 보니 어느새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태산을 내려와야만 했다.

공자의 고향인 곡부에 대한 이야기와 공자를 반대한 진시황과 모택동에 대한 얘기를 들으며 치박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박물관 문이 닫힐 무렵인 늦은 시간에 장쩌민이 간판 글씨를 썼다는 제나라 박물관을 들렀다. 그곳에서 3천 년 전의 제나라 역사를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었다. 공자가 편종처럼 생긴 악기로 연주하는 소음악에 감동하여 3개

월을 식음을 전폐했다는 얘기, 관중과 포숙아의 관포지교에 얽힌 얘기들이 낯설지 않음은 만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이 우리나라 5천 년 역사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이리라.

또다시 차를 타고 전형적인 중국의 농촌마을과 옥수수 벌판 사이로 난 흙길을 달려 춘추시대 말기 제나라 경공의 무덤에서 발굴되었다는 순마갱에 도착하였다. 순마갱은 똑같은 자세의 600여 필이나 되는 말들이 두 줄로 열을 지어 묻혀 있는데 현재 발굴된 것은 228필 정도로 그중의 일부가 사람들에게 공개된다고 한다. 어린 말들이 순장되던 당시의 상황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끔찍한 모습을 상상해 보니 인간의 잔인함이 느껴져 소름이 돋았다. 춘추전국시대까지 순장문화가 성행했는데 그 부당성을 알리고 금지하게 한 인물이 공자님이라니 과연 휴머니스트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젓가락(대나무 가지)을 맨 처음 사용하고 낚싯대로 천하를 얻었으며 병법에 능했던 강태공(강상) 사당에 들렀다가 오늘의 숙소가 있는 유하에 제방을 쌓아서 만들었다는 농업도시인 유방으로 갔다.

유방에는 연박물관이 유명하다는데 늦은 시간이라 들르지 못해서 아쉬웠다.

7월 24일(월) - 중국의 가장 동쪽 끝 성산두 -

유방에서 남산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장보고에 대한 비디오 자료를 보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장보고는 《삼국사기》, 《신당서》, 《속 일본전기》 등 한·중·일 세 나라의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인물이다. 천 년 전의 벤처사업

가 장보고는 신라 흥덕왕 때 청해진 대사를 부여받고, 지금의 완도군 장좌리에 있는 천혜의 요새였던 장도에 토성을 쌓아 청해진을 설치하였으며 해적소탕으로 상인들의 안전을 도모하여 원활한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다. 당나라의 물건을 팔기도 했지만, 당시의 인기품목이었던 중국의 월주요자기는 가격을 맞추기 위해 직접 생산도 했다 하니 현대인 못지않은 안목과 수완을 가진 사람이었다. 일본 엔닌 스님의 구법순례여행을 도왔고 한·중·일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와 동남아시아까지도 상거래를 주도한 국제무역의 효시를 이루게 한 장보고는 해상무역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세계 최대의 좌불 동상이 있는 남산은 남산그룹에서 만든 마을인데 현대식 시설로 각종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 대형공장, 병원, 호텔, 골프장, 레저시설 등이 있어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신도시 같은 느낌이 들었다. 종교문화원과 중화역사문화원이 있어 중국의 종교와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기에 좋겠다고 생각했다.

먼저, 남산대불에 올라가서 좌불 동상을 관람하고 중화문화원에 있는 역사관, 공자전, 노자전, 진시황전을 돌아보았다. 진시황전 위의 산능선에는 북경의 만리장성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들어 놓은 모형 만리장성이 있어서 볼거리를 더해 주었다.

남산 영빈관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에 중국에서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인 성산두로 갔다. 성산두 입구 근처에 위치한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머물렀다는 진시황 사당에 들어서 별로 잘생기지 않은 진시황과 대면인사를 나누었다. 그곳에서 도보로 100미터 정도 떨어진 성산두에 갔다. 중국 땅의 가장 동쪽 끝에 발을 딛고 서서 기념촬영을 했는데 바다와 어우러진 모습이 우리나라 해남군에 있

는 땅끝 마을과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성산두에서 처음 출발지였던 석도로 이동하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렸다. 저녁식사는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만찬으로, 피로에 지친 우리들을 위로해 주는 시간이 되었다. 바닷가에 위치한 전망 좋은 석도빈관에서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7월 25일(화) -세계를 호령한 해상왕 장보고와의 만남-

다른 날과는 달리 늦은 기상과 늦은 아침식사에다 호텔 앞 바닷길을 산책까지 한 후 아홉시 넘어서 버스에 올랐다.

유해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석도는 한국관광객이 유난히 많다고 한다. 10년 전만 해도 볼거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장보고와 관련된 볼거리들이 많다. 석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적산명신상은 장보고를 모델로 웅장하게 만들었는데, 적산을 뒤로 하고 앞으로는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산동성 석도진 적산 기슭에 자리 잡은 적산 법화원에 도착하여 1차 답사단 전체의 기념사진을 찍고 교수님들의 설명을 들었다.

장보고에 대한 재조명이 가능하게 된 것은 엔닌 스님 때문인데, 그는 그의 여행기에서 장보고에 대한 고마움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역시 사람은 누구에게나 호의적으로 잘 베풀고 볼 일이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엔닌 스님이 여행한 시기가 기록되어 있고 적산 법화원은 장보고가 820년에 세웠으며 당시에는 법당 하나와 큰 강당을 갖추고 있어 중소형 규모의 절로서 신라인들의 정신적인 기둥의 역할을 해주는 곳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이

곳의 바위가 물을 머금으면 붙어진다고 해서 적산, 적산 법화원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장보고 시대에는 신라가 당나라와는 조공을 통한 관무역을 하였지만, 일본과는 교류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상인들이 일본에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은 장보고 때문이라고 하니 그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뿐만 아니라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서남아시아까지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그는 세계를 호령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보고가 세운 적산 법화원은 당나라 무족의 도교가 불교를 탄압함으로 해서 없어졌는데, 최근 1980년 후반에 엔닌 스님을 기리기 위해 일본 사람들이 건립하기 시작하여 1990년 5월 1일 법화원 본당 준공을 하였고, 이어서 중국의 척산그룹이 관음전, 지장전 등을 만들어 규모를 크게 확장했고 한·중 우호와 교류를 기념하기 위해 거대한 장보고 동상인 적산명신상, 장보고 기념관, 장보고 기념탑 등도 만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을 우리나라에서 먼저 연구를 하여 그분의 업적을 기념하고 본받도록 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닛온나마 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안심된다.

적산 법화원의 대웅전을 비롯하여 관음전의 분수 쇼, 웅장한 적산 법신상, 장보고의 일대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보고 기념관, 김영삼 대통령의 자필이 새겨져 있는 장보고 기념탑 순으로 관람을 하고 인천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7월 26일(수) -21세기에 부활한 장보고님이시여!-

의미 깊었던 5일간의 여정이 막을 내리는 날이다.

선상에서의 조식을 마친 후 그동안 함께 했던 선생님들과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뒤에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이번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답사를 통해 새로운 역사적 인물로 재평가 받아 21세기에 부활하신 장보고님에게서 희망과 꿈을 보았다. 1200년 전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중심으로 세계로 진출한 것처럼 현대에 사는 우리들도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한민족이 보유한 역량을 통합하여 다시 한 번 더 세계로 뻗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져본다.

이번 방학이 끝나기 전에 장보고와 관련된 유적지를 꼭 가봐야겠다는 결심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족여행의 코스를 완도로 정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장보고의 역사와 흔적을 내 기억 속에 많이 담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완대대교(작은 다리)를 통과했다. 길가에는 ‘건강의 섬 해신’이라는 글귀가 준비하게 서서 우리들을 맞아 주었다.

제일 먼저 간 곳은 해신촬영지로 중국의 석도, 봉래 등지에 있었다던 ‘신라방’을 재현해 둔 곳이었다. 규모는 작았지만 제법 알차게 1200년 전 중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 14킬로미터 떨어진 바닷가에 청해 포구를 재현한 촬영지도 있었다. 때마침 서녘 하늘에 넘어가는 일몰의 모습이 바다풍경과 어우러져 너무 멋있었다. 장보고의 역사현장인 완도에서 장보고 유적지가 아닌 드라마 촬영현장

에서 장보고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던 사실이 가슴 아팠다. 만약 〈해신〉 드라마를 안했다라면 어쩔 뻔했겠는가?

다음 날, 실제적인 유적지인 완도군 장좌리에 있는 장도(장군섬)에 가 보았다. 장군섬이라는 별명이 장도의 옛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듯했으나 장도의 안내표지는 제대로 없었다. 청해진 수석공원 뒤로 들어가서 장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수문이었음직한 기와집 서너 채가 버티고 서서 장보고 대사의 발자취를 느끼게 해주었다. 그것도 관심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정돈되지 않은 모습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다행인 것은 청해진 수석공원 옆에 청해진 기념관이 건립 중이라 몇 년 뒤에는 제법 유적지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겠다 싶었다.

완도에는 장보고를 배출한 나라답게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멋진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가 조성되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 기행문의 끝을 맺을까 한다.

21세기에 부활하신 장보고님이시여!

우리들이 당신을 미처 몰라 뵈서 너무 죄송합니다.

늦으나마 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당신을 뵈고 느낄 수 있어서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1200년 전 당신이 광활한 대양의 무대에서 해상무역 활동으로 우리나라 기술과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떨쳤듯이 오늘날의 우리들도 당신 뜻을 받들어 글로벌 세계무대를 통해 우리의 기술과 문화를 맘껏 펼쳐서 세계 속에 가장 돋보이는 당신의 자랑스러운 후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답사를 통한 중국 단상

인천 계산공업고등학교 최기석

들어가면서

교사 연수 일환으로 유럽여행을 다녀온 이후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었다. 그런데 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에서 전국 사회 및 국사 교사를 대상으로 2006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단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답사단원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되어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던 중국을 실제 다녀오게 된 것이 참으로 감격스러웠다.

비록 극히 제한된 시간과 공간을 다녀왔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유럽을 갔다 와서 실감할 수가 있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 시청각 교재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피부로 닿는 얘기를 할 때 학생들이 생동감 있게 받아들이고 많은 질문들을 폭포수처럼 쏟아 낼 때 그러하였다. 적어도 사회 교사들은 해외여행을 대륙별로 한 번은 꼭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장보고 기념

사업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일을 계속 확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일본의 유적지 답사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여러 가지 단상들

이번 여행을 통해 해상왕 장보고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던 내용을 실로 많이 보충할 수가 있었다. 답사의 경로는 장보고가 갔던 해상진로를 똑같이 밟아서 중국까지 갔다. 오늘날 큰 배에 몸을 싣고 가도 배 멀미를 하는데, 8세기에 순전히 경험에 의해 범선으로 해상진로를 선택하고 바람과 해류를 타고 가야 했던 우리 조상들의 해상항해 능력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 고충을 대략 짐작해 보니 비행기로 가는 것과 차별화가 될 수 있어서 또한 의의가 있다 하겠다. 지리부도에서 볼 때 중국은 멀게만 느껴졌고 시간차는 북경이 1시간 시차가 난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화동궈리호 안의 지도에는 인천에서 석도항까지 400킬로미터, 즉 정부고속도로 길이밖에 안 된다는 것에 여행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석도항. 한국과 관련된 건물과 항구의 모습을 보니 우리나라 인천이 없었으면 지금같이 발전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말로만 듣던 중국.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그 면적은 세계 세 번째 나라. 우리나라와 때려야 뗄 수 없었던 나라. 그 공포의 나라 중국에 상륙했다.

집들과 건물들을 볼 때 개혁과 개방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

었지만 중국 변두리는 아직 우리의 70~80년대 수준으로 느껴졌고 사람들은 우리 모양이지만 우리보다 왜소해 보이는 사람이 더 많고 대국놈이라고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덩치가 큰 사람들도 있었다.

대체로 남자들은 옷차림이 허름해 보였고 여자들이 더 화려한 복장이었다. 중국에서는 여자들이 과거와 달리 대우를 받는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복장은 우리 젊은 사람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였다. 또 하나 지방이라서인지 남자들은 그렇게 덩치 않았는데도 상의를 완전히 벗고 지내는 사람들이 시내에서도 눈에 많이 들어왔다.

우리를 계속해서 실고 내달리는 버스는 아직 우리 수준이 못되어 시골 버스 같은 모양을 한 채로 우리와는 다른 교통규칙을 준수하지 않는가? 중앙 분리대가 없는 고속도로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운전을 마음대로 하고 앞에 가는 차나 오토바이는 뒷 차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제 속도를 유지하고 가는 모습에 저것이 대륙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해서 의아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를 두렵게 한 것은 이미 책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몇 시간을 달리고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대륙의 벌판이었다.

그곳에 펼쳐지는 광활한 들판은 그야말로 나로 하여금 공포감을 주는 것이었다. 아~아, 바로 이것이 우리와 다른 대륙이고 대륙적인 기질이 나오고 우리에게 없는 것이 없다는 청황제(건융제)의 오만함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하는 기분이었다.

이러한 나라가 지금 계속 10퍼센트 대의 높은 성장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30~50년 후면 이 지구상이 그야말로 중화의 나라가 될 테인데 그때 우리는 얼마만큼 가 있을 것인가? 잘못하면 또 옛날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까. 아니 이미 그 조짐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 있는 만큼

정신 차려서 나라를 중흥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것이 나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곳곳의 고속도로는 이제 막 개통이 되었거나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았다. 넓은 땅이고 모든 토지는 국유화한 것이기에 고속도로도 여유 있게 넓어 보이고 앞으로 넓힐 것에 대비해서 자투리땅에 화단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토질이기에 포플러 나무도 잘서 있게 심어서 보기에도 좋고 짓가락 만들어 수출하는데 안성맞춤일 것이었다. 또한 욕심나는 것은 도시의 넓은 인도였다. 우리나라의 3배 정도는 되어 보이는 여유를 보이고 있는 것이 부러울 정도였다.

그러나 농촌이나 도시 빈민가의 주택들은 모두가 공산주의 국가 특히 북한과 거의 유사하게 성냥갑만하게 똑같고 비좁은 모양을 하고 그 드넓은 벌판을 마다하고 밀집해서 있었다. 너무 획일적인 공산주의식 주택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집들의 지붕색은 중국 사람들이 워낙 빨간색을 좋아한다지만 빨간색 일색이어서 눈이 피곤하고 단조롭게 보였다. 어떤 때 산에서 내려다본 중국 마을의 풍경은 마치 유럽 여행시 오스트리아의 빈이나 체코의 프라하에서 내려다본 도시집 풍경과도 흡사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적색의 지붕 모습).

또한 화북평야의 광활한 들판에 한국에는 오기 싫어하는 제비들이 너무나도 많이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에서 아직 중국 농촌은 환경과 공해에 찌들지 않아서 강남(양자강) 갔던 제비들이 강북으로만 오지, 바다 건너 오염된 한국으로는 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옛날 고향 생각에 잠겨 보기도 했다.

중국은 지금 발전단계에 있기에 옛날모습과 현대의 모습이 동시에 도시에서 많이 나타났다.

허름한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현대식으로 한국에 내봐도 빠지지 않

을 아파트도 보이고 우리가 화면에서 많이 본 자전거 타는 물결과 오토바이가 많이 눈에 띄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보기에 많지 않은 각국의 외제차들이 호텔 앞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서 공산주의가 자본주의화되면서 병폐로 나타난다는 빈부의 차를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가 가본 산동성은 일개 성이지만 그 면적이 함경도를 뺀 한반도 크기만 하고 인구는 우리 한민족보다도 많다는 9,000만이었으니 과히 인구대국을 실감할 수가 있지 않은가?

차를 타고 이동해도 3~4시간은 보통인데 지방도로에는 차들이 많지 않아 운전하기에 좋은 곳이 아닌가? 또 하나의 감동은 난생 처음으로 인류 문명의 발생지의 젓줄 역할을 한 황하강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었다. '제남'이라는 도시가 산동성의 성도인데 그곳을 통과할 때 황해로 흘러들어가는 도도히 흐르는 황하는 우리 한강의 2배 정도는 크게 보였다. 말 그대로 황토빛을 한 채로 유유히 흐르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그런데 문화와 풍습이란 것이 그렇듯 다 같은 동아시아권(한문과 유교문화, 논농사, 짓가락) 문화이면서 공간상 거리도 부산과 서울 거리밖에 안 떨어진 이곳에 의식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집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지만 말(언어)은 완전히 통하지 않고 그래서 어쩌면 영어권보다 알아듣기가 힘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 이유는 한자를 대략 써서 주어도 젊은이들은 간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의 정자식 한자는 알지도 못하고 해서 그렇게 보였다. 반면에 우리는 그들의 간자체는 대략적인 뜻을 글로는 이해가 되었으나 말로는 표현되지가 않는 것이어서 더더욱 그러했다.

또 하나 차이점은 음식문화. 바다 하나 건너왔는데 이렇게도 차이가 나는가? 쓰이는 재료는 우리와 같아도 그들은 모두가 기름에 튀기

거나 향료를 써서 만들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지가 않는 것이었다. 중국 음식은 세계적으로 알아준다지만,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자장면도 중국에는 없지만 이곳 산둥성 출신들이 인천에 와서 만들었다는데도 차이가 난다.

다른 어떤 선생님들은 한국 부식을 가져와서 먹고들 있었지만 나는 유럽여행을 통해서 아무리 먹기에 힘든 음식이라도 현지식을 먹어보아야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유럽에서는 우리 한식당이 없는 곳이 많았지만, 중국 음식의 경우는 같은 동양식이고 쌀밥이어서 맛있게 즐겨 먹을 수 있었다. 나는 무엇이든 잘 먹는 식성이기 때문에 별 반응 없이 잘 먹었지만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또 하나 길거리에서 보이는 중국 간판들이다. 별로 커보이지도 않는 상점이나 음식점인데도 심지어 시골에서도 어디서나 보는 빨간색 일색이었고 간판의 크기가 우리 것의 배 정도는 되어 보였다. 간판도 간판이지만 우리가 방문했던 최근에 지었다는 불상이나 유적지 건물 또는 아치형 출입선전문, 계단 등이 모두가 크게 만들어진 것을 볼 때 물론 땅 크기의 여유에서도 그렇겠지만 대륙적인 기질이요, 문화유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행지 중 태산은 우리 태백산 높이의 산이지만 중국의 오악 중 으뜸이라는 산으로 역대 중국 황제들이 이곳에 힘들게 올라와서 천신에게 봉신했다는 산인데 우리의 정상 모습하고는 사뭇 달랐다. 천가(하늘거리)를 만들어 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케이블카를 운용함으로써 그 높은 산을 올라오는 중국 사람들도 많았지만 서양 방문객도 많이 눈에 띄는가 하면 관광지에서 파는 상품들도 특색이 있는 것들이어서

우리 관광당국들이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는 곳이었다. 여러 관광지가 그러했지만 우리와 달리 그곳만 있는 특색과 특징을 내세우는 것이 가슴에 와 닿았다. 중국 유적지들은 대개는 우리와 문화권이 같아서 이해하기에 편하였고 멀리서 바라본 모양들은 상당히 웅장해 보이고 근사하게 보였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근접해서 볼 때는 별로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차이점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도교 유적지가 불교보다 훨씬 많다는 것과 물론 중국은 도교가 지금도 성행되고 있지만, 같은 불상과 절이라도 한국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문화의 상대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가 있었다.

다음으로 그들의 유적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유구한 역사가 있고 역사의 현상이 있어서 더욱 그러하겠지만 유적지가 별 손상 없이 잘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나라 역사박물관, 남산에 있는 중국 역사박물관, 기타 박물관이나 관리장성 중 가장 오래 되었다는 제나라 때 관리장성, 손자, 강태공 사당. 하나하나 열거하기에 벅찰 정도이다.

이것 또한 외국의 침략이 우리같이 많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후손들이 잘 보존하려고 하는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장개석 총통 같은 사람은 모택동에게 쫓겨 대만으로 피난가면서도 많은 유물들을 가지고 피난 갔다고 하지 않던가. 그래서 오늘날 대만 박물관은 며칠을 구경해야 다 볼 수가 있다고 한다. 아무리 훌륭한 문화유산이 있어도 그것을 잘 관리하는 후손들이 없다면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방문지가 '남산'이라는 곳이다. 이곳 이름이 지명인지 알았는데 그룹(중국식 집단)이름이라고

한다. 남산에 세워진 그 광활하고 웅대한 건물과 불상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45세밖에 안 된 남산그룹의 회장이 건설해 막대한 외화와 관광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한국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가이드 안내로는 김포나 대구에서)로 청도나 위에 내려서 골프를 치고 놀고 (금요일 저녁 출발 일요일 저녁 귀국) 외화를 낭비하게 만드는 중국 당국의 상술은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인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상술을 발휘하는 민족이 유대인 다음으로 중국인들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그러나 중국도 정치를 제외하고 자본주의화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후에 민주화되고 나면 크나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마지막 날 갔던 곳이 적산 법화원이다. 우리 여행의 최종 목적지이자 핵심이기도 한 곳이다. 장보고는 암담한 신라의 현실을 탈피해서 청운의 꿈을 펼치기 위해 당나라에 입국했다. 뛰어난 무술로 무령군 소장(추측하건데 현재 우리나라 편제로는 연대장 정도)까지 올라 혁혁한 공을 세웠고, 후에 군의 해체로 현재의 석도에서 법화원을 짓고 신라인들을 뿔뿔 뿜치게 했다. 그래서 그의 덕으로 일본의 엔닌 대사 같은 사람도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귀국해서 완도 청해진에서 대사로서 활동하여 동아시아의 해상권을 잡았고 나아가 세계무역의 선구자적 역할까지 한 것은 이번 여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일본의 엔닌 대사와 같은 기록이 우리나라에는 왜 없는가이다. 기록문화의 전통이 그래서인지 1960년대 정부기록이나 우리나라 초대 정부의 국채도 6·25라는 혼란기에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나 되는가? 우리의 후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자로서 각성을 하고 이 점을 강조해 교육해야 할 것이다.

엔닌 대사의 일기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장보고의 자취도 모르는 것이고 그 뒤 오늘날 법화원을 지은 것도 일본 불교도들의 돈으로 지어진 것이라든지, 해상왕 장보고의 법화원을 지은 중국 사람들은 자기의 선조라고 우긴다든지(하기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중국의 한족이 아닌 당시의 신라방 사람들의 후손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대응하고 노력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곳 적산 법화원 뒤편에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웅장한 석가보살상을 회전시키고 분수 쇼를 하는 모습은 장관으로 잊혀지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장엄한 불교적 분위기의 음악과 분수. 그리고 짙은 향내를 풍기는 아이디어적 관광상품은 우리 종교계나 관광당국에서도 벤치마킹해서 훌륭한 관광 한국을 만들어 내었으면 한다.

맺으면서

2006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여행을 통해서 비록 제한된 시간과 공간이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조망할 수가 있어서 의미있는 여행이었다.

그들은 과거에 우리와 더 없이 밀접한 관계를 가졌는데 많은 문물을 주로 교환했지만 우리의 수탈자이자 침략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준 나라이기도 하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너무나 밀접해서 그들이 패권주의를 추구하기 전에 하루속히 국력을 길러서, 1200년 전 작은 나라의 청년 장보고가 대양으로 진출하여 해운과 무역의 영광을 만들

어낸 것처럼, 또 중국·신라·일본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은 위대한 무역왕이었던 것처럼 장보고의 유지를 받들어 동북아의 스위스(작지만 강한 동북아의 허브국가)와 같은 나라로 진흥시키는데 우리 교사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장보고 유적 답사를 다녀와서

아산 선장초등학교 임화섭

(첫째 날) 설렘을 배에 싣고

재단법인 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를 알게 된 것도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우연히 신문에 실린 해상왕 장보고 유적 답사단 모집 내용을 보고 신청을 했던 것이 그 시작이었다. 교장선생님께 해상왕 장보고 유적 답사단의 내용과 취지를 말씀드린 후 추천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받기까지의 일이 매년 이어졌다.

‘그래, 올해마저도 유적 답사단에 선발되지 않으면 장보고와는 인연이 없는 것으로 하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응모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몇 번의 확인을 거쳐도 내 이름 석 자가 두 눈 가득 들어왔으니 말이다. 커진 동공 속을 채운 내 이름이 다시 줄어들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정말이지 무슨 일이든 마음을 비웠을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다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학기말이어서 정리할 내용이 많았지만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여 일이 쉽게 잡히지 않았다. 오늘 아침도 역시 들뜸 그대로였다.

“여보, 당신 마치 초등학교 애들처럼 왜 그래요?”

집사람의 편잔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 아이들과 집사람에게 인사도 하는 등 마는 등 하고 온양온천에서부터 인천 여객터미널까지 가는 순서를 몇 차례씩이나 되짚으며 천안행 버스에 올랐다. 다시 수도권 전철을 타고 구로역에서 인천행 전철로 갈아타고 제물포역에 내렸다. 오는 길이 쉽거나 짧지 않았음에도 지루하지가 않았다. 자리에 앉으면 틀림없이 고개를 떨어뜨리던 예전의 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버스를 타고 여객터미널까지 오는 과정에서 내리는 곳을 지나 치는 약간의 오버(?)는 있었지만 이번 답사에 동행하시는 선생님들과 웃으며 만날 수 있는 첫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등록을 마친 후 답사기간 동안 함께 할 선생님들을 만났다. 모두들 해외여행의 경험이 많은 것처럼 보였고 다들 활기차면서도 영화배우처럼 근사하게 느껴졌다.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배에 올랐다. 시원시원한 생김에 정이 많을 것 같은 최 선생님, 키는 작지만 차돌처럼 단단해 보이고 아는 게 많을 것 같은 신 선생님, 미소년처럼 수줍음이 있는 듯하면서도 친근감이 느껴지는 나 선생님이 한 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짐정리를 간단히 끝내고 우리 학교만큼이나 큰 화동훼리의 곳곳을 둘러보았다. 갑판에서 보니 아까까지도 커다랗게 보이던 건물들이며 산들이 조금씩 작아졌다. 어느새 내가 탄 배는 옆쪽으로 배웅하듯 서 있는 나이 지긋한 섬들을 지나 점점 짙은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배 안의 환한 불빛과 어수선하게 오가는 사람들 소리, 음식을 나눠 먹

는 사람들 속에서 내 흥분과 설렘도 덩달아 흔들렸다. 배 안에서의 식사는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당분간은 마지막이 될 한식이란 말에 꿀처럼 느껴졌다. 총책임자인 김성호 과장님의 오리엔팅과 권덕영 교수의 ‘장보고와 그의 바다 경영’이란 주제로 한 세미나를 끝으로 공식 일정은 끝이 났다.

이국으로 떠나는 첫날밤, 그 흥분과 설렘으로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들 나와 같은 생각이었을까? 아까보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향하는 배 안에 바다 빛 어둠보다 진한 그림자가 여럿 걸려 있었다.

(둘째 날) 새로운 세상 속으로

설렘으로 붐비던 배 안에도 어김없이 고요한 아침은 밝았다. 뱃고동이 울리더니 잠시 후 작고 허름한 배들이 간간이 보였다. 제대로 도색도 되지 않은 시쳇말로 촌스럽고 곧 부서질 것 같은 배들이었다. 그 래서인지 중국에 들어서 먹는 첫 아침은 입맛마저 다르게 했다. 어쨌든 씹씹하게 먹고 갑판에 나갔다. 기나긴 어둠 속을 뚫고 나온 배라고 하기에는 한결같이 고른 숨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먼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이 긴 어둠 속을 항해하였을 것이라 생각하니 너무 쉬운 항해에 조금은 염치없게 느껴졌다.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이라 자위했다.

신 선생님과 함께 뱃머리 부분으로 올랐다. 멀리 항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꽤 커 보였다. 나뭇잎처럼 작은 배, 나무로 만들어진 배들이 보였던 가까운 바다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과 석유저장시설 등이 멀리 보이고 큰 배들이 많이 정박해 있었다. 사진

을 찍지 말라는 승무원의 말을 뒤로 하기 전까지 우리는 처음 만난 중국 대륙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기에 정신이 없었다.

우리의 첫 도착지 석도항이었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석도항은 중국 제일의 천연항구로서 신라와 당, 그리고 일본을 이어주는 가장 안전하고 중요한 곳이었다고 한다. 석도항이 예전의 명성만은 못하지만 지금도 국제무역항으로서 일정 부분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 동안의 수속을 마치고 우리는 조선족 가이드(김명철 씨)를 태우고 잠시 이동을 하였다. 잠시 이동이 2시간이라니! 얼마나 큰 땅덩어리이기에 그럴까? 산동성의 면적만 남한의 1.5배라 하니 절로 입이 벌어졌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짜증이 날만한 이동 거리였음에도 불평을 호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차창 밖으로는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물건을 파는 사람들, 중앙선이 있지만 무시해 버리는 사람들, 곳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뭔가 무질서 하면서도 나름의 질서가 있는 곳, 가난하면서도 큰 욕심을 내지 않는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삶을 누리는 곳, 아직까지 무한의 발전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두 번째 도착한 곳은 연태였다. 길이 잘 정비되어 있고 해변에는 높은 아파트가 뽕뽕이 서 있었으며 백사장에는 한가로이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였다. 조금 전까지 보았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이었다. 어쩌면 이곳은 자본주의보다 더 지독한 양면이 존재하는 어두운 곳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연태에서 점심을 먹었다. 제대로 맞이하는 첫 중국 음식이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매우 훌륭했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느끼하지 않아서 느긋이 맛과 향을 즐겼다.

또다시 잠시 이동하여 봉래에 도착하였다. 바닷가를 끼고 있었고 관광객이 무척 많았다. 봉래는 옛날 신선들이 살았다는 바다 가운데 있었던 산의 이름이며 한무제가 붙여준 것이라고 한다. 7남 1녀의 8신상을 지나 봉래각에 도착하였다. 절벽 위에 있는 성의 모습은 자체로 그림이었다. 인간선경(人間仙境, 사람이 신선이 되는 곳)이라니 진짜 신선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정상 부분에 오르니 발해와 황해의 경계가 눈 앞에 선명히 펼쳐졌으며, 내려다보이는 경치는 놀고 있던 신선들이 마치 금방이라도 뛰어 나올 듯한 것이었다.

명나라 때 왜구를 물리친 척계광의 동상은 인상 깊었지만, 관광객의 놀이터로 변해 조금 시시해 보이는 등주수성과 목포 해양박물관보다 못한 면이 많았던 등주 고선박물관은 다소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전시된 중국의 현대식 전함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중국의 도전과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어느새 가슴 한 쪽에 우리 대한민국도 더욱 분발해서 세계 1위의 조선강국의 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 솟구쳤다.

오늘의 종착지인 치박에 도착하였다. 시청 앞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있었다. 저녁을 먹은 후 숙소에 짐을 풀고 춤을 추는 진풍경을 보기 위해 시청 앞으로 갔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시청 광장의 한 쪽에는 한 무리의 택시와 자전거가 꼬치를 구워 먹는 좌판과 영겨져 있었다. 반대편에는 아기가 놀이동산의 범퍼카와 같은 장난감차를 타고 있고 아기엄마는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피곤이 밀려왔다. 이국에서의 첫날밤은 호기심과 흥분에 절은 여독과 거울처럼 비쳐지는 그리움에 소리도 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셋째 날) 중국 정복(?)을 꿈꾸며

고요하고 신비로운 아침이었다.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느낌이었다. 은근한 하늘빛이 그런 분위기를 더욱 자아냈다. 창밖을 보니 저 멀리 공원에서 사람들 여럿이 모여 태극권을 하고 있었다. 나지막하게 음악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면 음악에 맞추는 것 같기도 하였다. 결코 강하거나 빠르지 않으며 부드럽게 천천히 춤을 추듯 하였다. 혹시 신선들의 동작은 아닐까? 어렵지 않아 보이는 동작을 보니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리저리 해보았는데 맘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얼핏 본 거울 속의 내 모습에 하마터면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웃을 뻔하였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았다.

식사하기 전의 다이어트 결심은 비참하게도 아침식사 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왜 이렇게 입맛이 당기는 걸까? 몸이 원하니 먹기는 하겠지만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색다른 음식을 접하는 것도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임을 스스로 믿으며 양껏 즐겼다.

첫 번째 행선지는 태산이었다. 태산이란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았다. 학창 시절에 배웠던 ‘태산이 높다 하되’로 시작되는 양사언의 시조와 ‘태산에 오르니 세상이 작게 보인다.’ 했던 어느 성인의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들이 생전에 꼭 한 번 들러보고 싶었던 태산은 정말 그리도 높고 멋있을까? 태산은 약 1,500미터 정도 높이의 산이라고 한다.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중국의 오악(五岳)에 꼽히며 1987년에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타고 다니던 버스에서 내려 작은 버스로 옮겨 탔다. 잘 닦여진 포장도로를 따라 케이블카를 타는 곳까지 이동했다. 매표소! 내 희망이 무

너졌다. 태산을 정복하여 중국을 내 발 밑에 두고 호령하려던 내 꿈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태산을 세 번 오르면 그 집안이 모두 무병장수한다는 말이 있다던데 문명의 발달로 산의 70퍼센트 정도 높이까지 케이블카를 타야 했다.

나머지의 길은 옥황정이라는 정상의 이름에 걸맞게 옥황상제를 만나러 가는 고난과 역경의 순례였다. 지금 잘 정비되어 있는 모습이 이럴진대 그 옛날에는 어떠하였을까를 생각하니 이마의 땀도 식어버렸다. 오르는 중간, 석벽에 새겨진 문구를 보면서 그 마음은 더해졌다. 이런 산을 오른 이의 기분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다시 들러 정상까지 걸어서 등정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내려오는 도중에 비가 내리다 그치고 내려다보이는 산 아래에 깔린 운무처럼 가느다랗고 흐릿한 신비로움이 채워졌지만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허전하였다.

점심을 먹고 다시 치박으로 이동을 하였다. 올 때의 즐거움은 어디로 가고 졸음에 겨운 몸짓에 한참을 괴로워했다. 가는 중에 우리와는 다른 중국의 독특한 매장 풍습을 엿보기도 하고 황하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지나면서 감탄도 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색다른 음식도 즐기면서 우리는 점점 중국 속으로 녹아들었다.

아침의 숙소를 다시 지나 말들이 두 줄로 가지런히 죽어 빼만 앙상한 제경궁 순마궐에 도착하였다. 이곳의 말은 모두 전마(戰馬)인 수말이고 그 매장추정수가 660여 필이라니 제나라의 세력과 경궁의 통치력이 얼마나 컸었는지 미루어 짐작하고 남음이 있었다. 순마궐에 이르는 길은 시골길이었기에 중국의 농촌을 좀 더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한 쪽 벽면을 막아버린 비닐하우스가 인상적

이었다.

잠시 후 옛 성곽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제나라 역사박물관으로 이동하였다. 이곳에서 제나라의 흥망성쇠를 살펴볼 수 있었다. 전시물 중에 임치가 축구의 발생지라는 사실과 우리가 답사하고 있는 지역을 왜 제노(齊魯)지대라고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전시물 중 중국의 연나라와 제나라에서 쓰인 청동화폐라고 알고 있는 명도전에 대한 내용은 명도전이 우리 선조인 고조선의 옛 영토에서 많이 출토되는 유물임을 토대로 고조선의 화폐였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가 있음을 알려 정정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또한 근간에 일어나는 중국의 우리 역사 왜곡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도 되었다.

해가 저 어두운 시간에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 중 다섯 손가락에 꼽힐 강태공의 사당에 들렀다. 진짜 강태공의 묘가 아닌 의관(衣冠)을 묻은 무덤을 모시고 있었다. 그 내용은 별 것이 아니라 여겨졌지만 사당 밖 광장에서 낫선 이를 대하는 중국인들의 호기심 속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유적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서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닫힌 문화유적지에서 열린 공간으로의 행정은 모시고 있는 유물과 위인을 더욱 빛나게 하며 자연스럽게 생활에 묻어나는 존경과 사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이어졌다.

조금 늦은 시각 유방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고 숙소에 들었다. 넓게 짙은 도로, 커다란 아파트와 호텔들이 즐비한 곳이었다. 숙소 근처를 둘러보았지만 밤늦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어스레 같은 방을 쓰는 나 선생은 큰 도로를 지나는 바람처럼 꿈속으로 내닫고 있었다.

(넷째 날) 꿈을 쫓는 사람들

유방에서의 아침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 중국의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인지 아니면 도시 분위기가 한국과 비슷한 것이어서 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확실히 치박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집 뒤 마당에서 태극권을 하는 딱 한 명의 사람과 멀리 부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치는 게 전부였기 때문이었다.

호텔 건너편의 장소에서 아침을 먹고 남산으로 이동하였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 엄청난 규모에 기가 눌렸다. 멀리에서도 보이는 대불을 보노라니 아무리 담이 큰 사람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앞날을 기원할 수밖에 없을 것만 같았다. 계단을 세며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빌며 부처에 다가섰다. 불상 아래에 모셔진 9,999개의 작은 불상들은 대불과 힘을 합쳐 부처의 법력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었다. 계단을 경계로 이승과 저승이 나뉘는 것 같았으며 저만치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세상이 좁게만 느껴졌다.

중화역사문화원은 중국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이었다. 모작이었다는 것이 다소 아쉽기는 하였지만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중국의 역사를 꿰뚫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중국에는 56개의 민족이 있다는데 그중에서 중국 소수족인 외족의 전통 민속 공연도 볼 수 있어서 중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자본주의의 틀 속에 빠져 들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과 정통성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였지만 상대방을 압도하는 소리와 커다란 눈 등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우리나라의 유교를 생각했던 나는 중국에서 유교가 전해졌으므로 다른 것에 비해 유교가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

였다. 그러나 지난번 태산에서 시작해 오늘 남산에 이르러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중국에는 공자를 비롯한 유교의 훌륭한 인물들이 많아 당연 그 흔적이 많으려니 했지만, 도교 역시 노자를 위시한 많은 위인들을 배출하고 중국인의 생활 속에 많은 도교의 흔적들이 녹아있다는 뜻밖의 사실 때문이었다. 유교와 도교는 중국을 이끌어 온 커다란 두 축임을 인정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점심을 먹고 성산두로 향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중국의 동쪽 끝이라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라니 대한민국과 아주 가까운 곳일 것이다. 차창 밖의 사람 사는 모습들을 더러 보면서 쏟아지는 잠에 강한 긍정과 부정을 반복하였다.

드디어 바다 내음이 풍기는 곳에 이르렀다. 백사장에서 무언가 버려진 물체를 줍고 있는 여러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하였다. 모래가 묻고 색이 시커먼 물체였다. 창밖으로 그 물체를 가득 싣고 지나는 차를 자세히 보니 다름 아닌 다시마였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다시마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다시마도 분명 있을 터인데 혹시 저렇게 취급되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 다시마를 사 먹더라도 국내산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것은 공업용으로 쓰이는 다시마라는 가이드의 말에 안도의 숨을 쉬면서도 알뜰한 내 계산에 은근히 얼굴이 달아올랐다.

진시황 사당에 들러 불로장생의 꿈을 쫓던 진시황과 서복의 이야기를 들었고 바닷가에 서 있는 그들의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서복의 일행과 관련된 제주도의 도시 서귀포 이름의 유래를 이곳에서 찾으니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하였다. 결국 이곳에서 돌아가다 생을 다한 진시황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나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존재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도

하였다.

석도에 도착하니 동아일보사에서 마련한 풍성한 만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일 일정이 넉넉하다는 김성호 과장님의 안내는 그 동안의 피로와 긴장을 풀어주는 피로회복제가 되었으며 건배와 위하어로 이어지는 독하지만 달콤한 술잔은 이번 유적 답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을 하나로 엮는 새끼줄이 되었다. 들려오는 파도소리와 적당한 취기는 벌써 내 마음을 꿈속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다섯째 날) 장보고와의 만남

편안한 아침이 시작되었다. 여유 있게 아침을 먹고 잠시 산책을 즐겼다. 지난밤 들리던 파도소리는 파도가 해안의 자갈에 부딪쳐 만들어 낸 자장가였다. 이번 유적 답사의 핵심 일정이 오늘이지만 오늘 이전에 비해 부담감은 덜 했다. 잘 듣고 보면서 이해해 나갈 것이라 생각하니 더욱 그러하였다.

장보고는 생각한 것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었다. 더욱이 중국에는 다른 나라의 사람을 위해 유적지를 만들거나 동상을 세우는 것은 전무한 일이라 하던데, 여기 세워진 장보고 유적지를 생각하니 실로 대단한 일이라 여겨졌다. 다만 그 시작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엔닌이라는 승려를 기리는 일본에서 먼저였다는 것이 아쉬웠다. 그나마 여러 경로를 통해 장보고 기념관과 기념탑이 생기고 우리와 같은 많은 답사단과 관광객이 오고감을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적산 법화원 앞에서 권덕영 교수와 이유진 교수, 김주성 교수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주변을 천천히 차근차근 둘러보았다. 적산 법화원

을 살펴보니 여러 무리의 한국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다. 반가웠다. 그리고 오랜만에 한국말을 편하게 들으니 마치 한국에 있는 듯하였다. 장보고가 이곳 적산에 있을 때도 그러하였을까? 적산에 신라 사람들의 마을이 있었으니 그리 무리한 생각도 아닌 듯싶다. 고국을 떠난 이국에서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당나라 장수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남달리 가족처럼 여기는 따뜻한 가슴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일본 사람들까지도 그 인품에 반하지 않았는가 싶다.

분수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로 거대한 관음상을 씻기고 관음상이 360도 회전을 하면서 인류에 불법을 전하고 불도 뿜어내는 모습은 생소하면서 아주 흥미로웠다. 또한 남산의 대불에 견줄 만하고 부와 안녕을 안겨주는 재물신이라는 적산신 또한 커다란 볼거리였다.

장보고 기념관 입구에는 장보고가 중국에 건너와서 청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명신복우사해 대사체교삼방(明神福佑四海 大使締交三邦)’ 글자와 함께 새겨 놓은 부조물이 있었다. 장보고는 당나라와 신라, 일본과의 무역을 주름 잡았고 멀리 해외에까지도 진출하여 많은 부를 얻었으며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커다란 도움을 준 존재라는 뜻이 아닌가 짐작해 보았다.

안마당으로 들어섰다. 순간 숨이 탁 막혀왔다. 보매도 웅망하고 늙름한 커다란 동상이 칼을 차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이 글거리는 눈빛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으로 가득한 가슴을 안은 채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천 년이 넘는 이 시간에 다시 살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장보고 기념관에는 몇 해 전 우리나라에서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드라마 <해신>의 내용도 소개되어 있었다. 박진감을 느끼며 참 재미있

게 보았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여기에서는 장편의 드라마를 잠깐 소개하는 정도였지만 이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비디오 가게에서 흔히 접하는 중국의 무협비디오처럼 비디오나 CD, DVD로 만들어 판매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한편 장보고 기념탑도 독특한 모양이어서 인상적이었다. 바다와 적산 법화원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더욱 근사하게 보였다. 기념탑 주변에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심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처음 차에서 내려 지금 다시 차를 타러 오기까지 중국 사람을 비롯한 외국 사람들을 본 것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찾아오게끔 하는 전략적 홍보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곳만의 특색 있는 기념품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생겼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고국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이제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쳤다는 성취감과 보람, 아쉬움이 교차하면서 내일이면 헤어질 선생님들과의 애뜻한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처음에 느꼈던 감정보다 훨씬 더 멋있고 근사하고 훌륭한 분들이었다. 함께 한 시간이 영광스럽기까지 했다. 밤은 깊어 가는데 내일이면 보게 될 식구들 생각에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여섯째 날) 자부심을 가슴에 안고, 꿈과 희망을 심고

간밤에 늦게 잠을 청했음에도 일찌감치 눈이 떠졌다. 멀리 눈에 익은 우리 땅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배에서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한참이나 걸렸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약속했던 지난밤의 일들을 다시 되풀이하며 새삼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분명히 없었던 무엇인가가 가슴에 자리 잡았다. 그것은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함께 누워 내 장보고 유적 답사의 길고 긴 이야기를 끝낼 때까지도, 개학이 되어 우리 반 학생들에게 신이 나서 말할 때에도 여전하였다. 아마도 그건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잘 알게 된 후 얻은 것이기에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아니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다.

“선생님, 또 장보고 얘기해 주세요, 예?”

“매일하면 재미없잖아. 선생님이 조금만 들려줄 테니까 나중에 꼭 한 번 가 봐라.”

나는 오늘도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는다. 장보고가 우리에게 그랬듯이.

교실 안에서 부활하는 글로벌 CEO 장보고

시흥 진말초등학교 김영일

2006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일정을 마치고 배를 타기 위해 석도항 여객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조그만 소동이 있었다. 중년의 중국여인이 오토바이에서 종이상자를 내렸는데 그 상자 안에는 검은 비닐꾸러미가 가득 들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내리려던 버스를 향해 손짓하며 무어라 소리쳤고 이를 보고 있던 중국 경비원이 여인에게 다가가 험한 표정을 지으며 무엇인지 말을 했다. 우리 측 가이드가 내려가 몇 마디 말이 오가고 끝이어 일행 중 한 분 선생님이 버스에서 내려 그 짐을 받고 썸을 치른 후에 소동은 일단락되었다.

소동의 경과는 이랬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썸을 치렀던 그 선생님이 시내에 나가 참깨, 잣, 땅콩, 고춧가루 등을 구입하여 터미널로 배달을 시켰고 이를 본 통관 경비원이 과잉 대응함으로써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우리는 이 소동을 새벽장 보고 와서 벌어진 장보고 사건이라 부르며 박장대소를 했다. 장보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 선

생님이나 중국인 중개상 모두 국제 무역인이 아닌가요? 유쾌하고 재미 있는 소동이였다. 장보고는 1200년 전에 이미 배를 몰아 중국에서 장 을 봐다가 신라인들의 살림을 윤택하게 가꾸어 주지 않았던가?

답사를 마무리하며 돌아오는 배에서 지난 여정을 돌아보며 해상왕 장보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장보고의 활동 무대와 발자취를 더듬어보기 위하여 5박 6일 산둥지방 중심의 답사 길에 올랐다. 산둥성은 우리나라와 인연이 많은 곳으로 한국화교의 대부분이 이곳 출신이다. 산둥반도는 낮은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고 강수량이 많지 않아서 인지 주로 밭농사를 지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공단도 보였고 도로는 잘 뚫려 있었다. 기계로 찍은 듯한 붉은 기와지붕의 주택과 도로가에 일정하게 심어진 포플러 나무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여정은 덥고 힘들었으며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다. 거의 대부분의 음식을 기름에 볶거나 튀기고 사용하는 소스도 우리 입맛에 맞지 않게 느끼하며 짭맛이 강했고 중국 음식 특유의 향료는 매우 거북했다. 석회성분 토질로 해서 지하수를 바로 마시기는 어렵고 음료는 자스민향이 나는 차를 주로 마셨다.

학기말 마무리를 깔끔하게 짓지 못한 채 무거운 마음과 함께 시작된 여정은 승선 수속을 하는 내내 머리를 무겁게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배에 올라 객실(4인 1실 2층 침대, 의자와 탁자가 있고 세면대가 있으며 TV 시청도 가능)을 배정받고 방을 같이 사용하는 선생님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여행의 분위기에 차츰 빠져들었다. 여객선(인천-중국 석도 약 15시간 소요. 화동훼리 : 승객정원 750명, 17,022톤, 레스토랑, 라운지, 면세점, 잡화점 있음) 갑판과 객실 이곳저곳을 돌아보

고 나서 샤워 후 가벼운 차림으로 답사 일정 안내와 세미나를 가졌다. 배가 인천항에서 멀어지면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여행의 참맛을 알려주고 분위기 잡아 사진도 찍어준 멋진 길동무들을 만남으로 해서 답사 내내 즐겁고 의미 가득한 여정을 꾸릴 수 있었다. 거기에 여행의 깊이를 더해 주시고 장보고의 바다경영과 삶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신 자상한 길잡이 부산외대 권덕영 교수님과 만남 덕분에 여행은 더더욱 행복했다.

아침에 눈을 떠 창밖을 보니 고추잠자리 한 마리가 맴돌고 있었다. 육지와 가까워졌다는 의미이다. 갑판에 나가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샤워를 했는데 바닥에 비누며 일회용 세면도구들이 어찌나 지저분하게 널려있던지 서둘러 씻고 나왔다. 아침식사 후 짐을 다시 꾸리고 배에서 내리기를 기다렸다. 여객선 여행이 좀 지루하기는 하지만 배안의 공간이 넓고 시간적 여유가 많아 비행기 여행과는 또 다른 맛이 있었다. 드디어 석도 여객터미널에 내려 입국 수속을 하고 중국 땅을 밟았다. 장보고가 무역선을 타고 그랬던 것처럼. 터미널 주차장에 나오니 버스 세 대와 조선족 출신 현지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다.

첫날 우리는 전통과 현대가 균형 있게 조화된 산둥반도 동부의 관광도시 연태를 찾았다. 예로부터 경관이 수려하고 산물이 다양하여 문인과 이역상인들이 많이 찾았다고 한다. 이곳의 과일과 해산물은 품질이 우수하기로 유명하고 특히 이곳에서는 중국 제일의 포도주가 생산된다고 한다. 3시간 정도를 달려 연태 시내에 들어섰을 때 잘 정돈된 시가지와 훈련 중인 중국 병사들이 열을 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6·25때 우리에게 총을 겨누었던 그 중공군이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어 준다.

해변을 낀 시내 도로를 얼마간 달려 여덟 신선들이 살았다 전하는 봉래각에 닿았다. 봉래각은 송나라 때 지어진 도관으로 여조전, 삼청전, 봉래각, 천궁 용와궁 등으로 구성된 유적지이다. 이곳의 경관이 수려하여 중국부주석 동필무는 단애선경방(丹崖仙境舫)이란 글귀를 남겼는데 그가 이곳을 그렇게 부른 까닭을 알 수 있었다.

발해만과 황해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절벽에 자리한 봉래각은 신선들이 거닐었음직한 경관이였다. 흔히들 중국문화의 원류를 유교에서 찾고 있지만 봉래각을 비롯한 이번 답사를 통해 중국 문화의 흐름에는 도교가 큰 몫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질적으로 여유 있고 신기함을 선호하는 성향은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과 맥이 닿아 있고 답사한 유적 가운데는 유교나 불교에 관련된 것 못지않게 도교 유적도 많았다. 모시는 신선이나 건물 배치 및 구조에서 봉래각도 대표적 도교 사원의 하나이다.

한편 봉래각 동쪽 외곽을 두른 등주수성은 동아시아 해양 종주권을 점령하던 요충지 등주항을 지키던 해군기지였는데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고 구역 내에 등주 고선박물관이 세워져 중국의 각종 고대 선박 관련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다. 고선박물관에 전시된 뱃머리에서 발해만을 힘차게 항해하는 고구려 군사의 힘찬 함성이 들리는 듯도 하였다. 한편 이곳 등주에는 7세기 중반 신라가 중국과 교역 당시 세운 신라소, 신라관 등의 교역관련 시설이 많았다는데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먹어보는 중국 음식. 우리가 생각하는 매콤한 한국식 중국요리와는 거리가 멀다. 조미 안 된 빵에 고기, 생선, 야채를 볶아 소스를 얹어내는데 입맛에 매우 설다. 느끼한 맛을 가시게 하는 맥주가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며 먹었다.

점심 후에는 저녁에 묵을 치박을 향해 내내 달렸다.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들르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주유소가 있고 화장실이 있으며 간단한 간식거리나 과일을 파는 가게로 이루어져 우리와 비슷했지만 규모는 매우 작고 이용하는 차량도 별로 없어 한산했다. 4시간 반을 달려 치박에 도착했다. 치박은 공업도시이면서 임치 관광지역을 끼고 있어 관광도시라고 할 수 있다. 차만 타고 왔는데도 배가 고프다. 짐도 풀지 않고 저녁을 먹은 후에 방을 배정받았다. 2인 1실의 방은 무척 깨끗하고 시설도 좋았다. 함께 방을 쓰는 선생님과 답사에 대한 이야기와 해양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가운데 중국에서의 하루가 저물어간다.

둘째 날, 여정 중에는 제나라 역사박물관이 기억에 남는다. 제나라 옛 황성유적지 동부에 자리한 박물관은 외관이 마치 푸른 벽돌로 쌓은 성곽처럼 되어 있다. 일정에 쫓겨 급하게 둘러본 박물관에는 다양하고 진귀한 문물이 전시되어 제나라의 산생, 발전, 흥성과 쇠망사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박물관 근처 임치 하령두촌에 위치한 재경공 순마갱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국군 재경공의 묘로 알려진 이 묘역에는 갑자형의 대형 묘실과 묘도가 있고 여기에서 부장 유물들이 발굴되었는데 특히 순장된 228필의 말이 주목받고 있다. 이 중 105필의 말이 발굴모습 그대로 전시되어 있는데 죽어서까지도 그러된 군주의 권세와 죽어가면서도 주인을 섬기며 시종을 들어야 하는 민초와 마필들의 두려움이 교차되어 묘한 기분이 들었다.

강태공 사당에서는 위수 강반에 낚싯대를 드리운 채 세월을 낚던 여유로움과 경륜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찾아보고 싶었는데 바쁜 일정이 걸음을 재촉하여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찍을 여유도 없이 돌아선

것이 못내 아쉬웠다. 강태공 사당에는 강태공의 모자와 의복을 묻어 조성한 의관총이 있고 강태공과 그 후손들의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태공이 낚시를 했다는 곳이 연못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다시 부지런히 달려 목계 뿔 유방시에 도착했다. 오전 일정 중에 태안의 태산이 있었지만 생각이 많아 답사 감상은 뒤로 미루어 둔다. 늦은 저녁이라 역시 배가 고프다. 입맛에 맞는 김치까지 나왔다. 게다가 옆자리 선생님이 껍소주까지 한 잔 건넨다. 맛있는 저녁이었다. 피곤해서인지 씻고 바로 잠에 떨어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숙소 주변을 산책했다. 연의 도시답게 가로등도 연 모양으로 꾸며져 있고 상가의 인테리어도 연을 활용한 것이 많았다. 가까이에는 연박물관과 판매장도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연축제가 매년 열린다고 한다. 그리고 주차된 자동차에는 우리나라 현대차가 많았다. 중국 현지 생산된 차량이라고 하는데 참 반가웠다. 소형차가 택시로 사용되는데 특이하게 운전석 옆에 범죄 예방용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칸막이가 범죄예방 구실을 하기는 힘들 듯하다. 허용이 되는지 기둥만 있고 칸막이는 없이 운행하는 택시가 많았다.

셋째 날, 연태 용구시에 있는 남산관광풍치지구를 갔다. 여기는 남산대불로 상징되는 종교문화원과 중국역대 왕조의 문화발전상을 순서대로 전시해 놓은 중화역사문화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곳 답사는 문화적 의미보다는 깊은 잠에서 기지개를 켜는 중국의 경제적 잠재성을 읽을 수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한 개인(남산그룹 창업자)이 기업을 일구어 이룩한 성과가 놀랍기도 하고 중국경제의 도약이 두렵기도 했다.

다음 답사지는 영성시 용수도진으로 진시황 사당과 성산두, 동천문

을 돌아보았다. 이곳 사당은 중국 유일의 진시황 사당이라고 한다. 막강했던 진시황의 권력에 비춰보면 사당은 매우 소박하고 규모도 작아 폭정 황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응징이라는 느낌도 들었다.

사당에서 해안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성산두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산둥반도 끝 성산두에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성산두는 중국에서 보면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일출점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위치에서 보면 서쪽 해넘이 끝자락이 되는 곳이다. 문화와 사상의 교차점은 새로운 문화와 사상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그 결과는 시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를 마감하고 다시 석도에 있는 숙소를 향했다. 해안로를 따라 다시마를 말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처리 과정이 매우 불결해 보였다. 강아지들이 돌아다니는 바닷가 맨땅에 어지럽게 널어 건조하는 저 다시마가 우리나라에 수출되어 밥상에 오른다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이다. 호텔 경비원과 통하지 않는 중국어, 영어, 엄포까지 섞어가며 밖에 나가 맥주와 안주거리를 사왔다. 뜻이 맞는 몇몇 선생님들과 바닷가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행을 즐겁게 하는 법, 비용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여행, 장보고 이야기, 학급에서 아이들과의 이야기 등등 밤이 짧았다.

다음 일정을 위하여 늦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바닷가 백사장에 가서 피서 온 느낌을 가져볼 요량으로 아침에 일찍 눈을 떴다. 모래는 고왔고 물은 시원했다. 바닷가를 산책하며 지난밤의 숙취를 날려버렸다. 아침식사 때 향채가 들어있는 중국식 만두에 도전했다. 아무래도 중

국에 한 번 더 와야 가능할 것 같다. 빵과 데운 과일주스로 메뉴를 바꿨다.

석도진 적산 법화원, 이번 답사의 마지막이자 가장 의미 깊은 유적지. 장보고가 세웠다는 그 옛날 법화원은 이름만이 전해올 뿐이고 중창된 법화원에는 기대와 달리 장보고의 흔적이 뚜렷한 것도 아니고 장보고의 의미를 깊게 새겨 볼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었다. 중국기업의 자본과 한국 관광객의 호기심이 빚어낸 상업화된 문화상품이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 조상의 유적지이지만 남의 나라에 있는 유적지라서 건축물 배치 및 답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계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보고의 발자취를 더듬어 찾아보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았다. 더구나 무역왕 장보고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진 유적 적산촌, 신라방, 신라관, 신라소 등의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자칫 학생들이 이곳 답사를 통해 장보고를 불교관련 인물로 오해할까 염려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보고 기념탑이 세워져 있고 장보고 동상이 자리한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어 위안이 되었다.

한반도 남쪽 섬마을 소년 궁복이 당나라 서주의 무령군소장으로, 다시 한·중·일의 해상무역을 책임진 해상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스치듯 살펴보는 법화원 답사만으로는 부족하다. 중국 현지 및 우리나라의 관련 유적을 찾아 정비하고 필요한 부분은 복원하여 체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아울러 이를 학습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다시 답사 이튿날 태산에 올랐을 때를 잠시 돌아본다. 수천 년간 아시아 문화의 패권을 잡아왔던 중국. 그들 사상의 원천으로 여기는 산이 태산이고 우리도 태산을 중국인 못지않게 함부로 오르지 못하는 영산으로 여겨 왔다. 이런 이유로 해서 태산은 무엇인가 범접하기 어

려운 신비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올라갔으나 답사 끝의 느낌은 실망감과 서운함만이 가득했다. 영산 태산은 각종 개발로 경관이 흐트러져 있었고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 아래서 신음하는 유원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설악산의 한 자락쯤 되는 규모의 산에 곤돌라가 사방에 어지럽게 걸쳐져 있고 계획 없이 난립한 여러 종류의 사원과 그 사원에서 피워대는 매캐한 향내, 여기에 잡상인들의 호객행위까지. 이 산이 되만 높다하며 우리르던 그 태산이란 말인가?

그 옛적 장보고도 한 번쯤 이 태산에 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산길을 내려오는데 우리 산하에서도 이맘 때(7월 23일) 흔히 볼 수 있는 노란 꽃 한 송이가 풀 썩 바위틈에 수줍게 피어있었다. 나도 모르게 다가가 ‘원-추-리’ 라고 이름을 불렀다. 내가 이름 불러준 원추리 꽃은 장보고가 활동하던 1200년 전에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있고 천 몇백 년 후에도 여전히 노란 미소를 수줍게 머금은 채 피어있을 것이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주목받을 것도 없는 그 야생화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비로소 내게 와서 꽃이 되었고 내게는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어 장보고 답사의 변함없는 단상이 되어 줄 것이다.

1200년 전 이 땅에 와서 잠시 머물다 간 장보고의 삶과 성취의 흔적을 지금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장보고가 사용하거나 그와 관련된 유물이 대부분 사라져 기억조차 희미한 지금 우리는 왜 장보고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며 그의 생각을 배우려 하는가? 시인 김춘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그에게 다가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노래했다. 우

리도 장보고의 개척정신과 업적에 합당한 이름을 지어 불러야 하지 않을까?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의 나라의 책 속 행간에서 유랑했던 그 웅대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깨워 21세기 글로벌 CEO로 부활하는 날갯짓을 보기 위함이 이번 답사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동안 뜻있는 학자와 기관의 노력으로 해상왕, 무역왕, 청해진 대사, 민족지도자, 국제적 명사로서 장보고의 기상과 큰 뜻을 바르게 이름 짓고 부르려는 시도는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 이 성과물을 교육현장에 가져와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알려줄 방도를 찾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것이고 우리 청소년들이 장보고처럼 큰 뜻을 품고 가슴을 활짝 펴 세계 속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이번 답사 길에 오른 우리 교사들의 몫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그 조그만 실천으로 답사를 통해 담아온 영상과 자료를 가지고 장보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이다. 큰 꿈 키워기는 아이들의 도약에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2006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다녀와서

인천 작전고등학교 강진모

1. 답사에 참가하기까지

내가 장보고라는 인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조금은 엉뚱한 곳에서였다. 대부분 사람들은 책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 자료를 통해서 장보고라는 인물에 대해 알았다고 하지만 나는 좀 달랐다. 학창 시절 즐겨보던 <봉숭아 학당>이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장보고에 대해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맹구’라는 인물은 봉숭아 학당에서도 엉뚱하기로 유명한 인물인데 신라시대 완도에 청해진을 건설한 인물이 누구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마침 옆 짝꿍으로부터 어머님이 언제 오시냐고 자꾸만 물어보는 친구의 질문이 겹쳐져 “아~ 장보고~!”라고 외친 것이다. 물론 맹구는 어머님이 시장에서 장을 보시고 온다는 말이었지만 선생님께서는 정답을 맞췄다며 맹구를 칭찬하셨다. 그 모습을 보고 배꼽을 잡으며 웃었는데

그때부터 나는 장보고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나와는 그런 인연을 맺고 있던 장보고는 그 후 학창시절 국사 교과서를 통해, 그리고 대학시절 전공 서적을 통해서 계속 인연을 지속해 나갔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나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고 전과는 다르게 장보고라는 인물에 대해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입장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공문이 왔다. 해양수산부에서 장보고 답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답사 내용이 괜찮은 듯싶어 용기를 내어 응모해 보기로 했다. 동료 선생님 몇 분과 함께 응모했는데 장보고 답사는 인기가 많아 선발인원에 뽑히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하셔서 별로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다. 응모를 한 후 장보고 답사에 대해 잠시 잊고 있었던 순간 동료 선생님께서 장보고 답사단에 뽑히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씀을 건네주셨다. 그제서야 선발자 명단을 확인하고 나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온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리고 그 후 하나씩 답사를 준비하게 되었다.

2. 답사 첫째 날

전날부터 계속 비가 와서 걱정이었다. 오늘만이라도 날씨가 맑아지기를 기대했었는데, 결국 내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쏟아지더니 잠시 후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이런 악천후는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얼마 후 장보고 답사단 관계자가 오

고 간단한 자료와 여행 모자를 주었다. 장보고에 대한 자료와 답사 일정자료가 들어 있었는데 답사하면서 읽어보니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집합시간이 되어 관계자들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출국 수속을 하였다. 출국 수속이 끝나고 드디어 배에 올랐다. 난생 처음 장시간 배를 타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였다. 배는 생각보다 깔끔했다. 객실에서 짐을 풀고 함께 답사를 가게 된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저녁에는 선상 세미나가 있었고 그렇게 하루가 흘러갔다.

3. 답사 둘째 날

눈을 떠 보니 벌써 중국에 도착해 있었다. 간단하게 조식 후 짐을 정리한 다음 입국 수속을 하였다. 대기하고 있는 버스를 타고 드디어 출발! 장보고 답사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교포 가이드의 맛깔 나는 설명을 들으며 첫 번째 답사지 봉래로 향했다. 봉래로 가는 도중 먼저 연태라는 곳을 지나갔는데, 우리나라의 80년대를 떠올리게 한다던 중국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만큼 발전되어 있고 잘 꾸며진 모습을 보고 놀랐다. 특히 수많은 고급 아파트와 건물, 잘 닦여진 도로 등을 보면서 중국 대륙의 발전 모습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중국이 아닌 듯한 연태의 고급 아파트촌을 지나 목적지인 봉래로 갔다. 봉래라는 이름은 옛날 신선들이 살았다는 전설 속의 바다 가운데 있는 산의 이름이라고 한다. 중국 한(漢)조 때 한무제가 이곳에 와서 이 신선산을 보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선산이 보이지 않으니 경치가 수려한 이곳을 '봉래'라 명하였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봉래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등주수성이었다. 이곳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와 연관이 많은 곳이라 들었다. 고조선에도 이곳을 통해 교역을 하였으며 진(秦)나라 때의 서북도 이곳을 통해 일본 열도로 갔다고 한다. 또한 한나라가 위만 조선을 공격할 때 수군을 파견한 곳도, 고구려와 수·당 나라가 동아시아의 종주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일 때 대규모 수군을 발전시킨 곳도 바로 이 일대였다. 또한 732년에 발해의 장군 장문휴가 수군으로 공격하여 점령하고 자사인 위준을 죽인 곳도 바로 이 등주성이라고 들었다. 그 후 등주는 고구려 유민의 후손인 이정기 세력이 장악하면서 발해 및 신라 교역 등을 관장하였다고도 한다. 등주수성의 모습을 잠시 감상하고 봉래각에 올랐다.

봉래각은 송나라 때 건축된 도관으로 해외 관광객보다는 연대시민 등 중국 관광객이 더 많다고 한다. 어디를 가나 복을 비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중국 사람들의 문화는 복을 기원하는 문화라는 말을 동행했던 교수님께서 하셨던 기억이 난다.

봉래각과 등주수성을 관람 후 등주 고선박물관에 들렀다. 박물관 전시실에는 통나무배, 용선, 차륜선, 모래선, 전투함 같은 다양한 배들의 축소 모형물이 전시되어 있었다. 박물관 견학을 끝내고 다시 버스에 올라 치박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래서 내일 일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까' 하는 걱정을 안고 하루를 마무리했다.

4. 답사 셋째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다행히 비는 그쳐 있었다. 식당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었는데 역시 중국이라 그런지 반찬 종류가 다양했다. 중국 사람들은 땅위에서 움직이는 것 중에 자동차 말고 모든 것을 식재료로 사용한다는 가이드의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오늘 계획상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강태공 사당이었으나 현지 사정으로 인해 태산(泰山)을 먼저 가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국어시간에 배웠던 시조에 나오는 그 태산이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뉘이로다.' 갑자기 그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태산은 우리나라의 한라산보다 낮은 산이다. 하지만 주변이 모두 평지라서 갑자기 우뚝 솟은 태산은 높아보이기만 하기에 중국 사람들이 태산을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중국에서는 예부터 5대 명산을 '오악(五岳)'이라 하였다. 오악(五岳)은 동악(東岳)인 산둥성의 태산(泰山), 서악(西岳)인 섬서성의 화산(華山), 중악(中岳)인 하남성의 숭산(崇山), 남악(南岳)인 호남성의 형산(衡山), 북악(北岳)인 산서성의 항산(恒山)을 일컫는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 태산은 '오악지장(五岳之長)', '오악독존(五岳獨尊)'이라 하여 천하제일의 명산으로 꼽았다. 그 이유는 제왕이 이곳에서 하늘에 뜻을 받는 봉선(封禪)이라는 의식을 거행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또한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 산은 신령스런 산으로서 태산에 한 번 오르면 지상에서 적어도 10년을 장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태산 등정이 숙원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옛날부터 천하제일의 산으로 칭송받아 오듯이 자연경관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신앙의 산으로도 추앙받아 왔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돌비

석 등의 옛 유적과 종묘들이 즐비하여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런 유서 깊은 태산을 내가 직접 오른다고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고 가슴이 벅차왔다. 태산은 얼마 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서 일반인들도 손쉽게 오를 수 있게 했다. 산의 중턱까지는 미니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거기에서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등산 아닌 등산을 했는데 모두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니 태산을 오르는 게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케이블카를 타고 태산의 정상 부근까지 갔는데 가는 도중 케이블카 아래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장관이었다. 특히 케이블카가 안개 속으로 들어가면서 주변이 온통 하얗게 변했는데 정말 내가 구름 속의 신선이 된 듯하였다. 정상에 내리자 온도계가 보였는데 후덥지근한 아래와는 다르게 역시 정상이라 그런지 시원했다. 그러나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끼어 태산의 풍경을 볼 수가 없어 너무 아쉬웠다.

정상인 옥황정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회전하는 돌판 같은 것에 반죽과 계란을 풀어서 부침개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신기해 보였다. 전병 같은 것이라고 주변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맛보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맛보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 옥황정 가는 길에 암벽에 새겨진 글씨들을 보고 ‘저 높은 곳까지 어떻게 글씨를 새겼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무한한 인간의 능력에 다시 한 번 감탄했다. ‘오악독존(五岳獨尊)’이라는 글귀를 보고 태산이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생각해 보니 내가 정말 대단한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다.

옥황정을 가보니 가이드의 말대로 중국의 3대 종교 사원이 모여 있었다. 유교, 불교, 도교의 세 사원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소원을 비는

곳이 있었는데 주변을 원형으로 둘러싼 부분에 자물쇠를 채워놓은 것을 보았다. 나중에 가이드가 설명을 해줬는데 연인들이 태산에 올라와서 자물쇠를 채워놓고 열쇠는 태산의 밑에다 버리면 그 두 연인은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자물쇠를 채워놓는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역시 중국인들은 복을 비는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다.

옥황정을 내려오는 도중 중간에 엽서를 몇 장 샀는데 중국어를 할 줄 몰라 손짓 발짓을 하며 의사소통을 하여 겨우 엽서를 구입했다. 그래도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외국인과 소통했다는 뿌듯함에 기분이 좋아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좀 비싸게 산 것 같아 기분이 좀 반감되기는 하였지만...

케이블카와 미니버스를 갈아타고 태산을 떠나오면서 버스 뒤편에 펼쳐진 안개 낀 모습의 태산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저곳이 무릉도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태산을 떠나 다음 목적지인 제나라 역사박물관으로 향했다. 제나라 역사박물관은 제나라 옛 황성 유적지의 동부에 자리 잡고 있는데, 고성의 대성과 소성이 맞물리는 특수한 모양으로 쌓여 있었다. 박물관은 푸른 벽돌로 지어졌는데 옛 성곽의 모습을 연상시켰다. 박물관 전 시설에는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경제, 문화, 예술, 과학기술, 군사와 민속을 소개해 주고 있었는데 우리를 위해 일부러 열어 둔 듯했다. 우리가 관람을 마치자 바로 전등을 다 꺼버리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짓던 것이 떠올랐다.

제나라 역사박물관의 관람을 마치고 제경궁 순마경으로 갔다. 제경궁 순마경은 춘추시기의 제나라 공후의 큰 묘군(墓群)이었는데 현재 대중형 묘지 2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5호분 주위에

서 세상을 놀라게 한 순마갱(殉馬坑)을 발견하였다. 순마는 두 줄로 나란한 형태로 병렬시켜 머리를 바깥쪽으로, 옆으로 누운 자세로 매장한 모습이었다. 순마갱의 길이와 밀도를 생각해 보면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 순마갱이라고 하였다. 감정에 의하면 매장된 말들은 전마(戰馬, 전쟁시 사용하던 말)로 모두가 수말이라고 한다. 규모가 이렇게 큰 순마갱은 제나라 통치계급의 사치함을 설명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천승지국(千乘之國)’인 제나라 국력의 강성함을 보여주고 있다. 혹시 수업시간에 쓸 일이 있을지도 몰라 몰래 순마갱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으려던 순간 관리원의 제지를 받고 말았다. 중국어로 뭐라고 말하였는데 말하는 모양새를 보니 사진을 찍었으니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것 같았다. 재빨리 두 손을 내저으면서 난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였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뻔한 거짓말이었다. 그 관리원이 그냥 봐준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그냥 지나가서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이 난다.

그 후 강태공 사당으로 갔는데 날이 저물어 가는 상황이었어서 빨리 관람을 해야 했다. 강태공은 중국 역사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지금으로부터 3천 년 전 산둥성에서 태어났다. 위수 강변에서 낚시를 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다가 주나라의 문왕을 만나게 되고, 그를 도와 반란을 꾀하는 도중에 문왕이 죽자 대(代)를 이은 무왕을 도와 끝내 폭군에 시달리던 은(殷)나라를 멸망시켰다.

무왕은 주(周)나라를 세우고 나서 전국을 쪼개어 제후국을 만들고 공이 많은 신하와 형제·친지들을 각 제후국의 왕으로 책봉한 후, 그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한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제(齊)나라의 초대 왕으로 강태공을 책봉하였다.

강태공은 짧은 기간 내에 제나라를 안정시키고 발전토록 추진하여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방을 굳건히 하고 중국 최초의 병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제나라 초대왕을 기념하기 위해 강태공이 썼던 모자와 옷을 옛 제나라 수도인 오늘의 치박에 묻었는데, 이것이 의관총(衣冠塚)이라고 한다. 이곳의 앞면에 강태공 사당을 만들었던 것이다. 강태공의 후손들에 의해서 여러 성씨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 수가 상당히 많았다. 특히 강태공이 나와 같은 성씨인 강(姜)을 쓴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날이 저물고 어두워져서 관람이 어려워지자 다시 버스에 올라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5. 답사 넷째 날

숙소에서 일어나 유방에서 남산으로 이동했다. 중국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중국에서는 3~4시간 정도 이동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30~40분 정도 이동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말이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다.

남산에 도착하여 남산 종교문화원으로 향했다. 남산 종교문화원은 불교를 중심으로 도교와 유교 문화의 정수를 살려 세워진 종교문화단지로서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었다. 우리나라의 소도시 정도의 규모인 것 같았다. 이 넓은 부지에 남산사, 남산대불, 향수암, 남산도원, 영원암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특히 남산대불은 높이가 38.66미터이고 무게는 380톤에 달해 세계 최대의 좌불 동상으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 대불상 밑에는 만불동, 불교 역사박물관이 장관을 이루었다. 만불천에는 9,999개의 작은 불상이 있는데 남산대불상과 합쳐서 만불천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모두 남산그룹이라는 단체에서 만들었다고 하니 더욱 놀라울 따름이었다. 이 거대한 좌불상을 관람한 후 바로 남산 중화역사문화원으로 향했다.

중화역사문화원은 중국 역대 왕조의 문화와 발전상을 순서대로 모두 볼 수 있는, 중국에서 유일한 곳으로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컸다. 원시시대, 춘추시대, 진나라, 당나라시대 등 시대마다 특징이 다른 중국 왕조의 건축을 많은 역사 문화 자료를 토대로 복원해 놓았고, 5천여 년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표현해 놓았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중국의 소수 민족으로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아마 '와족' 이었던 것 같다.) 가이드의 설명으로는 일생동안 단 3번밖에 목욕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생김새는 좀 동남아시아 사람들같이 생겼는데 목욕을 하지 않아서인지 까무잡잡해 보였다. 태어날 때, 결혼할 때, 그리고 죽었을 때에만 목욕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목욕을 하지 않았는데도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정말 신기했다. 그리고 만리장성을 그대로 재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마치 진짜로 만리장성에 간 것처럼 설정해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를 웃음 짓게 만들었다.

남산에서의 견학을 마치고 다시 영성으로 향했다. 영성에는 오늘의 마지막 관람 장소인 진시황의 사당과 성산두가 있었다. 먼저 진시황 사당으로 갔는데 진시황 사당은 원래 진시황(秦始皇)이 동쪽으로 순찰을 하며 머물렀던 행궁이라고 한다. 그것이 후에 백성들에 의해 시황묘로 복구되었고 현재는 중국에서 유일한 진시황 사당이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진나라 때의 암석 외에도 몇 점의 청나라 때의 문화재들이 있었다. 진시황의 사당에도 마찬가지로 소원을 비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역시 중국 사람들은 복을 기원하는 문화가 보편

적으로 발달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진시황 사당을 견학한 후 조금 옆에 있는 성산두로 갔다. 성산두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라 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중국의 희망봉' 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또한 성산두는 예로부터 군사의 요충지로서 백제를 치기 위하여 소정방이 13만의 수군을 거느리고 출발한 항구라고도 하였다. 전 중국 총서기인 호요방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천진두' 란 회호를 남겼는데 이는 '하늘이 끝나는 곳', '육지의 끝' 이라는 뜻이다.

진시황의 불노장생초와 관련된 전설과 함께 진교유적, 사교대 등의 유적지가 있다. 특히 진시황 때 불로초를 구하러 떠난 도사 서복의 선단이 제주도까지 왔었다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날이 갑자기 흐려져 안개가 짙게 깔려 제대로 관람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아쉬웠다. 이번 답사기간 내내 계속 안개와 함께해서 유물과 유적을 제대로 볼 수 없어 너무 아쉬웠다.

이곳 성산두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즐거움은 바로 우리나라의 소주 '참이슬' 의 변형인 '참일슬'. 처음 이것을 발견하고 너무 재미있어서 웃음을 참지 못하던 것이 생각난다. 역시 중국 사람들의 상술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았다. 더 웃긴 것은 이걸 발견하고 사진을 찍으려던 나를 공격적으로 제지하던 그 판매원의 태도였다. 사진 찍었으니 빨리 사라라고 하던 그 판매원의 태도 때문에 처음에는 당황하였으나 지나고 나니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다. 성산두를 마지막으로 넷째 날도 그 일정을 마무리해 갔다.

6. 답사 다섯째 날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석도에서 보내고 마지막 답사지를 찾아갔다. 어느덧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 아쉽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그리운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기쁘기도 하였다. 마지막 답사지는 이번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 유적지라 할 수 있는 장보고 기념관과 적산 법화원이었다.

장보고 기념관은 약 3억 위안(한국돈으로 약 360억 원)을 들여 조성했다고 한다. 총 5채로 구성된 이 장보고 기념관은 장보고를 통한 한·중 우호와 교류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높이 8미터, 무게 6톤의 거대한 장보고 동상을 비롯하여 적산 법화원, 장보고 기념탑 등이 있었다.

먼저 관람한 곳은 적산 법화원이었다. 법화원은 당나라 시기, 신라인 장보고가 지은 것으로 창립 초기에 《법화경》을 읽었다 하여, 유래된 것인데 당시 산동에서 규모가 제일 큰 불교사원이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먼 옛날에 적산은 온통 붉은 것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여기에 사는 적산신(赤山神)이 오가는 선박들의 안전을 가져다준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불공을 드렸다고 한다.

역사서에는 당나라 전성시기에 신라인 장보고가 출세를 위해 당나라로 불법 이민을 하였다고 한다. 그 후 장보고는 당시 산동성 서주 절도사 휘하 주력부대인 무령군의 군중소장(1,000명 병사를 지휘하는 장교)으로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은 장보고는 신라 흥덕왕 3년에 신라로 귀국하여 청해진을 창설하고 대사를 봉해 받음으로써 한·중·일 삼국의 해상무역을 독점하고 한·중·일 간의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하여 해상무역왕으로 불리었다고 한다.

장보고는 해상운송사업이 번영하기를 기원하면서 적산에 불교사찰을 지어 많은 스님들을 모셔와 《법화경》을 읽어 '적산 법화원(赤山法華院)'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이후 838년에 일본 스님 엔닌 대사 일행은 견당사로 입당하여 법화원에서 3년 가까이 묵으면서 법화원의 많은 신세를 졌고 그것을 고마워하여 일본으로 건너간 후 많은 기록을 남겼다는 말도 들었다. 그러한 기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란 여행기이다.

법화원을 둘러보던 중 마침 일종의 이벤트 같은 것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대한 불상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청동으로 만든 거대한 불상이 하나 있었는데 주변에는 분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한눈에 범상치 않은 불상임을 알 수 있었다. 잠시 후에 중국어로 방송이 나오고 갑자기 분수가 솟구치더니 불상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서는 불상의 아래 부분에서 4명의 동자승이 나오더니 잠시 후엔 4명의 사천왕이 입에서 화염을 토하기 시작했다. 분수가 마치 노래를 부르듯이 솟구치는 등 정말 장관이었다.

이 청동좌불의 이벤트를 관람하고 '남산명신'이라고 불리는 청동좌상을 보러 갔다. 이 좌상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제작되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뭐든지 작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 한다면 중국 사람들은 뭐든지 크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 남산명신을 보고 난 후 마지막으로 장보고 기념관에 들렀다.

장보고 기념관에는 총 5개의 전시관이 있었는데 모두 장보고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만든 전시관들이다. 장보고의 교역 활동과 군사적 활약, 그리고 마지막엔 작년(2005년)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사극 〈해신〉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다. 사람들 모두 중국에서도 한국의 모습을 찾아본 것에 대해 신기해하는 모습이었다. 장보고에 대

한 전시물을 관람하고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서둘러서 버스에 올랐다.

이렇게 해서 해상왕 장보고에 대한 답사는 끝을 맺었는데 중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쇼핑! 기념품을 살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가이드는 대안으로 중국의 마트에 우리를 데려다 주었다. 그런데 이날 말 그대로 한국인의 습격으로 그 중국 마트는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를 몽땅 판매했다는 후문이 들렸다. 역시 한국 사람들의 저력(?)은 대단했다. 나도 기념으로 동료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중국산 술(‘마오타이’라고 불리우는 술)을 하나 구입했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시 석도항으로 돌아왔다. 한국으로의 출국 수속을 마치고 다시 배에 올랐다.

7. 답사를 마치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5박 6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번 답사에서 얻은 수확은 상당히 많았다. 우선 중국의 다양한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밭농사, 특히 어디를 가든지 드넓게 펼쳐진 옥수수 밭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버스로 몇 시간을 달려도 끝없이 이어진 옥수수 밭은 중국의 넓은 영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중국의 음식문화도 이색적이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옷차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대신 먹는 것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 같다. 항상 많은 종류의 음식들을 차려서 먹는 중국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식도락을 즐기는 사람들인 것 같다.

답사를 다니는 기간 동안 장시간 버스로 이동하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중간 중간에 봤던 장보고에 대한 영상자료들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법화원과 장보고 기념관에서 우리 민족의 가능성을 발견했으며 후에 학교로 돌아가서도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얘기를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해양수산부와 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다.

장보고, 그 기록함이어!

진천 만승초등학교 최윤희

첫날, 서울역.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어준다며 둘째 딸아이는 서울역까지 배웅했다. 지하철 서울역을 빠져 나오는데 여기저기 늘어서 누워있는 노숙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버스 승강장에 올라서니 이번엔 불쾌한 구걸을 하는 남녀 노숙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나이의 부녀자들에겐 행패까지 일삼았다. 옆으로 유유히 지나가는 경찰 순찰차는 노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안녕을 지킨다는 사명으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30분여를 기다려 인천 연안부두행 1600번 버스에 올랐다. 신촌-경인고속도로-인천구월동-석바위-시민회관-제물포-연안부두. 1600번 버스는 결혼 후 대구에서 경기도로 발령받아 올라온 후 내가 살아온 객지 인생 역사를 뒤집어 보듯 20년 인생 코스를 그대로 가고

있었다. 터미널 안에는 소란스런 한국인과 중국인 보따리 장사들의 시커먼 짐꾸러미들로 인해 어둡고, 불결함마저 느껴졌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그렇듯 인천 연안부두 국제 제1여객터미널에도 무언가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우리 집단에도 있었다. 환전을 위해 씨티은행 앞을 서성이는데, 더 좋은 조건으로 환전해 주는 곳이 길 건너에 있다는 소식을 어느 여선생님이 들려주었다. 퇴약별에 10분여의 발품을 팔아 3,000원 정도의 이익을 보았다. 그리 즐겁지는 않았으나 해외여행의 기분을 내보는 것이었다.

승선 시간이 1시간여 늦어졌지만 조급할 것도 없었고, 느긋하게 사람 구경을 즐겼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남녀노소의 교사들은 갖가지 의 옷차림과 얼굴 표정과 몸짓 등으로 생소함을 서로 익히려 하는 것 같았다.

이번 2006년 장보고 유적 답사 4차 답사단에서 나는 1번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51년생. 나이 56세는 이미 늙은 사람인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낯선 환경에 접하면 뭐 하나라도 놓칠세라 설치됐는데, 이런 느긋함을 즐기는 행복으로 여유로웠다.

승선 후 배정된 방으로 들어가 보니 작은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고, 예쁘장하고 선량한 3명의 여교사들이 활짝 웃었다. 얼마 만에 누려보는 행복인가!

5박 6일간 이 최윤희를 장보고 답사단임을 증명해 줄 이름표 목걸이를 걸고 1층 식당에서 중국 남자 조리원의 시커먼 손으로 만든 학교 급식 수준의 저녁식사를 하였다.

식당에서 서해의 낙조를 보았다. 그리고 잠시 가족들을 생각하고 길 떠난 나그네의 상념에 빠져 보았다. 갑판에 올라가 점점이 떠 있는 섬들의 불빛과 석양과 밤이 교차하는 하늘빛의 아름다움에 취해 사진

을 찍었다. 이미 핸드폰은 수신도 발신도 되지 않는 메모 기능뿐이었다. 갑자기 두고 온 가족들이 보고 싶어졌다. 난 이래서 늙어서도 아이들과 떨어져서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식당에서 이번 답사의 오리엔테이션과 답사 후원 기관의 소개가 있었다. 조별 모임을 가지라는 권유가 있었지만, 멀리 지방에서 아침 일찍 떠나와 하루 종일 힘든 여정이었던 우리조 선생님들은 휴식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화동웨리호에서의 1박은 별 불편함이라곤 없었다. 난 꿈도 꾸지 않고 폭 잤다.

8월 12일

뱃고동 소리에 눈을 떴다. 서둘러 갑판으로 나갔다. 배는 망망대해에 떠 있고, 열은 안개인지 구름인지 시야는 넓지 않았다. 조금 후 배 후미 쪽 하늘의 구름 위로 해가 보인다.

‘그래, 우린 동쪽을 뒤로 하고 서쪽을 향해 가고 있어.’

멀미로 작은 구토가 일었다. 화장실로 뛰어갔지만 더 이상의 구토는 없었다. 아침식사를 하고 나니 멀미도 완전히 가라앉고 기분도 좋아졌다. 출발 전 며칠 동안 출발하기 전 한 주일 동안 치과 치료 때문에 죽만 먹어서인지 심한 변비를 느꼈다.

곧 이어 하선을 하고 중국 여객터미널을 통과하는데, 선글라스를 낀 나는 가방을 열어 보이고서야 통과되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크고 높은 목소리의 말과 굳은 표정과 초라한 옷차림, 시커먼 피부의 중국인들이 중국 땅에 들어 왔음을 알려주었다.

석도항 도착 오전 10시 30분. 석도항은 상가와 왕래하는 차량과 사람들이 있는 인천항과는 너무 달랐다. 하선장에 배치되어 있는 여객터미널 직원의 경직된 태도는 아직도 중국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느끼게 했다.

대기하고 있던 버스는 시설 좋은 관광버스에 익숙해진 우리가 보기엔 초라했지만, 냉풍기, 커튼, 의자 젖히기, 마이크 시설 등 있을 건 다 있었다. 키 큰 위따꺼(위씨 형님) 기사는 트렁크에 짐도 넣어주고, 미소를 지어 보이는 등 친절했다. 버스가 터미널을 빠져 나오면서, 누런 흙먼지와 검붉게 탄 피부와 굳은 표정의 남루한 차림의 남자들, 그리고 더위와 피약별은 기대에 찬 나에게 사고를 마비시키는 나른함마저 느끼게 했다.

승차하자마자 나름대로 말쑥하게 차린 현지가이드는 중국 역사와 지역에 관련된 정보들을 화장지 폴دت 폴어냈다. 현지가이드 전홍섭 씨는 조선족 3세로 자신이 한국말과 중국말을 할 수 있어서 관광 가이드로 일하게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문득 1200여 년 전 이 땅에 신라인들이 살았듯, 전홍섭 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석도의 옛 이름은 적산포(赤山浦).

‘출발!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답사의 출발이다.’

설레는 맘으로 뿌연 먼지가 이는 창밖을 보았다. 넓은 평야엔 길쭉큰 빛의 옥수수가 끝없이 심어져 있었고, 길가엔 줄기가 가느다란 포플러가 줄지어 자라고 있었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그 포플러는 이쭉시개나 나무젓가락의 원료로 쓰여서 농촌의 주수입원이기도 하란다. 또 가이드는 산둥지방의 자연과 중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산동지방의 자연환경은 최고 기온 30도씨 이내 최저 10도씨 이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논농사보다 밭농사를 주로 하고 있단다. 빨간 벽돌집이 대다수인데, 이는 멀리 역사 속에 강태공이 빨간 기(旗)를 썼다고 하여 빨간색이 행운을 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음식은 짜게 먹고, 차 문화는 커피가 없고, 보리차를 주로 먹으며, 나쁜 수질 때문에 온수를 먹는단다. 이동 중에 현지 생수가 지급되었다. 조잡스러운 얇은 병에 뚜껑이 맞지 않아 물이 줄줄 흐르기도 해서 위생 상태가 의심스러웠다. 교통규칙은 속도위반과 주차위반만 적발하고, 중앙선 침범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연태시에도 도착하였다. 관광도시라고는 하나, 해변에는 몇몇 사람들 뿐 한산하였다. 일찍이 유럽인들이 진출한 곳으로 세계 건축물을 한 눈에 구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단다. 한국화교의 15퍼센트가 이곳 연태 출신이며, 사과와 100년 전통의 와인, 쌍마표 열쇠 생산지로도 알려져 있다고 한다.

점심으로 먹은 첫 중국 음식은 의외로 입에 맞았고, 푸짐한 식탁에서 10명이 대화를 나누며 잘 먹었다. 중국 상차림이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먹는 중국 식생활 문화를 잘 나타내는 것 같았다. 포만감과 행복감이 밀려왔다.

봉래각은 누각과 부처님을 모신 사찰이 있고, 계단을 오르니 등주 수성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멀리 시가지가 보이는데, 옛 신라방이 있던 곳이란단다. 망망 바다와 이어진 그 널찍한 곳에서 옛 신라인들은 신천지에서 꿈을 이룰 포부에 얼마나 분주히 살았을까? 한참을 내려다보며 상념에 젖었을 때 장난기 많은 어느 남선생님께서 멋진 자태를 한 방 찍어 주시겠다고 함박웃음을 지으시며 카메라를 들이댔다.

내일의 일정을 위해 숙소가 있는 치박으로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서 말로만 듣던 중국 과일을 샀다. 가이드에게 배운 짧은 중국어로 손짓발짓 하며, 천원에 복숭아 7개를 샀다. 물 사정이 나빠 쭈쭈 흐르는 화장실 수도물에 겨우 씻어서 차에 올라타니 불품없는 못난이 복숭아가 제법 달아서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들 하였다.

문둥시에는 한국인이 많고, 코리아타운과 함께 기업체를 건설할 예정이라 한글로 된 반가운 표지판도 볼 수 있었다. 치박의 다소 어두운 밤거리엔 더위를 식히러 길에 나와 앉아 있는 시민들이 많았다. 중국엔 공원에서 스포츠 댄스를 즐기는데 밤 10시 30분엔 종료한다고 한다. 국민 개인 건강을 위한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치박의 호텔은 훌륭한 걸모습과는 달리 룸은 평범하였다. 호텔을 '주점(酒店)' 이라고 표기한 것이 신기했다. 석식 후 방으로 올라와 씻자마자 잠이 쏟아졌다.

8월 13일

핸드폰 시각을 잘못 보아서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났다. 곤히 잠든 룸메이트까지 깨우며 씻고 화장하고 밖에 나와 보니 아무도 없었다. 옆 방 벨을 누르니 부스스한 눈을 부비며 4시 50분이란다. 1시간 40분이나 일찍 일어난 것이다. 나이 많은 노인네 주책인가 미안하고 무안하였다.

5시 30분, 밝아오는 치박의 아침. 거리를 걸어보고 싶었다. 간간이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보였다. 그리고 택시들은 가끔 지나갔고, 신호등은 신호가 바뀔과 동시에 초 시간을 점등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신호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처럼 잠 못 이룬 사람인지 눈에 익은 남자 선생님(후에 추범 선생님이란 이름을 알았다)께서도 카메라를 들고 호텔 앞에서 서성이셨다. 서로 호텔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주었다.

호텔에서의 아침식사는 반가운 빵이었다. 내가 여나쁜 살이었든가? 이웃에 살던 중국집에 놀러 가면 야채국과 함께 가끔 맛보았던 아무것도 들지 않은 커다란 밀가루 찐빵. 반가움에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때의 그 달콤함을 찾을 수 없었다. 이미 버터와 설탕과 계란에 익숙해져 있어서겠지? 밀가루 빵도 달콤했던 우리의 가난했던 60년대 어린 시절, 아침식사로든 푸짐하고 너무 든든하게 먹었다. 연이은 푸짐한 식사로 나의 변비는 서서히 사라졌다.

그런데 한 가지 불상사가 생겼다. 나의 룸메이트가 신용카드와 신분증과 얼마의 위안화를 잃어버린 것이다. 어디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2시간 30분을 달려 오늘의 첫 일정인 태산 입구에 도착하였다. 조금의 허기를 불량식품 아이스크림으로 달랬다. 케이블카를 타고 800개의 계단을 올랐다. 주변 경관을 감상하면서 오르는 길은 힘들지 않았다.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을 보게 되었다. 특이한 것이 남자들이 상의를 벗거나 앞단추를 열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옆을 스쳐지나갈 때마다 역한 체취와 누렁고 검으면서 튀어나온 복부를 보는 것이 고역이었다. 우리 어릴 때도 아저씨들이 옷을 벗고 다니기도 하고 속옷 바람으로 골목길에 다니기도 했었다는 생각이 났다.

예로부터 임금님과 제후들이 줄지어 이곳 태산을 찾아서 중국에서 태산은 오악 중의 으뜸으로 영험한 산으로 숭상되고 있단다. ‘오악독존’ 푼말을 찍으려다 줄지어 기념 촬영하는 관광객들 때문에 포기하였다.

사당 뒤편에는 연인들이 사랑의 언약으로 채워 둔 자물쇠가 그득하였다. 그 자물쇠의 주인들은 모두 언약을 지켜 사랑하며 잘 살고 있었지? 굵고 긴 향을 사르고 우리 둘째 입시 성취를 기원하였다. 멀리 중국에 와서도 자식 생각하는 나 자신에 만족하고 마음은 한량없이 즐거웠다. 나 몰래 가방에 끼워둔 둘째 아이의 메모 카드가 가슴을 찢릿하게 했다.

“엄마, 여행 즐겁게 다녀오세요. 맛있게 드시고 좋은 구경 많이 하세요. 우리끼리 식사도 잘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태산의 3미(味)는 물, 배추, 두부라고 한다. 기대와는 달리 점심식사는 빈약했고, 조리가 늦어 한 점씩 나오는 바람에 양도 모자라서 불만스러웠다. 식당 앞에서 거봉 포도와 피자두를 샀다. 농산물의 품종 개량 등 기술이 모자라서인지 맛이 영 아니었다.

이어서 제나라 박물관을 찾았다. 출토유물의 보존 상태와 사진 촬영 허용 등 방만한 유물과 유적 때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순마경 입구의 마을 골목길은 흙먼지와 잡초와 낙서들로 초라하고 어수선했다. 길에 모여 앉아 카드놀이 하는 옷옷을 벗은 남자들, 무표정한 여자들과 아이들의 모습에서 궁금중은 사라지고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었다.

옥수수 밭길을 빠져 나와 치박시 한가운데에 위치한 강태공 사당으로 향했다. 강태공의 후예들이 여러 가지 성씨를 이루었는데, 그중에 노(盧)씨도 있어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이 이곳에 와서 꽃을 바친 사실을 자랑스럽게 사진과 함께 전시해 두었다. 전직 대통령이라 하여도 개인이 아니라 이미 국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생각 없이 자존심도 없이 그랬다니 한심하다. 동행하신 김 교수님께선 강태공 사당에 있었던 삼족오(三足鳥)를 찾으려 애썼으나 없다고 하셨다.

우리가 유방시에 도착했을 때는 주위가 어두웠다. 유방시는 세계 연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가로등도 예쁜 나비 모양으로 빨강고 노랑게 꾸며져 있었다.

저녁식사 후 1조 조모임을 가졌다. 소문난 중국 발마사지도 해보고 어디 분위기 있는 곳에서 한 잔 해보리라 했으나 호텔 내에 있는 시설들은 9시가 넘으니 문을 닫았고, 거릴 나서자니 중국에서의 무서운 사건을 전해들은 터라 내키지 않았다. 객실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조선족 총각 덕분에 노래방까지 진출하였다. 규율에 벗어난 행동이 아닌가 생각도 했지만 우리 8명의 조원들은 모두 원하고 있었다. 함께한 중국인은 실내화 공장 사장님이며, 조선족은 가까운 창리 시청에 근무하는 한국인 통역관 임영호 씨였다. 그는 무척 친절하고 선량했다. 우리 모두를 회사 봉고 차로 안내했고, 1시간여 노래방에서의 여흥이 끝난 후 호텔까지 함께 봉고차로 돌아왔다. 우리 모두는 감사한 마음으로 임영호 씨에게 인사를 하였다.

장보고가 당나라에 처음 들어와 신라방 사람들의 보호를 받듯, 우리 동족에게서 받은 친절이 정말 감사했다. 우리나라에서 연변 조선족에 대한 편견과 무시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도 했다.

우리는 주최 측에 이 밤의 행각을 15일 오후까지 비밀로 하기로 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8월 14일

5시 20분 기상, 6시 30분 호텔 체크아웃.

아침식사에 나온 우유를 먹었다. 아, 그런데 생우유가 아니고 전지

분유였다. 콩국은 아주 고소했다. 늦은 저녁식사의 배고픔을 위해 꽃빵 1개를 조심스레 가방에 챙겼다. 중국 식당에서의 불편은 냅킨을 충분히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유방을 뒤로 하고 치박에 있는 남산으로 향했다. 남산은 그 지역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장씨家が 중국 역사의 큰 전당으로 꾸민 것이었다. 대불은 그 위용이 대단하였다. 높은 계단을 오르는데,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이 새겨져 있었다.

선대원고관, 춘추관, 진시관, 당나라관, 모조 만리장성 등 넓은 산자락을 이용하여 중국 역사를 볼 수 있게 꾸며져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전시장의 조도가 어둡고 청소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중국 곳곳이 공통적인 것 같았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는 옛것에 대한 경건함보다는 음침함을 주는 것 같았다. 선대원고관 앞에서 잠깐 관람한 소수민족 민속춤과 노래는 신비감보다는 측은함이 느껴졌다. 우리나라의 민속춤을 찾는 선진국 관광객도 그렇게 생각할까?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줘야 하는 것이다.

점심식사 후 진시황 사당과 성산두가 있는 영성으로 이동하였다. 진시황은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는 과업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중국 역사상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기원전 210년 50세의 나이로 사망한 후, 얼마 가지 못하여 진제국의 화려한 역사는 끝나고 말았다.

지금도 인공위성에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인공 구조물이라는 1만2천7백리의 만리장성, 사치의 상징으로 거명되는 길이 690미터, 폭 114미터의 아방궁, 무수한 호화유적을 남긴 진시황제 무덤(높이 약 70여 미터, 동서 약 600미터, 남북 200여 미터), 그 외에도 무

수한 건축물이 조성됐다. 보이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왜 몰랐을까? 중국인들이 그렇게 자랑으로 삼는 진시황 사당도 어두컴컴한 가운데 곰팡이 냄새와 단청도 되지 않은 단조로운 시황의 형상만이 지키고 있었다.

오후 5시 57분. 공중 화장실 문은 잠겨 있었다. 관리인들이 6시 퇴근이라 잠근다고 했다. 내일 아침 9시라야 문을 연다니 정말 황당했다. 아직도 사회주의적 제도와 사고가 남아 있는 중국.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급하지도 않고, 변화하지 못해 안달하지도 않는다. 다만 중국을 표적으로 접근하려는 열강들이 안달하는 것이다.

진시황 사당 광장에는 동쪽 바닷가 성산두(중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뜬다는 곳)를 바라보고 서 있는 진시황의 동상이 있었다. 그 동상은 삼족오를 뒤로 하고 있었다. ‘아! 고구려전’에서 나를 감동케 했던 삼족오가 거기 있었다. 도대체 우리 민족과 삼족오와 중국은 무슨 관계인가? 꼭 찾아보고 밝혀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성산두는 운무에 싸여 신비스러움을 느끼게 했다.

석도 호텔에서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맞이했다. 동아일보에서 마련한 석식 후 잠깐의 여흥의 시간이 있었다. 세화고의 우 선생님의 즉흥 사회로 행운과 함께한 장보고 답사의 여운을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호텔 내의 발마사지실에서 시원한 발마사지도 하였다. 마사지실의 자욱한 담배연기와 사용하는 수건의 청결 등 개운치는 않았다.

8월 15일

오늘은 장보고 유적지를 답사하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안개 낀

석도 해변과 해수욕장의 고요함. 산책길에 우리조 선생님을 만났다. 같이 해변을 걸으며 빨간 돌도 주워 아침식사 전에 우리 조원에게 1개씩 나누어 드렸다.

장보고 기념관은 영성시와 중국 정부가 장보고를 통한 한·중 우호와 교류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3억 위안(약 360억 원)을 들여 7,000평방미터 부지에 총 5채로 구성되어 있고, 높이 8미터, 무게 6톤의 거대한 장보고 동상을 비롯하여 적산 법화원, 장보고 기념탑 등이 있다.

오전 11시 시각을 알리는 찬불가와 함께 웅장한 관음보살의 장관을 볼 수 있었다. 함께 한 동아일보의 기자님들과 경이로운 부처님의 세계를 감득하였다.

적산 법화원!

적산은 물에 젖으면 붉은색을 띠는 돌산이란 뜻의 지역 이름이고, 법화원은 법화경을 모셨다는 데서 지어진 장보고가 창건한 사찰로 당시 신라인의 마음의 등대였고, 안전항해의 기도처이며, 이곳에서 신라인의 교류와 화합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우선 나는 그 웅장하고 평화로움에 온 몸과 마음이 젖어들었다.

신라에서 몸을 피하여 당나라로 들어 온 장보고가 그 능력을 발휘하여 1,000여 명이나 되는 군사를 지휘하는 무령군소장 자리에 있었으니 신라방의 신라인에게는 큰 힘이 되고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였으리라. 군의 감축에 의해서 장보고가 군에서 물러났다는 말을 들으니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국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의 중국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중국 외교의 색깔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법화원 뜰에서 김덕원 교수님의 자세한 역사적 사실과 안내를 들으

면서 1200년 전 그의 영역이었던 이곳에 앉아있는 한국인 최윤희 나 자신에 깊은 감회와 숙연함이 밀려왔다.

완도 청해진을 거점으로 보다 넓고 활발한 무역과 세계로 향한 도전과 글로벌 정신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귀감이 된다. 당시 장보고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어려움이 깊숙이 내재되어 있었던 모든 가능성과 능력을 장보고 스스로 발현하도록 한 것이다. 장보고의 대단한 용기와 능력 뒤에 인간적인 고뇌가 얼마나 컸을까? 인천 해양소년단의 이름으로 새겨진 기념비를 보면서 앞으로 장보고 재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였다.

장보고 기념비는 1991년 한국성신여대 교수이자 세계한민족연합회 회장 최민자 교수가 적산 법화원에 왔다가 한민족의 선각자 장보고 대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것으로 1994년 7월 24일에 준공되었으며, 탑의 의미는 한·중 양국의 친선이 영원함이라고 한다. ‘張保臯紀念塔’ 여섯 글자는 김영삼 대통령의 친필 휘호이다.

훌륭하고 웅대한 ‘적산명신’이 장보고 대사라고 생각하기 싫은 중국인들이겠지만 내 가슴의 ‘적산명신’은 장보고이다. 다만 적산 법화원의 재건에 일본이 엔닌 선사의 유적과 관련된 곳이라 해서 관여했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서운하였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하고 있었나? 왜 우리나라 청해진에는 장보고의 유적이나 기념관 하나도 건립되지 못하고 있나?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장보고에 대한 관심과 역사적 의미의 재조명이 너무 늦지나 않았는지, 문득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 청해진이 있던 완도 앞바다에 하루 빨리 기념관이 들어서고, 유적지를 복원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역사를 소중히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새기게 되었다.

장보고, 신라 무역왕, 청해진, 완도

이 네 단어가 내가 알고 있던 장보고의 모두였다.

중학교 입시과목이 국어, 산수 두 과목으로 축소되면서 중학교부터 시작된 역사 공부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장보고 관련 내용은 위의 네 단어면 충분했다. 그러나 2006년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답사를 다녀온 후 그에 대한 표현은 바로 금지 그것이었다.

점심식사 전에 테이블 어디에선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건배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국땅에서 맞이한 광복절, 애국애족의 맘이 저절로 솟아나는 듯했다. 국내에선 정치인과 정부를 원망하기도 하고, 교통위반 일등국이라는 등 불평도 많았는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게 생각되었다. 우리 민족은 잘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장보고의 후예답게 세계에서 잘난 민족으로 우뚝 설 것이다.

점심식사 후 승선 준비, 가이드의 핸드폰을 빌려 임영호 씨에게 출발 인사 전화를 하였다. 임영호 씨는 아주 반가워하면서 서로 연락하고 재회의 기회를 기대하고 있었다.

대합실에선 한바탕 선물 구매 소동이 있었다. 그리고 검은 보따리 상인들과 신라인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들 나름대로 오늘날 열심히 무역활동을 하고 있으니….

다시 화동훼리호.

첫날의 만남의 시간과 달리 우린 이미 한지붕 한술밥으로 친근한 가운데 선상의 시간을 보냈다. 저녁 우리조 모임이 있었다. 이번 답사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친교의 시간이 되었으면 했는데, 후배 교사에 대한 선배 교사의 가르침의 시간이 되어 다소 어색했다. 이래서 선생은 말이 많다고들 했던가. 교육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가 될 수도 있

다는 생각도 하였다.

8월 16일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나눌 인사도 없다는 듯 선생님들은 현실로 총총히 돌아가고 있었다. 뜨거운 태양은 내리쬘고 장보고의 후예, 신라인의 후예, 최윤희도 현실로 돌아왔다.

우리조의 홍 선생님은 낮선 인천에서 다시 전남 낙안까지 가야함에 불안스러움이 있는 듯했다. 홍 선생님과 용산역까지 동행한다는 핑계로 노숙자들의 무법천지인 서울역을 거치지 않고, 1호선 제물포역—서울역 4호선 환승—사당역 코스로 집으로 돌아왔다.

장보고 답사는 내 일생 잊혀지지 않으리라. 그 많은 감동과 느낌을 오래 잊지 않으리라.

그리고 대한민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리라.

자랑스런 장보고여,

장보고, 그 거룩함이어!

●장보고 유적지 답사 메모

- 장보고는 활달하고 지혜롭고 지도력이 있는 우리 민족의 영웅이다.
- 우리 민족의 자취는 우리가 적극 계승 보전해야 한다.
- 지난 역사를 바르게 알고, 지금의 역사도 바르게 전달해야 한다.
- 초등교사로서 나 최윤희는 위의 바른 역사관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 중국은 예나 지금이나 고집 세고 욕심 많다.
- 후진국의 문화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를 다시 살펴 보자.

해상왕 장보고 중국 답사 기행문

대전 충남고등학교 유영조

2006년 해상왕 장보고 중국 답사 공문을 보고 신청하고 싶었지만 작년에 신청했다가 선발되지 못했고, 올해는 담임인데다가 방과 후 학교 수업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하지만 같은 교무실의 역사 선생님이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몇 시간을 맡아 주신다고 하셔서 어렵게 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꼭 선정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고 그 예감은 들어맞았다.

출발 일주일 전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미리 해상왕 장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답사 유적지와 일정을 살펴보면서 2006년도 일정도 출력하여 보았다. 또 장보고 유적지 중 한국의 완도 장도, 장좌리, 강진, 완도 등의 유적지도 살펴보고 뱃길도 유심히 살펴 보았다. 또한 학교에서 기말고사 이후의 시간적 여유를 잘 활용(?)하여 나름대로 인터넷으로 준비물과 중국의 현지 사정도 살펴보았다.

7/21(금) 드디어 출발하는 날

오전 1, 2교시 방과 후 학교 수업이 있는 관계로 출근 전부터 마음이 무척 바빴다. 수업을 끝내고 점심도 먹는 등 마는 등 11시 40분 인천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기대를 가득 안은 채로, 2시간 20분 정도 후에 인천에 도착, 바로 연안 여객터미널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간단히 안내물을 기념사업회로부터 받고 연안 터미널 객실에서 쉬면서 환전(원화40,000→위안화 310원 정도)도 하고,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장사를 하시는 상인(일명 보따리상)들의 바쁘고 활기찬 모습에서 나도 이번 해상왕 장보고 중국 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것을 배워오리라 다짐했다.

오후 5시, 출국 및 승선을 위한 수속이 시작되었다. 6시 10분경 미리 배정된 화동훼리호 310호에 들어갔더니 먼저 오신 세 분의 선생님(마산중앙중 김영구, 제주 남녕고 오영훈, 목포 홍일중 정성민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 주셨다. 세 분 모두의 자상하신 모습에서 성격이 내성적인 나는 안심이 되었다. 저녁식사 후 세미나실에서 답사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듣고 선상 갑판에서 룸메이트인 오영훈, 김영구 선생님께서부터 답사 여행에 관한 좋은 말씀을 들었다.

7/22(토) 둘째 날

밤새 고요한 바다 때문인지 편안히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니 배가 석도항에 접안해 있었다. 선상에서 보는 석도항은 항구 주변의 갈매기나 부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여느 항구 같

아서 낮설지 않아 좋았다. 아침식사 후 간단히 짐을 챙겨 입국 수속 후 연태로 가는 버스를 타고 2시간 30분 정도 달렸다. 가는 도중에 얼 굴 예쁜 3호차 가이드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 밭 을 보면서 인사 겸 산동지방에 대한 친절하 설명을 해주었다.

산동지방은 강수량이 많지 않아(연 700밀리미터 정도) 주로 옥수수 나 땅콩 재배가 많고, 산지가 30퍼센트, 평지가 70퍼센트이기 때문에 가도 가도 끝없는 평원이며, 주변의 집들은 벽사(辟邪)와 행운(幸運) 그리고 중국의 국기인 오성기 등의 영향으로 붉은색이라고 했다. 참 고로 이곳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파란색 지붕이다.

연태에서 점심을 먹은 후 다시 버스를 타고 1시간 30분을 더 달린 끝에 진시황제가 불로장생초를 구하기 위해 왔었고, 서복(徐福)이 불 로초를 구하고자 배를 타고 떠난 성산각이 있는 봉래(등주)에 도착했 다. 봉래(등주)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당 시대 고구려 침략의 해군 발진 기지이자 신라관, 발해관이 설치된 지역으로 설명된 지명이라 매우 관심이 컸던 곳이다.

첫 답사지인 봉래각은 여러 전각들(삼청전, 천후궁, 용왕궁)과 모셔 져 있는 상(像)들에서 이곳이 도교사상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해안에 아름답게 축성된(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등주 수성의 빼어난 모습과 고선박물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 는 삼국시대 초기의 배 모형과 원형이 잘 전시되어 있었다. 그 후 4시 간 동안의 버스여행 끝에 축구의 발원지인 임치(치박)에 도착, 중국에 서의 첫 번째 여장을 치박 제도 호텔에 풀었다.

7/23(일) 셋째 날

오랜 버스타기가 고단했던지 호텔에서의 첫밤은 꿈도 꾸지 않고 편 안히 잤다. 아침 6시 기상 후 잠시의 여유시간에 오늘 답사할 곳을 룸 메이트인 정성민(목포 홍일중) 선생님과 살펴보았다. 오늘도 상당히 많은 거리 이동과 유적지를 보게 되는 강행군이었지만 꼭 가보고 싶 은 태산 등정이 있는 날이라 기대도 무척 되었다.

오전 일정을 약간 조정하여 먼저 태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버스 로 3시간 정도 이동 중에 가이드의 태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예부 터 산동에는 일산(一山: 泰山), 일수(一水: 黃河), 일성인(一聖人: 孔子)이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도 평생 한 번 오르기 힘든 곳이 태산이 라 했다. 또한 태산은 중국의 오악(五岳: 東-泰山, 西-衡山, 南-華山, 北-恒山, 南-衡山) 중 으뜸인데 그 이유는 대대로 중국 황제들 의 봉선의식이 행해졌기 때문이라 했다.

태안에 도착, 버스를 갈아타고 태산으로 갔다. 멀리 보이는 태산의 모습이 장대하고 높았지만 가이드의 말로는 높이가 1,545미터 정도밖 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가는 도중에 가이드가 갑자기 시조를 한 수 읊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뒤흔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지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뒤흔다 하더라.

제법 흥취에 겨워 읊는 모습이 무척 그럴 듯해 보였다. 태산 밑에 도착, 스키장의 곤돌라처럼 생긴 케이블카를 타고(10여 분) 올라가는

동안 펼쳐진 모습이 장관이었다. 태산에 올라 일천문(壹天門)－중천문(中天門)－남천문(南天門)을 지나 옥황정까지 올라가면서 규모의 방대함과 중국 사람들의 무모함(?) 정도의 노력에 그저 감탄할 따름이었다.

그 후 다시 치박으로 이동하여 뛰어난 병서인 《육도(六韜)》를 지은 주대의 강태공 사당과 제나라 역사박물관을 살펴보았다. 또한 순마갱(제나라 영공)을 보았다. 춘추전국시대는 말의 보유 수로 나라의 강성 정도를 평가했는데 순마갱은 춘추시대 제나라의 국군(國君)인 제경공의 묘에서 발견된 600여 마리의 말 무덤이다. 두 줄 나란한 형태로 머리를 바깥으로 하고 옆으로 누운 자세로 만든 말무덤이다. 특이한 것은 모두 수말들로 생매장했다는 것이다. 이후 숙소가 있는 연(鰲)의 도시 유방에 도착하여 석식 후 유방 부화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7/24(월) 넷째 날

아침 6시경에 깨었다. 어제 늦게까지 답사를 한 까닭인지 몸은 천근만근. 하지만 기분은 날아갈 듯했다. 어제 본 태산의 모습이 아직도 아른아른하다. 아침식사 후 2시간 정도 걸려 남산으로 이동했다. 중식 후 남산 종교문화원과 불교박물관이 있는 높이 38.8미터인 남산대불을 견학하고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다.

남산 종교문화원은 규모는 웅장하고 화려한 채색이 돋보이나 너무 현대적이고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 거부감이 생겼다. 다만 복도(회랑) 중간에 전시한 그림이 중국의 역사와 인물을 묘사하고 또한 가이드의 자세한 설명이 그나마 도움이 되었다.

남산 중화역사문화원을 들렀다. 원고관의 원시생활부터 춘추관의 방대한 유물, 춘추전국시대를 처음으로 통일한 진시황의 유물이 있는 진시관, 당나라관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전체적으로 전시된 유물이 많고 시대별로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적어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없어 아쉬움이 매우 컸다. 다음에 다시 올 기약도 없는데….

곧바로 영성으로 이동, 진시황 사당을 보았는데 우리나라의 사당과 별 차이는 없었다. 다만 향내음이 짙고 중국인들의 진시황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만 제외하고는 말이다.

근처에 있는 성산두로 갔다. 시원한 바닷가에 위치한 진시황과 이사, 서북의 동상과 바닷가의 비경이 매우 아름다웠다. 특히 일몰의 정경과 어울려 아련한 정취를 풍겨왔다. 이곳에서 바쁜 역사적 유물 견학에 지친 눈의 피로를 말끔히 풀고 석도로 이동하여 석도빈관에 여장을 풀었다. 이제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이다.

7/25(화) 다섯째 날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아침에 더욱 일찍 눈이 떠졌다. 오늘은 일정에 여유가 있어 더 자도 되는데… 느긋하게 샤워 후 짐을 정리하고 객실 밖의 광경을 보았다. 창밖으로 부산하고 바쁘게 변화하는 중국의 모습이 보였다. 하늘로 올라가는 빌딩, 한창 공사 중인 건물과 가게들, 쪽쪽 뚫고 있는 도로나 확장 공사 중인 도로 등. 만만디라고 하는 중국이 참 무섭게 변화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느껴졌다.

룸메이트인 정성민 선생하고 이번 답사에 대해 가볍게 얘기하면서 아침식사를 했다. 오늘은 장보고 기념관과 기념탑, 적산 법화원의 견

학이 있었다. 법화원은 신라시대 장보고(張保臯)가 당나라 산둥반도의 적산촌(赤山村)에 세운 절이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장보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장보고는 일찍이 당에 들어가 무령군소장(武寧軍小將)을 지냈으나, 귀국한 뒤 흥덕왕에게 청해진(淸海鎮) 설치를 요청하여 대사(大使)로 재임하면서 그곳을 근거지로 해적을 소탕하고 신라·당·일본 사이의 무역을 독점했다.

또한 동행한 교수님이 적산 법화원의 유래나 위치 등에 대한 재미있는 설명도 곁들여주셨다. 법화원은 신라방(新羅坊)에 세운 신라원(新羅院)으로서 해외포교 활동과 본국과의 연락기관 구실도 했다. 도당승(渡唐僧)들이 많은 혜택을 입었으며 법청(法淸)·양현(諒賢)·성림(聖琳) 등 30여 명의 승려들이 이곳에 상주하기도 했다. 일본의 유명한 구법승인 엔닌도 이곳에서 몸을 의지했다.

장보고 기념관을 살펴보았다. 아담하게 자리한 산자락에 지어진 장보고 기념관은 해상왕 장보고를 기념하고 그 웅지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한 사람들의 의지와 장보고의 일생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드라마 〈해신(海神)〉의 내용 등이 잘 전시돼 있었다. 아담한 규모의 기념탑을 돌아 적산 법화원에 도착하였다. 단지 작은 사원에 불과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엄청난 규모에 놀랐다. 교수님들의 설명을 들으며 법화원을 견학하던 순간 어마어마한 크기와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관음보살상을 보고 벌어진 입을 닫지 못했다.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분수 쇼가 매우 장관이라는 얘기를 들었기에 쇼를 보고자 다른 선생님들과 얘기를 하며 쉬고 있었다. 드

디어 정각 11시, 보살상 주위의 분수가 높아지고, 주위 동자상이 서서히 돌면서 분수 쇼는 시작되었다. 위에서는 사면동자(?)가 서서히 안으로 들어가면서 불과 물의 조화, 사방으로 돌면서 세상 사람들을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구하려는 듯 관음보살의 약함에서 물이 쏟아지고, 분수는 안개를 피우면서 더욱 화려해지고…。 중국 답사에서 최고의 장관을 보면서 내가 꼭 불교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가슴 벅찬 느낌을 안고 마지막으로 꼭 이방인 같은 거대한 장보고상을 견학하였다. 또 그 안의 불교박물관을 보면서 중국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느끼는 불교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적산 법화원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맛있게 먹고 석도항에 도착, 입국 수속을 마쳤다. 선상에서 쉬면서 선생님들(마산중앙중 김영구, 제주 남녕고 오영훈, 목포 홍일중 정성민)과 중국 답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나는 관광이 아닌 답사이기에 일정이 쉼 없이 계속되어 몸은 피곤했지만 나에게는 중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말씀을 드렸다. 교과서에서의 지식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항상 부족한 2퍼센트를 느꼈던 나에게 이번 답사 여행은 그 부분을 채워주는 뜻 깊은 기회였던 것 같았다.

2006년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기행문

대구 인지초등학교 한혜경

뜻밖의 행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소한 경품도 걸려본 적이 없는 나에게 동료 선생님의 권유로 장보고 유적지 참가신청서를 낼 때에만 해도 설마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참가신청서를 내고 바쁜 일로 잊고 있었는데 뜻밖의 행운의 소식을 들었다. 장보고 유적지 참가자로 뽑혔다는 것이었다. 다른 선생님은 안 되시고 혼자 당첨되어서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었고, 다른 선생님들께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우연하게 참가신청서를 낸 것이라서 막상 참가자로 뽑히고 나니 내가 장보고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도 알았다.

내가 알고 있는 장보고란 바다의 신과 같은 존재로서 무역을 했다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사실 <해신>이라는 드라마가 그렇게 유행할 때도 잘 보지 못했는데 그때 잘 봐둘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장

보고, 중국에 관한 책을 읽으며 들뜨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기다렸다. 그러나 너무 준비를 안 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다.

7월 28~29일,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들뜬 마음으로 동대구역을 출발하여 이번 여행에 함께 갈 두 선생님과 함께 서울로 향하였다. 그 두 사람은 내가 이번 여행에서 얻은 큰 선물 중 하나이다. 서울역에 도착하여 연안부두로 향하였다. 캐리어를 끌고 있었지만 들뜬 마음 때문에 짐의 무게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었다. 1시간 간격이 있는 1600번 버스를 타고 연안부두로 출발하였다.

연안부두에 도착하니 비가 무척 많이 내렸다. 나의 중국 답사를 시샘이라도 하는 것인가. 인천 국제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니 우리말고도 이번 여행에 함께 하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다. 이렇게 지역도, 학교도 다양한 선생님들을 한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니 설레었다. 대구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였는데 6시쯤이 되어서야 승선 수속이 시작되어, 드디어 화동훼리에 올랐다. 사실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지루하였지만, 갑판 위에서 맑은 바닷바람이 벌써 나를 중국에 데려다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오랜 항해 끝에 8시에 중국에 도착하였다. 중국은 우리나라 시간에서 1시간을 빠르면 된다. 웬지 1시간을 버는 느낌이 들었다. 석도에서 연태로 2시간 이동하였다. 중국이 그야말로 거대하다는 것이 실감이 되었다. 중국에서의 이 정도 이동은 아주 기본적 이동이었었던 것이다.

새로운 낯선 곳의 풍경이 너무 신기하여, 어린아이마냥 유리창에 붙어 바깥 구경하기 바빴다. 카운트 다운이 되는 신호등, 중앙선을 넘어 가는 아찔한 운전, 첫 중국식 식사도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왜냐하면 가기 전에 중국 음식이 느끼하여 먹기가 거북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연태 식당에서의 중국 음식은 먹을 만했다. 또한 새로운 중국 음식 문화도 신기하였다. 오랜 전통을 상징하는 이가 빠진 그릇들, 계속 나오는 음식들, 도수가 낮은 중국 맥주, 음식의 끝에 나오는 탕 등의 낯설음이 좋았다.

식사 후 봉래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봉래각, 등주수성, 고선박물관을 관람하였다. 사람이 매우 많아서 가이드가 확성기를 가지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확성기를 가지고 있어서 설명이 잘 들리지 않았다. 봉래각이 있는 이곳 등주지역은 장보고 시대에 장보고 선단이 들렀던 곳이라고 한다. 이는 만큼 보인다는데 평소에 관심 있는 곳이 아니라 단순히 답사 직전에 책을 통하여 접한 것이어서 눈길 이 많이 가지는 않았다. ‘좀 더 지식을 쌓고 왔더라면 좋았을걸.’ 하는 후회가 들었다. 다행히 차에서 이동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역사이야기가 지식이 부족한 나에게 무척 도움이 되었다. 거기에 현지가이드의 중국에 대한 설명도 흥미로웠다. 처음에 현지가이드의 말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아마 모든 주어에 ‘이 가’를 붙여서인 것 같다. 나중에는 적응이 되었지만, 말은 우리말인데 중국 억양으로 하니 조금 다른 언어로 들리는 것 같았다.

10시가 다 되어서 대주점(중국에서는 호텔을 대주점이라고 하고 일반 음식점을 주점이라고 부른다.)에 갔다. 내일을 기대하며 중국에서의 첫날밤 잠을 청하였다.

7월 30일, 태산이 높다 하되

일정상 치박으로 먼저 이동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동거리상 태산을 먼저 가기로 하였다. 조삼모사라고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었지만, 덜 지루하게 느껴졌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뒷산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일이 꼬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전화위복이라고 오히려 경치가 더 좋은 앞산 케이블카를 이용하기로 하고 태산에 올랐다.

우리가 그렇게 시조에서만 읊었던 그 태산을 오르게 된 것이었다. 태산은 실제적 높이보다는 중국인의 마음에 높은 산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정상까지의 길이 돌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나에게도 실제 태산은 무척 높았다. 태산을 한 번 오르면 10년은 젊어진다고 하는데 힘든 등산길에 10년은 늙은 듯했다. 걷고 케이블카를 타서 올라간 태산은 진짜 신선들이 사는 곳처럼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어 한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신비하기도 하고 으스스하기도 하였다. 안개 자욱한 산을 보고 “산이 보여주기 싫어하는데 인간이 어찌 볼 수 있겠느냐.”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다. 신비로움을 안고 있기 때문일까 정상의 옥황정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태산 가는 곳곳에 유명인들이 새겨놓은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한자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글귀의 의미를 파악할 텐데, 나의 짧은 한자 실력이 아쉬울 따름이었다.

점심을 먹은 후 치박으로 이동하여 ‘제나라 역사박물관’을 관람하였다. 중국 제나라 문화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전시되어 있었다. 그 다음 순마갱으로 갔다. 순마갱은 말의 순장이었는데 굉장히 거대한 규모와 일렬로 나란히 같은 모양으로 있는 모습에 놀랐다. 제나라

통치계급의 사치함과 국력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는 하나 말이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만약 순장을 당한다면 기분이 어떠했을까? 도망치지 않았을까? 권력이라는 것이 조금 무섭게도 느껴졌다. 다음은 중국 역사상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인 강태공 사당으로 갔다. 강태공 사당은 실제의 무덤이 아니라 강태공이 사용한 모자 등을 가지고 세운 의관총이라고 한다.

유방으로 이동 후 휴식을 취했다. 내일 일정을 확인하며 내일은 또 어떠한 일이 있을까 기대하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침대에 누웠다.

7월 31일, 남산, 영성

여행에 지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과 달리 아침 일찍 눈이 떠졌다. 중국에서의 3일째 아침이다. 이제 어느 정도 중국 음식에도 익숙해진 듯하다. 아침을 먹고 2시간을 달려 남산으로 이동하였다.

남산은 역사상 오래된 유적지라기보다는 인공적으로 관광지로 만든 곳이라고 한다. 남산에는 남산대불이 있었는데 동양에서 가장 큰 좌불상이라고 하였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카메라 한 화면에 담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컸다. 남산 문화원 안의 9,999개의 작은 불상과 이 남산대불을 합해서 만불천이라고 한단다. 문화원 안에는 어마어마한 수의 작은 불상이 놓여 있었는데 진짜 9,999개가 맞는지 세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 다음 중화역사문화원을 방문하였다. 이곳은 시대에 따른 중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었다. 5천 년이 넘는 중국의 역사가 이곳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것 같다. 또한 중국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자니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곳에는 중국 문화재 중 가장 유명한 만리장성도 있었다. 물론 모형으로 만들어진 만리장성이었지만, 그 위에서 사진도 찍었다. 정말 북경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중국은 일본과는 반대의 느낌으로, 무엇이든지 크고 화려한 것 같다. 비록 모형 만리장성이지만 생각보다 규모가 꽤 컸다. 모형이 이 정도이면 실제로는 얼마나 클까, 실제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을 먹은 후 영성으로 이동하였다. 성산두는 인천의 닭 울음소리가 이곳에서 들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천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한다. 날씨가 맑으면 우리나라가 보인다고 하는데 이날은 안개가 끼어 있어서 주변이 자욱하였다. 이곳도 우리에게 감출 것이 그렇게 많은가? 중국에서는 안개 낀 날이 많았던 것 같다.

성산두에는 진시황, 서북, 이사라는 사람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동상이몽이라고 같은 자리에 있는 세 사람이지만 서로의 생각은 다르겠지? 마치 내가 그 시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라도 할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곳 바위 중 '천무진두'라는 글자가 새겨진 비석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다. 원래 처음에는 '천진두'라고, 하늘이 끝나는 곳이라고 새겼으나 이것을 보고 간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겨 올해 천자 다음에 '무'자를 붙였던 다.

맛있는 저녁 만찬을 먹은 후, 공식적인 중국의 마지막 밤을 그냥 보내기 아쉬워 호텔 안의 발마사지를 받아보았다. 여행에서 지친 발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다. 꽤 좋은 경험인 것 같다.

8월 1일, 장보고의 숨결을 느끼며

일정이 여유 있는 중국에서의 마지막 여행이다. 이제 조금 중국을 알까 했더니 벌써 떠나야 하다니 아쉬웠다. 마지막 날 호텔은 바닷가 근처라서 아침을 먹고 근처 해변가를 거닐었다. 바닷바람이 선선하고 여유로워서 좋았다. 발가락에 닿는 모래의 감촉이 부드럽고 좋았다.

짐을 챙겨서 나온 후, 장보고를 느낄 수 있는 적산 법화원으로 출발하였다. 적산 법화원은 장보고가 지은 곳이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함께 답사 여행을 한 선생님들과 단체사진을 찍었고 교수님의 장보고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명쾌하고 재미있는 설명에 장보고에 대해 어렵게 가나마 알게 되었다. 적산 법화원에서는 마침 관세음보살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답게 굉장히 크고 웅장하였다.

또한 적산대명신이라는 불상을 보았는데 중국에서 바다의 해신 같은 존재란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본 KBS 역사스페셜에서 소설가 최인호 씨가 그 적산명신이 장보고가 아닐까 추측해서인지 적산대명신이 웬지 친근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장보고의 기념관과 탑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있다는 것이 장보고의 후손으로서 자랑스러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씁쓸하였다. 그나마 〈해신〉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장보고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몇십 년 후에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장보고의 숨결과 업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상상해 보라는 말씀을 듣고 가슴이 뭉클하고 자랑스러워졌다.

드디어 중국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다. 한 번 탔던 배라서 그런지 다시 화동훼리에 오르니 너무 편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던 한 호실

의 선생님과 이제는 꽤 친해져 있었다. 오늘 저녁이 지나면 언제 이런 만남을 통해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 낯선 곳에서의 문화. 모든 것이 아마 오늘이 지나면 다시 만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8월 2일, 다시 한국으로

저녁에 배가 몹시도 흔들렸다. 갑판에 잠시 나갔었는데 강한 바닷바람과 거친 파도에 무척이나 놀랐다. 적산대명신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그래서인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바다가 잔잔하였다. 장보고 유적지 답사단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환영하기라도 한 것처럼. 이제 정말 하선하면 모든 일정이 끝이다.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통해서 물론 장보고라는 인물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되고 아이들에게 장보고라는 위대한 개척자를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을 얻은 것도 좋았지만, 여러 지역의 선생님과 여행사 사람들 등 새로운 많은 인연을 알게 되어서 무척이나 기쁜 여행이 되었다. 또한 그 여행을 통하여 처음 출발할 때 같이 떠났던 두 사람과는 더욱 더 친근하게 가까워져서 이 일정이 끝난 후에도 계속 만남을 가질 것이라는 좋은 예감이 들었다. 좀 더 많은 지식을 알고 가서 많은 것들을 알고 왔으면 좋았겠지만, 마음으로 몸으로 느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지고 보람 있는 답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

2006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기행문

인천 장도초등학교 신윤경

“띠리리리~”, 익숙한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누구지?’ 하는 생각으로 발신번호를 확인했더니 서울전화이다. 서울에서 누가 전화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며 기대 반 불신 반으로 전화를 받았다. 상냥하고 예쁜 여자의 목소리…. ‘홍, 또 광고전화구만?’ 이라는 생각이 스쳐 끊으려는 순간 반가운 한 단어가 들려왔다.

“장보고 유적지 답사 신청하셨죠?”

헉! 막상 신청은 했지만 신규인데다 워낙 경쟁률이 높은지라 감히 기대도 하지 못했었다.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상기된 목소리로 여행사 직원에게 호들갑을 떨었다. 전화 처음 받을 때 목소리와 장보고 유적지 답사란 말이 나온 후의 목소리가 너무나 다르니 여행사 직원이 얼마나 웃었을까? 전화를 끊고 진정이 된 후 생각하니 살짝 민망해 웃음이 나왔다. 이제 정말 가는 거다! 상상치 못한 행운을 갖게 되었으니 답사 출발 전부터 의욕이 넘쳐났다. 이전 출발 차수 답사단들

이 올린 정보는 없는지, 내가 가게 되는 장보고와 산동반도에 대한 정보는 없는지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정보의 바다를 헤매느라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그만큼 나는 너무 기쁜 마음에 흥분되어 있었다. 날씨가 다가올수록 문득문득 드는 답사 여행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으니까.

제1일 인천→석도

드디어 출발일이 다가왔다. 전날 오후 3시 30분까지 인천 제1여객터미널 한미은행 앞으로 집합하라는 연락을 받고 집에서 출발했다. 다행히 집이 인천이라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편하게 가니 그에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여객터미널 앞에서 기념 모자도 받고 각종 답사자료와 부채까지 받았다. 다음 집합시간인 5시까지 언제 기다리나 싶었는데 나누어준 자료를 읽다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다. 처음엔 무작정 가서 배워와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 답사 자료들을 읽으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답사할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 좋았다.

배에 탑승해서 짐을 풀고 조원들과 인사하고 저녁식사를 한 후 바다를 보러 나왔다. 캄캄한 대양 위에 우리가 탄 배가 바다를 가르며 만들어 내는 하얀 물거품을 바라보며 그 옛날 도당을 위해 이 바다를 건넌 신라인들과 이번 답사의 주인공인 해상왕 장보고를 생각했다. 그들도 이 바다를 건넌으리라. 우리가 지금 가는 것처럼…. 내 마음 한 구석이 무언가로 꽉 차오는 느낌이 들었다.

제2일 석도→치박

아침에 일어나 씻고 준비하니 벌써 배가 석도항에 도착했단다. 내가 도착한 이 석도항이 장보고 당시 적산포였으며 신라와 일본, 당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국제 무역항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옛 명성과는 달리 석도항은 작고 조용한 시골 항구였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점심을 먹은 후 첫 번째 목적지인 봉래각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펼쳐지는 중국의 시골 풍경은 어쩔 그리 똑같은지! 민둥산에 모든 집은 빨간 지붕에 1층이었다. 중국인들이 진짜 빨간색을 좋아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그런 이유도 있지만 빨간 벽돌이 제일 싸기 때문이란단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 규격이 있어 모든 집이 비슷하다고 한다. 이렇게 중국 풍경을 감상하고 있는 사이 어느새 봉래각에 도착했다.

봉래각은 외적의 침략을 막고 바다의 용왕님을 모시려고 송대에 건립된 건축물이다. 봉래각을 보고 처음 든 생각은 멋있다고보다는 ‘예쁘다.’는 것이었다.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길게 쌓은 인공적인 성벽과 건축물이 주변 자연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마치 내가 8신선 중의 한 명이라도 되는 양 봉래각을 올랐다. 가장 높은 누각까지 올라가 밑을 바라보니 주변 경관이 황홀하고 그 위에서 쉼은 바람은 한 여름에 에어컨 바람처럼 시원했다. 봉래각을 왼쪽부터 올라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신선이 된다는 얼토당토않은 말이 있더니만 신선만이 누릴 수 있는 호황을 누릴 수 있기에 그 말이 전혀 틀린 말도 아니다. 봉래각을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이 끝났다. 중국이 넓긴 정말 넓더라! 중국 땅의 아주 일부분인 산둥반도만을 보는 데도 이동시간이 이리 기니.... 4시간 정도를 이동하여 호텔에 도착했다.

제3일 치박→태안→유방

중국에서의 두 번째 아침을 맞았다. 첫 번째 일정은 태산이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티끌 모아 태산’, ‘갈수록 태산’ 등 수많은 말을 낳았던 그 말로만 듣던 태산! 케이블카의 힘을 빌려 태산에 올랐다. 진시황으로부터 역대 군주들은 황제로 등극한 후 반드시 태산에 올라 제사를 지내 하늘에 알렸다고 한다. 또 태산은 황제가 태평세계의 실현을 신에게 보고하는 의식인 봉선(封禪)의식이 거행된 곳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진정으로 덕이 있는 황제만이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유사 이래 진시황, 한의 무제, 당의 현종 등이 봉선을 했다고 한다. 그 귀하신 황제들이 험한 산을 올랐다니 짧은 생각으로 대단하다 생각했건만 가마를 타고 올랐다고 하니 생각이 180도 바뀐다. 그 높고 험한 산길을 가마를 들고 올랐을 가마꾼들을 생각하니 말이다.

여기저기 바위와 돌벽에 붉은 글자가 새겨져 있고 그 높은 곳에 갖가지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었다. 진시황 얘기를 들어서인지 놀라움도 놀라움이지만 그 놀라움 이면에 드는 생각에는 케이블카도 없고 오르기 편하게 계단도 없었을 시절에 착취당했을 엄청난 노동력이다. 그러나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여하튼 태산에 지어진 건축물들과 자연경관은 세계 유네스코가 선정한 자연문화유산인 만큼 대단하고 멋졌다.

태산 정상 입구에서 천가(天街)를 지나 올라가면 명나라 때 지어졌다는 옥황상제의 궁전인 옥황정이 나온다. 그날따라 날씨가 뿌연 안개가 자욱하니 특수효과를 만들어 옥황정을 더욱 신비롭게 보이게 했다. 수많은 말들을 낳았던 태산이 얼마나 높을까 했더니 1,545미터로

기대를 저버린다. 중국은 4,000미터가 넘는 산들이 즐비하다는데 그에 비해 아기산인 태산이 왜 중국인들에게 높게 생각되었을까? 산동성 구릉에서는 최고 높은 산이라고 하지만 아마도 험한 산길을 무거운 짐을 들고 날랐을 착취당한 백성들에게 태산은 끝이 없을 것만 같은 높은 산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예부터 신앙의 산으로 추앙받던 태산을 한 번 오르내리면 10년을 장수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믿었다는데 비록 반 기계의 힘을 빌렸지만 나도 태산을 오르내렸으니 10년은 더 무병장수할 거란 욕심을 부려본다.

강태공 사당에 가기 전 강태공이 초대왕이었던 제나라 역사박물관을 찾아갔다. 제나라 역사박물관은 제나라 옛 황성 유적지의 동부에 자리 잡고 있는데, 고성 of 대성과 소성이 맞물리는 특수한 모양으로 쌓여 있다. 푸른 벽돌로 지어진 박물관 내부에는 여러 진귀한 유물들과 모형, 사진, 도표 등이 제나라의 역사, 사회, 문화, 경제, 예술뿐만 아니라 산생, 발전, 흥성, 쇠망사를 보여주고 있었다. 한때는 흥했을 한 나라가 이제 역사가 되어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생각하니 잠시 모든 게 부질없다는 염세론자가 되어 버린다. 그러나 중요한건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겠는가? 훗날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하나의 역사로 접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이 되어야 하니까 말이다.

강태공 사당에 가기 전 제나라의 유적지 중 하나인 제경궁 순마갱을 찾았다. 그 말로만 듣고 책으로만 접했던 잔인한 순장의 현장을 직접 찾는다는 생각에 다소 흥분되었다. 무언가 거대하고 웅장한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을 거란 기대와는 달리 제경궁 순마갱은 작은 시골 마을 안에 소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제나라 제경궁의 묘로 여겨지는 제경궁 순마갱은 1964년과 1972년 앞뒤로 84미터를 발굴하였는데

순마 228필이 발견되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순마갱의 전 길이와 현재 발굴된 밀도로 계산을 해보면 약 600여 필의 말이 매장되어 있을 거라고 한다. 긴장된 마음으로 순마갱을 들어섰다. 육중한 철제 계단을 내려가니 유리로 덮여 마치 모형물처럼 느껴지는 말들이 보인다. 하나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거의 같은 크기의 말들이 뺄뺄하게 묻혀 있었다. 모든 말들이 전마로 사용된 수말이었다 하니 대단한 규모이다. 그러나 거대하고 웅장하다는 느낌보다는 이상하게도 애처롭다는 느낌이 더 들었다. 여하튼 순마갱은 당시 제나라 국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리고 제경궁이 얼마나 재력 있고 강한 인물이었는지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당시 지배계급의 사치스러움까지 말이다. 알려진 이미지와는 달리 진시황은 자신의 묘에 모형들을 묻었다는데 갑자기 진시황이 특별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노씨, 전씨 등 여러 성씨들이 모두 강태공의 후손이라는 가이드의 설명에 너도 나도 강태공의 후손이라고 하며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강태공 사당으로 향했다. '강태공'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낡아빠진 모습이다. 위수강변에서 낚시를 하며 기회를 기다리다 주나라의 문왕을 만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일화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가? 그나마 강태공은 139세까지 살았다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당시 수명은 현대인의 수명보다 훨씬 짧은 시대인데 그 시대에 139세라니 뭘 먹고 뭘 하고 살았는지 궁금해진다.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고구려의 장수왕은 오래 살아서 훗날 장수왕이라 불렀다는 말씀을 하셨다. 아하! 부끄럽게도 이때까지 난 그 장수가 그 장수인지 정말 몰랐었다.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었으려나? 강태공 사당에서 강태공의 초상을 보니 기골이 장대하다. 한 나라의 시조이자 정신적 스승인 인물에 딱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모든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가 있는 유방으로 향했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연의 도시인 유방은 야경이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제4일 유방→남산→석도

호텔에서 나와 첫 번째 목적지인 남산으로 향했다. 그동안 다녔던 시골 길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는 중국 특유의 풍경이 펼쳐진다. 활력 있고 생기 있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골프와 스키로 잘 알려진 남산에 도착했다.

전체적으로 도시 분위기가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멀리서부터 거대한 남산대불이 보였다. 저 높은 곳에 저런 불상이라니 놀라워 입이 저절로 딱 벌어진다. 남산대불을 보기 위해 올라가는 동안 펼쳐지는 콘도와 골프장 그리고 호수 등의 경치는 마치 유럽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 남산대불을 직접보고 그 위에 올라가 보기 위해서는 꽤나 차로 올라가야 했는데 멀리서도 그 위엄을 알아보긴 했지만 바로 앞에서 보니 두 배로 입이 떡하고 벌어진다. 세계 최대의 불상이라더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컸다. 마구미들을 진정시키는 남산대불의 손동작을 따라하며 사진도 찍어봤다. 그 큰 불상이 마구미들을 부드럽지만 강한 눈길로 응시하고 있으니 마구미들도 감히 미처 날뛰지 못할 것만 같다. 남산대불 위에까지 올라가보니 남산 시내 풍경이 한눈에 펼쳐졌다. 저 넓은 도시 전체가 송씨 성을 가진 젊은 갑부의 것이라고 하니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중국이 자본주의화 되어가는 모습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뒤로 한 채 남산대불에게 소원을 빌고 다음 코스

인 중화역사문화원을 찾았다. 이곳은 한국인 관광객을 겨냥하여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고 한다. 아직 여기저기 공사 중인 곳이 있었는데 그 규모와 시설로 보아 곧 자리가 잡히면 주요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을 듯하였다. 맨 처음 우리를 기다린 것은 외국의 공연이었다. 공연의 주요 내용은 사냥이었는데 여자가 동물이고 남자가 사냥꾼이 되어 박진감 넘치는 공연을 선보였다. 좀 꼬아서 생각하자면 여자가 남자보다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임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아쉬웠지만 문화는 문화로 인정해야 하는 법, 순수하게 공연 자체만 생각하기로 했다. 중국의 시대별 문화를 살펴보고 가이드의 말 따라 ‘짜퉁’ 만리장성도 구경하며 마치 진짜 만리장성이라도 온 양 사기 사진을 찍느라 다들 신이 나 있었다.

남산 호텔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진시황 사당과 성산두로 향했다. 진시황 사당은 원래는 진시황(秦始皇)이 동쪽으로 순찰을 하며 머물렀던 행궁인데 후에 백성들에 의해 시황묘로 복구되었고 현재는 중국에서 유일한 진시황 사당이다. 여기에는 진조(秦朝) 암석 외에도 몇 점의 청대(清代) 문화재들이 있다. 그렇게 강력한 왕권을 이루었던 진시황이 그 넓은 중국 땅에 하나의 행궁만 두었다는 것이 조금은 의외로 여겨진다. 진시황 사당에는 태양신에게 제사지내는 곳도 있고, 석가모니와 열세 명의 제사상을 모신 불전도 있어 도교와 불교가 혼재해 있는 것이 특이했다. 몇 명의 도사들이 진시황 사당을 지키고 있었는데 바다와 가까워서인지 자욱한 안개가 다시 한 번 신비로운 특수 효과를 만들고 있었다.

진시황 사당을 나와 조금 올라가니 성산두가 나왔다. 성산두는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중국의 희망봉’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마치 우리나라 제주도의 성산일출봉과 비슷한 느낌이

다. 맑은 날이면 우리나라의 닭울음소리가 이곳까지 들린다고 할 만큼 우리나라와 가까운 곳이라 하니 성산두 앞 바다가 웬지 낯설지 않았다. 이 바닷물이 흘러흘러 인천과 성산두를 연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말이다.

숙소가 있는 석도로 향하는 길에 벌써 오늘밤이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았다. 그 서운함에 숙소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잠을 이루지 못했었다.

제5일 석도

이번 여행의 목적지이자 하이라이트인 장보고 유적지를 돌아보는 날이다. 전날 아쉬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기분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상쾌했다. 중국인들은 장보고를 적산명신이라 하여 바다를 지키는 신으로 추대하였다고 하는데 차안에서 보니 저 멀리 거대한 적산명신상이 보였다. 중국인들은 높은데다 큰 상을 세우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듯하다.

그 옛날 해상운송사업의 번영을 위해 장보고가 지은 적산 법화원은 현대에 지어진 건물이 많아 옛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웠지만 관광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이 아닌 서양인 관광객들도 다른 곳보다 많이 보였다. 거대한 관음보살 분수 쇼는 너무 황홀하여 왜 우리나라에는 저런 게 없는지 속상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운 사실은 적산 법화원은 대부분 일본인들의 투자로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는 이제 와서야 조금씩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존경받는 엔닌 스님이 이곳 적

산포에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 머물렀다는 사실에 자국도 아닌 타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작 적산포를 장악하였던 주인공 장보고가 있는데도 어찌 이리 소홀할 수 있는지 안타깝고 부끄러웠다.

적산명신을 보기 위해 1위안짜리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며 언덕을 올랐다. 바다를 지키는 적산명신을 표현한 적산명신상은 근엄하고 무섭기보다는 푸근하고 재미있는 모습이었는데 왕년에 애들이 좋아했던 개구리중사 케로로를 꼭 닮은 모습이었다. 적산명신상에 올라 장보고 기념관을 찾아보니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인기만화영화 <머털도사>에서 악당 왕지락이 사는 건물 같은 중국식 건축물 사이로 익숙한 우리나라 절의 모습이 보인다. 장보고 기념관에는 장보고상이 근엄하게 지키고 있고, 건물 안을 들어서니 익숙한 드라마 <해신>의 주인공들 포스터가 반갑게 우리를 맞이했다. 장보고 시대에 거래했던 당삼채 도자기, 책에서만 보았던 천수보살상 등의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하나하나 둘러보고 그 시대상을 느끼면서 장보고가 자랑스럽고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선 느낌이 든다.

전체적으로 적산 법화원과 적산명신상, 장보고 기념관 등을 둘러보면서 장보고의 업적과 위상에 대해 생각하며 뿌듯해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조바심이 들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꽤나 많았는데 과연 그들이 장보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갈까 라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가 알고서 둘러보니 장보고에 초점을 두어 둘러보고 생각하지만 외국인 들에겐 그럴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것 같았다. 먼저 적산명신상만 보아도 중국 가이드가 외국인들에게 중국에서 바다를 지키는 신이라고 설명하지 한국의 장보고라고는 설명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장보고 기념관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매우 작은 규모이

며 구석에 있어 맘먹고 가지 않으면 찾아가기 힘든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장보고 기념관 안에 각 전시물을 설명하는 판에도 한자만이 적혀 있어 그 아쉬움이 더했다. 적어도 영어가 표기되어야 세계 어느 나라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조금은 이해시킬 수 있을 텐데 말이다. 마치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조상인 장보고를 중국에게 빼앗긴 느낌이다.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를 위해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석도항에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배에 승선했다. 첫날 석도항에 도착해 느꼈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든다. 신라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니 어쩔 이 곳 주민들은 우리와 한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익숙한 느낌... 분주하게 배가 닿고 거래하는 그 시대의 모습이 하나의 영상으로 좌르르 머릿속을 지나간다.

제6일 석도→인천

눈을 뜨니 곧 인천에 도착한단다. 5박 6일 동안 길다면 긴 일정인데 훌쩍 지나버렸다. 그 옛날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았는데 그 꿈을 꾸 내가 현재인지 그 꿈속의 내가 현재인지 모르겠다 하더니 만 내가 꼭 그렇다. 인천항에 도착해 입국 수속을 마치고 정들었던 사람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인터넷동호회를 통해 지속적인 만남을 갖자는 약속을 하며 아쉬운 작별을 했다.

여행 전후 달라진 나를 느낀다. 드라마 <해신> 방영을 통해 장보고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긴 했으나 여행 후에는 관심을 넘어서 그에 대한 자부심과 뿌듯함, 친근감 그리고 좀 더 알고보고 싶다

는 생각을 갖게 됐다. 또 앞으로 아이들에게 장보고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포부와 기상, 시대를 보는 눈, 결단력, 리더십 등을 배울까 라는 고민을 씬 없이 하게 된다. 먼저 내가 배워 실천하기 위해 부단한 자기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중국에 있는 적산명신의 발자취를 찾아서

대구 수성초등학교 노희숙

7월 3일, 나에게 무척이나 반가운 전화 한 통이 날아들었다. 그것은 바로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답사단에 선발되었다는 것이었다. 여권이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제3기에 넣어 드릴 테니 일정에 맞추어 준비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니 1주일 전의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해상왕 장보고 재단에서 중국 장보고 유적지 답사단을 모집하니 희망자는 참여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왔다는 연락을 받았었다. 일전에 우주정보소년단 캠프를 갔었을 적에 어떤 선생님께서 이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무척이나 좋았었다는 경험을 전해들은 적이 있었던 나는 올해 이 공문이 온다면 바로 신청할 것이라는 각오가 있던 터였다. 공문이 왔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나는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순서를 밟아 결재를 받은 후에 팩스 앞에 섰다. 신청서 작성에서 결재받기까지는 채 5분여도 걸리지 않았기에, 나의 마음은 무척이나 흥분이 되어

있었다. 기분 좋은 마음에서 팩스 번호를 눌러 나갔는데, 팩스에서는 나의 기분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통화중이라는 음만 들려나오고 있었다. 그렇게 하기를 1시간여. 그렇게 팩스 앞에서 씨름하며 시간을 보낸 결과 겨우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는 잊고 있었던 답사 신청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됐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기뻐다. 무척이나 기뻐다. 생전 처음 가보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것도 기뻐고, 현지 선생님들만 가게 되어 있는 이 답사에 내가 신청하여 되었다는 것도 기뻐으며,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새로운 선생님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도 무척이나 흥분되는 일이었다.

시청에 가서 여권을 발급받으며 새로이 답사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고, 여권 사본과 비자 발급 비용을 계좌이체 시키면서 다시금 답사 떠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8월 4일

드디어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답사단 3기의 일정이 시작되는 날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동대구역으로 향했다. 내가 탈 KTX 기차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기차는 7시 2분, 정해진 시간에 도착했다. 정해진 자리에 앉아 서울역에 내려서 어떤 방법으로 인천 연안부두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다시금 중국 여행에 대하여 마음 설렘을 지니게 되었다. 기차는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늦기는 했지만 8시 50분에 어김없이 나를 서울 땅에 내리게 하였다.

기차 플랫폼을 빠져나와 서울역 광장에 서니 9시였다. 3시까지 연

안부두에 모이라고 했으니 시간은 아직도 6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기다리더라도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기다리자는 마음에서 여유를 가지고 일찍 나오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많았다. 서울역 근처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며 어떻게 인천까지 갈까를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고속버스를 타고 갈까? 지하철을 타고 갈까? 행복한 고민이었다. 남아 있는 시간이 무척이나 길어서 지겹고 짜증스러울 만도 했으나 그 기다림은 즐겁기만 하였다. 이런 기다림이 또 나에게 오는 기회가 있다면 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으리라….

아침밥을 먹으면서 내린 결론은 지하철을 타고 인천을 가자는 것이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가 지하철을 탔다. 지하철은 무척 복잡하여 자리가 없었다. 부평을 지나 주안역쯤 오니, 자리가 났다. 그곳에 앉아 몇 정거장 가지 않으니 제물포역이었다. 그때의 시간은 11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지금까지 기다려 애써 지하철역 자리에 앉았는데, 그냥 내리려니 억울하기도 하고 시간도 너무 많이 남아서 지하철을 타고 다시 서울역까지 왕복하자는 마음이 생겼다.

그 기차가 인천역에 도착하여 몇 분 있으니 반대 방향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지하철 안에 있는 동안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과 상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황토가 들어있는 내의를 파는 사람, 여름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반바지를 파는 사람, 시원한 부채를 파는 사람, 4색 볼펜을 파는 사람, 손수건을 파는 사람… 내리는 역을 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할아버지, 헤드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가는 남학생, 애인의 어깨에 기대에 잠을 자고 있는 여자, 그 여자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내려온 고개를 끌어올려 주는 남자, 지하철 지붕의 손잡이를 잡고 열심히 신문을 보고 있는

아저씨, 주위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이야기 나누시는 아주머니들….

승용차로 출퇴근하며 다닌 지 오래된 나에게 대중교통에서 본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냄새를 풍겨주고 있었다. 그렇게 타고 내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다 도착하게 된 제물포역. 그곳에서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탔다. 버스에 타서 노선 안내도를 보니 연안부두라고 되어 있었다. 연안부두, 그 말로만 들던 연안부두가 바로 오늘 내가 배를 타러 가는 곳이다.

‘어쩌다 한번 오는 저 배는 무슨 사연 싣고 오길래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마음마다 설레게 하나….’

대학시절 노래방에 가면 무척이나 즐기던 노래였다. 그 노래를 내가 왜 즐겨 불렀을까? 그 노래를 마음속으로 흥얼거리며 가는 버스 안에서의 시간은 무척이나 빨랐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인천의 색다른 풍광은 여행이라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였다. 인천, 내가 처음으로 와보는 곳이다. 월미도 관광특구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거기에 연안부두는 더더욱 새로운 곳이었다. 이러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장보고 유적 답사단에 선발된 덕분이라 생각하니 무척이나 그 풍경들이 더 반갑게만 느껴졌다.

연안부두에 내린 시간은 2시가 조금 못 된 시간이었다. 대합실로 들어가 보니 중국이라는 곳을 여행하려고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로 무척이나 복잡하였다. 배를 타고 장시간의 여행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또 처음 경험이라 기대가 되었다. 기다리는 동안 배고픔을 잊기 위하여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으며 시간을 죽이고 있으니,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답사단’이라는 반가운 글씨를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가보니 넥스투어 관계자였다. 그 사람을 따라가서 안내를 들

고, 배에 오를 시간을 다시 기다려야 했다. 오늘 하루는 무척이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며 보낸 것 같다. 그 긴 기다림 속에서도 조금의 짜증도 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이 여행을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었을까?

드디어 배에 오르는 시간이 되었다. 여권 심사와 수하물 검사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드디어 여객선 객실에 올랐다. 이것으로 나의 여행은 시작되는 것이다. 배 안의 풍경은 영화 <타이타닉>에서 본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 안의 풍경이 그렇게 멋지고 좋은 것은 영화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탄 여객선도 못지않게 좋았다.

배에 타서 지정된 선실에 들어가 나와 함께 같은 객실을 쓰며 같이 중국으로 가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하며 들어 올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행이라는 것은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는 설렘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설렘도 있는 것이다. 나의 설렘을 알기라도 하듯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나의 기대에 충분할 만큼 새로운 소식과 새로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각 지역별로 돌아가는 새로운 소식을 들으며, 각자의 소개를 들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배가 드디어 출항을 하고 기대하는 중국으로 처음 일정이 시작되었다. 배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바다 풍경은 나의 설렘을 알기나 하는지 무척이나 맑은 풍경이었다. 넓은 바다를 가르며 흰 거품을 품고 배는 나아가고 있었다. 멀리 작은 섬들이 조금씩 지나갔다. 등대도 보였다. 이 풍경이 끝나고 중국이라는 땅에 도착하면 어떤 풍경들이 펼쳐질까를 생각하며 불어오는 바닷바람 속에서 지치지도 않고 한없이 지나가는 바다 풍경을 바라보고 서있었다.

8월 5일

8월 5일 아침이 되었다. 아침을 먹고 얼마 있지 않으니 석도항에 도착하였다는 안내가 나왔다. 석도다. 내가 처음 중국에 발을 디딜 땅은 석도였다. 돌석에 섬도, 돌섬이다. 장보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 같은 이곳에서 나는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날 것인가?

지시된 절차를 거친 뒤 버스에 탑승하여 연태로 이동하였다. 한반도의 1.5배의 넓이를 지니고 있다는 산둥반도. 산둥성은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한반도와는 인연이 깊어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화교의 대부분이 산둥성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산둥지방 사람들의 손맛에 의한 중화요리가 우리 입맛에는 제일 익숙해져 있다는 가이드의 설명이었다.

그중에서도 팔선이라는 태고적 전설을 지니고 있는, 전통과 현대가 교차되는 관광도시인 산둥성 동부의 연태로 향하였다. 연태까지 향하며 타고 가는 버스 차창 밖으로는 중국의 낮선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가도 가도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은 넓은 들판과 옥수수 밭, 포플러 가로수 길이었다. 붉은 벽돌로 집을 짓는 것을 좋아하여 대부분의 집들은 벽돌로 지어진 것들이 많았다.

도로 위에는 한국과 너무나 대조되게 차들이 띄엄띄엄 다녔다. 앞으로 50년 이상을 내다보고 설계한 도로여서 한산하다 못해 텅 비어있었던 것이다. 물류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차도만큼 넓게 확보한 자전거 도로에다가 가로수 외에 가로수 옆에 묘목 밭을 둬으로써 이중의 방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 넓은 중국도로를 보면서 예로부터 대국이라 불리던 중국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듯했다. 그들은 중용을 너무나 중요시 생각하여 그 넓은 도로

에 차들이 한가한데도 중앙으로 다니기를 좋아한다고 가이드가 설명하는 것이 좀 우습긴 했다. 가운데로 다니다가 상대방에서 차가 오면 간간이 작은 사람이 먼저 피한다는 중국식 교통질서. 로마에 가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던가?

옥수수를 길러서 사람이 먹기보다는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돼지들을 먹이기 위해서라고 하였는데, 역시나 몇 시간을 가도 끝없이 펼쳐지는 땅에는 많은 옥수수들이 자라고 있었다. 중국의 집들은 붉은 기와지붕의 집들이 대부분이었고, 2층도 드문 1층이었다. 가운데 가려지는 공간도 없는 듯 평면구성인 듯한 느낌을 주는 집들이 성냥갑들처럼 놓여 있었다. 우리들이 타고 가는 버스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버스라는데, 중국의 도로 길이 그런 건지, 중국의 버스가 그런 건지 무척이나 심하게 요동쳤다. 우리나라의 좋은 승용차 기술이 이 버스를 대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타고 있어야 했다. 그렇게 4시간이라는 기나긴 여정 끝에 봉래에 도착하였다.

옛날 신선들이 살았다는 전설 속의 바다 가운데 있는 산의 이름으로 후에는 등주라 불린 곳이다. 많은 신라인들이 신라방을 설치하며 살았었다는 이곳. 장보고의 영향력이 미친 곳이 틀림없으리라. 팔신선의 전설이 내려오는 봉래각에 올라가며 바라보이는 지붕의 모양새들은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처마 모양을 하고 있는 중국 그들의 특색을 볼 수 있었다. 지붕 위에는 재앙을 막아준다고 듣던 동물들이 놓여 있었고, 그 지붕들이 사방으로 돌아가며 봉래각을 이루고 있었다. 각각의 누각 안에는 불상과 사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신선들의 세계에 접어든다는 천궁을 지나 다시 등주수성으로 향하였다.

멀리 해안가를 따라 길게 늘어선 성은 해안군사 방어체제로 평시에 는 수군을 주둔시키고 선박을 정박시켜 군사를 훈련시켰다는 곳이다.

멀리서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나 좋아서 예전의 쓰임새는 생각나지 않고 이런 멋진 곳에 신선들이 놀다 가려고 집을 지어 놓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원나라 때 석도항을 지나던 배가 바다에 빠져 있던 것을 건져 원형으로 복구해 놓은 것을 전시해 둔 고선박물관에 가 보았다. 예전의 완전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배의 거대한 형태만은 느낄 수가 있었다. 그렇게 봉래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버스를 타고 예전 제나라의 수도였다는 치박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그날의 여정을 마무리하여야 했다.

8월 6일

다음날 6시부터 일정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태산이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뉘이로다.’ 학교 다닐 적 외고 다니던 한 시조가 떠올랐다. 그 시조에 나오는 태산이다. 중국에서 제일 높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산들이 중국에는 더 많단다. 그런데 왜 중국 사람들은, 다른 많은 높고 아름다운 산보다도 한 번 오르면 10년 젊어진다는 말을 만들어 낼 만큼 태산을 높고 귀하게 여긴 것일까? 그것은 여러 제왕들이 하늘에 뜻을 받는 봉선의식을 거행한 위대한 산이었기 때문이리라. 높이는 1,545미터로 이름처럼 거대한 규모에 장엄한 경관을 자랑하는 산은 아니었으나, 곳곳에서 명승고적과 비문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역사적 가치가 높고, 골의 생김생김이 아름다워 가히 태산이라 불릴 만한 산이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 근처에까지 올라가서는 나머지 부분을 걸어

서 올라갔다. 산이 높아서인지 서늘하다는 느낌이 들만큼 기온이 낮았으며 뽕안 운무가 끝없이 뿌려지고 있었다. 태산 정상에 올라가면 서 끝없이 볼 수 있는 풍경은 산봉우리의 제일 보기 좋은 바위에다가는 선명한 붉은색으로 오악지존이니, 오악독존이니 하는 태산의 명칭을 적어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태산, 화산, 숭산, 형산, 향산과 더불어 오악이라 불렀다는데, 그중에서 중국인들은 이 태산을 가장 귀하고 높게 여겼었다는 사실을 산봉우리 곳곳마다에서 느낄 수 있었다.

태산 정상에는 하늘의 임금을 모시는 옥황정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곳에는 소원을 지켜주는 수많은 자물쇠들이 달린 사당과 진한 향기를 뿜는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태산을 지나서 다음으로 향한 곳이 제나라 역사박물관이다. 태산을 떠날 때만 해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제나라 역사박물관으로 가는 길에 비가 내렸다. 중국에 와서 비를 맞으며 관광을 하겠구나 생각했었는데, 넓은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는지, 제나라 역사박물관에 도착할 무렵에는 다행히도 비가 그쳐 있었다.

제나라 수도로서 제나라의 산생, 발전, 흥성과 쇠망사를 보여주는 많은 유물과 자료들이 보관되고 전시되어 있는 곳이었다. 우리나라 박물관에 가셔도 볼 수 있는 토기들과 기왓장 등 여러 유물들을 볼 수 있었다.

그곳을 지나 남북 26미터, 동서 23미터의 거대한 크기의 묘가 발견된 제경궁 순마갱으로 향했다. 뭔가 코를 찌를 듯한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두 줄로 나란히 뻗뻗하게 들어차서 누워있는 형태의 말들의 모습에 순간 나는 압도당하고 말았다. 그냥 말로만 들으면 단순하게 느껴지던 몇 미터 몇 미터의 거리감이 실제로 눈앞에 거대하게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는

동서로 각각 70미터, 북으로 75미터이고 너비는 5미터인데, 그중 서쪽 84미터만을 발굴하였으며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다니 그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규모는 발굴한 것 중에서 105필의 순마만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도 이렇게나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니...

순마갱을 처음 보았을 때 나의 심장은 쿵쿵쿵쿵 뛰었다. 그 당시 살아서 뛰어다녔을 그 말들을 이렇게 가지런하니 눕혀서 묻어둔 무덤이라 말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였을까? 1미터 간격으로 2.8마리의 말들이 뻗뻗이 들어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현재 발굴된 순마의 밀도로 계산해 보면 매장된 말은 약 600여 필 정도라고 한다. 매장된 말들은 모두 전쟁시 사용되는 전마들로, 수말이라고 한다. 그 묘의 주인인 제경궁의 엄청난 권력과 부의 과시가 아니고는 가히 가능하지 않은 가슴 서늘한 풍경의 순마갱이었다.

그 당시는 주인이 죽으면 주인이 저승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같이 묻어 주곤 하였는데, 주위에 같이 있던 노비들이나 부인들, 이렇게 말들까지 묻었다고 하니 당시의 풍습이 놀라울 뿐이다. 난 이렇게 가슴 서늘함을 느끼며 순마갱에서 나왔는데, 그 주변의 중국 사람들은 예전의 중국 임금의 묘위에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한 것인지 너무나 태평스럽고 한가로웠다.

순마갱을 보며 거대함을 좋아하는 중국의 모습에 잠시 놀라워하며 강태공 사당으로 향하였다. 가는 도중에 우리 2호차의 사건으로 인해 차가 깜깜한 밤에 강태공 사당에 도착하여 빠른 시간에 바쁘게 보느라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중국 역사책에 자주 등장하는 강태공의 이름이 걸린 사당에 가보았다는 사실이 뿌듯하였다.

139세까지 살았다는 강태공, 강에서 낚시를 하며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낚는다는 유명한 말을 했다는 강태공은, 주나라를 세우게 되는 무왕을 도와줌으로써 제나라를 다스리는 초대왕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손무의 《손자병법》에 영향을 끼쳤다는 《육도삼략》이라는 최초의 병서까지 쓸 정도로 병법의 전문가였다.

우여곡절 끝에 강태공 사당을 둘러보고 늦은 시간에 유방으로 이동하였다. 유방은 연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였다. 연으로 유명한 것을 알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가로등은 나비연 모양이었다. 빨간 나비연 가로등에 파란 연 박물관이 밤에 불을 밝히고 있는 유방은 깨끗하고 잘 정돈된 도시라는 느낌이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 우리는 남산대불을 향하여 첫 일정을 시작하였다.

8월 7일

도교에서는 360일이 1년을 의미한다고 하여 360개의 계단 위에 남산대불이 놓여 있었다. 세계 최대의 좌불상이라는 것이 느껴질 만큼 그 거대한 크기에 우리는 압도당했다. 자비로운 미소로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 남산대불이 있는 남산관광풍치지구는 주변에 종교문화원이나 사원, 박물관 등 많은 시설들이 넓은 지역에 잘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송씨라는 한 거상의 재산으로 이루어진 도시라는 말에 중국의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사람의 재산으로 인해 한 도시를 꾸미고 그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교육받고 관광 수입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가이드들의 설명은 낯선 중국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었다. 한 사람의 재산으로 형성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깨끗한 모습의 도시였다.

360여 개의 계단을 힘겹게 올랐다가 내려와 다음으로 간 곳은 남산중화역사문화원이다. 중국 역대 왕조의 문화와 발전상을 순서대로 볼 수 있도록 6억 위안을 투자하여 개발한 곳이라고 하였다. 중국의 태고적 역사를 보여주던 원고관을 거쳐 어려웠던 중국 역사인 공자, 맹자, 순자들이 살던 춘추전국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던 춘추관, 그 넓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제가 있는 진시관 등 중국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다. 그곳은 중국의 만리장성까지 그대로 모방하여 만들어진 인공의 중국 역사관이었다. 향후 50년까지의 발전을 생각하여 거대하게 투자되고 있는 중국 관광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그곳을 지나 진시황이 머물렀던 행궁을 후대에 바꾸어 꾸며놓은 진시황 사당으로 갔다. 진시황 사당에는 진시황의 무덤에서 출토되었다는 진시 호위 기병상과 기마마차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었다. 계단에 올라가며 보았던 호위 무사 기병 조각의 코들이 모두 닳아서 색깔이 다른 것이 재미있었다. 불로 장생을 하려고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영약을 구해다 먹었다는 진시황이 오히려 약 중독으로 단명하였다는 사실은 뭔가 느껴지는 하나의 진리라는 느낌이다.

다음으로 간 곳은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중국의 희망봉이라고 불리었던 성산두였다. 성산두 앞에는 중국의 유명한 3인 동상이 서 있었는데, 진시황과 누구누구였는지 가이드의 설명을 놓치는 바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성산두에 올라서 중국의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 몇 컷을 찍은 후에 다시 버스에 올라 우리는 우리 여정의 마지막 코스인 석도로 향하게 되었다.

오늘의 여정을 끝으로 우리는 중국을 떠나 인천으로 향하는 배 위에 다시 올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 일정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쉽고,

지금껏 여러 날 동안 함께 식사하고 잠자며 정이 들었던 선생님들과의 정이 더욱더 애틋하게 느껴졌다. 우리가 묵는 호텔은 석도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었다. 밤에 도착하여 바닷가의 풍경을 그때는 볼 수 없었지만, 이곳이 해상왕 장보고가 중국에서 주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라는 것은 알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호텔 앞 바닷가로 향했다. 바닷가 해안을 끼고 산책로가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었다.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으로 인해 오랜 시간 걷지는 못했지만 석도 바다의 아름다움을 머릿속에 그려 넣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 호텔을 끝으로 이제 중국을 떠나는구나 라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마지막 여정인 적산 법화원으로 향하였다. 청해진을 창설하고 한·중·일 동아시아의 해상무역권을 장악하고 있던 장보고가 산동성에 세운 규모가 큰 절이었다. 500명이 먹을 수 있는 우물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 당시 규모로는 거대하였다는 적산 법화원. 대웅보전, 관음전을 거쳐 삼불전이라는 거대한 법당이 위치하고 있었다. 삼불전 아래에는 약수로서 아픈 중생들을 구원해 주었다는 관음상의 거대한 동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주변으로는 분수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음악에 맞추어 높이 솟구쳐 오르는 물길 속에서 관음상은 그 자애로운 미소로서 약수를 뿌려주고 있었으며, 그 아래의 사천왕상의 입에서는 연신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관음전의 자애로운 자비를 두루두루 뿌리겠다는 마음에서인지 관음상은 한 바퀴를 회전하면서 서까지 분수에서 뿜어져 내리는 높은 물길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다.

적산 법화원으로 가는 길에 높은 산 언덕에 거대한 동상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저것은 남산대불에서 보듯이 무슨 부처님 불상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적산 법화원 다음으로 가 보게 된 장보고상이었다. 높은 산 위에 자리 잡고 산 아래를 지켜보고 있는 장보고의 상은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자신이 터를 잡고 활약했던 석도항을 내려다보며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세워 두었을 장보고상 아래에는 적산대명신이라는 글자가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 바다에서의 활약상이 너무나 뛰어나서 일본 적산선원에선 적산명신으로까지 기록되어졌다는 비디오 속의 적산명신이 지금 내 눈앞에 우뚝 솟아있는 것이다.

그 장보고상을 지나 우리는 장보고 기념관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한·중 우호와 교류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중국 역사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념이라는 말을 붙이지 못한다고 하여 장보고 역사관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장보고가 중국 당 나라에 들어와서 군인으로 활동했을 때의 모습에서 청해진을 설치하고 청해진 대사가 되고, 적산 법화원을 세우기까지의 과정 등 장보고와 관련된 많은 사실들이 전시되고 있었다. 장보고 역사관을 지나 장보고 기념탑으로 갔다. 두 개의 높은 벽돌 기둥이 서로 나란히 올라가는 형상으로 세워져 있었다.

적산 법화원에 앉아서 교수님들로부터 적산 법화원이 지어진 배경과 장보고와의 관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중국에 장보고 유적지 답사라는 것을 오기 전만 해도 나에게 있어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무역을 하는 상인들을 도와 해적을 소탕하던 한 사람의 단순한 전쟁 수행 능력이 뛰어난 장군이였다.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타고 다닌 버스 속에서 지켜봤던 KBS 역사스페셜의 5부작 〈해신〉을 처음 볼 때만 해도 바닷길을 통한 9세

기의 동서해양문명의 교류와 무역 활동을 하신 분 정도로만 생각했던 장보고였다.

역사는 이긴 자의 손에 의해 쓰이는 것이라고 했던가? 믿었던 신라 사람의 손에 의해 암살되고 만 장보고는 지금의 나에게 있어서는 무역왕이고 개척자이다. 1200년 전 신라인으로 낯설기만 한 중국의 땅에 그 당시 중국연안에 출몰하는 해적무리를 모두 소탕하여 신라인들을 정착시키고 안심하고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켜준 위대한 장군이며, 신라의 물건들이 저 머나먼 서역의 땅에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한·중·일 모두에서 노력한 무역왕이고, 안전하고 빠른 해상무역을 찾아내고 발견해낸 한 명의 위대한 개척자인 것이다. 장보고는 그 옛날 우리 민족의 기세를 만방에 떨쳤을 뿐 아니라 한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읽고서 바다 무역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스스로의 힘으로 바닷길을 개척해 낸 위대한 선각자였던 것이다.

일본 엔닌대사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보면 이곳에서 3년 가까이 머물렀으며 장보고를 몹시 흠모하여 일본에도 ‘적산선원’을 세워 장보고를 계속 숭배하였다고 하니 장보고의 위대성이 중국과 일본을 넘나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보고의 위상은 무한한 경쟁시대에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끝없이 경쟁하는 국제 관계에 놓인 현 시대에 꼭 필요한 위상이 아닐까?

장보고 유적지 답사라는 이름하에 단지 중국 여행이 처음이라는 것에만 설레어 출발한 나의 마음에 오기 전에 가지지 못했던 많은 숨겨진 역사적 사실들이 담겨짐으로써 보람있는 여행이 되었다.

그 먼 옛날에 이 넓은 중국 땅에서 그 많은 신라인들이 신라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며 살았었다는 상상을 하니 그 당시의 번성했던 신라 문화가 조금은 느껴질 듯도 하다. 그동안 역사적

진실에 가려져 나라의 왕을 해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역적으로만 여겨지던 장보고라는 인물이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위대한 개척자의 모습으로 나의 앞에 와 닿으리라는 것은 이곳을 오지 않았다면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버스를 타고 오랫동안 이동한 덕분에 차 안에서 교수님들의 많은 설명을 들었는데, 진덕여왕, 성덕여왕, 진성여왕과 같은 신라의 3여왕에 대한 해석이나 김유신과 김춘추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 등 왜곡된 시각으로 한쪽으로만 보았을 적에 역사적 사실이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후대에 가면 승리한 자에 의하여 패자의 역사는 수없이 왜곡되어 전해지리라.

장보고라는 인물의 새로운 역사적 해석을 듣고, 그 발자취를 직접 답사해 보며 진정한 역사는 아무리 가리려 하더라도 결국에는 후대에 올바르게 해석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석도의 바다를 바라보며 그 토록 사랑하던 신라 땅을 향해 있던 장보고상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떠오른다.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기행문

대구 경북고등학교 도시호

8월 11일 인천에서 화동훼리호를 타고 산둥반도로 출발하였다. 산둥지역은 공자의 노나라와 춘추 5패인 제나라가 있었던 유서 깊은 곳이다. 그런 까닭에 지금 이곳에 사는 중국인들은 상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 산둥지역의 자동차 번호판에 노나라의 노자와 제나라의 제자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에서 그것을 절실히 느꼈다.

산둥반도에는 위해, 연태, 청도의 세 주요 도시가 있으며, 인구는 약 900만 정도이다. 재당 신라인은 주로 산둥반도에서 양쯔강에 걸치는 지역에 점재하고 있었다. 우리가 산둥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이유는 이곳이 장보고의 활동무대였기 때문이다. 쉽게 표현하면 산둥지역은 중국 내의 코리아타운이다. 우리는 지금 장보고와 재당 신라인의 숨결을 느끼고,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산둥반도의 석도항으로 간다.

다행히도 파도는 잠잠하여 배 멀미가 심한 사람에게는 정말로 위안이 되었다. 순항 그 자체였다. 나는 배 멀미는 하지 않지만 타고난 천

성이 무척 예민하여 여행할 때마다 불면에 시달린다. 물소리와 여러 가지의 상념으로 인하여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

여기서 잠시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는 5박 6일로 짜여 있으며, 2000년도부터 실시되었다. 4회에 걸쳐 매회 100명의 선생님이 참여한다. 그러나 그 답사 경로를 보면 장보고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코스는 제5일의 코스인 석도항에 위치한 적산 법화원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보고의 활동 루트인 광주, 복주, 영파, 양주, 서주, 해주, 초주 등의 코스를 실제로 답사할 수 없다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장보고는 일본,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무역활동을 하였기에 답사의 영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어진다. 주최 측의 설명이 있었지만, 답사의 일정표가 지금처럼 짜인 배경이 쉽게 납득이 되었다.

답사지는 석도를 비롯하여 연태의 봉래각, 태안의 태산, 치박의 강태공 사당, 제나라 박물관, 순마갱, 남산관광풍경지구, 영성의 진시황 사당, 성산두, 그리고 마지막 날 오전의 적산 법화원이다. 가장 의미 있는 답사지는 석도항에 위치한 적산 법화원이다. 물론 지금의 법화원은 그 당시의 본모습은 아니다.

8월 12일 새벽 5시 30분에 기상하였다. 8시경에 석도항에 하선하여 내 생애 처음으로 중국 땅을 밟았다. 우리들은 입국 절차를 거쳐 10시경에 버스 3대에 편승하여 연태시로 이동하였다.

연태시는 해삼과 와인으로 유명한 곳이라는 조선족 가이드의 설명이 있었다. 석도에서 연태로 가면서, 중국은 도로가 아주 잘 정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어 장래 발전 가

능성이 보였다.

창가에 비친 바깥 풍경은 옥수수 밭의 연속이었다. 밭을 수확한 후의 옥수수 밭이었다. 산동지역은 물이 부족하여 주로 밭농사를 짓고 있었다. 산도 주로 돌산이었다. 물이 부족하다는 설명이 가슴에 와 닿았다. 한 번 이동시간이 보통 3시간 이상이었다. 하루 일정에서 버스 이동시간이 평균 8시간 이상이었다. 중국이 대국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우리는 연태시의 한 음식점에 도착하였다.

중국 음식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 기대하지 않았다. 특히 산동지방의 음식은 기름지고 느끼하고 짠 것이 특징이라는 가이드의 설명이 있었다. 나는 식사 때마다 즐거움은커녕 고통이었다. 기름지고 짠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란이라는 특유의 향신료 냄새 때문에 더욱더 힘들었다. 음식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냄새로 먹는다는 생각이 절로 났다. 음식에 대한 평소의 나의 생각을 잠시 피력하고 싶다.

요리사야말로 최고의 예술가이라는 것이 평소 나의 지론이다. 왜냐하면 예술은 아름다움이고 그 아름다움은 즐거움 그 자체이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결코 예술이 아니다.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오죽하면 열짱과 몸짱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을까?

맛과 멋은 일맥상통한다. 맛이야말로 우리에게 최대의 행복감을 준다. 중국 음식 중 맥주와 닭고기 정도가 나의 입맛에 맞았다. 밥도 퍼석퍼석하여 영 땀기지 않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김치와 김만 있으면 먹는다. 김치 생각이 간절하였다. 식사 후 신선이 산다는 봉래로 출발하였다. 말로만 듣던 봉래를 보게 된다.

8월 12일 오후에 봉래에 도착하였다. 대구의 날씨도 덥지만 산동지역도 무덥기는 마찬가지였다. 봉래각으로 올라가는 길지 않은 거리가

더위 때문에 길게만 느껴졌다. 솔직히 봉래에서 별 다른 감응을 느끼지 못하였다. 나는 이곳에서 중국 사람들은 매우 현세적이며 기복적이며 온갖 잡신을 섬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봉래를 뒤로 하고 치박으로 향하였다. 치박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호텔은 생각보다는 만족의 수준이었다. 배에서 못하였던 샤워를 하고 나니 정말로 살 것 같았다.

8월 13일 아침 치박에서 태산으로 이동하였다. 태산은 중국의 5대 명산 중 동악으로 천하제일의 명산으로 일컬어진다. 해발 1,545미터로 산동지방에서 최고로 높은 산이다. 버스로 굽이굽이 올라가서 다시 케이블카로 이동하였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최고 정상까지는 계단 길이었다. 올라갈수록 운무가 장관이었다. 태산의 압권은 운무였다.

중국의 역대 황제들이 제사지냈다는 곳이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의 미의 글이 새겨진 바위들이 군데군데 많이 보였다. 아마도 기복적 성격의 내용인 것 같았다. 그리고 곳곳에 신당이 보였다. 역시 중국 사람들은 여러 잡신을 모시는 경향이 강한 민족이었다. 도교적 색채가 강하게 느껴졌다. 중국의 고유 종교는 도교가 아닌가? 그런데 도교라는 것이 수입품인 불교에서 교리를 빌려와 도가에 믹스시킨 것이 아니던가?

중국에서 느낀 인상적인 한 가지 사실은 중국 남자들이 옷통을 벗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그들 사이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계단을 오르면서도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나타났다. 예절을 강조하는 공자의 나라이건만, 실제로 나의 눈에 비친 남자들의 모습은 중국이 유학의 원조인지 의심스러웠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다. 태산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케이블카 안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 6인석의 케이블카 안에서 태연한 척하느라고 얼마나 힘을 소진했던가! 정말로 케이블카 타기가 싫었지만 차마 이곳까지 와서 태산을 보지 못한다면 우스운 꼴이 아니겠는가? 태산에서 내려온 순간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유명한 태산에서 크게 감동을 받지 못하고 제나라 박물관과 강태공 사당이 있는 치박으로 발길을 돌렸다.

강태공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주 문왕을 잘 보필하여 은나라를 멸망시킨 주 건국의 일등공신이다. 강태공이 인구에 회자되는 이유는 때를 기다리는 끈질김 때문이다.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기다림의 미학’은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에도 막부를 연 도쿠가와도 약 30년을 2인자 노릇을 하면서 기다렸다. 그 결과 도쿠가와 가문은 260여 년 동안 권력을 누렸으니 기다림의 대가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강태공은 낚시를 하면서, 도쿠가와도 2인자 노릇을 하면서 때를 기다렸다.

강태공은 주 건국의 일등공신 대가로 제나라 초대왕으로 분봉된다. 제나라가 중요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강태공은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제나라를 빠른 시일 내에 반석에 올려놓았다. 치박의 주민들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이유를 알 것 같다. 태공을 기념하기 위하여 강태공 사당을 만들었고, 그의 모자와 옷을 제나라의 수도인 치박에 묻었는데 이것이 바로 의관총이다. 강태공 사당과 의관총을 직접 견학하면서 강태공이 세월을 낚는 모습을 상상하였다. 태공에게서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다. 물론 태공이 그냥 기다린 것은 아닐 것이다. 준비하면서 기다리

는 치밀함까지도 배워야 한다.

치박에서 인상 깊었던 또 하나의 견학지는 제경궁 순마갱이다. 우리를 실은 버스는 어느 시골 집 근처에 주차하였다. 주차한 그 바로 앞에 순마갱 전시장이 있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본 중국 농촌의 모습은 우리나라 60년대 수준이었다. 버스 안에서도 보았지만 붉은 벽돌의 시골집들은 그냥 비, 바람을 막아주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나의 상식으로는 집이라고 할 수 없는 마치 돼지우리와 같은 인상을 받았다.

중국민족이 본래 청결의 개념이 없기로 소문난 민족이지만 내 눈으로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표정은 밝았고, 순수하였다는 사실이다. 90년대 후반에 동남아시아 여행 중에 어느 가이드가 하던 말이 기억났다. 돼지우리에 중국 사람이 들어가니 돼지가 우리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 얼마나 중국 사람이 더러우면 돼지조차도 뛰쳐나왔겠는가? 중국 사람들을 너무 폄하하였나?

제경궁의 무덤에서 순장된 600여 필의 말이 발견되었다. 그중 일부의 말(105필)을 전시하고 있었다. 말을 죽여서 순장한 풍습은 통치계급의 사치함과 내세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왜 말을 순장하였을까? 망치로 말의 머리를 때리는 순간 말은 얼마나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까? 인간의 잔인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말은 사자(死者)를 다음 세계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 무속적인 믿음이다. 내가 알기로는, 시베리아에 기원을 둔 샤머니즘적 믿음에서 기원한다. 인간은 누구나 영생을 바란다. 그리고 죽음은 인간의 영원한 화두이다. 그 두려움은 죽음 뒤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순마갱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니 이해가 갔다. 우리는 다시 치박에서 유방으로 향하였다.

8월 14일 나는 유방에서 새벽 5시 40분경에 잠을 잤다. 비교적 일정이 빡빡하여 아침을 6시 30분경에 먹기 시작하였다. 7시 40분경 남산으로 이동하였다. 이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 작가 최인호가 만든 장보고에 대한 특집 영상물 몇 편을 보았다. 나는 줄리는 가운데서도 비교적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최인호의 상상력과 구성 능력이 돋보였다. 개인적으로 그의 주장에 많은 공감이 갔고, 장보고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과 영감을 받았다.

물론 문학가가 보는 시각과 역사가가 보는 관점은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의 상상력이 다소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은 설득력이 있었다. 최인호의 주장을 요약하면, 장보고는 청해진을 근거로 하여 당나라, 일본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및 이집트까지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이 보면 그냥 지나칠 조그만한 단서를 가지고 추리해내는 그의 상상력은 역시 뛰어났고 그것을 엮어내는 솜씨는 역시 남달랐다. 항상 느끼는 사실이지만, 장보고에 대하여 탐구하는 과정에서도 하나의 사실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변의 기초 지식이 있어야 하는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장보고의 활동 무대를 알기 위하여 8,9세기의 신라사, 당나라 역사, 일본사, 이슬람사까지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교단에서 세계사를 가르치면서 다소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장보고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최인호는 이미 장보고를 주제로 한 《해신》이라는 소설과 드라마로 세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장본인이다. 최인호에 대한 평가는

최근에 들어서 다소 달라지고 있다. 초기의 애정물 일변도에서 최근에는 《상도》를 비롯한 무게 있는 역사소설을 넘으로써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삶의 무게만큼 작품의 무게도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드디어 남산에 도착하였다. 마치 우리나라의 경주 보문단지에 들어서는 기분이었다. 관광지구였다. 동양에서 가장 커다란 대불이 눈에 들어왔다. 정확히 표현하면 남산관광풍경지구인데, 각종 위락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주요 테마는 중화역사문화원, 남산대불, 불교박물관, 도교사원 등이다. 5천 년의 중국 역사와 종교를 보여주기 위하여 나름대로 신경을 쓴 흔적이 보였다. 특히 불교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불교박물관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은 여행을 할 때마다 느끼는 사실이지만, 여기 남산에서 그것을 실감하였다. 사실 일반인들은 남산에서 크게 감명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곳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중국 역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상적인 것은 중국답게 그 규모가 컸다는 점이다.

우리는 다시 진시황 사당이 있는 영성시로 달렸다. 진시황에 대하여는 관심이 가지만 진시황 사당은 개인적으로 별 관심이 가지 않았다. 진시황이라면 불로장생의 도교를 믿은 나머지 불로장생초를 구할 수 있다는 서복에게 사기당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인지 사당은 도교의 냄새가 물씬 풍겼다. 도사의 복장을 한 사람들이 사당을 지키고 있었다. 사당에서 조금 올라가니 성산두였다.

성산두는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예로부터 중국의 희망봉이라 불리었다. 군사적 요충지로서 소정방이 백제 정벌을 위하여 출발한 항구였다. 지금 이곳에는 진시황, 서복, 이사를 나

란하게 조각한 동상이 있고, 청나라 강희제의 동상도 눈에 보였다.

성산두는 정말로 절경이었다. 운치가 있는 곳이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본 풍경 중 가장 내 가슴에 와 닿는 곳이었다. 바다 주위의 묘한 모습들의 바위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절묘하게 깎인 바위였는데 마치 인위적으로 조각한 듯한 바위들이 인상적이었다. 나의 표현력 부족이 아쉬운 대목이다. 해가 질 무렵이나 뜰 무렵의 풍경이 가히 장관일 것 같았다. 우리는 다시 원점인 석도로 향하였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석도에서 보낸다. 그리고 마지막 코스인, 이번 답사의 하이라이트 적산 법화원을 가게 된다.

8월 15일 중국에서 마지막 날이다. 나는 적산 법화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약 30분간 산책을 하였다. 우리가 투숙한 호텔의 위치는 너무나 좋았다. 호텔 바로 앞에 바다가 보였다. 인천에서 약 400킬로미터 떨어진 석도진은 비행기로 가면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거리다. 우리는 화동훼리호를 타고 무려 12시간의 거북이 걸음으로 왔다. 해상왕 장보고이기에 해상으로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가?

우리는 10시경에 적산에 도착하였다. 처음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다. 적산은 한눈에 보아도 명산임을 느꼈다. 우뚝 솟은 기암괴석의 산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석도항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서서 나 스스로 장보고가 되었다.

역사에서 자신의 악조건을 승화시킨 경우는 많다. 인간은 배고플 때 노력한다. 몽고의 테무친은 고비사막의 악조건 때문에, 박정희도 보릿고개를 넘기 위하여, 장보고 역시 외딴 섬에서 태어난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나라로 왔다. 장보고는 골품제도가 만들어진

작품이다. 골품제도의 한계를 당나라의 개방성으로 극복하였다. 신라의 폐쇄성과 당나라의 개방성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이 장보고의 해상활동이다.

적산에서 석도항을 바라보고 있으니, 많은 생각이 절로 떠올랐다. 신라인의 혼, 당나라의 개방성, 아라비아 상인의 상업적 기질이 모자이크 된 것이 장보고다.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출세한 결정적인 이유는 고구려 유민으로서 당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이사도 때문이었다. 이사도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졸병에서 무령군소장으로 진급하게 되었다. 타향에서 밀항한 신라인이 망국의 고구려 유민을 딛고 출세의 발판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장보고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적다는 점이다. 그것은 장보고의 신분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른다. 장보고에 대한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기록보다는 일본의 천태종 승려인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의존한다. 엔닌이 구법을 위하여 당나라에 갈 때 신라인의 항해술과 조선술에 의지하였다. 장보고가 결정적으로 엔닌을 도와주었고, 그 결과 엔닌은 일본 불교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승으로 칭송받고 있다.

법화원은 9세기 당나라의 폐불 정책으로 소실되었다. 오늘의 법화원은 복원된 작품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상당한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곳곳에 보였다. 이곳에서 재당 신라인들은 단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법화경》을 염불하였다.

적산 법화원의 볼거리는 관음보살 쇼이다. 약 15분간에 걸쳐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하루에 오전, 오후 2번에 걸쳐 이루어진다. 관광객을 위한 야심작이었다. 쇼와 관음보살상, 약간은 아이러니다. 그러나

쇼 자체는 불만하였다.

분수대에 세워진 관음보살상이 분수와 어우러져 여러 가지의 움직임 보여주는데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장엄하고 신비한 음악에 맞추어 관음상과 분수가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하였다. 분수에서 나오는 갖가지 물의 동작은 바다에서 자기의 의지와 한을 마음껏 펼치는 장보고의 모습으로 보였다. 관음보살은 해상에서 마음껏 한풀이를 하는 장보고의 수호신으로 보였다. 그에게는 바다가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는 개방성 그 자체이다. 바다는 결코 배타적이지 않다. 여기에는 진골, 성골도 없고 6두품도 없다. 파도와 바람뿐이다.

장보고를 생각하면서 문득 작고하신 정주영 회장을 떠올렸다. 무엇인가 유사점이 있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 정말 그럴까? 주일미대사를 지낸 동양사 연구가 라이샤워는 장보고를 평하기를, '해양상업제국의 무역왕'이라 하였다. 장보고가 청해진에서 무역왕으로서 만족하였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였을까? 물론 문성왕의 배신과 골품제도의 모순에 건드릴 수 없는 또 한 번의 좌절감을 맛보았을 장보고에 동정을 금할 수 없지만,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가정법은 절대적인 금기사항이고 부질없는 짓이다. 우리가 장보고에게서 배울 점은 지극히 간단하다. 그의 도전정신 바로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 적산에 발을 딛게 해준 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 동아일보, 해양수산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알차고 보람 있는 답사와 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의 무궁한 발전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기행문

장성 장성고등학교 이관용

여행의 즐거움이야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보다는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가지는 기대감, 설렘이 더 크리라 생각된다.

자주하는 여행은 아니지만 단체여행에서의 묘미는 알찬 일정을 통해서 건문을 넓히는 것이겠고, 또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라도 같이 여행하면서 형님 동생하면서 즐거움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겠으며, 여행지에서의 예기치 못한 경험을 한다면 이 또한 더한 즐거움이리라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답사 여행은 세 가지 것을 만끽한 즐거운 여행이었다.

첫째 날

광주에서 출발하여 인천까지 고속버스로 이동하고 국제선 여객터

미널에서 화동궤리호에 승선하기까지 지루하게 기다리다 드디어 출국 수속을 마치고 승선하여 방 배정 받고 선상에 나와서 배가 출항하는 것을 바라보니 드디어 답사 여행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지루했던 마음이 풀리고 다시 들뜬 마음이 든다. 자! 드디어 출발이다.

선실로 돌아와 같이 여행할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눈다. 인천 이 선생, 대구 최 선생 서로 인사를 나눈다. 느낌이 좋다. 이분들과의 5박 6일이 왠지 즐거울 것 같다.

둘째 날

(석도→연태→봉래각·등주수성→치박)

새벽에 눈을 떠 시계를 보니 6시다. 일어날 시간인데 하며 부스럭 거리는 소리에 앞 침대 이 선생이 중국은 우리보다 1시간 늦으니 더 자라고 한다. 아차 어제 가이드의 주의사항이 생각났다.

잠이 다시 올 것 같지 않아서 선상에 나가보니 주위는 흰하고 멀리 항구 불빛이 보이는 것이 석도항에 다 도착한 모양이다. 입국 수속을 마친 후 첫발을 디딘 석도항은 그리 크지도 않은 우리나라 지방 항구 도시 같은 분위기다.

버스 3대에 편승한 일행이 중국 땅에 들어서 연태시(엔타이)로 이동한다. 우리가 탑승한 차는 3호차인데 운전기사가 듬직한 덩치에 허름한 옷차림이다.

이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훨씬 멋쟁이다. 그리고 조선족 가이드가 동행한다. 연변 출신이라고 한다. 미리 한국말 서툴다고 신고하긴 했지만 할 말은 다하고 의사표현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북한식 말투에다 어법이나 용어의 사용이 좀 서툴다.

어쨌든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일은 없지만 가이드 하면서 월급도 높은 수준이라니 다행스럽다. 좀 어러보이던데 역시 총각이라고 한다. 이동하는 도중 여러 가지 설명을 한다.

먼저 고속도로에 들어서니 길이 넓고 반듯하다. 지루하다는 느낌들 정도로 반듯해서 과속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진다.

중국의 고속도로는 중국 산업을 잇는 원동력이란다. 1989년 상하이 일대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16년여 만에 3만 4천 킬로미터를 건설했다고 한다. 앞으로 30여 년간 약 2조 위안(280조 원)을 들여 8만 5천 킬로미터를 건설한다 하니 중국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좀 이해할 듯하다. 가이드 설명 듣는 중에도 고속도로에는 화물차 행렬이 꼬리를 문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화물트럭의 두 배 길이쯤 돼 보이는 차들이 대부분이다. 중국 경제발전의 힘이 느껴지는 듯하다.

고속도로의 또 하나의 풍경이 우리와 다른 것은 도로 양옆으로 포플러 나무들이 많이 보인다. 가이드 얘기로는 1그룹에 1위안의 비용을 들여 심으면 20년 후엔 국가에서 500위안에 사들인단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을 녹화사업에 끌어들인단다. 실용적인 중국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도로는 반듯하고 넓어도 운전기사는 절대 과속을 하지 않는다. 중국 사람들의 느긋함이랄까? 하지만 도심을 벗어나면 중앙선 침범, 심지어는 역주행도 다반사여서 교통질서 의식은 아직 부족한 것 같다.

연태시에 도착해 점심을 먹었다. 산둥지방의 음식은 우리 입맛에 잘 맞는단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중국집의 요리는 산둥요리가

많다. 여행 중 은근히 음식을 걱정하던 선생님들도 입맛에 맞다고 맛있게들 잡수신다. 하지만 해안지역이 많고 해물이 발달해서인지 좀 짠 것이 흠이었다. 산둥지방을 여행한다면 음식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첫 번째 답사코스인 봉래각에 도착하였다.

봉래라는 이름은 옛날 신선들이 살았다는 전설 속의 바다 가운데 있는 산의 이름이다. 중국 한조(漢朝) 때 한무제가 이곳에 와서 이 신선산을 보려고 했으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선산이 보이지 않으니 경치가 수려한 지금 이곳을 봉래(蓬萊)라 명했고 당조(唐朝) 때에는 이곳이 봉래진으로 불리다가 후에는 등주(登州)라고 불렸다. 송나라 때 건축된 도관으로 연태시민의 큰 자랑거리인 봉래각, 중국의 부주석 동필무가 봉래각 시찰 때 단애선경(丹崖仙境)이라는 글을 남겼던 목재대문, 동해용궁이 거주하는 궁전으로 현지주민들이 기우제를 지내거나 안전항해를 위해 찾는 용왕궁 등을 돌아보는데 복을 기원하는 중국 사람들의 마음이 타오르는 향을 통해서 바다에 전해지는 듯하였다.

또한 이곳 등주수성은 진나라 때 진시황의 불로초를 구하러 서복이 출발한 지역이요,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칠 때 수군을 파견한 곳도, 수·당나라가 동아시아의 종주권을 차지하기 위해 고구려를 치기 위하여 수군을 발진한 곳도, 발해의 장군 장문휴가 당의 선제공격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격한 곳도 이 등주수성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 스님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의 기재에 의하면 많은 일본의 승려들이 이곳을 거쳐 낙양이나 장안에까지 갔다고 한다. 수성을 따라 관광을 하면서 내려오다 보니 명나라 때의 유명한 장군 척계광 동상이 보인다. 척계광은 등주 사람으로서 척가군을 창설한 사람인데

왜구를 물리치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다. 동상의 모습도 위엄이 있었지만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그의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충분히 엿볼 수 있었다.

1984년 등주항만 정리 작업 중에 진흙탕 속에서 두 개의 고대 선박을 발견하여 그중 하나를 건져 원형 복원해 놓은 등주 고선박박물관을 마지막으로 관광을 마치고 다시 버스에 올랐다.

숙소인 치박 제도 호텔을 향해서 출발하였다. 가이드의 안내가 이어진다. 치박까지는 조금 가면 된단다. 4시간 정도 아니 이게 조금인가? 했더니 총각 가이드 웃으면서 중국에서는 4시간 정도면 조금 가면 된다고 하고, 좀 멀다 하면 15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한단다. 하~크긴 큰 나라이다.

고속도로에는 2층 버스가 종종 보인다. 2층 버스는 침대칸으로 되어 있다. 보통 운전수 둘이서 교대로 운전해서 15~20시간 정도 운행을 한단다.

치박으로 오는 도중 소낙비를 만났다. 하늘이 캄캄해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며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의 폭우였다. 산둥성 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적어서 밀농사와 옥수수 농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폭우가 내리는 경우는 없단다.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이런 폭우가 내린 적이 없단다. 운전기사도 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우리나라 인천과 같은 위도라고 하는데 장마철인 우리나라에 물난리가 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치박시에 들어서면 비는 잦아들었지만 도로는 물에 잠기고 어수선했다. 호텔에 도착하여 바로 저녁식사를 하고 숙소에서 여장을 풀었다.

시간이 벌써 9시가 넘었다. 샤워를 하고 배타고 오면서부터 의기투합한 이·최 선생과 같이 호텔 밖으로 나왔다. 폭우 때문인지 대부분

의 상기는 철시하였고 좀 더 가보니 문 닫기 직전의 조그만 가게가 있어 뭐가 있나 구경하다 보니 맥주가 9병이 묶음으로 있었고 약간의 중국어와 한자로 필답이 가능한 최 선생의 흥정으로 18위안(2,500원 정도)에 싼값으로 산 맥주를 들고 득의만만하여 호텔로 돌아와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두고 한 병씩 꺼내 먹으며 하루를 정리하였다. 그런데 먹어보니 도수가 약해(중국 맥주는 우리나라와 같이 도수가 일정하지 않고 여러 종류가 있음) 취기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주와 각테일 해서 먹자고 제안했고 그랬더니 음~ 역시 이 맛이야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다.

셋째 날

(치박→태산→강태공 사당 · 제나라 역사박물관 · 순마갱→유방)

오늘은 아침부터 서두른다. 6시 모닝콜에 7시 출발이다. 오늘 일정이 만만치 않은가 보다. 서둘러 준비하고 아침식사, 장거리 버스 여행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버스에 올랐다. 버스기사는 무뚝뚝하기는 어제와 똑같다. 웃도 그대로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양사언의 시로 학창 시절부터 자주 흥얼거렸었는데 막상 태산에 오르게 되니 가슴이 설레었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5대 명산을 ‘오악(五岳)’이라 하였는데 태산은 오악의 하나인 동악(東岳)으로서 주봉은 옥황정(玉皇頂)이다. 특히 이 태산은 ‘오악지장(五岳之長)’, ‘오악독존(五岳獨尊)’이라 하여 천하제일의 명산으로 꼽았다. 또한 도교의 발상지인 성지로서 도가(道家)의 설에 따라 제왕이 된 사람은 산꼭대기와 산기슭에서 봉선(封禪)의식을 행하였다. 셀 수 없는 명승고적과 절벽마다 새긴 비문이 있어 1987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였다.

태산에 오르는 길은 약 7,000여 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는데 일정 관계상 케이블카로 정상 부근까지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걸어서 옥황정까지 올랐다. 때마침 일요일이어서 중국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케이블카가 아닌 등산로를 통해서 오른 많은 중국인들이 땀을 식히고 있었다. 이들이 애써 등산로로 오른 것은 나름대로 신성한 산을 오르는 그들만의 경건함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옥황정을 지나는 길에 많은 상점들이 있었고 그 상점들은 특이하게도 지팡이를 많이 팔았다. 가격을 물어보니 싸고 약해 보이기도 한 지팡이였다. 왜 이곳에만 지팡이가 많은가 봤더니 관광객들 중 많은 노인들이 보였고 아마 이들을 위한 것이었나 보다. 중국 사람들에게는 이 태산에 오르면 1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니 아마 노인들도 한 번이라도 더 오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을 것이고 지팡이는 이들을 위한 것이었을 것 같다.

옥황정에 올랐을 때 사당 앞 향을 태우는 곳 둘레에 긴 띠처럼 자물쇠를 걸어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옥황정에 올라 자물쇠를 가져와 잠그고 내려가는 길에 태산 계곡에 던지면 영원히 찾을 수 없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전설이 있단다. 아내와 같이 왔다면 자물쇠

하나 사서 잠그고 올 텐데 아쉽다. 역시 향을 피워 복을 구원하고 열쇠를 잠궜 영원한 사랑을 얻고, 10년의 생을 연장한다는 영험한 태산을 열심히 오르고 소중히 여기는 중국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현세구복적인 종교사상을 볼 수 있었다.

다소 늦은 점심이었지만 태산 등정 후라 더욱 맛있었다. 다시 버스에 올라 유방(웨이팡)시로 이동한다. 계속된 가이드의 안내가 이어진다. 요즘 중국은 공무원들의 인기가 높다고 한다. 특히 도시에서는 공무원들의 부패방지를 위해 월급을 높여주고 있다고 한다. 대도시 공무원의 경우 일반 직장인보다 1.5배 정도 월급을 많이 받는단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뇌물이 잘 통한다고 한다. 특히나 해관(세관)의 인기가 좋아(?)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한다. ‘중국에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중국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關係)를 중시 여긴다고 한다. 중국말로 관시라고 한다는 이 말은 중국 사람과는 사귀기가 쉽지 않지만 서로 마음을 열어놓게 되면 그 뒤로부터는 아주 절친한 사이가 되고 믿음이 무덤까지 간다고 한다. 신중한 대륙적인 기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태산 오르고 점심 후라 눈꺼풀이 무겁다. 가이드도 눈치를 챘는지 그만한다. 이어서 맛있는 낮잠이다.

오후 늦게 제나라 역사박물관과 제경공 순마갱(齊景公 殉馬坑)에 도착했다. 관람시간이 지났지만 미리 연락해서 관람이 가능하다는 가이드 설명이다. 이런 것이 융통성인가 보다. 서둘러 제나라 역사박물관을 돌아보았다. 푸른 벽돌로 되어 있어 옛 성곽과 같은 분위기였다. 제나라의 산생, 발전, 흥성과 쇠망사를 여러 자료로 설명해 주었다.

이어서 제경공 순마갱을 관람하였다. 원래 춘추시대 제나라 공후

(公侯)의 큰 묘군이었는데 제나라 경공의 무덤에서 대규모의 순마갱이 발견되었다. 지금까지의 발굴로 순마 228필이 발견되었는데 발굴되지 않은 순마를 포함하면 600여 필의 순마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니 이렇게 큰 순마갱은 제나라 통치계급의 사치함을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제나라 국력의 강성함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제나라 백성들의 피땀이 여기에 바쳐지지는 않았을까?

다시 이동하여 강태공 사당에 들렀다. 이미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다. 강태공은 우리나라 사람도 어지간하면 다 아는 사람이 아닐까? 낙시터에서 빈 낙시로 세월을 낚았다는 사람으로 잘 알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허나 강태공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한 사람이었다.

본명은 강상(姜尚)이다. 그의 선조가 여(呂)나라에 봉하여졌으므로 여상(呂尙)이라 불렸고, 속칭 강태공으로 알려져 있다. 주나라 문왕의 초빙을 받아 그의 스승이 되었고, 무왕(武王)을 도와 은(殷)나라 주왕(紂王)을 멸망시켜 천하를 평정하였으며 그 공으로 제(齊)나라에 초대왕으로 봉해졌다. 그는 짧은 시간 내에 제나라를 안정시키고 제나라의 시조(始祖)가 되고 주(周)나라의 스승이 될 만한 역사적·전설적 인물로 139세까지 살았다 한다. 한편 강태공이 세월을 기다리고 있을 때 생활이 곤궁하여 결을 떠났던 부인이 다시 찾아와서 다시 부인으로 받아 줄 것을 부탁하자 단지에 든 물을 가져오라 해서 땅에 부어 버리곤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하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한다. 때를 기다리며 세월을 낚을 줄 알고, 흔들림 없는 과단성을 가진 중국의 대륙적인 기질을 느껴 볼 수 있었다.

이미 시가지는 어두워졌고 저녁식사를 마친 후 숙소인 유방 부화 호텔로 이동한다.

有朋이 自遠方來하니 不亦樂乎로다!

이번 답사 여행에서 아쉬운 것은 치박(쓰보)시까지 와서 가까운 곡부를 들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곡부는 공림, 공부 등 공자의 유적이 있는 지역인데 일정상 들르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가이드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 공자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것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공자의 기운이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지역에 와서인지 아마 《논어(論語)》〈학이(學而)편〉에 있는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성현의 말씀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1년 전에 청도(청따오)에 사업차 가족이 이주해온 절친한 고교 동창 친구가 있는데 이번 답사 코스 중 청도는 없지만 친구에게 연락해 보니 찾아오겠다고 한다. 지도에서 보니 그리 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만나고 보니 고속버스 편으로 4시간 넘게 왔다고 했다. 타국에서 오랜만에 절친한 친구를 만나고 보니 너무 반가웠다. 그것도 바쁜 중에 힘든 내색하지 않으며 먼 길을 찾아와주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 잠시 외출해서 오랜만의 회포를 풀었으며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맥주를 준비하여 답사 내내 의기투합한 최 선생, 이 선생 등과 같이 중국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듣고 하였다. 친구의 설명으로 중국의 발전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는 점, 중국 학생들이 우리 생각보다는 열심히 공부한다는 점, 오히려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공부를 소홀히 한다는 설명 등이 이어진다.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도 한다. 중국에 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제일 필요하다고, 후진 양성에 노력해 달라고. 진지한 대화 속에서 어느덧 창박이 흰히 밝아오고 있었다.

이런 즐거움이야말로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즐거움이라.

넷째 날

(유방→남산→영성 진시황 사당·성산두→석도)

새벽까지 친구와 회포를 나누었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아침식사 후 버스로 2시간여 걸려서 남산으로 이동하였다. 이 남산관광단지구는 용구(龍口)시의 울창한 산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버스로 도착하기 전부터 멀리서 거대한 불상이 눈에 들어온다. 그 넓은 영역이 연태 용구시 관할인데, 남산그룹을 중심으로 한 마을이고, 내부적으로는 각종 생활기능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자급자족이 가능하였다. 단지 내에는 각종 위락시설을 갖추었으며 중화 5천 년의 역사를 축소한 역사문화지구, 남산대불과 불교박물관 등 여러 볼거리를 갖추었다.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남산대불이었는데 높이가 38미터가 넘었으며 무게는 380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좌불 동상으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 대불상 밑 만불천에는 9,999개의 작은 불상이 있고 남산대불상과 합쳐 만불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인근의 중화역사문화원은 중국 역대 왕조의 문화와 발전상을 순서대로 모두 볼 수 있는 곳으로 중국에서는 유일한 곳이며 6억 위안(780억 원)을 투자하여 완성하였다.

유구한 중화문명과 다양한 민족문화를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으며 “5천 년이 하루처럼 지나간다.”는 말처럼 하루에 중국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멋진 곳이었다. 특히 진나라 역사관을 지나면 축소판

만리장성이 있는데 진짜 만리장성에 온 것처럼 품 잡고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다음 답사지는 영성시 성산두와 진시황 사당이었다. 이곳 영성시는 우리나라 인천에서 서쪽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사적 요충지로서 백제를 치기 위하여 소정방이 13만의 수군을 거느리고 출발한 항구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예로부터 중국의 희망봉이라고 불리었다는 성산두가 있다. 전 중국 총서기 호요방은 이곳에 ‘천진두’란 휘호를 남겼는데 ‘하늘이 끝나는 곳’, ‘육지의 끝’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날씨가 좋지 않고 짙은 안개 때문에 물과 몇 미터 앞에서도 바다가 보이지 않아 성산두에서 우리나라를 멀리서나마 바라보고자 하였지만 허사였다. 화창한 날에는 주변의 경관이 아주 절경이었을 것 같은데 날씨가 너무 야속하였다.

진시황 사당 앞 광장에는 진시황과 오른쪽에 이사, 왼쪽에 서복이 서있는 큰 조각상이 서있었다. 이사는 진시황을 도와 중국을 통일시킨 법가 사상가이고 서복은 진시황의 명을 받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나 선단이 제주도까지 왔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오늘의 일정은 여유로웠다. 저녁식사는 이번 답사단의 공동 주최를 맡은 동아일보사에서 준비하였다고 한다. 관계자의 인사와 환호의 박수가 이어졌다. 저녁식사 후 숙소인 석도빈관에 도착하니 8시쯤 되었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인데 사람 사는 모습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껴보자는 생각으로 최 선생, 이 선생과 같이 숙소를 나섰다. 빠른 걸음으로 20여 분 걸었을까.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음악소리가 나서 가까이 가보니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넓은 광장이 있었다. 시간은 9

시 정도 됐는데 광장 앞 무대 바로 밑에서는 무도복을 차려 입은 남녀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춤추는 모양을 보니 볼룸댄스인 것 같다. 춤추는 한 무리와 혼자 연습하는 10여 명의 여인들이 있었다.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많았고 일반인들의 여가 생활 같았다. 아마 국민들의 여가를 광장에서 다양하게 즐기게 하고 양성화함으로써 퇴폐적인 문화를 배제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 아닐까 생각된다.

몸치인 나로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광장을 둘러보니 한쪽에서 무예를 연마하는 젊은이들 같은데 양손에 칼을 들고 십팔기를 멋지게 시범 보인다. 또 다른 쪽에서는 조잡한 오락놀이를 하고 있었고, 야의당구장이라고 해야 할까 광장에 당구대를 놓고 게임을 하고 있었다.

9시 30분쯤 됐을까? 사이렌이 울리더니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다. 아마 집으로 돌아가 잠 잘 준비하는가 보다. 이후 시가지는 상점들의 불이 사라지고 있었다.

중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좀 더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은 지나갔다.

다섯째 날

(석도—적산 법화원 · 장보고 기념탑)

오늘 답사는 사실상 우리 답사단의 중요한 목적인 장보고 유적지이다. 이동을 위해 버스에 오르며 운전기사에게 간단한 인사를 건네다 보니 4일째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버스가 출발하고 가이드에게 4일째 같은 옷을 입고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식

사 후 옷이 더러워지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호텔에서 그냥 물에다 담갔다가 손으로 짜서 널어놨다가 아침에 덜 마른 옷을 입고 나왔다고 한다.

여름인데, 옷 한 벌로 4일을 지내다니 참 게으르고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근데 그 기사가 부자란다. 관광버스도 자기 차이고 아파트도 2채나 있단다. 내 생각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가이드의 설명은 중국 사람은 옷차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크게 실수를 한단다. 그들은 옷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단다. 그래서 허름한 옷차림을 보고 판단했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단다. 그래도 그렇지... 하지만 운전은 여유롭게 잘한다. 그러나 아직 서비스 정신은 부족한 것 같다. 아직 자본주의의 물을 덜 먹었다고 봐야 하나?

적산 법화원(赤山法華院)에 도착하였다.

산동성 영성시 석도진 적산(赤山)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당나라 때 신라인 장보고가 지은 것으로 창립초기에 《법화경(法華經)》을 읽었다 해서 적산 법화원이라 유래되었으며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법화원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역사서에서는 당조(唐朝) 전성기에 신라인 장보고가 출세를 위해 당으로 불법 이민을 하였고 뛰어난 무예를 바탕으로 산동성 서주 절도사 휘하 주력부대 무령군의 군중소장으로 있었다 한다. 신라 흥덕왕 3년에 신라로 귀국하여 청해진을 창설하고 대사를 봉하 받음으로써 한·중·일 삼국의 해상무역을 독점하고 한·중·일 간의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하여 해상무역왕으로 불리었다. 그는 해상운송사업이 번성하기를 기원하면서 적산에 불교사찰을 지어 많은 스님들을 모셔와 《법화경》을 읽어 적산 법화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서기 838년 일본 스님 엔닌 대사 일행은 건당사로 입당하여 법화원

에서 3년 가까이 묵었으며 《입당구법순례행기》란 여행기를 통해서 법화원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그동안 송, 명 시대를 거치면서 법화원이 쇠망의 길을 걸었으나 1988년 영성시에서는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선조들의 위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하여 원래의 위치에 재건하였다.

입구에서의 단체사진 촬영과 교수님의 설명을 마치고 관람하기 시작하고 넓은 광장에 있는 관음보살탑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때 웅장한 음악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호기심어린 눈으로 쳐다보는데 불교 극락 음악 분수 쇼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큰 관음보살탑이 음악소리와 같이 서서히 360도 회전을 하며 관음보살 아래쪽에서는 쟁반 같은 모양을 받쳐 든 다른 보살상이 나오며 그 밑에서는 나한상에서 불을 뿜어내고 그 밑 바닥 쪽에서는 또 다른 보살이 회전을 하면서 주위의 분수에서는 높고 낮은 분수를 쏘아 올려 그야말로 처음 보는 멋진 장면들이었다.

우리나라 사찰이나 일본 사찰도 답사해 본 적이 있는 나로서는 생소한 광경에 의아해 했다. 30여 분 진행되는 동안 더운 여름이고 하니 시원한 물줄기며 웅장한 음악이며 거대한 관음보살탑의 회전이 볼만 했지만 불교에 대한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와 다르구나 생각되었다. 아마 우리나라 사찰에서 이런 쇼를 한다면 신도나 불교계에 서나 모두 불경하다고 반대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중국에서는 물론 이 지역만의 특별한 경우이겠지만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중국의 실용주의가 잘 나타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 좀 비약시킨 것일까?

실제로 중국인들이 장보고를 기념하는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좀 이해가 될 것 같다. 왜 중국인들이 이렇게 장보고를 기념하는 것일까? 당국자들은 ‘한·중 간의 교류와 우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대가 크다. 작년 한 해 이곳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2만여 명이나 됐고, 올해는 5~6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도와 인근 청도(靑島)·곡부(曲阜)·태산(泰山) 등을 잇는 한국 여행사의 '장보고 유적지 탐방' 관광 상품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유적 복원이라기보다는 관광을 위한 역사테마공원 성격이 짙다. 장보고 기념관을 짓는 데 모두 3억 위안(약 360억 원)이 들었다. 예산은 이 지역의 대형 기업인 석도적산수산집단 왕옥춘(王玉春) 사장이 전액 기부했다.

대웅보전을 지나 삼불전을 관람하고 대형 장보고 동상을 참배한다. 높이 8미터 무게 6톤의 거대한 상으로 중국 갑옷을 입고 있었다. 동상에는 중국어와 한국어로 "장보고는 한민족의 영웅, 평화의 사자일 뿐 아니라 해상무역왕으로서 영예로운 그 이름을 널리 떨쳤다."고 새겼다.

이곳 법화원 곳곳에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세계인이자 국경을 초월하여 한·중·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은 위대한 해상왕 장보고를 만날 수 있었다. 그의 자취와 위용을 통해서 우리 조상의 위대한 힘을 느껴본다.

아쉽지만 법화원 답사를 끝으로 여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다.

점심식사 후 석도로 이동하여 출국 심사를 마치고 승선하여 출항을 기다린다. 멀어져가는 석도항을 바라보며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만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니 언제 오더라도 친근감이 느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답사 기간 내내 동고동락했던 이 선생과 최 선생과 아쉬운 작별의 이별주를 나누었다. 좋았던 날들을 오래 기억하자며...

여섯째 날

다시 아침이 밝았다. 아침식사를 하는 동안 배는 접안을 마치고 하선하여 입국 수속을 마치고 인천 여객선 대합실에서 모두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헤어진다. 인천 이종섭 선생, 대구 최낙평 선생 모두 연락처 적고 힘찬 악수 나누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헤어진다. 답사 여행을 통해서 얻은 형이요 동생이다.

광주를 향하는 고속버스 속에서 조용히 이번 답사 여행을 정리해 본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국 발전의 잠재적인 힘은 느낄 수 있었다. 가는 곳마다 건설 현장이 많았으며, 넓고 곧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길고 큰 트럭들, 곳곳에서 느껴지는 그들의 실용주의적인 요소들, 아마 2008년 북경 올림픽 이후의 중국은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후진을 양성하는 교사로서 과거 해상왕 장보고가 한·중·일을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했듯이 21세기 동북아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다져본다. 자원이 부족하고 영토가 좁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길은 오로지 인재양성뿐이라고 다짐하였다.

마지막으로 2006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후원해 주신 해양수산부, 주최하신 (재)해상왕 장보고 기념사업회, 동아일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보고 중국 유적지를 다녀와서

안동 일직초등학교 권오추

8월 4일 —출발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일이 다가왔다. 마치 초등학생 시절 소풍 가는 것보다 마음이 더 들떴다.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선발되지 않았던 아쉬움이 올해도 재연될까 발표날까지 얼마나 마음 졸였던가? 발표가 늦어지면서 금년 여름휴가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각종 연수도 포기하였다. 과학과 실험 연수 강사 사전협의회 날까지 연기 요청을 했다.

내가 장보고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답사에 꼭 가보고자 하는 이유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몇 차례 중국 여행을 해본 결과, 중국 여행은 계속 차만 타고 다니고 유적지에 잠시 들렀다가는 또 차타고 이동하고, 상품 매장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으며, 가이드의 비전문적인 해설에 모두가 “아! 아!” 하며 감탄을 하지만

실상은 많은 부분이 틀린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답사에는 전문 교수님들이 인솔하면서 해설을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긍심을 세계에 떨친 장보고 대사의 활약상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침부터 늦을까봐 서둘렀다. 점심도 굶고 집결 장소인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도착한 시간은 2시 30분이었다. 등록을 하고 5시까지 기다리려니 지겹기도 하였지만 나누어 준 자료를 읽어 보는 데는 넉넉한 시간도 아니었다. 대양으로 진출하여 해운과 무역의 영광을 만들어낸 우리 역사 최초의 세계인 장보고는 내 눈 앞에 한 걸음 다가와 있었다. 긴 출국 수속을 하고 승선한 후에도 출항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4인 1실의 2등실은 하룻밤 지내기에는 그 만이었다. 함께 있게 된 문정호, 정현권, 이중석 선생님과는 단번에 친해졌다.

화동훼리호의 긴 뱃고동 소리를 들으며, 저녁식사를 마친 후 선상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교수님의 기초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에 좋은 조건인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이고, 조선 기술이나 원양 어업 등 해양력이 우수하다. 예로부터 바다를 지배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했다. 바로 이 시대에 왜 장보고를 찾는가? 해상왕 장보고는 중국, 일본 그리고 통일신라를 한테 묶어 경제 공동체를 이룬 위대한 무역가이며, 민중의 뛰어난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8월 5일 —석도항—연태—봉래—치박

밤새 달려온 배는 8시경에 석도항에 도착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1호차를 탑승하기 전에 항구 전경 사진을 찍으려니 공안원이 못 찍게 하였다. 새삼 사회주의 국가임을 실감하고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려고 사진 찍는 것을 포기하였다. 10시에 연태로 출발하였다.

산동반도는 중국 산둥성 동부에 뻗어 나온 반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다. 산둥성은 태항산의 동쪽으로 서쪽은 산서성이며, 성도는 제남이다. 주로 옥수수와 밀농사를 많이 하여 중국 생산량의 50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 외 농산물로는 밀, 목화, 담배 등이 많이 나고, 석탄, 철 등의 지하자원도 풍부하다. 산둥성은 우리나라와 인연이 많은 곳인데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화교의 대부분이 산둥성 사람이며, 한국인들이 먹는 중국 음식 가운데도 산둥 음식이 많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넓은 들판에 퍼렇게 자라고 있는 옥수수를 봤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 말을 타고 힘차게 달렸을 장보고 대사의 모습을 떠올리며 간혹 잠이 들곤 했다.

12시 30분경 연태의 벽해대하(碧海大廈)에서 점심을 먹고 1시 30분쯤 봉래로 향했다. 2시간쯤 달려온 버스는 드디어 우리의 첫 여행지 봉래에 닿았다. 봉래라는 이름은 옛날 신선들이 살았다는 전설 속의 바다 가운데 있는 산의 이름이다. 한무제가 이곳에 와서 신선을 보려고 했으나, 신선산이 보이지 않으니 경치가 수려한 이곳을 봉래라고 이름하여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내려오고 있다고 했다. 당나라 때에는 이곳이 봉래진으로 불리다가 후에는 등주로 불렸다.

중국의 4대 누각하면 등왕각, 황학루, 악양루, 봉래각을 든다. 봉래각은 송나라 때 건축되어 여조전, 삼청전, 봉래각, 천궁 등 6부분으로

이루어진 도관이다. 봉래각에서 내려다본 전경은 그야말로 절경이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인파 속에서도 신선을 대하며 신선이 된 듯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해변가에 위치한 등주수성은 침입자들이 스스로 무기를 버리고 붓을 들어 시를 지을 만큼 주변의 경관이 수려했다. 해안 절벽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아름다운 이 성이 옛 접전지였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다음은 고선박물관을 둘러보았다. 1990년에 완공되었으며, 통석선조각과 봉래 원나라 전선이 전시되어 있었다.

5시 30분 봉래를 출발하여 치박으로 향했다. 가도 가도 끝없는 들판에 옥수수와 포플러가 숲을 이루고 있었다. 8시 30분경 제도대주점(齊都大酒店)에서 저녁을 먹고 1시간 30여 분 시가지를 산책하다가 호텔에 들어와 피곤한 몸을 쉬었다.

8월 6일 —치박—태안—유방

일정을 바꾸어 태산부터 등정하였다. 작년에 태산에 왔을 때는 날씨가 흐려서 잘 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 이번에는 청명한 날씨를 기대하고 왔는데 작년보다 더 안개가 끼어 있었다.

중국에서는 예부터 5대 명산을 오악이라 하였는데 이 중 동악인 태산은 서악인 섬서성의 화산, 중악인 하남성의 숭산, 남악인 호남성의 형산, 북악인 산서성의 향산과 더불어 오악을 이룬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 태산은 ‘오악지존’, ‘오악독존’이라 하여 천하제일의 명산으로 꼽아서 역대 제왕들이 여기서 봉선의식을 거행하였다.

태산에 오르기도 전에 불교학자이며 승려인 경북 예천 출생의 퇴경

(退耕) 권상로(權相老)의 시가 생각한다. 유명한 시조인 양사언의 ‘태산이 높다 하되’를 한시로 바꾼 것이다.

泰山雖高是亦山 태산이 비록 높을지라도 이 또한 산이니
登登不已有何難 오르고 오를 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世人不肯勞身力 세상 사람들은 힘을 수고롭게 함을 즐겨하지 아니
하고
只道山高不可攀 단지 산이 높아서 오를 수 없다고 하네.

저 유명한 당나라 때 시인 두보(杜甫)의 ‘망악(望嶽)’이다. 태산을 보고 느낀 시인이 호연지기를 활연히 품에 안은 양, 젊은 시절 시인의 득의만만한 기상이 여실히 나타나는 장쾌한 시이다.

岱宗夫如何 태산의 모습은 어떠한가?
齊魯青未了 제나라와 노나라의 땅에 푸르름이 끝없구나.
造化鍾神秀 조화옹이 신기하고 빼어남을 다 모았고
陰陽割昏曉 산의 밝음과 어두움을 밤과 새벽으로 갈라놓았다.
盪胸生曾雲 뭉게구름 일어나니 가슴도 시원하고
決眴入歸鳥 등지로 돌아오는 새들을 크게 뜨고 보노라.
會當凌絕頂 기어코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一覽衆山小 못 산들이 작음을 한번 굽어보리라.

나도 이런 장쾌함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늘 “태산과 같이 침착하다(穩如泰山)”, “태산과 같이 무겁다(重如泰山)”는 말로 태산을 숭경하고 있다. 공자의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기만 하구나

(登泰山而小天下)”, 이백의 “절벽에 기대여 팔방을 둘러보니 눈으로 는 끝을 볼 수가 없노라(凭崖望八極, 目儘長空閑)” 등의 명구도 가물 가물 기억 속에 더듬어졌다.

태산의 역사와 문화는 유구하다. 상주(商周)시기부터 제노지방(齊魯之邦)은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가 발달한 지구였다. 후에 관중, 안영, 공구, 맹가 등 유명한 정치가, 사상가와 교육가들이 나타났다. 5악 중 태산이 바다에서 제일 가깝다. 예부터 “성인은 동방에서 많이 나타난다(聖人多起于東方)”는 설이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진시황 이전에 벌써 72군주가 뒤를 이어 태산에 와서 봉선의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진시황으로부터 시작하여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역대의 군왕들은 태평성세나 새 황제의 즉위 때면 문무대신을 이끌고 이곳 태산에 와서 봉선대전을 거행하여 천지에 제사지내고 국민태만을 빌었다. 또한 산 위와 산 아래에 묘를 짓고 소신(塑神)을 모셨으며 많은 글을 남겨 놓았다. 이들은 지금의 많고 많은 명승고적이 되었다.

역대의 명인학사(名人學士)들도 앞다투어 태산을 돌아보고 나서는 시와 글을 남겼는데 1,000여 개에 달하는 마애석각과 비문이 있다. 이런 비문, 석각들은 대부분이 제왕의 공덕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면 태산을 묘사한 것들이다. 글씨체로는 전서(篆書), 초서(草書) 등이 있다. 태산은 중국 고대문화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서법 예술의 궁전이기도 하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올라온 태산이건만 어찌하랴. 오늘도 날씨는 내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 짙은 안개 속에 시간에 쫓겨 정상까지 다녀왔다. 1시에 미니버스를 타고 내려와 식사를 하고 임치로 향했다.

덥고 피곤하였는지 잠시 잠든 것 같았는데 5시 30분경에 제나라 역사박물관 앞에 차가 멈춰 섰다. 이 박물관은 제나라 옛 황성 유적지의 동부에 자리 잡고 있는데, 고성(高城)의 대성과 소성이 맞물리는 특수한 모양으로 쌓여 있다. 박물관은 푸른 벽돌로 지었는데 옛 성곽을 방불케 한다. 건축 면적은 2,600평방미터이고 내부에는 5개 진열실에 300여 건의 진귀한 문물과 대량의 문물자료, 모형, 사판, 조각, 사진, 도표로 제나라의 산생, 발전, 흥성과 쇠망사를 설명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 기술, 군사와 민속을 소개해 주고 있었다. 또한 제나라 문화가 화화 문화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지위를 반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간 곳이 강태공 사당이다. 강태공은 중국 역사상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지금으로부터 3천 년 전 산둥성에서 태어났다. 위수 강변에서 끝은 낚시를 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다 주나라의 문왕(周文王)을 만나 문왕을 도왔다. 문왕의 대를 이은 무왕을 도와 끝내 폭군에 시달리던 은을 멸망시킨다.

무왕은 주나라를 세우고 나서 전국을 쪼개어 제후국을 만들고 공이 많은 신하와 형제·친지들을 각 제후국의 왕으로 책봉한 후, 그중 가장 동쪽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제나라의 초대왕으로 강태공을 책봉하였다. 강태공은 짧은 기간 내에 제나라를 안정시키고 공·농·수공업을 활발히 발전토록 추진하여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방을 굳건히 하고 중국 최초의 병법을 만들었다.

강태공은 사망 후 주나라의 관례대로 시신은 원래 섬겼던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의 무덤 주위에 묻었다고 하지만 봉분이 없는 탓으로 구체적인 위치를 모른다. 제나라 초대왕으로 기념하기 위해 태공이 썼던 모자와 옷을 옛 제나라 수도인 오늘의 치박에 묻었는데, 이것의 의

관총(衣冠塚)이다. 작년에 왔을 때는 의관총 비문이 깨끗하고 선명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 많이 일어나 보기 흉하였다.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제경공 순마갱(齊景公殉馬坑)에 갔다. 한적한 시골길, 길 양 옆으로는 드넓은 옥수수 밭이 펼쳐져 있었다. 제경공 순마갱은 제나라 고성 동북부의 임치구 제도진 ‘하령두촌’에 위치해 있다. 원래는 춘추시기의 제나라 공후의 큰 묘군이었었는데 현재 대충형 묘지 2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5호분 주위에서 세상을 놀랍게 한 순마갱을 발견하였다.

5호분은 ‘갑(甲)’자 형의 큰 묘였다. 묘실의 남북의 길이는 26미터이고 동서너비는 23미터이다. 남쪽의 묘도의 길이는 18미터이고 너비는 12미터이다. 순마가 있는 곳은 동, 서, 북 3면인데 ‘U’자 형을 이루고 있다. 순마갱의 동, 서면의 길이는 각각 70미터이고 북면의 길이는 75미터이며 너비는 5미터이다. 1964년과 1972년에 앞뒤로 84미터를 발굴하였는데 순마 228필을 발견하였다. 순마는 두 줄로 나란한 형태로 병렬시켜 머리를 바깥쪽으로, 옆으로 누운 자세로 매장하였다. 순마갱의 전길이와 현재 발굴된 순마의 밀도로 계산을 해보면 이곳에 매장된 말은 600여 필로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 순마갱이라고 하였다. 감정에 의하면 매장된 말들은 전마(戰馬)로 모두가 수말이라 한다.

8시 30분 호텔에 도착하여 식사 후 휴식을 취하였다.

8월 7일 —유방—남산—영성—석도

7시 30분에 호텔을 출발하여 9시 40분경에 남산관광풍치지구에 도

착하였다. 오는 도중 보니 5층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옥상에는 태양열 집광판을 열을 맞추어 설치해 두었었다.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에너지 절약 시책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동차들도 잠시만 기다려도 시동을 끈다고 하였다. 자원이 많은 중국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하는데 비산유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산관광광치지구는 울창한 산 속에 수려한 풍색을 뽐내며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진나라 때 서북의 고향이자 서북의 동남아 항행의 시발점이라고 했다. 세계 최대의 좌불 동상인 남산대불의 위용에 압도되었다. 남산대불을 뒤로 하고 남산 종교문화원을 지나 중국 역대 왕조의 문화와 발전상을 순서대로 볼 수 있는 중화역사문화원을 둘러 보았다. 시대마다 특징이 다른 중국 왕조와 제자백가의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시간이 없어 아쉬웠다. 나 혼자 자유로운 여행이라면 여기에서 2~3일 머물며 차근차근 공부하고 싶은 마음 간절했다. 이것저것 사진을 찍다가 보니 차가 출발하려고 하여 급히 달려왔다. 5천여 년의 역사를 불과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담으려니 아쉬움만 남았다.

12시 30분 점심식사 후 1시 40분에 성산두로 출발하였다. 성산두는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예로부터 '중국의 희망봉'이라 불린다. 또한 예로부터 군사요충지로서 백제를 치기 위하여 소정방이 13만의 수군을 거느리고 출발한 항구이기도 하였다. 전 중국 총서기인 호요방은 이곳에 '천진두'란 휘호를 남겼는데 이는 '하늘이 끝나는 곳', '육지의 끝'이라는 뜻이란다. 또한 중국 유일의 진시황 사당이 있으며, 진시황의 불노장생초와 관련된 전설과 함께 진교유적(秦橋遺跡), 사교대(射蛟臺) 등의 유적이 있다. 특히 진시황 때

불로초를 구하러 떠난 도사 서복 선단이 제주도까지 왔었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진시황 사당을 들렀다. 원래는 진시황이 동쪽으로 순찰을 하며 머물렀던 행궁인데 후에 백성들에 의해 시황묘로 복구되었고 현재는 중국에서 유일한 진시황 사당이란다. 여기에는 진조(秦朝) 암석 외에도 몇 점의 청대(清代) 문화재들이 있었다.

6시경 성산두서 출발하여 저녁식사 후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10시경에 1호차 선생님들 7분과 해변을 산책했다. 인근 가게에서 맥주를 8병 사서 컵도 없이 그냥 마셨다. 시원한 바닷가에서 파도소리와 선생님들의 가곡 부르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졌다.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간간이 부르는 노래를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으로 하고 호텔에 들어 왔다.

8월 8일 —석도

새벽 일찍 일어나 정 선생님과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방문하였다. 수위가 건물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하였다. 건물은 우리나라나 별 다른 것이 없었다. 내부에 들어가 보고 싶었으나 아쉬움을 뒤로 하고 호텔로 돌아왔다.

8시에 식사를 하고 9시 30분에 장보고의 유적지인 적산 법화원으로 향했다. 적산 법화원은 산둥성 영성시 석도진 적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장보고가 지은 것으로 창립 초기에 《법화경》을 읽었다 하여, 유래된 것이라 하는데 당시 산둥에서 규모가 제일 큰 불교 사원이었다고 하였다. 우리는 기념 촬영을 하고 교수님들의 강의를 40여 분간 들

었다. 장보고의 출생에서 재신라 시기와 재당 시기의 활약상 등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 이어 장보고 기념관, 기념탑을 관람하였다.

장보고 기념관은 장보고 관련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여기서 내 눈길을 끈 것은 장보고 관련 문헌이었다. 당나라의 이름난 시인 번천(樊川) 두목(杜牧)이 저술한 《번천문집(樊川文集)》의 〈장보고 정년전〉이다. 두목은 여기에서 장보고의 용맹성과 의협심 그리고 한없는 도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두목이 쓴 전기는 그대로 우리나라 《삼국사기》, 중국의 정사인 《신당서》에 전재되었다. 반면에 신라에서는 장보고가 모반, 배신 등의 왜곡된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안타까웠다.

마지막으로 장보고 기념탑에 갔다. 적산 법화원의 북쪽에 있는데, 1991년 성신여대 교수, 세계한민족연합회 회장 최민자 교수가 적산 법화원에 왔다가 한민족의 선각자 장보고 대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것으로 1994년 7월 24일에 준공되었으며, 탑의 설계가 특이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한·중 양국의 친선이 영원함)가 더욱 깊다고 하였다. ‘장보고 기념탑’ 여섯 글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라고 하니 의미가 새로웠다.

점심식사 후 4시경 다시 석도항에 도착하여 출국 수속을 하고 귀국 배에 몸을 실었다. 배에 올라서도 우리는 오늘 여행한 곳을 되돌아보며 장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그칠 줄 몰랐다. 우리는 귀국길 선상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아쉬워했다.

장보고에 대해 뭔가 좀 더 알고 싶었던 여행. 그가 오가던 길을 뱃길로 육로로 다녀봤지만 만나지도, 더 안 것도 없다. 다만 이제부터 장보고에 대해 공부해야겠다는 것이다. 이제 나의 장보고에 대한 공

부는 시작이다.

“장보고 정신으로 동아시아 시대를 열자.”는 주최측의 구호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된 것이다. 여행에 많은 도움을 준 장보고 기념사업회와 해양수산부에 무한히 감사하며, 요구함이 없이 본인이 느끼게 하는 방법 또한 장보고 기념사업회의 노하우가 아닌가 한다.

